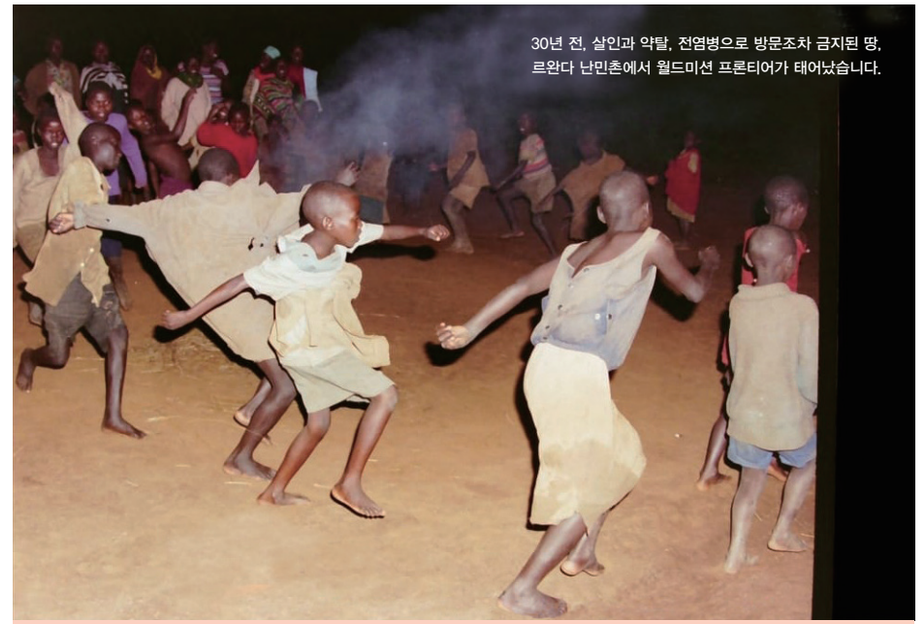
아프리카 선교 30년

| **김평육** 지음 |

쿰란출판사



30년 전, 살인과 약탈, 전염병으로 방문조차 금지된 땅,
르완다 난민촌에서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뜨락

글 ·사진 김평육(1995년 3월 어느 날 저녁,
르완다 난민촌에서)

저-기
뜨락을 뛰노는 아이들을 기억하나요?
까만 피부, 반짝이는 눈동자
한 가닥 희망도 꿈도 상실한 채
마냥 뜨락을 뜁니다.

저-기
뜨락을 뛰노는 아이들을 보셨나요?
비 내린 차가운 땅 풀섶 위에
허기진 배 움켜쥐고 엎드리는 밤에도
그렇게 마냥 뜨락을 뜁니다.

저-기
뜨락을 뛰노는 아이들을 아시나요?
어깻죽지 배꼽이 흘러내리는
갈기갈기 황톳빛 누더기를 두르고
그렇게 마냥 뜨락을 뜁니다.

저-기
뜨락을 뛰노는 아이들을 만나셨나요?
주검의 광풍이 흩고 간 자리
어둠이 산자락 끝 무덤을 덮을 때까지
그렇게 마냥 뜨락을 뜁니다.

저-기
뜨락을 뛰노는 아이들을 사랑하나요?
무중구의 하얀 손 곱슬머리 쓸어 내리면
좋아라 좋아라
마냥 뜨락을 뜁니다.

저-기
뜨락을 뛰노는 아이들이 주님이랍니다.
빗줄기 세차게 파고드는 초막 뜰에서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우리 주님이 마냥 뜨락을 뜁니다.

서문

김평육 선교사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교회 개척을 사명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손수 열 개의 예배당을 건축하신 목회자의 가정에 출생한 저는 목회자의 가난과 교인들의 수군거림이 싫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만 부르심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전공 분야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대신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기독교 주간신문 "크리스찬 라이프"의 발행이었습니다.

1994년 르완다 전쟁 현장으로 부르는 강한 음성을 피할 수 없어 크리스찬 라이프 발행인으로 르완다 전쟁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열 개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내게 바쳤는데, 너는 이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 하나는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남 좋은 일만 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르완다 거리의 수많은 고아 어린이들과 "무중구 실링기" 하며 손을 내미는 난민촌 어린이들의 슬픈 눈망울이 사슬이 되어 1년만 돕겠다던 사역이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같이 흘러간 3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 네 번의 시즌이 지나고 이제 다섯 번째 시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1기 사역입니다. 르완다 전쟁 현장과 탄자니아 난민촌을 취재하고 고아와 과부, 난민촌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한 기간입니다.

두 번째 시즌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2기 사역입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이라는 확신을 주셨기에 대규모 단기선교단을 동원하여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복음화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즌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3기 사역입니다. "비전 2012"라는 목표를 세우고 2011년까지 복음화 대회를 계속하며 12개의 선교센터 건축과 아프리카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50명 이상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목표한 건축은 이루지 못했지만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즌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비전 2020"의 추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와 지도자 한국 초청 등의 행사를 중단하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장기사역을 강화하며 "비전 2012"를 통하여 마련한 부지에 선교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 1호선 살림호를 완공하였고 대학교 설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시즌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비전 2030"이라

는 목표로 열 가지 주요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비전 2030"을 성취하고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기간에 발행했던《아프리카 선교 26년》의 책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역 내용을 추가하여《아프리카 선교 30년》을 다시 출판합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5개국에 세워진 선교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모두 게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책자를 통하여 지난 3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두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 5개국에 많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처음부터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지의 모든 사역은 아프리카 현지인 중심의 리더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 또는 10년, 20년을 변함없이 함께 해준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장·단기로 사역하며 선교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현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동안 선교에 동역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서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수고하는 간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와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파송선교사와 간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헌금으로 후원해 주셨기에 오늘의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와 교육사역, 병원사역과 건축 등 모든 사역이 한국인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선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룹으로 모여 중보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매년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40일 연속 금식기도와 가을에 있는 3주간의 연속 금식기도로 함께 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30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진행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이 책에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2024년 11월

아름다운 사람들

조지영
(선교회 본부 재정 간사)

〈크리스찬 라이프〉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를 선교사님께 전해 받았다. 한 장 두 장 읽어내려가다 '읽기도 벅찬 이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마음이 든다. 쭉 나열하고 나면 그저 방대하고 많은 일들이지만, 그 일 하나하나마다 묻어 있는 많은 눈물과 기도와 노력들이 떠올라 시간이 지났음으로 인해 아름답기도 하고 인정사정없이 쏘아논 화살 같아 잔인하다는 생각도 든다.

허름한 선교회 사무실에서 선교회 일을 돕기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난다. 대학 신문을 만들어봤다고 의기양양하며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신문사에서 신문을 만들 손길이 필요하다고 지인의 소개로 처음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타이핑을 해 오려서 풀로 붙이고 그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원본을 프린트 회사에 맡겨서 신문을 만들었다. 신문이 나오면 아직은 혼자 둘 수 없었던 어린 창건이와 한나를 데리고 하얀 낡은 밴을 타고 북가주를 누비며 신문을 배달하셨던 사모님이 이제 막 결혼해 가정을 꾸린 나에게는 많이 힘들어 보였다.

이제 전쟁이 막 끝났다는 그 험한 곳에 한 해에 반은 가 계시는 선교사님. 너무 위험해서 가실 때 유서까지 작성해 두고 가시는 그 모습이 그때는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왜 이런 큰 일을 하는 곳에 그릇이 안 되는 나를 두시는 건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늘 투정부리는 내게 "너를 위해서"라는 한결같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의문으로 남긴 채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올해 1월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떠나기 전까지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주변 사람들도 식구들도 여전히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있는 듯하다.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를 건너 올해는 이솔래로 들어가 사역을 도왔다. 르완다, 우간다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었다. 날씨는 덥고 할 일이 없어서 찾아오는 무기력은 그곳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명이라고 한다. 어른들의 무기력으로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다. 마음이 힘든 곳이었다.

3년 전 방문했을 때 허허벌판이던 곳에 농과대학이 들어선다. 동네 아낙들을 위해 재봉기술학교가 문을 열었다. 파란색의 이쁜 지붕들이 아프리카의 파란 하늘과 빅토리아 호수의 예쁜 물색과 만나 더 빛을 발한다. 그들을 보고 돌아와서 그곳에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학교의 모습이 그리 반가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귀한 배움터가 될 것이며 무기력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일이 될 것이다.

25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흐른 시간이다.

어느 날 선교사님께 "뱅크 스테이트먼트 12번 받으니 한 해가 다 갔네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 12번 받아 정리하니 정말 한 해가 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25년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부터 25년을 계획했다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시간이다.

이솔래에 성전과 기술학교와 농과대학이 들어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아니 내전으로 처참했던 르완다에 너무도 아름다운 성전

이 세워졌고, 주일이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온종일 예배와 찬양 소리로 넘쳐난다. 우간다 아름다운 센터에서 자란 고아원 아이들은 자라서 우간다의 귀한 일꾼들로 활약 중이다. 무엇 하나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없다. 저절로 시간은 흘렀지만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쏟았던 아름다운 열정, 눈물의 기도,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귀한 선교사님 가정의 희생이다.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정의 헌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아빠를 내어주고도 아름답게 성장한 귀한 두 자녀와 남편의 부재를 두 발로 뛰어다니며 채워나갔던 용감한 사모님,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을 올곧이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했던 선교사님, 그 귀한 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너를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대답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다.

25년 동안 많이 변했다. 벽에 걸려 있는 청년 선교사님의 모습은 하얀 백발의 중년의 모습으로, 늘 씩씩하던 사모님도 무릎이며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늘 쌩쌩하던 나도 이제 돋보기가 없으면 장부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리카 센터들은 한 해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딱 한 곳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곳이 있다. 25여 년 전과 똑같이 허름한 크리스찬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 사무실, 바로 산호세 본부 센터이다. 여전히 허름하고 여전히 매달 초 렌트비를 걱정하지만, 25여 년을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긴 시간을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이 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역사 속에 나 역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My story about World Mission Frontiers in Uganda

Rev. Manzi Danny
(General Secretary of CWMF Uganda)

(만지 다니 목사는 1994년 르완다 내전을 피해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동안 김평육 선교사가 설립한 바이블 스쿨에 재학하는 것으로 지난 30년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함께하고 있다. 1997년 우간다로 이주하여 현재의 선교센터 설립에 관여하였으며, 한국에 유학하여 한동대학교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우간다 선교회의 사무총장으로 사역하며, 5개국에 설립되는 CWMF 교단의 첫 번째 총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Allow m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elcome you all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our 30th anniversary celebrations.

Today we are cerebrating 30th Anniversary of our ministry. It is only through our Lord's mercy and grace that our ministry has reached where we are now.

Through missionary Paul Kim whom God sent to us in Africa,

God has used him for the 30 years past to be a blessing to our African continent - Uganda in particular.

Papa Kim, congratulations on your ministry anniversary

Thirty years ago, there was nothing here at our mission center, it was just a bush, full of snakes around.

Papa Kim, I remember whenever you came here in Africa, you ate our local foods; posho and beans, sweet potatoes etc., this is because you did not carry with your foods from your country, you carried clothes and other stuffs for orphans.

You slept in the bush that was here, you were not scared of getting malaria, and other diseases!

You did not build your house; you built the house of God (The Church) instead and gave orphans shelter.

We all appreciate you Papa Kim; without your sacrifice we wouldn't be here.

We also appreciate Mama Kim, thank for standing with Papa in all situations…loneliness and caring for children in his absence…

In this place we had so many battles:

1. Satan tried to steal this land and destroy our ministry many times but, in all battles, and challenges we have seen the hand of the Lord on our side fighting for us.

2. Communication was not easy, only sending fax message was possible and it could take the whole day to send one page.

3. I also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our staff members who stood with us in all difficulty times.

Papa Kim, you've endured a lot of things, and we thank the Lord that you didn't give up. We thank the Lord for always strengthening you and encouraging you in all challenges you've faced in the ministry.

I remember, from the beginning of our ministry you said that we should invest in people.

You've achieved this, under your ministry many people have received education (Primary, Secondary and even university. Counselor Winnie is with us today, she is one of those who received education in our primary school that was in this place.) and there are many other people who have received many blessings from different programs from our ministry.

Papa Kim, for the past 30 years, you've been a source of unwavering faith, wisdom and guidance

1. Your dedication to God's ministry for the 30 years has inspired us and taught us to live our lives for God and to have passion to serve Him.

2. We've learned the importance of prayer and trusting in God in everything.

In Psalm 23, David speaks of the Lord as his shepherd, guiding him through the valleys and leading him to green pastures.

In the same way you've been a faithful missionary, leading us through the difficult times and rejoicing with us in the good times.

Today as we celebrate our 30th anniversary of our ministry, may this be a time of reflection and gratitude for all that God has done through Missionary Papa Kim and those who are standing with him and supporting our ministry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Once again, I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Papa Kim and May God bless you all!

HAPPY 30th ANNIVERSARY TO W.M.F. / RWANDA AT LARGE

Mrs. Kagire Doreen

(Country Director of WMF Rwanda)

(카지레 도린 씨는 2005년부터 르완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선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I am Kagire Doreen, Country Director of WMF for the past 18 years in service by God's Grace.

It's been a complex expedition but today, I stand before you with a grateful heart to God and to his people for standing with WMF throughout the 30 years. This journey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God's intervention and involvement of his people.

The founder of WMF Missionary Paul Kim, will detail how he came to Rwanda in 1994, shortly after the Genocide against the Tutsi and how God called him to serve his people, how he responded to the higher and complex calling which led to the

birth of WMF 30 years ago.

Briefly I will talk about WMF-Rwanda While the founder will elaborate more touching in other counties where the organization is established.

Fundamentally, he started with relief programs which included helping orphans, widows, and many other vulnerable categories of people providing basic need and preach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every person he met and whoever that came into his life and line, year after year, lives changed, hope and peace were restored, and people began to see light beyond the tunnel.

As time went by, the government was also stabilizing and defining things, setting standards, establishing laws and basically giving directions and guidance in everything and to both Rwandans and foreigners. It i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WMF went through the first process of complying with laws to register as a local organization, later in October 2002 we were granted the legal entity. Since then we comply with all the laws and we have not found any difficulty in the process. Rwanda Governance Board has been on our side in every way and we appreciate.

WMF in Rwanda operates from Gasabo District-Kinyinya Sector (where we are now), Kayonza Distict-Mukarange sector and Nyamasheke District in Kagano sector. WMF has a mission statement, Vision statement, objectives and the statement of faith that have guided as throughout this journey of 30 years as elaborated over the pull-ups on both sides.

WMF-Rwanda functions under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health services and evangelism. Under these areas, WMF has emerged stronger irrespective of the challenges encountered down the road.

Among many, WMF has founded:

- Joyful Nursery and Primary Schools based in Kayonza and Nyamasheke Districts
- World Mission High School in Gasabo District (Here) which is among the best performers in Rwanda
- We have sponsored so many children of Rwanda to study both in Rwanda and outside Rwanda specifically in South Korea.
- We are now working on the University project; the process is going on with the guidance of Higher education council of Rwanda (HEC). A couple of achievements are recorded in the education department to mention but a few In Social development WMF has intervened in so many activities;
- We have been strongly into supporting 1000's of Rwandans to get mituel de sante
- We have trained young girls and single mother to get a skill through which they can improve their standards of living (Tailoring and sewing) More than 855 young women have gone through this training

- Numerous livestock have been supplied in our district of intervention (Gasabo, Kayonza and Nyamasheke) which also has change the economic standards of beneficiaries

- We have involved in building houses and innovations of old ones specifically in Kayonza and Nyamasheke fulfilling our vision of practicing love and Justice

- Provision of food to the hungry, clothes and many other basic needs to the vulnerable has become our lifestyle over the last 30 years. We have worked hard to make sure that everyone around us gets a smile on their faces.

- 36 cooperatives were founded and established in Nyamagabe district. The beneficiaries were well trained, and supported with 76 Friesian cows, 265 pigs 155 goats and may other things including Kraals to keep the livestock indoor. This project was a special one, it focused on the people both the infected and affected by HIV/AIDS. This achievement was made possible in partnership Global fund,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in their single stream funding project (SSF).

You've heard a few testimonies, we sampled one person to represent each sector due to time, but the few samples make it evident that a number of lives have been reached and their lives are never the same.

- We have preached the good news of Christ diffusing love, peace, hope and justice the same way Christ did. In this area transformation is evident and the future is brighter.

- 1000's of church leaders, local leaders and in many other areas have been reached and trained under demanded areas which has contributed a lot towards their performance and hence affecting positively the churches and the community.

A milestone of 30 years full of achievement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t cannot be shared in five minutes. Just to inform you that we are working on a volume as the local staff *Titled WMF story in 30 years related to INKURU ya 30 of our Country.

This publication will have various testimonies, stories, Challenges encountered, and many other successful stories and We plan to launch it February 2025 if all goes well. And we trust it will be impactful in so many ways on behalf of WMF-Rwanda. We are profoundly indebted to the government of Rwanda for providing a secure environment to both Rwandans and foreigners where everyone can walk and work at any given time and anywhere in the Country. We will never take this for granted we therefore pledge our allegiance.

Special appreciation is conveyed to Gasabo, Nyamasheke and Kayonza districts where we operate our activities every day, thank you for walking this journey with us in a special way, without your support and guidance this milestone would be possible. Thank you so much.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we deeply appreciate your services over 30 years. Thank you granting visas to our

foreign teams and many other services that we needed from you. You simplified the journey against all odds.

Thank you. We recognize all government institutions together with private institutions that have covered the journey with us for 30 years, your contribution is treasured.

We appreciate the embassy of Korea in Rwanda for your support, various Korean agencies that have been with us all through. Thank you to Korean churches, to different communities and individuals you have all supported tirelessly God bless you.

Appreciation goes to all churches and other faith-based ministries here in Rwanda that opened doors to us and made it possible for us to serve the body of Christ, your support is recognized over 30 years. God bless you.

To our resident Missionaries, those ones who are presently here and to the others who served their term and went back home, you did well, your contribution has brought us this far. God bless you

Last but not least to all the local staff of World Mission frontiers; to those ones currently serving and to the ones who served before us, you did well, your effort and commitment is recognized in every capacity. May God bless.

Lastly our deepest gratitude and honor is to the founder (father of WMF everywhere). Only God knows how much he will to bless you right.

- Thank you for loving Rwanda and for sacrificing everything to serve God and his people

- Thank you for sacrificing your youthful age, your family and going out of the comfort zone to serve God and his people

- Thank you for trusting us (the local staff) with everything including funds, materials and people. Because of you we have also learnt to trust others. You taught us faith and prayer, we have seen the fruits around us.

Today we are celebr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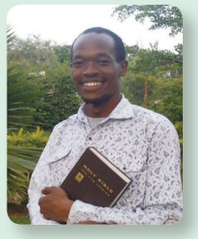
- 30 years of your sacrifice
- 30 years of sleepless nights
- 30 years of suffering
- 30 years of travelling back and forth
- 30 years of fear and tears
- 30 years of disappointments here and there
- 30 years of understanding you neither the vision and mission
- 30 years of prayer and faith
- And finally 30 years of laugher and celebrating.

May God bless you and may live longer to see and enjoy the fruits of your labor with your loved ones.

HAPPY ANNIVERSARY TO ALL US. Thank You

30th Anniversary of CWMF in Uganda

Rev. Malema Michael Nelson
(Country Director of CWMF Uganda)



(마이클 목사는 2012년에 시작한 UWMF 신학대학교 첫 번째 졸업생 네 명 중 한 명이다. 이어 M.Div. 과정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후 2018년부터 컨츄리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다. 2021년 UWMF가 ACTEA로부터 학위인증을 받는 사역을 감당했으며, 현재 미국의 Calvery University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우간다 UWMF의 첫 번째 현지인 총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Dear Missionary Paul Kim and CWMF, Congratulations on this 30th year anniversary.

We are blessed to have you. God has truly blessed us with such an amazing Pastor, Leader and Role model who has a missionary Heart.

Thank you for being a man of God. And with sincere gratitude I would like to thank Mama Kim for supporting you in this journey.

Sir, only a few individuals love our Lord as much as you do. Your passion is evident, and everyone can attest to you spreading His word here in Africa specifically Uganda. You were God's answer to the heartfelt prayer of the African Church and our community. Happy anniversary!

We thank God for the years that you have spent leading this great ministry and work that has been done in transforming lives. Congratulations on this anniversary and we thank you for choosing to teach and train us by the grace of God. Your commitment to do God's will is honorable.

Thank you for being a role model to so many in the ministry. I am one of the fruits of your labor and will forever be grateful for your humble service.

Your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and African church have inspired positive change.

These have been evidenced by the number of churches that have been planted and are flourishing; to the great influx of countless souls into the kingdom of God as result of explosive evangelism; to the hundreds of pastors that have been trained and ordained; further to the hopeless children that have been received-educated, fed , dressed and raised into responsible citizens; to students that have been supported for advanced education in S.Korea; to transforming leaders through paradigm shift as a result of experiences obtained during the visit to S.Korea

; and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UWMF that aspires to raise leaders that will transform Uganda and Africa .

UWMF has grown from 4 students in 2012 and now graduated over 300 students so far.

What a joy it is as we celebrate the anniversary the Lord has prepared for us. I Am reminded of Ephesians 3:20. 'Now unto Him that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and that worketh in us.'

This 30th Anniversary of the Ministry in Africa, therefore, is a reminder to us of His goodness and graces.

Through the grace of God, we are able to celebrate this glorious anniversary of many blessings upon our church, community and Country.

Hence Psalm 27:14... 'Wait on the Lord: be of good courage and He shall strengthen thine heart: wait, I say, on the Lord.' Yes, as a Ministry, let us wait upon the Lord always because He has the best plans for us. Happy anniversary!

Today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Pastor Kawooya Frank

(우간다 Nsangi센터 보육원에서 성장하여 UWMF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아 사역을 시작한 프랑크 목사의 30주년 기념사입니다.)

Greetings you all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nk you for coming to celebrate with us this milestone of the 30 years of serving God in Africa. In Uganda in particular we are so much honored to celebrate together!!

My Name is Frank.

In the year 1994, Papa you decided to give your life to Africa, you left your family home, God sent you like Abraham to leave your home to come to Africa, like Moses to take the children of Israel to the promised land, I'm very proud to say that you have really done this work papa Kim.

Your obedience inspires us so much, such a humble man

of God, your love and care speaks a lot to us as your African children.

We're the products of your obedience!!

We didn't have accessed to school, we not only got access to education but also got a Golden opportunity to know God through CLWMF, from nothing to great men and women, and children serving God through patience we are fruits of CLWMF.

Personally, I'm still learning a lot from you every time you're here you don't rest, always praying this inspires me a lot. We have learnt the value of helping others by your example.

When we were still young we grew up seeing you preaching about VISION, papa my brothers and sisters can tell, you really have a vision.

There's an African quote that says when you leave a man with a vision and go with that man with a great television you will seat home and watch this man with a vision on your TV.

The fact we can't leave a man with a vision "World mission"

You're a man of Faith, I have seen many people who have Faith but you're a different one , many people here can testify, you have done all this through Faith and prayer.

I'm very right to say none of us children doesn't know the value of prayer. That's why we're always praying for you, your family and all donors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so much for accepting us your own children and serving Africa for the past 30 years. In Africa we kneel down to express our thanks papa Kim, mama Kim your love for children is exceptional, thank you so much for standing by our Papa you're a strong woman!!!

Whenever we don't see you mama Kim we put papa on pressure especially my young brothers and sisters at Uganda center, this speaks the motherhood spirit you have Oma, and to our donors. 모두 감사합니다.

We want to thank God for the far he has brought Our beloved organization CLWMF. On my behalf and behalf of the joyful family here we congratulate you papa!!

Report For the first generation (children since 2007) 40 children then!!

Some of us are pastors now, Frank, Edward who's now in Korea. Mary is married to a pastor serving God in Kampala.

Faith is married, she owns a very great business Bakery, infact this anniversary cake was made by her, also installed church windows.

Peruth owns a decoration company (she decorated our anniversary building)

Patrick is supporting children to attend school through his organization called One Body.

Sula is supporting church and training our young siblings the dance and games. Also motivating youths to involve in church

ministry.

Paul is handling Art and crafts.

Stephen is a church leader now a pastor in a local church in Wakiso district doing a great job(we once visited his Church as the world mission church it growing fast and needs support)

Peter is also supporting our young siblings from his money earning at his work.

And many others doing great in serving God out there. Papa I'm very proud to say all these activities we learnt from you. You're our role model, mentor!!

Long live to see your past generosity yield big Congratulations once again upon this 30th Anniversary!!!

30th Anniversary of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s

Mr. Josua Ngoina John

(Country Director of CLWMF Tanzania)

(죠수아는 탄자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솔래에 150에이커의 넓은 부지에 대학교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현장 감독으로 선교센터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탄자니아 귀국 후에 이솔래 칼리지 사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As we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 it's time to reflect on the journey, achievements and continued dedication to the community.

Rev. Dr. Pyung Lyuk Kim started refugee missions from 1994 until refugees have repatriated their country in 1997.

Later, In 2002, Rev. Dr. Pyung Lyuk Kim, President and founder of CLWMF embarked on a mission to Tanzania, and on the year 2006 the ministry was founded and registered in Tanzania as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 in Tanzania.

CLWMF/T has grown, evolving from small initiative into major force of change, reaching thousand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Focused on the Great Lakes region of Mwanza, Mara, Kagera, Geita, and Kigoma, the ministry's core activities revolve around the spiritual and social sectors.

The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s in Tanzania endeavored to address the escalating challenges of disease, poverty, and illiteracy within Tanzanian communities. Strategic initiatives in evangelism, healthcare, and education serve to mitigate these disparities.

Community Welfare Initiatives, at the heart of CLWMF/T mission is the belief that uplifting individuals socially is essential for their well-being. Over the years, the ministry has been providing basic necessities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those in need.

Today, the ministry extends support to local churches through the 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 program (KBBA), facilitating bible studies and covering tuition fees for pastors and church leaders across Tanzania. Additionally, through the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UWMF), CLWMF/T offers theological classes ranging from diploma to master's levels.

In response to healthcare needs, CLWMF/T through MV Sallim Medical Mobile Clinic conducts medical outreach missions on Lake Victoria islands and free medical camps on the great lake regions, aiming to enhance access to free healthcare services, provide curative care, raise health awareness, integrate patients into social services, and offer cyclic care.

Furthermore, in the realm of education, the ministry has been providing scholarships to stu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Tanzania and abroad in different universities to prepare them to be future leaders and help in development of our country. CLWMF/T enriches beneficiary communities by constructing schools, providing essential utilities, such as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Gilgal Youth Camp (Computer and English) and Gilgal Leadership camp that prepares the youth to be future leaders and achieve their dreams, and also offering vocational training in tailoring to empower women in the community. Additionally, plans are underway to establish an agricultural and ICT college in the Sengerema District of the Mwanza Region to further the ministry's commitment to higher education and self-reliance.

As we reflect on the contributions of President and Founder of CLWMF/T Rev. Dr. Pyung Lyuk Kim, a distinguished figure encompassing roles as a minister, missionary, humanitarian, leader, and visionary,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 African continent. He has inspired a generation of followers to live with integrity, serve with compassion, and seek spiritual growth while caring for the world around them. His establishment of the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s in Tanzania stands as a

testament to his devotion and influence.

The legacy of Rev. Dr. Pyung Lyuk Kim will continue to shine brightly for years to come, guiding us toward a future filled with love, peace, and spiritual fulfillment. We are deeply grateful for his unwavering dedication and tireless efforts in building a ministry that nurtures both body and soul. May our Lord Jesus Christ bless you.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리

김미희
(달라스 지부 간사)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대학생 시절에 섬겼던 한인교회는 해마다 청년부가 단기선교를 다녀오곤 했다. 2001년 여름은 아프리카 단기선교가 계획되어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는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과 단순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아프리카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충격이었다. 해어진 옷과 맨발로 거침없이 다니던 아이들, 흙집과 난민촌의 텐트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몹시 아팠다. 가난하고 힘든 형편이지만 맑고 투명한 아이들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간사로까지 섬기게 되었다.

대학생 시절 선교단으로 참석했던 아프리카 단기선교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었다. 2003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올라와 선교사님이 렌트해 주고 간 텅 빈 사무실에서 월드미션 프론티어 한국 지부 사무실을 오픈하였다.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앞이 캄캄했지만 책상과 컴퓨터와 전화를 놓으며 무작정 선교회 간사로서 혼자 일을 시작하였다.

간사로 일을 하면 단기선교 다닐 때처럼 마냥 행복하고 기쁨만 가득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모르는 교회에 전화해서 선교회에 대해 알리기도 하고, 전국 교회에 선교 홍보물을 보내고, 단기선교단을 모집하는 일 등은 처음 해보는 일이고, 내성적인 성격에 감당하기 벅찰 때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선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들어오는 것보다 아프리카로 나가는 것이 항상 많은 선교회라 재정 잔고는 늘 부족했다. 여기저기서 밀린 광고비나 유학생 학비, 아프리카 현지에서 사역비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도도 안 나올 지경이었다.

언제나처럼 재정은 비어 있는데,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수십 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밤잠 못 자며 계속 긴장한 상태로 행사를 치르고 있었지만 숙소 비용은 낼 형편이 안 되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날 신기하게도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면 필요한 만큼의 헌금이 들어와 있거나 어떤 분이 몰래 비용을 내주신다거나 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섬기며 체력이 안 되어 쓰러질 만큼 몸이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기쁨은 넘쳤다.

2008년 결혼하고 미국 달라스로 이주하여 두 아이를 양육하며 한국 사무실에서 일하던 것처럼 그렇게 일은 못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있다. 늘 마음에 아프리카를 향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온가족이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아프리카는 놀랍게 변화되었고, 선교사님께서 넓은 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그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을 보며 큰 감동이 밀려왔다.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 때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투정도 많이 부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아프리카를 보기 전까지는 선교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내가 아프리카를 경험하고 간사로 사역하며 얻은 축복이 참 많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간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목차

서문 _4

아름다운 사람들 조지영(선교회 본부 재정 간사) _8

Rev. Manzi Danny(General Secretary of CWMF Uganda) _11
Mrs. Kagire Doreen(Country Director of WMF Rwanda) _15
Rev. Malema Michael Nelson(UCountry Director of CWMF Uganda) _22
Pastor Kawooya Frank _25
Mr. Josua Ngoina John(Country Director of CLWMF Tanzania) _29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리 김미희(달라스 지부 간사) _33

제 1 기 사역_ 무중구 실링기 〈난민 구제와 어린이 사역〉

1994년 르완다 전쟁 현장 취재 _45
1995년 고아원 건축과 난민촌 신학교 _53
1996년 난민촌 세례·침례식 _61
1997년 난민촌 신학생 귀환, 유치원 확장 _71
1998년 우간다 선교센터 건축, 단기선교 활동 _81
1999년 탈진과 선교센터 양도 _89
2000년 새로운 비전 _93

제 2 기 사역_ 네 마음을 쏟아노라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2001년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_101
2002년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_111
2003년 2003 아프리카 여성 치유 사역대회 _131
2004년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_145
2005년 북가주 영적 대각성 대회 _159
2006년 2006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 선교대회 _173

제 3 기 사역_ 물댄 동산 '비전 2012'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과 유학사역
아프리카 5개국 12개 선교센터 건축〉

2007년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_191
2008년 아프리카 전통 예술단 한국 초청 _203
2009년 2009 한국 ·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 _215
2010년 ATS 신학대학교 · 대학원 설립 _231
2011년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 _245
2012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착공 _259

제 4 기 사역_ 물가에 심겨진 나무
〈12개 선교센터 건축과 대학교 설립 추진〉

2013년 우간다 대학교 설립 준비, KBBA 설립 _273
2014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호선 진수식 _281
2015년 UWMF 신학대학교 · 대학원 _291

2016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착공 _299
2017년 대구 ACC 창립, 의료 봉사단 활동 시작 _309
2018년 Torch Mission Center 준공 _321
2019년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콩고 우비라 병원 착공 _335
2020년 하이어 콜링 세미나 사역 _351

제 5 기 사역_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비전 2030〉

2021년 우간다 UWMF 신학대학·대학원 accredited by ACTEA _375
2022년 르완다 ATU 대학교 일반학부 본관 착공 _387
2023년 CWMF 교단 설립총회(2월 10일), 글로벌에듀와
학교 건축 사업 시작 _399
2024년 30주년 기념행사, 학교 건축에 중점 _427

현재 사역_ 믿음의 역사(1994–2024)

1. 르완다 키갈리(Kigali) 월드미션 고등학교 _449
2. 르완다 ATU(Africa Transformation University) 대학교 _451
3. 우간다 UWMF(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대학교(신학대학·대학원) _453
4. 탄자니아 SCAT(Sengerema World Mission Frontier College of Agriculture & Technology) 칼리지 _455
5. 콩고 우비라 카통고(Katongo) 센터 _457
6. 르완다 야마세케(Nyamaseke) 센터 _459
7. 르완다 카욘자(Kayonza) 1센터 _461
8. 르완다 카욘자(Kayonza) 2센터 _463
9. 탄자니아 부코바(Bukoba) 센터 _465
10. 탄자니아 세렝게티(Serengeti) 무구무(Mugumu) 센터 _467
11. 탄자니아 무완자(Mwanza)센터 _469
12. 우간다 난지가(Nanziga) 센터 _471
13. 우간다 산지(Nsangi) 보육원 _473
14. 콩고 부카부(Bukavu) 보육원 _475
15. 콩고 우비라 카통고(Katongo) 보육원 _477
16. 콩고 고마(Goma) 보육원 _479
17.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_481
18. KBBA 목회자 평생교육원(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_483
19. 선교 지원센터(미국, 한국) _485

김평육 선교사 저서 안내 _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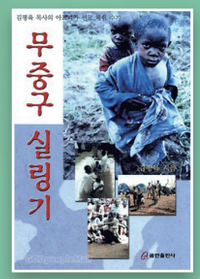
〈제 1 기 사역〉

무중구 실링기

1994 - 2000

난민 구제와 어린이 사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무중구 실링기(쿰란. 2002)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역을 정리한 간증집)

아프리카
선교 30년
사역 소개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경영하며, 목사로의 부르심을 대신하기 위해 1992년 〈크리스찬 라이프〉 기독교 주간 신문을 창간하였다. 1994년 르완다 내전이 발생하자 세계 주요 언론이 르완다의 학살 장면과 난민촌의 참혹한 현장 소식을 전했다. 현장에 가서 취재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되어, 1994년 9월 14일에 길을 떠나 10월 24일까지 40일간 르완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였다.

우간다를 거쳐 르완다의 전쟁 현장과 탄자니아의 응가라 난민촌(50만 명)과 카바리사 난민촌(15만 명)의 상황을 취재하였다.

르완다에서 만난 가파링가 사모가 기르는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 건축기금을 마련하여 1995년 2월 다시 르완다를 찾아갔다. 고아원과 유치원이 설립되고, 탄자니아 난민촌 신학교가 세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사역은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로 확장되었다.

한두 해 고아들을 돕다가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중단할 수가 없었다. 1996년에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경영하던 “Data Link Systems” 사와 “Design Q” 사업체를 정리하고, 〈크리스찬 라이프〉 주간 신문은 아내가 운영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아프리카 사역을 감당하였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아프리카 전쟁 지역의 국경지대를 배낭 하나 메고 종횡무진으로 달렸다. 고아원과 유치원 사역이 중심이었고, 난민촌에서는 난민촌 신학교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르완다에는 고아원이 설립되고, 27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힘을 쏟았다. 탄자니아의 난민촌에서는 난민 신학교를 운영하고 난민촌 유치원을 도울 기회가 되었다.

우간다에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1999년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양도하고 공식적인 선교 사역은 중단하려고 했다. 르완다 기콘도 센터와 우간다 센터만 남기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우려고 하는데 사역의 중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2000년 1월 피그미촌을 방문한 나에게 “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라는 큰 비전을 주신 것이다.

르완다 키갈리에 다시 선교센터 건축부지를 마련하고, 남가주 지부를 세우고 2001년 르완다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경험한 일들을 간증집으로 정리하여 《무중구 실링기》(쿰란. 2002)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지금도 선교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 감사하다.

르완다 전쟁 현장 취재

1994

탄자니아 응가라(Ngara) 난민촌에서 출생한 어린이

탄자니아로 피난 간 르완다인 난민촌

탄자니아 난민촌을 찾아

난민촌 어린이들의 모습

카바리사 난민촌 전경

르완다 교회에서 학살된 현장의 모습

르완다 전쟁의 흔적

르완다 전쟁의 흔적

르완다 전쟁의 흔적

응가라 난민촌 이발소

적십자사에서 식량 지원

응가라 난민촌 모습

르완다 어린이 모습

르완다 키갈리 거리의 어린이들

기콘도 교회 학살 현장에서 생존한 고아들

전쟁 현장에서 만난 가파링가 사모

탄자니아 난민촌

1994년 사역 요약

1994년 9월 14일, 우간다 엔테베(Entebbe) 공항에 도착했다. 도착한 날 곧바로 르완다 대사관을 찾아가 입국비자를 받았다. 대사관에서 만난 아와라는 청년이 아버지가 르완다 난민이어서 르완다 말을 할 수 있다며 안내를 자처했다. 아와의 여권을 급하게 신청해서 다음 주간에 르완다 키갈리에 함께 도착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나로서는 전쟁의 참혹함과 사람들의 살기 넘치는 눈빛이 두려웠지만 취재를 진행했다. 빈민촌이었던 기콘도(Gikondo)의 한 교회에서 전쟁고아들을 기르고 있는 가파링가 사모를 만나 어린이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주고 계속 돕기로 약속하고 르완다를 떠났다.

난민촌을 취재하기 위해 외신에 알려지지 않은 탄자니아의 난민촌 취재를 결정했다. 탄자니아 카게라주의 산악길에는 약탈당한 컨테이너들이 넘어져 있고, 지나가는 차량은 군인들이 호위를 해야 길을 갈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차량이 없어 지나가는 트럭을 타고 탄자니아의 응가라(Ngara) 캠프를 취재하고, 40일 만에 귀국했다. 〈크리스찬 라이프〉를 통해 르완다와 탄자니아 난민촌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다.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르완다 고아와 난민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4년

9월 14일 – 10월 24일: 르완다 전쟁 현장 취재(아프리카 1차 방문)

취재 현장

- 우간다: Entebbe, Kampala 경유
- 르완다: Kigali, Ruhengeri, Kisengyi, Gitarama 전쟁 피해 현장
- 탄자니아: Ngara(50만 명), Karagwe(15만 명) 난민촌 현장

(주간) 크리스찬 라이프

발행·편집인: 김평육

1030 S. Winchester Blvd. #206 San Jose, CA. 95650

© 크리스찬 라이프 1994. 11. 4

르완다 현장 취재, 목회자 전쟁미망인 가파링가 사모

1994년 4월 6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르완다 대량 학살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기간 동안 르완다에서는 여러 목회자와 비숍들이 학살됐고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었다. 르완다에서 가장 교세가 약한 개신교 장로교회의 에드워드 가파링가(Edward Gafaringa) 목사도 전쟁에서 학살되었다. 이유는 투치족이라는 것이었다.

투치족 몰살 계획은 르완다 대량 학살전쟁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르완다 정부는 정부 군·경 외에도 젊은 청년들을 살인부대로 훈련하여 "인테라하무이"라는 살인집단을 만들었다. 정치에 밀접한 후투족 목회자와 비숍들이 학살계획을 알고도 묵인한 채 르완다에

서는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대량학살 전쟁을 겪게 됐다.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있는 빈민촌 기콘도에서 목회하던 가파링가 목사도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키갈리에서 90Km 떨어진 기타라마(Gitarama)로 동료 목회자들과 피신했지만, 인테라하무이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피신했던 한 천주교회에서 동료 목회자 5인과 자녀 등 13명과 함께 살해되고 말았다.

가파링가 사모는 구사일생으로 학살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허기진 배를 쥐고 산을 헤매며 전쟁을 피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가파링가 사모는 참혹한 현실 앞에 눈물을 뿌려야 했다.

교회에서는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빈민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르완다 전 정부군과 인테라하무이는 교회, 병원, 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살상을 자행했다.

교회 마당은 시체더미로 쌓여 있었고, 교회당 벽은 박격포로 이곳저곳 뚫려 있었다. 유엔이 시체를 치운 후 남편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파링가 사모는 시체더미 속에서 울고 있던 전쟁고아들을 돌보아야 했다.

당시 가파링가 사모는 열 명의 전쟁고아들을 사택에서 돌보고 있었다. 자신의 생계도 막막한 처지였던 가파링가 사모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택을 비우라는 교단의 요구 때문이었다. 3일 후면 사택을 비워야 하는데 처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파링가 사모는 본보 김평육 발행인을 만나게 되었다. 르완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르완다에 입국했던 김평육 발행인은 르완다 교회의 피해상황을 살피기 위해 그 교회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가파링가 사모의 진실한 헌신과 봉사적인 삶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김평육 발행인은 당시 가파링가 사모를 만난 소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제 마음이 르완다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뜨거웠는지 가파링가 사모님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파링가 사모가 남편을 잃고, 전쟁고아들을 돌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가파링가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의 반대편에 사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파링가 사모와 열 명의 고아들은 김평육 발행인의 도움으로 집을 구해 이사했다. 르완다 고아원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고아원 건축과 난민촌 신학교

김길순 목사(김평육 선교사 부친, 당시 85세)의 르완다 고아원 건축 봉사활동(레메라 유치원 건축)

1995

기콘도 선교센터 모습(고아원·유치원)

기콘도 고아원 어린이

(1995) 우간다 선교센터 유치원 설립

김길순 목사 자원봉사

레메라 고아원 건축 현장

레메라 센터 건축을 마치고

레메라 유치원 개원식

레메라 유치원 개원과 가파링가 사모

1995년 사역 요약

1995년 2월에 다시 르완다를 찾아갔다. 당장 건축은 어려운 입장이어서, 일단 기콘도에 있는 건물을 구해, 고아원과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건축이 중단된 건물을 매입하여 내부공사를 마치고, 외부에 교실 두 개를 더 건축해서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키갈리에서의 사역을 도왔던 사무엘 장로와 탄자니아 난민촌 선교를 동역하기로 하고, 그의 가정을 우간다로 이주시켰다. 우간다로 가는 길에 갈 곳 없이 떠도는 알로이라는 르완다 난민 청년을 만난 것이 탄자니아 난민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당시 난민촌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살인과 약탈이 심해 탄자니아 원주민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다. 난민촌이 있는 국경지역의 산간 도로는 약탈사건이 심해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다. 난민촌 선교를 위해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탄자니아 카바리사 난민촌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 난민촌에서 난민목회자들을 만나고 목사회 회장이었던 조나스 목사를 교장으로 난민촌 신학교를 시작했다. 우간다 캄팔라에 주택을 임대하여 사무엘과 알로이가 거주하며, 신학교에 재학하면서 매월 탄자니아 난민촌으로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게 하였다. 사무엘의 아내 오뎃이 유치원을 시작하여 사역은 르완다 키갈리와 탄자니아 난민촌, 그리고 우간다로 확장되었다.

1995년

1월: 선교회 본부 정은정 재정 간사 취임

2월 14일 – 5월 3일: 아프리카 사역(제2차 현장 사역)

〈기콘도 선교센터(Gikondo Sector, Kicukiro District, Kigali)〉

- 고아원(고아 50명), 유치원(어린이 144명) 설립
- 가파링가 사모 고아원, 유치원 센터장 위임
- 단기 선교단 활동(김승은 권사, 강숙이 집사, 이홍숙 목사)
- 사무엘 장로 가족, 알로이 우간다 정착(4월 3일)
- 탄자니아 카바리사 난민촌 신학교(조나스 목사 교장, 50명)

7월 16일: 선교보고대회(산호세 제2침례교회, 이광희 목사)

7월 21일 – 23일: 찬양과 간증집회(간증: 김평육, 찬양: 최송무)

- 27일(금):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 28일(토):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 29일(주일): 이스트베이 영락교회

7월 27일 – 10월 12일: 아프리카 사역(제3차 현장 사역)

- 구제품 컨테이너 수송(7월 12일), 르완다 NGO 단체 기증
- 우간다 유치원 개원(80명 입학)
- 탄자니아 난민촌 신학교(9월 15일, 50명 2차 입학)
- 난민촌 유치원(45개 천막교실, 교사 119명, 어린이 4,500명)
- 단기선교(김길순 목사, 이정근 목사, 김준호)
- 난민촌 전도대회(사무엘 장로)

10월 7일: 키갈리 레메라 선교센터 완공(유치원 100명 입학)

11월 19일 – 12월: 선교보고 간증집회(김평육)

- 11월 19일(주일): 오클랜드 중앙장로교회(김태중 목사)
- 11월 26일(주일): 영생장로교회(최영치 목사)
- 11월 28일(화): 산호세교회(신문철 목사)
- 12월 10일(주일):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우성엽 목사)
- 12월 10일(주일): 산호세 한인중앙성결교회(김광렬 목사)

〈건축〉

- 르완다 Remera 고아원, 유치원 건축(1999년, 현지 NGO 설립하여 인계)

© 크리스찬 라이프 1995. 11. 3

김길순 목사, 르완다 고아원 건축 완공

난민촌 신학교와 유치원 개원

르완다 난민선교의 일환인 고아원 건축과 난민촌선교를 위해 지난 7월 27일 출국했던 김길순 목사와 본보 김평육 발행인이 10월 12일 귀국했다.

김길순 목사(85세)는 '모처럼 북가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후원하는 르완다 구호선교사업이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40시간의 긴 여행의 피로와 1차 탄자니아 난민촌 방문의 피로도 풀리기 전에 시작된 건축공사에서 김길순 목사는 목수 일을 손수 담당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유치원 교실 3개, 사무실 1개, 거실 4개를 마련한 50평 규모의 건물과 담장공사를 마무리했다.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공항과 국립경기장을 수용하고 있는 레메라(Remera) 지역에서 8월 6일부터 시작된 공사를 10월 6일에 완공하고 10월 7일 유치원 개원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2월 키갈리의 기콘도에 설립한 고아원과 유치원을 레메라의 새 집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기콘도 지역의 유치원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의 존속 희망을 뿌리칠 수 없는 입장이다.

유치원생 144명과 고아 50명으로 지난 2월에 설립된 기콘도의 어린이센터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레메라에서 100명의 유치원생을 모집하여 개원함으로 르완다에 설립된 엔젤스가든 어린이 구호선교사업은 '엔젤스가든 기콘도'와 '엔젤스가든 레메라'로 확대되었다.

레메라 센터 건축을 현지인 기술자들에게 잠시 맡기고, 탄자니아로 입국한 김길순 목사와 김평육 발행인에 의해 난민촌 신학교 사역이 강화되었다.

응시생의 수가 많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입학시험(성경, 논술)을 거쳐 50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했다.

교수진은 현재 난민촌 7개 교단 소속의 5인 목회자(성경교육)와 탄자니아 목회자(영어, 스와힐리어)로 구성했으며, 내년 2월부터는 한인 목회자들이 방문하여 신학특강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천목회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선교비는 우간다에 체류 중인 사무엘에게 송금, 매달 탄자니아로 입국해서 신학교를 점검하고 교수 사례비와 신학생 장학금, 식량지원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난민촌 교회가 난민촌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46개의 교실을 갖춘 유치원에는 4-5,000명 정도의 원아들이 출석중이며, 96명의 현지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신교 목회자들의 소망(어린이 선교와 학부모 선교)에 따라 인수하도록 했다.

96명의 현지 교사들은 모두 사임하고, 50명의 신학생들이 오전에는 유치원 교사를 담당하고 점심 식사 후 신학교 수업을 진행하며 경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지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40명 정도의 교사는 계속 채용하기로 했다.

난민촌 세례·침례식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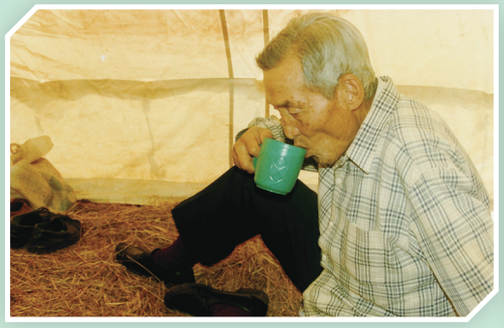
르완다 난민촌에서 전도활동을 한 후 새신자들에게 세례·침례식을 거행

난민촌 어린이

난민촌 선교집회

난민촌 세례·침례식

난민촌 신학교 학생들



난민촌 천막에서 김길순 원로목사

난민촌 천막 유치원

난민촌 신학교 학생들 식사 준비

난민촌의 첫날 밤, 어린이들의 춤

1996년 사역 요약

르완다의 전쟁 고아와 난민촌 사역은 1-2년 정도 하면 손을 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문사의 사역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지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돕는 손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 1996년 개인 사업체는 문을 닫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전력했다. '크리스찬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Ch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s)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선교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우간다에도 유치원이 설립되었고, 르완다에서는 고아원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탄자니아 난민촌 신학교와 유치원을 통해 난민촌 사역을 감당했다. 1996년 한 해 동안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의 국경지대를 왕래하며 난민촌 선교를 감당하였고, 4월에는 자이르(현, 콩고 민주공화국)의 아루(Aru), 아리와라(Ariwara) 지역에 입국했다가 패망 직전인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르완다 난민사태 이후에 수년간 르완다 난민촌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퓰리처상을 휩쓸던 시절인데, 난민촌에서 전도하고 결신자들에게 세례·침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의 사진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사역뿐 아니라 미국에서 신문발행을 겸해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미국을 오가면서 사역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통신시설이 열악하여 우체국에서 전화와 팩스로 소식을 주고 받으며 현지사역을 관리했다.

1996년

1월 21일: 선교보고 간증집회(트라이벨리 한인장로교회, 이명섭 목사)

1월 27일: 북가주 SBN-TV 르완다 선교 현황 다큐 방송

(1월 27일 오후 7시 30분, 30분 방송)

2월 11일: 선교보고 간증집회(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김고광 목사)

2월 14일: 선교보고 간증집회(상항노인선교회, 이규형 목사)

2월 25일 – 4월 30일: 아프리카 사역(제4차 현장 사역)

- 르완다 고아원 26명 어린이 친척 부모 찾아 퇴거
- 난민촌 신학교 세례·침례식 거행(360명 결신자)
- 난민촌 신학교 건축(교실 4개, 식당, 사무실, 신학생 150명)
- 케냐(버스전복사고) 방문
- 자이르 아루, 아리와라 지역 방문

5월 19일(주일): 선교보고 간증집회(순복음 상항교회, 오관진 목사)

6월 2일(주일): 선교보고 간증집회(사랑의 선교교회, 박사무엘 목사)

7월 8일 – 8월 30일: 아프리카 사역(제5차 현장 사역)

- 탄자니아 난민촌 전도대회 및 신학교 특강

(강사: 우성엽 목사, 7월 8일 – 19일)

- 우간다 선교센터 건축부지(20에이커) 구입
- 르완다 루항고 유치원 개원(200명) 〈정부건물 인수〉

10월 25일(금): 선교보고 간증집회(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10월 27일(주일): 선교보고 간증집회(상항한인 반석교회, 유무길 목사)

11월 16일: 《웃기시는 성령님》(동방기획) 출판 기념회

12월: 자이르 내전 지역 현지인 난민 구호팀 급파

(우간다 체류 사무엘 장로 중심으로)

〈건축〉

- 탄자니아 카바리사 캠프 인근에 신학교 건축(1997년 1월, 탄자니아 교회에 인계)
- 우간다 Nsangi 선교센터 부지(20에이커) 마련

〈출판〉

- 《웃기시는 성령님》(동방기획. 1996. 10) 〈크리스찬 라이프 칼럼집〉

© 크리스찬 라이프 1996. 2. 16

르완다 난민촌 선교집회 및 신학교 건축

**본보 김평육 발행인 2월 25일 출국,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방문.
탄자니아의 난민촌 선교집회, 세례식, 신학교 강의 및 건축, 농장 설립 등
약탈과 살인의 공포로부터 보호받고, 집회와 추진사업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 요청**

본보 김평육 발행인이 25일 북가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으로 후원하는 '르완다 난민구호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다.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선교부를 방문하는 김평육 발행인은 탄자니아와 르완다 국경 지대에 있는 르완다 난민촌에서 르완다 난민을 위한 선교집회와 새신자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난민촌 신학교를 위한 신학교 건물의 건축을 시작한다. 현재 100여 명의 난민촌 신학생 중 30명의 신학생이 북가주 지역의 성도들과의 자매결연으

로 생활비를 보조받게 됨에 따라 이번 학기에 추가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1995년 설립된 난민촌 유치원 원아가 4천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4천 명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난민촌 유치원 원아 급식을 위한 농장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7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응가라 지역(르완다의 루수모 국경 근처)에서의 난민촌 선교집회도 준비중이다.

르완다에서는 고아원 자체 운영을 위한 농장과 기술학교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북가주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후원하는 르완다 난민구호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는 김평육 발행인은 이번 방문 기간의 대부분을 살인과 약탈사건이 빈번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난민촌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신변안전과 건강을 위해 북가주 지역 교회의 특별한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김평육 발행인은 4월 중 귀국할 예정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1996. 7. 26

우성엽 목사 난민촌 신학교 강의, 선교집회

김평육 발행인 르완다 방문, 난민촌 및 북아프리카 현장 취재 후 귀국

본사가 주관하고 있는 난민촌 선교가 북가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 담임 우성엽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이번 난민촌 선교집회는 UNHCR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난민촌 근처에 설립된 신학교 운동장에서 소규모로 열렸다.

지난 8일 아프리카를 향해 출국한 본사 김평육 발행인과 우성엽 목사는 7월 10일 우간다에 도착하여 1박 한 후 바로 탄자니아 난민촌에 입국하여 13(토요일)~14일(주일) 양일간 선교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교집회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2천 명 정도의 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음에도 난민들의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집회가 열렸다.

선교집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난민들이 환자였으므로 우 목사는 개별적인 기도는 하지 못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병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많은 난민들이 병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난민촌 선교집회에서 우성엽 목사는 "르완다 전쟁은 단순히 종족간의 전쟁이 아니라 르완다를 점거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라며 기도를 통해 르완다를 흔드는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성엽 목사는 13일(토), 15일(월), 16일(화) 3일간 계속된 신학생 교육에서는 '성령론'을 강의했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인 목회자 강의에 크게 감동되었으며 힘을 얻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교수들을 파송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크리스챤 라이프 1996. 12. 12

난민촌 신학생, 목회자와 가족들 위기

난민촌 신학교 가족 대이동 임박

자이르 난민사태에 이어 탄자니아 난민촌에서도 르완다 난민들에 대한 강제 귀환이 강행되고 있어 많은 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달 자이르 지역의 투치 반군과 자이르 반군의 연합세력이 자이르 정부군과 고마 지역 난민촌을 공격하여 발생한 자이르 난민사태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마 지역의 100만 이상의 르완다 난민 중 50만가량의 난민이 르완다로 귀환했다. 그러나 르완다 귀환을 거부한 수십만의 난민들이 자이르 내륙으로 피신하여 다국적군과 세계구호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소리 없이 죽어 가고 있다.

자이르 사태에 자극된 탄자니아 정부가 르완다 난민에 대한 강제귀환을 강행하고 있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5일 탄자니아 정부는 르완다 난민들에게 12월 31일까지 르완다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는데, 르완다 귀환을 두려워하는 난민들이 난민촌을 비우고 탄자니아 숲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한때 관계 당국자들을 긴장시켰다.

탄자니아 군·경은 르완다 난민을 난민촌으로 복귀시키는 데 성공한 후 귀환조치를 취소하는 듯하다가 돌연 강경자세로 선회하여 공포와 최루탄을 이용하여 귀환을 거부하며 절규하는 난민들을 강제로 르완다로 입국시키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강제귀환을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르완다 난민들의 귀환을 재촉하기 위해 지난 3주간 동안 난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중단한 상태라고 현지 선교부가 본보에 보고해 왔다.

르완다 난민들이 귀환을 반대하는 것은 현 투치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유엔은 르완다 난민귀환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르완다 정부는 10만 명에 이르는 전범 혐의자들을 투옥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재판도 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난민귀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난민들의 주장이다. 현재 투옥되어 있는 전범 혐의자들을 재판도 없이 처형한다고 믿고 있는 난민들은 투옥되어 있는 전범 혐의자 중 많은 수의 투옥자들이 학살과는 무관한 후투족이라고 주장한다.

난민들이 귀환할 경우 투치족과의 재산분쟁으로 대량 학살전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1994년 발생한 르완다 전쟁에서 투치족이 승리하자 지난 30년 동안 우간다 등지에서 난민 생활을 했던 220만의 투치족이 르완다로 귀환하여 후투족 난민들이 버리고 간 가옥과 전답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귀환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만 이상의 후투족 난민들이 귀환할 경우 르완다 정부가 재산 반환을 공약했다고 할지라도 곳곳에서 벌어질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재산분쟁으로 대량학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난민들의 주장이다.

난민촌 신학생 귀환, 유치원 확장

르완다로 귀환한 난민촌 신학생들을 찾아(중앙에 필자의 모습)

1997

우간다 선교센터 건축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벽돌 제작

귀환 난민 신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한 24개 유치원 중(1)

귀환 난민 신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한 24개 유치원 중(2)

귀환 난민 신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한 24개 유치원 중(3)

귀환 난민 신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한 24개 유치원 중(4)

르완다 귀환 난민 신학생들을 찾아

부룬디 난민촌에서 단기선교단

1997년 사역 요약

1997년은 신년 초부터 긴장상태였다. 1996년 8월에 자이르(현, 콩고)내전이 발생하여, 고마 난민촌에 거주하던 150만 명의 르완다 난민들 중 일부가 귀환하고 수십만 르완다 난민들이 자이르 각지로 흩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탄자니아 정부는 난민들이 자국 내에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르완다 난민들의 강제귀환 조치를 취하였다. 난민촌 신학교 학생들도 르완다로 귀환하였고, 일부는 우간다, 케냐 등지로 피신하였다.

급히 아프리카로 가서 탄자니아의 산골에 피신해 있는 신학생들을 찾아 만나고, 르완다에 흩어져 있던 신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후투족 난민들이 귀환했지만 그들이 두고 간 집과 전답은 전쟁 후 르완다로 입국한 투치족 주민들이 점거한 상태여서, 신학생들의 삶이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신학생 2-3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현지 교회에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키붕고(Kibungo)와 무타라(Mutara) 지역의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4개의 유치원을 개원하고, 난민촌 신학교 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하였다.

우간다에는 20에이커의 건축부지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곳으로 피신한 난민촌 신학생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대학교 설립을 목표로 건축을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단기선교에 관심이 있는 미국의 한인2세 학생들의 단기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다.

1997년

1월: 선교보고 간증집회

- 1월 8일(수): 상항 노인선교회(이규형 목사)
- 1월 9일(목): 금문장로교회(조은석 목사)
- 1월 12일(주일): 나성 열린문교회(박헌성 목사)
- 1월 18일(토): 르완다 난민돕기 선교음악회

  (테너 김낙형 교수 초청, 산호세 영락교회)
- 1월 19일(주일): 트라이벨리 한인장로교회(이명섭 목사)
- 1월 26일(주일): 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박범재 목사)

1월 30일 – 4월 30일: 아프리카 현지 사역(제6차 현지 사역)

(탄자니아 난민촌 강제 해산 및 르완다 귀환)

- 우간다에 도착한 르완다 난민신학교 학생 센터 마련
- 우간다 루킹가 난민촌 방문(난민 신학생 방문)
- 우간다 선교센터 부지 정리 및 벽돌 제작 시작
- 우간다 선교사 훈련학교(난민촌 신학생 8명 훈련)
- 귀환 거부 난민 구제 사역(탄자니아 카게라 산간지역, 4천 명 집단 식량 전달)
- 르완다 키붕고(Kibungo), 무타라(Mutara) 지역에 24개 유치원 설립
- 조나스 목사 르완다 사무총장으로 임명

6월 8일 – 6월 21일: 선교보고 간증집회

- 6월 8일(주일):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유석종 목사),
  산호세 영락교회(우동은 목사)
- 6월 10일(화): 이스트베이 노인선교회(한선수 목사)
- 6월 21일(토): 트라이벨리 한인장로교회(이명섭 목사)

6월 27일 – 7월 3일: 르완다 난민선교 3주년 기념 음악회

(엘콰이어 오페라타 공연, 단장 김낙형 교수)

- 6월 27일(금): (장소)오렌지카운티 은혜한인교회
- 6월 28일(토): (장소)로스엔젤레스 월셔연합감리교회
- 7월 3일(목): (장소)산호세 로스가토스 크리스천교회

7월 14일– 9월 16일: 아프리카 사역(제7차 현장 사역)

- 단기 선교단 활동(이형숙 선교사, 신재은, 권지민, 제인오, 김태오)
  - 우간다: 교사 세미나, 전도집회
  - 르완다: 귀환 난민 신학생 세미나, 유치원 교사 세미나
  - 탄자니아: 응가라 지역의 부룬디 난민촌 목회자 세미나
- 우간다 선교센터 건축 착공(예배당 1동, 유치원 3교실)
- 르완다 27개 유치원 사역 점검

9월 25일– 10월 15일: 아프리카 사역(제8차 현장 사역)

(우간다로 피신한 난민촌 신학생 그룹의 갈등 문제로 긴급하게 재출국)

- 우간다 선교센터 예배당 및 교실 3개 지붕 공사 완공하고 귀국
- 현지 사역자 MANZI DANNY 우간다 사역 담당

10월 26일: 르완다 선교기금 마련 선교음악회(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주최)

〈건축〉

- 우간다 Nsangi 센터(예배당1, 유치원 교실 3) 건축

  (현재, UWMF 채플, 행정 사무실)

ⓒ 크리스챤 라이프 1997. 5. 9

본보 김평육 발행인 귀국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
르완다 난민 선교 풍성한 결실

본보 김평육 발행인이 르완다 난민 선교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1월 30일 출국했던 김평육 발행인은 지난해 12월 탄자니아 정부의 르완다 난민 강제 귀환 조치로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등지로 흩어진 난민촌 신학생을 찾고, 우간다에 기술/신학대학 건축을 추진하고 밀림 지역에서 헤매고 있는 난민들을 찾아 돕는다는 목적으로 떠나갔다.

난민촌 신학생 현황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지난 2년간 양성했던 150명(카바리사 캠프 100명, 루베라 캠프 50명)의 신학생 중 100명가량의 신학생이 르완다로 강제 귀환됐으며(87명 신원 확보), 13명은 우간다의 난민촌으로 피난했고, 10명 정도는 케냐로 망명했으며, 20명 정도가 탄자니아의 밀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르완다로 귀환한 신학생 중 4명은 전범자 혐의로(전 후투정부 요직에 있던 난민신학교 학생회장 포함) 투옥되어 있는 실정이다.

난민촌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목회자 전원은 무사하며, 향후 계속적으로 미주 지역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르완다 교회 부흥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르완다로 귀환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가옥과 토지는 전쟁 후 우간다에서 귀환한 투치족들에 의해 점거당한 상태이며, 귀환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고향마을의 산중에 풀과 잡목으로 임시 거주지를 만들고 투치족의 감시 속에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르완다 정부는 귀환 난민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주 지역을 이탈하는 여행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 2월과 3월 중에도 르완다에서는 외국 구호단체와 UN 직원에 대한 살해사건이 발생했고, 키갈리 근처에서 버스를 세우고 승객 전원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과 주차장 및 음식점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살해 사건이 연일 일어났지만 르완다 정국은 대체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르완다 엔젤스가든 현황

르완다의 무타라(Mutara)와 키붕고(Kibungo) 전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귀환 신학생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이들 신학생들의 교사채용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얻어 정부, 지역교회, 본보가 협력하는 24개의 유치원이 추가로 설립됐다.

1995년 2월, 키갈리의 기콘도에 유치원 설립과 키갈리의 레메라에 자체 건물 건축과 유치원 개원, 기타마라 유치원 설립에 이어 르완다에는 현재 27개의 유치원이 개원되어 3천 명에 이르는 르완다 유아들을 돌보게 되었다.

이번에 르완다 동부 지역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이 설립되어, 르완다 지방정부와 교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무료 유치원이어서 후원하는 한인교회에 감사하고 있다. 유치원 건물은 정부의 지원건물 또는 교회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자와 칠판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교사들의 생활비는 본보가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르완다 엔젤스가든 어린이 선교센터에는 총 101명의 정규교사와 5명의 관리직원, 유치원 감독을 위한 14명의 르완다인 목회자를 비롯하여 130명의 현지인 직원들이 미주 지역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3천 명 이상의 르완다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130명의 현지인 직원들에게는 매월 생활비가 지불되며, 특히 귀환한 난민신학생 교사들은 유치원 설립교회의 주일 대예배 설교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지역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쟁 직후 엔젤스가든 고아원에서 돌보던 50명의 고아 어린이 중 27명의 어린이가 친인척을 찾아 가족 상봉을 이루었으며, 남은 고아원 어린이들은 엔젤스가든과 별도로 가파링가 사모의 가정에서 돌보도록 조치하고, 난민촌 신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조나스 목사를 르완다 사역의 총 책임자로 선임하였다.

우간다 기술대학/신학대학 설립 착수

지난해 우간다에 마련했던 20에이커의 대학부지 정리 작업이 시작됐다. 수목과 개미집으로 가득한 대학부지를 불도저와 지역 인부를 동원하여 1차 부지정리 작업을 했으며, 현지인 직원을 채용하여 부지정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성전건축과 신학교 강의실 건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벽돌 제작이 시작되었다.

난민촌 선교

1994년 본보 김평육 발행인의 르완다 난민촌 현장 취재로 시작된 난민촌 선교가 탄자니아 정부의 강제 귀환조치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난민촌 선교의 목적은 난민촌에서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헌신하게 하고 자국 귀환이나 타국 선교사 파송을 목적으로 했다. 지난 2년 동안 난민촌 선교의 결실로, 이번에 르완다에서는 24개 유치원이 추가로 설립되었고, 본보 선교부와 신학생들 간의 끊을 수 없는 두터운 신뢰 속에 르완다 선교가 제2의 막을 열고 있다.

선교의 결실이 풍성한 난민촌 선교를 위해 본보 김평육 발행인은 이번에 제2의 난민촌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돌아왔다. 우간다의 루킹가 지역의 난민촌에 탄자니아에서 피난한 5명의 난민촌 신학생(현지 선교사로 임명)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2만 명가량의 르완다, 부룬디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의 응가라 지역에 12만 명의 부룬디 난민이 거주하는 난민촌 현장 취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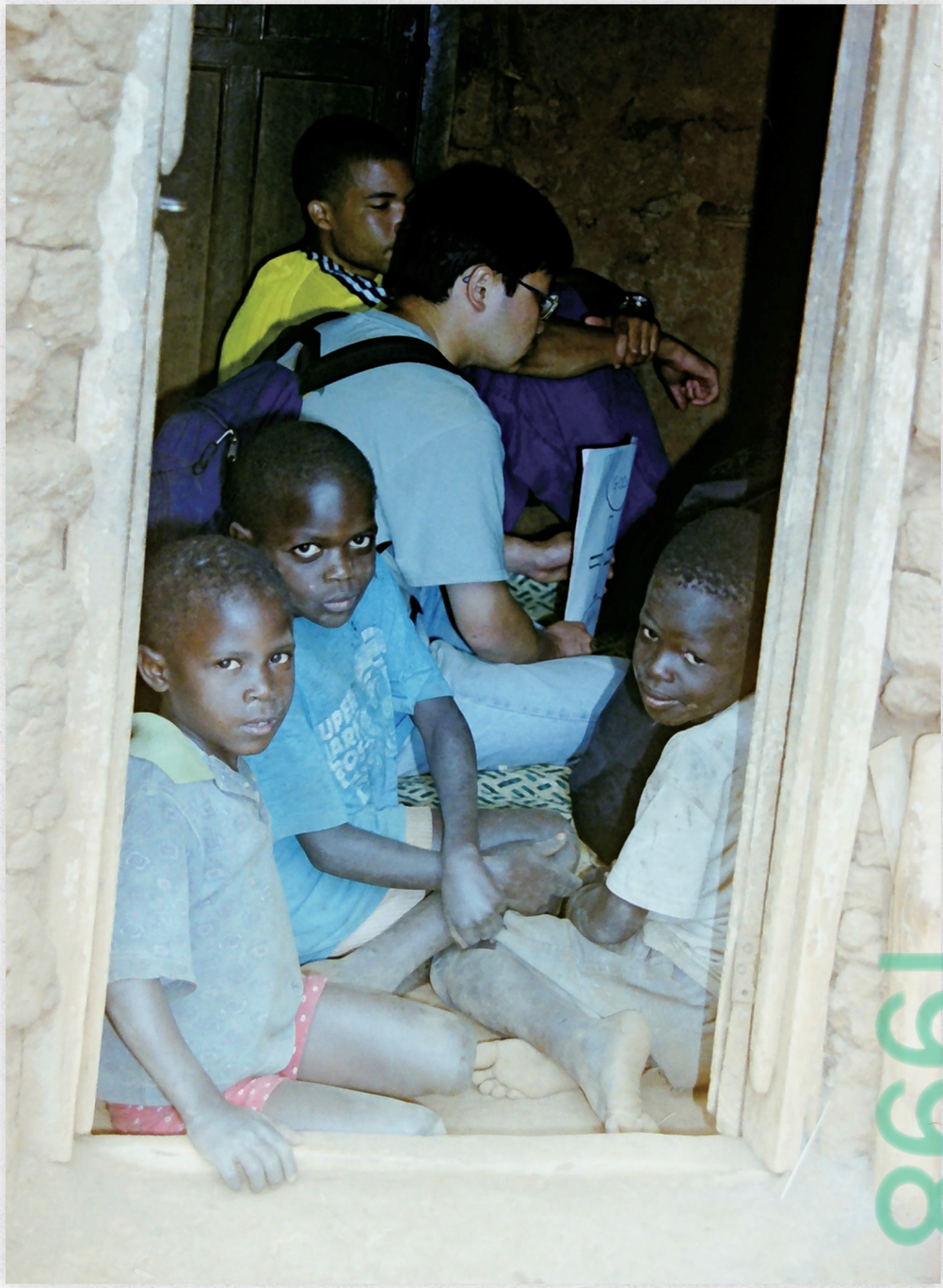
귀환 거부 난민 돕기

본보 김평육 발행인은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해 르완다 귀환을 거부하고 탄자니아의 산간 지역에서 군·경의 수색망을 피해 풀뿌리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4천 명가량의 르완다 난민들과 접촉을 이루었다. 이들 난민들은 탄자니아 군경의 수색망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거처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뱀과 맹수들이 위협하는 밀림 지역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배회하고 있다. 난민들과의 일차 접촉을 통해 다소의 비상식량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르완다 귀환을 권면하여 16명의 고아와 10명의 노인이 르완다로 귀환했으나, 대다수 난민들은 말라위나 케냐 등지로의 망명을 기대하고 있다.

난민촌 신학생 20명 정도가 산간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계속적으로 르완다 귀환을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르완다에

갔다가 둔기와 칼로 심한 상처를 입고 탄자니아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그들이 당했던 악몽을 전하고 있어 이들을 귀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난민들에 대한 기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간다 선교센터 건축, 단기선교 활동



단기선교단 아프리카 가정방문 전도활동

1998

1998 단기선교단 파송예배

우간다 단기선교 활동

우간다 센터에서 단기선교 활동

르완다 단기선교단 활동

단기선교단 세미나 개최

단기선교단 피그미촌 방문

단기선교단 탄자니아로 이동

단기선교단 세미나 활동

1998년 사역 요약

우간다의 상기(Nsangi)에 건축된 선교센터에서 선교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예배당과 교실 3개의 건물이 세워지고, 유치원이 시작되었다. 우간다에 도착한 단기선교단은 센터의 교실에 숙소를 정하고 사역하기 시작했다. 1998년 우간다 센터에 교실 4개의 건물을 추가로 건축하고 초등학교가 시작되었다.

르완다에서는 27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며 귀환한 난민신학생들이 교사로 활동했다. 르완다 카욘자 디스트릭의 카람비(Karambi) 마을에 10에이커의 부지를 마련하고, 교실 3개의 학교를 건축하였다. 키갈리 센터에는 귀환 난민신학생과 전쟁으로 학업의 기회를 잃은 젊은이들을 위한 바이블 칼리지(World Mission Bible College)가 열렸다.

탄자니아 응가라 지역에 잔류한 부룬디 난민촌 선교의 길을 열고 세미나 사역을 감당하였다.

르완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통해 알려지며, 북가주 지역의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98년 여름에는 북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회자, 교수, 학생들로 구성된 단기선교단 24명이 아프리카 단기선교에 자원했다.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간 선교단원들은 선교보고대회를 통해 지역교회에 아프리카 선교의 불길을 일으켰다.

1998년

1월 29일 – 3월 8일: 아프리카 현장 사역(제9차 현장 사역)

- 단기선교(백봉기 집사, 1월 29일 – 2월 20일)
- 르완다 카람비 고등학교 교실 3개 건축
  (Karambi Village, Murundi Sector, Kayonza District)
- 우간다 상기 센터 교실 3개 완공, 유치원 개원(80명)
- 르완다 27개 유치원 방문, 학부모 회의 등

3월 21일 – 5월 23일: 선교보고 간증·찬양집회

- 3월 21일(토): 상항구세군교회(김승해 사관)
- 3월 28일(토):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우성엽 목사)
- 4월 8일(수): 산타크루즈 중앙장로교회
- 4월 10일(금): 생명수 침례교회
- 4월 17일(금): 임마누엘 선교교회
- 4월 23일(목): 새누리 침례교회
- 4월 24일(금): 상항제일장로교회
- 4월 26일(주일): 삼일한인침례교회
- 5월 23일(토): 소노마 카운티 교회 연합 집회(소노마 카운티 제일침례교회)

4월: 조지영 본부 재정간사 취임(정은정 본부 간사 사임)

6월 6일 – 6월 13일: 북가주 대학생·전문인 세계 선교대회 개최

- 6월 6일(토): 산호세제일교회
- 6월 13일(토): 상항구세군교회

6월 24일 – 9월 5일: 아프리카 현장 사역(제10차 현지 사역)

- 6월 21일(주일): 여름 단기선교단 파송예배(산호세소망교회)
- 6월 24일 – 7월 24일: 단기선교단 활동(단원 24명)
  - 우간다, 르완다(목회자 세미나, 교사 세미나, 여성 세미나, 어린이 사역)
    단원: 단장 – 김현덕 교수, 김준호, 권지민, 김수민, 김민정, 이에스더, 김유니스, 최옥희, 로널드 오브라이언, 김빅터, 김제프리, 로버트 브라운, 니콜 안, Thelam Jimenez, 스캇 리, 박원섭, 김승해 사관, 유진 선교사 등
- 우간다 상기(Nsangi) 센터 교실 4개 건축, 초등학교 개교(160명 입학)
- 르완다 바이블 칼리지 개교(기콘도 센터)

8월: 미국 본부 사무실 이전

- 3400 El Camino Real #9, Santa Clara, CA. 95050
  Tel: 408-345-1727

10 – 12월: 단기선교단 선교보고 간증집회

- 10월 23일(금): 상항구세군교회(영어)
- 10월 24일(토): 산호세소망교회(한어)
- 12월 6일(주일): 트라이밸리장로교회

〈건축〉

- 르완다 카람비 고등학교 교실 3개 건축
- 우간다 상기 센터 교실 4개 건축(초등학교)

ⓒ 크리스찬 라이프 1998. 7. 31

98 아프리카 여름단기선교단

지난 6일부터 귀국하기 시작해 현재 6명 귀국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하며, 서로 은혜 받는 아름다움 경험해

베이어리어 '기드온의 용사'들이 선교의 임무를 마치고 속속 귀국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S.F.를 떠나 아프리카로 향했던 '98 아프리카 여름단기선교단' 중 일부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다.

1.5세와 2세들이 준비한 Mission Rally와 1세들이 준비한 파송예배를 통하여 영적 무장의 준비를 한껏 갖춘 채 떠난 이들은 선교 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계획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며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는 흐뭇한 소식을 전했다.

1차로 귀국한 팀의 상항구세군교회 김승해 사관은 "비록 두 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아프리카 선교의 소감을 밝혔다.

찬양 세미나를 맡았던 유진 선교사와 박원섭 집사는 5일 동안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독보법', '화성(和聲)', 기타(Guitar) 및 키보드 연주법들을 가르쳤다.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는 배운 이들이 훌륭하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김현덕 교수가 이끈 청년팀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회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유아교육을 강의하고 찬양, 게임, 공작 등을 가르쳤다.

지난 25일 귀국한 2차 팀에 속한 김민정 양은 "너무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간다에서 마을에 있는 100여 가구를 방문하며 노방전도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탈진과 선교센터 양도

이 어린아이의 슬픈 눈동자가 무중구의 발걸음을 르완다에 머물게 했다.

1999

1994년 르완다에서

우간다 센터 유치원

배낭 메고 르완다 전쟁현장과 탄자니아 난민촌 현장 취재

기억나지 않는 어느 곳에서

난민촌에서 귀환한 만지다니의 가족을 찾아

르완다 전쟁 현장 취재

아프리카 국경지대의 순례자가 되어

피그미촌을 찾아

1999년 사역 요약

1999년 갑자기 탈진이 찾아왔다. 육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피곤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인생의 십일조로 드리기로 했던 6년의 기간이 다가오면서, 계속하여 부르시는 음성에 대한 번민이 깊은 시간이었다. 변화되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나와 가정이 희생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적 갈등이었다. 과연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방황하는 시간이었다.

1999년 말에는 르완다의 사역을 정리해서 현지인들에게 양도했다. 조나스 목사와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르완다로 귀환한 난민 신학생들에게 'Rwanda World Mission Frontier'(현재 Vision of Children)를 조직하게 하고, 레메라 센터를 포함하여 두 개의 유치원 건물을 양도해 주었다. 카람비 고등학교 건물은 지방 정부에 양도하고, 24개 유치원은 현지 교회가 운영하도록 유치원 물품을 기증했다.

르완다의 기콘도 센터의 유치원과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우간다 선교센터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지원하기 위해 남겨두었다.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사도 새주인을 찾아 양도하고, 선교는 그만두고 무역사업을 하기 위해 남가주 지역에 창고와 사무실 건물을 임대하였다 .

1999년

4월 27일 – 5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11차 현지 사역)

- 르완다 현지인 NGO 단체(Rwanda World Mission Frontier)를 설립

〈사역 인계〉

- 르완다 24개 유치원 현지 교회에 물품 인계
- 카람비 고등학교 부지와 건물 지방정부에 인계(현재 카람비 고등학교)
- 레메라 센터 건물, 루항고 센터 건물과 유치원은 르완다 RWMF에 인계
- 기콘도 선교센터와 우간다 상기 센터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함
- 크리스찬 라이프 인계

10월 5일: 남가주 사무실 임대(사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

13419 Pumice St. Norwalk CA. 90650

피그미촌에서 복음화 대회의 비전을 받다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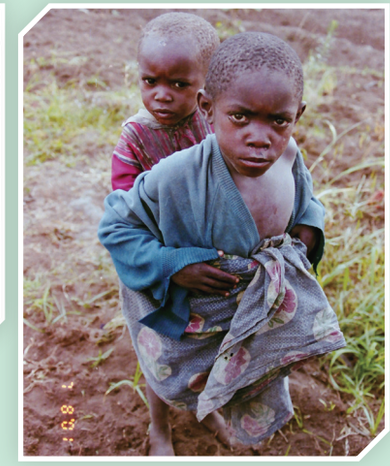
가히니 지역 전도집회

가히니 지역 전도집회

파그미촌 사람들

피그미촌 사람들

항아리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피그미촌 사람들



피그미촌 어린이의 모습

2000년 사역 요약

1999년 한 해 동안 탈진에 시달리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으며 기도하다가 2000년 1월, 르완다의 피그미촌을 방문하였다. 피그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르완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이다.

사업을 다시 포기하고 8월에는 가히니 성공회가 주관하는 지역 전도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복음화 대회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2000년 8월, 현지인 사역자들과 비전을 나누고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탄자니아 난민촌 신학교 교장으로 사역했던 조나스 목사와 귀환 신학생들은 르완다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필자는 아프리카와 미국을 오가며 단기선교단 모집과 대회 경비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사탄의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보기도팀을 조직하여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르완다에서 사역을 다시 계속하게 되어 키갈리 카구구에 7에이커의 부지를 새로 마련하고, 월드미션 프론티어라는 선교회를 NGO 단체로 등록했다. 새 경영자를 찾아 인계했던 크리스찬 라이프 사역도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 남가주 지역에 마련한 창고와 사무실은 선교회 지부가 되어 2001년 사역을 준비했다.

2000년

1월 10일 – 1월 21일: 엘콰이어 대학생 합창단 미국 초청 공연

1월: 월드미션 프론티어 남가주 지부 설립, 유연희 간사 부임

(13419 Pumice St. Norwalk, CA. 90650)

1월 24일 – 3월 12일: 아프리카 사역(12차 현지 사역)

- 르완다 가히니 지역 목회자 세미나(김승해 사관)
- 무감바지 피그미촌 방문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개최의 비전을 갖게 됨)

4월: 세계 복음화 중보기도회(WEPN) 결성대회

- 4월 1일(토) 오후 7시: 샌프란시스코 대회(상항구세군교회)
- 4월 8일(토) 오후 7시: 산호세 지역(임마누엘 장로교회)
- 4월 15일(토) 오후 7시: 남가주 지역(남가주 지부 사무실)

7월 2일– 8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13차 현지 사역)

- 단기선교단 활동
- 르완다 가히니 성공회 전도집회 협력(월터 리 목사를 강사로 추천)
-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열기로 결정

9월: 아프리카 사역(제14차 현지 사역)

(르완다 목회자들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르완다 방문)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현지 목사 준비위원회 조직

"Rwanda National Committee"와 "11 Prefecture Committee"

10월–12월:

-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중보기도회 시작(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준비)
-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안내 책자 발행
- 르완다 현지에서는 조나스 목사와 귀환 난민촌 신학생을 중심으로 대회 준비

〈건축〉

- 르완다 키갈리 카구구에 선교센터 부지(7에이커) 구입

(현재 위치, Gacuriro Cell, Kinynya Sector, Gasabo District, Kigali)

〈제 2 기 사역〉

네 마음을 쏟아노라

2001 - 2006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62:1-2)

네 마음을 쏟아노라(쿰란. 2008)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의 준비와 실행과정을 간증한 책)

아프리카
선교 30년
사역 소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제2기 사역은 복음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믿음으로 아프리카 복음화대회에 힘을 쏟았다.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대성회”를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화대회는 2011년까지 계속되었다. 초교파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 각지에서 모인 대규모 선교단이 아프리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2002년에는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와 중앙아프리카 복음화대회, 그리고 2003년에는 여성치유 사역대회가 우간다, 르완다, 콩고, 탄자니아, 부룬디에서 열렸다. 2004년에는 선교 1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4개국 32개 도시에서 복음화 대축제가 열렸다.

2005년은 선교회 본부가 소재해 있는 북가주 지역(Northern California)을 대상으로 영적 대각성대회를 열었고, 2006년에는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 선교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2006년에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아프리카 복음화 사역을 추진하면서 겪은 일을 정리한 《네 마음을 쏟아노라》(쿰란, 2008)는 제목의 간증집을 출판하였다.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르완다 비윰바 소재 콩고 난민촌 어린이 모습

2001

2001 키갈리 여성세미나

키갈리 스타디움 집회를 마치고 어둠 깔린 운동장에서
르완다 전통 무용단과 함께

2001 스타디움 집회

르완다 전국 11개 프리팩처에서 열린 전도집회(키붕고 집회)

르완다 비윰바에 있는 난민촌에서의 전도집회

스타디움 전도집회

2001년 사역 요약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르완다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한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르완다의 전국교회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인데, 당시 르완다 교회는 하나 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한 국가에서 전국 규모의 복음화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단기 선교단원이 필요한데, 참혹한 전쟁을 치른 르완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교단원 모집도 불가능했다. 그리고 막대한 선교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르완다 전국 복음화대회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몰려왔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르완다 현장에서는 조나스 목사와 귀환 난민 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각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며 목회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나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지역 한인교회에 르완다 복음화 대회를 알리며 선교단원을 모집하고 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였다.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음악회를 통해 선교소식을 알렸다.

72명의 한인 단기 선교단원이 참여한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는 "그리스도의 나라, 르완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르완다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킨 역사적인 집회로 기억되고 있다.

2001년

2월 20일: 선교회 본부 사무실 이전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2 – 6월: "2001년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후원 음악회

*황국명 목사 초청(다윗과 요나단)

- 2월 9일(금): 엘림장로교회(배상호 목사)
- 2월 10일(토): 살리나스 한인장로교회(한일경 목사)

*배성원(찬양), 백철현(바이올린), 안영숙(하프), 최소은(플룻) 초청

- 2월 23일(금): 북가주 제일침례교회(위성교 목사)
- 2월 24일(토): 소노마 제일침례교회(김익곤 목사)
- 2월 25일(주일): 산호세 제일교회(신광철 목사)

*황국명 목사 초청

- 3월 23일(금): 임마누엘 선교교회(문우석 목사)
- 3월 25일(주일): 노엘장로교회(이성훈 목사)
- 3월 25일(주일):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우성엽 목사)

*김병덕 교수(바이올린), 안영숙(하프), 최소은(플룻) 초청

- 4월 6일(금): 상항 중앙장로교회(조정한 목사)
- 4월 7일(토):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 채플(한인학생회)
- 4월 8일(주일): 방주선교회교회(임동하 목사)

*황국명 목사 초청

- 4월 20일(금): 에버그린 선교교회(이상희 목사)
- 4월 27일(금) : 콜로라도 평강교회(김평덕 목사)
- 5월 4일(금):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김숭 목사)
- 5월 6일(주일): 한빛성서교회(김성택 목사)
- 5월 9일(수): 사랑의 빛 선교교회(김재문 목사)
- 5월 11일(금): 얼바인 침례교회(한종수 목사)

*황국명 목사, 손영진 사모, 김수지, 김하정 초청

- 6월 3일: 새누리침례교회

3월 31일: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위한 철야기도회

(북가주 금식기도원)

5월 18일: 단기 선교단 철야기도모임(북가주 금식기도원)

6월 30일 – 8월 8일: 아프리카 사역(제15차 현지 사역)

■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단기선교단(78명)

"그리스도의 나라. 르완다"

- 6월 30일 1차팀(우간다, 르완다 사역팀) 출국

  7월 15일 2차팀(르완다 사역팀) 출국
- 7월 5일 – 6일: 준비위원회 기도회
- 7월 9일 – 7월 12일: 피그미촌 방문(미국팀)
- 7월 11일 – 7월 13일: 우간다 선교센터 어린이 선교대회(영국 청지기팀)
- 7월 9일 – 7월 15일: 르완다 전국교회 구국기도회(르완다 교회 주관)
- 7월 18일: 한국, 미국, 영국 선교단 르완다 키갈리 집결
- 7월 19일 – 7월 22일: 르완다 11개 프리팩처 집회

  (세미나 3천 명, 전도집회 10만 명 참석)

  강사: 루행게리(리처드 조 목사), 기생이(폴리 목사), 키부예(김민수 집사), 찬구구(이호근 목사), 기콩고로(백봉기 집사), 부타레(크리스 포먼 장로), 기타라마(김영대 선교사), 무타라(김승해 사관), 키붕고(김평육 선교사)
- 7월 23일 – 7월 27일: 르완다 교계 지도자 세미나(키갈리 1천 명)

여성 세미나(김현덕 교수, 김청향 사관), 목회자 세미나(김의환 목사, 장희동 사령관, 이방석 목사)

- 7월 27일 – 7월 29일: 키갈리 스타디움 전도집회(1만 5천 명 참석)
  강사(김의환 목사, 장희동 사령관, 이방석 목사, 김평육 선교사)
- 8월 1일 – 8월 3일: 콩고 난민촌 선교집회(세미나 200명)

9월 10일 – 10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16차 현지 사역)

- 2002년 르완다 어린이 선교대회와 중앙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준비
- 피그미촌 개발 사역 시작(PBDP)(충현선교교회 피그미촌 답사팀 파송)
- 키갈리 카구구 부지에 신학교 건축 협의

11월 3일: 〈크리스찬 라이프〉 창간 9주년 찬양 큰 잔치

- 산호세제일교회(황국명 목사, 김성수 전도사, 최명자 사모, 김유진)

11월 18일: 피그미촌 원주민 사역자 6명 파송(LA충현선교교회)

11월: 한국 방문

- 할렐루야 축구단(대표 이영무 목사) 아프리카 초청(28명 초청 결정)

© 크리스찬 라이프 2001. 8. 17

2001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귀국

한 달간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 성황리에 진행

한인선교 역사상 한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기는 처음
르완다 원주민 교회가 연합으로 추진해 더욱 의미 있어

지난 6월 30일 1차 출국에 이어 7월 15일에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위해 2차로 출국했던 72명의 선교단원들이 은혜 가운데 성회를 마치고 8월 8일 귀국했다.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는 94년 전쟁 후 르완다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본보가 기획하고, 지난 1년간 준비한 끝에 많은 한인 성도들의 후원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번 성회를 통해 동, 중앙아프리카 전역에 선교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키갈리 스타디움 집회의 강사로 설교했던 김의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한국 선교 역사상 한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합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으며, "르완다 전국 교회가 연합으로 원주민교회 스스로가 준비하고 추진한 대성회라는 점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현지 교계 지도자들이 평가했다.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에는 미주 지역에서 29명, 한국 18명, 영국 유학생 25명 등 72명의 단기 선교단원이 참석했다. 단기 선교단원들은 대중집회 설교, 지도자 세미나 강사, 찬양팀, 노방 전도단, 중보기도 등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이번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의 일정별 사역은 다음과 같다.

선교단 활동 일정

◆ 6월 30일: 1차 팀 출국
◆ 7월 5일 - 7월 6일: 운영위원 영성훈련(김평육 선교사)
◆ 7월 9일 - 7월 12일: 피그미촌 방문 및 피그미 선교학교 개교(미주팀)

◆ 7월 11일 - 7월 13일: 우간다 선교부 어린이 선교집회(영국 청지기팀)
◆ 7월 9일 - 7월 15일: 르완다 전국 구국기도회(르완다 전국 교회 연합)
◆ 7월 18일: 한국, 영국, 미국 선교팀 르완다에 집결
◆ 7월 19일 - 7월 22일: 르완다 11개 프리팩처 복음화 대성회 지도자 세미나(3천 명), 대중 집회(10만 명)
◆ 7월 23일 - 7월 27일(4박 5일): 키갈리 교계지도자 세미나 (1천 명, 여성, 목회자, 교사)
◆ 7월 27일 - 7월 29일: 키갈리 스타디움 집회(1만 5천 명)
◆ 8월 1일 - 8월 3일: 콩고 난민촌 선교집회(1만 6천 콩고 난민 대상/지도자 세미나 200명)

기도로 이루어진 집회

"이번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르완다의 전국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이었으며, 둘째는, 집회를 인도할 많은 단기 선교단원(설교자와 찬양팀)이 필요했으며, 셋째는, 엄청난 선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라는 김평육 발행인은 "소수의 중보기도 회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도움으로 세 가지의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마무리할 수 있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르완다에 남긴 귀한 선물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에 참석했던 단기 선교단원들은 르완다에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르완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선물을 전달했다.

다음은 르완다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했던 송별회 석상에서 현지인들에게 발표 또는 전달한 선물 내용.

◆ 지미화 집사(살리나스 한인장로교회): 키갈리 교회에 건축비 보조 ◆ 광주 화정교회(김정하 목사): 무감바지 피그미촌에 염소 50마리, 무타라 교회 지붕 공사 지원(2천 달러), 키갈리 신학교 건축(4만 5천 달러) ◆ 김현덕 교수, 크리스 포먼 장로: 르완다 청년(프랭크) 미국 유학 초청 ◆ 민명숙: 기생이 피그미촌에 염소 80마리, 매년 중·고등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지원 ◆ 박정자: 염소 6마리 ◆백봉기 집사: 중·고등학생 장학기금 1만 달러 ◆ 김의환 목사: 매년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에 2명의 유학생 전액 장학 초청 ◆GCM(콜로라도 평강교회-김평덕 목사): 의료장비 및 약품 지원

키갈리에 신학교 건축

김평육 발행인은 "이번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계기로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에 이어 〈크리스찬 라이프〉의 사역이 부룬디와 콩고 지역으로 확대됐다" 하며 독자들의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성회에 참석했던 부룬디, 콩고 교계 지도자들이 부룬디와 콩고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대성회를 열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8일 귀국했던 김평육 발행인은 오는 9월 9일 르완다 신학교 건축문제로 다시 르완다로 떠난다. 이번 방문 기간에는 Park's Batwa Development Program의 피그미촌 개발사업의 점검과 광주 화정교회 후원으로 추진되는 르완다 신학교 건축(1차 예산 4만 5천 달러)을 시작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르완다 전국 106개 지역에서 열린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모습(루행게리 마을 어린이 선교대회)

르완다 전국 11개 프리팩처에서 교사 훈련(2500명)

르완다 전국 106개 커뮨에서 열린 어린이 선교대회(8만–10만 명 참석)

단기선교단 훈련

할렐루야 축구단 경기 응원

2002 단기선교단

2002 르완다 어린이 선교대회

2002년 사역 요약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마치자 콩고와 부룬디에서 목회자들이 찾아와 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2002년에는 "하나님의 기쁨, Joy of the God"이라는 주제로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와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콩고를 포함하는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2002년의 복음화 대회를 위해 할렐루야 축구단을 아프리카로 초대하였다. 할렐루야 축구단이 K-2리그에 속해 있어, 한국 축구협회의 공식 공문을 받아 국제 친선경기로 준비하였다. 2002 한 · 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할렐루야 축구단의 경기가 현지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인파가 경기장을 메웠다.

2002년에는 대회의 운영 경비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해야만 했다. 르완다의 어린이들을 위해 15만 장의 티셔츠와 1만 권의 성경을 마련하여 컨테이너로 수송했다.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소녀 합창단"(단장 노형건)은 르완다어로 찬양을 녹음하고, 카세트테이프 5천 개를 제작해서 르완다로 수송했다. 현지에서 의복을 생산하기 위한 옷감 원단이 40피트 컨테이너 2개로 수송되었다.

"2003년 여성 치유 사역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사역 준비팀이 2002년 아프리카 사역에 참가했다.

2002년

1월 6일 – 21일: 아프리카 사역(제17차 현지 사역)

- 콩고 니라공고(Nyiragongo) 화산 폭발 현장 구호 사역
- 우간다, 르완다, 콩고(고마, 부카부) 방문, 할렐루야 축구단 경기를 위한 축구협회 방문 및 경기장 사전 답사

1월 25일 – 27일: 선교, 찬양대부흥회[새크라멘토 한인침례교회(이광희 목사)]

- 황국명 목사, 노형건(바리톤), 노성혜(소프라노), 김유진

2월 2일: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준비 기도회(북가주 금식기도원)

2월 8일 – 9일: 찬양율동 선교의 밤(크리스천 찬양율동 선교학원, 대표 김경순 사모)

- 2월 8일(금): 빌라델비아 침례교회(이용재 목사)
- 2월 9일(토): 살리나스 한인장로교회(한일경 목사)

3월: 남가주 지부 윤정 간사 부임(유연희 간사 사임)

4월: 아프리카 사역(제18차 현지 사역)

- 콩고 고마 지역 구제 사역 및 현지 준비팀 구성
- 콩고 부카부시 현지 준비위원 구성
- 르완다, 우간다 센터 사역 및 현지 준비팀 구성

1 – 6월: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준비(하나님의 기쁨)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단 모집과 물품 수집〉

- 르완다어 성경 보내기 운동(1만 권)
- 옷감 원단, 티셔츠, 학용품 등(40피트 컨테이너 3개 수송)
- 르완다 어린이 찬양집 "for God so loved the world" 카세트테이프 출반(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콰이어)

- 단기 선교단원 모집

6월 23일(주일): 2002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파송예배(산호세제일교회)

- 선교단원 102명(북가주 31명, 남가주 12명, 동부 지역 15명, 한국 42명)

6월 30일 – 8월 15일: 아프리카 사역(제19차 현지 사역)

- 7월 10일 – 8월 4일: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및 중앙아프리카 복음화대회"
  - 7월 10일 – 14일: 우간다 엔젤스가든 여름성경학교
  - 7월 17일 – 20일: 르완다 전국 현지인 교사 훈련(12개 지역, 2,500명),
  - 7월 22일 – 25일: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전국 106개 커뮨, 8만–10만 명)
  - 7월 29일 – 8월 4일: 콩고 부카부, 부룬디 무줌부라 집회 (세미나 1천 명, 청소년·어린이 선교대회 2만 2천 명)
- 할렐루야 축구단(28명): 우간다, 르완다, 콩고 국가 대표팀과 프로 상위팀과 국제 친선경기 (우간다 3경기, 르완다 3경기, 콩고 부카부 2경기, 15만 명 이상 관중 동원)
- 르완다 키갈리 센터 고등학교 건축 기공식

8월 23일 – 25일: "아프리카 선교단 보고대회" (오페라 캘리포니아 초청– 선교 뮤지컬 "예수" 공연)

- 8월 23일(금): 몬트레이 영락교회
- 8월 24일(토): 새누리침례교회
- 8월 25일(주일): 산호세제일교회

8월: 엄명주 선교사, 아포로네리 목사 탄자니아로 파송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프로젝트 준비)

- 콩고 고마, 부카부에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센터 설립(카툼비 목사)

10월 24일: "2003 르완다 전국 여성 치유대회" 비전의 나눔(세계선교침례교회)

11월: 20피트 컨테이너(2개) 수송(르완다 피그미촌, 우간다 카세세 난민촌)

11월: 김평육 선교사 아프리카 사역(제20차 현지 사역)

- 린다 홍 선교사 파송(르완다 키갈리)

12월 7일: 〈크리스찬 라이프〉 창간 10주년 및 출판기념회(갈릴리 연합감리교회)

- 《웃기시는 성령님!》 쿰란에서 재출판
- 《불타는 떨기나무》(쿰란)
- 《무중구 실링기》(쿰란)

12월 25일 – 2003년 2월: 한국 사역

- 아프리카 스태프진 한국 방문(조나스 목사, 만지다니. 뉴비전 신문기자)
- 2003년 아프리카 여성대회 선교단 모집

〈출판〉

《불타는 떨기나무》(쿰란, 2002. 9.30)

《무중구 실링기》(쿰란, 2002. 12.10)

《웃기시는 성령님!》(쿰란, 재출판, 2002.12.31)

〈건축〉

- 르완다 키갈리 센터 고등학교(예배당 1개, 교실 3개) 기공식

(현재 위치: Gacuriro Cell, Kinynya Sector, Gasabo District, Kigali)

© 크리스찬 라이프 2002. 5. 24

2002 아프리카 선교 진행 준비

2002 르완다 어린이 선교대회 후원을 위한 제2회 사랑의 찬양제를 마치고
글 / 노형건 단장(오페라 캘리포니아)

지난 2002년 1월 26일 북가주 새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에서 열린 "2002년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를 위한 선교, 찬양 대부흥성회에 저희 부부는 특별찬양순서를 맡아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르완다의 어린이와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크라멘토를 향해 가면서 저희 부부는 솔직히 15만 르완다 어린이 선교대회라기보다는 언제나처럼 이번 찬양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첫날 순서 중 "2001년 르완다 집회" 비디오 상영 후, 세 자녀를 둔 북가주에 살고 있는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희 부부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간증하는 그 여집사님의 음성을 통해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저는 김평육 선교사님께 "저희 Opera CA Youth Choir가 르완다 어린이를 향한 찬양 음반을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 날 "5월 18일 15만 르완다 어린이 선교대회를 돕기 위한 찬양의 밤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Opera CA Youth Choir 제자들과 특히 사랑하는 애니 전과 함께 'For God So Loved The World'라는 타이틀의 르완다 어린이를 위한 음반을 완성하였습니다. 또 큰 은혜 속에서 나성한인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인 가운데 5월 18일(토) 오후 7시에 제2회 사랑의 찬양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CMF Ministry(대표 김철민 장로)를 중심으로 많은 동역자를 불러 모으셔서, 부름 받은 이들의 마음을 모두 한결같게 하셨고, 큰 감동과 은혜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2개월 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펼쳐질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15만 르완다 어린이 영혼을 향해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순간만을 생각합니다. 음반을 제작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제2회 사랑의 찬양제를 준비하며 기금 마련 등으로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변해, 이제 2개월 후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전해질 그 순간을 상상하며 다시 한 번 온몸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 크리스챤 라이프 2002. 6. 14

2002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파송예배 드려

산호세제일교회(신광철 목사)에서 6월 23일(주일) 오후 5시에

오는 6월 23일(주일) 오후 5시 산호세제일교회(신광철 목사)에서 CLWMF의 100여 명의 단기선교단원(단장 김현덕 교수)을 파송하는 파송예배를 드린다. 르완다 전국에서 열리는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를 통해 굶주리고 헐벗은 15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전 중인 콩고와 부룬디를 포함하여 르완다와 탄자니아에서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중앙아프리카 대성회"에 참여하여 그들을 섬기게 된다.

김평육 목사(르완다 선교사)는 "이번 여름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기 위해 할렐루야 축구단(이영무 목사)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단기선교단원들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아프리카행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셔서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기도를 부탁했다.

〈2002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명단〉

▶북가주 지역: 산호세 영락교회(김현중, 안선경, 최연주, 김연란, 김한나, 김창건),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백봉기, 백리리, 이상희, 백녹담), 산호세 제일교회(정태용 목사, 이옥희, Michelle Lee), 상항구세군교회(김승해 사관, 김청향 사관, Claude, 장은옥, 진소현, 빅터김), 골든게이트 침례신학교(이용주), 살리나스 한인장로교회(민진희),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지미화), 상항중앙장로교회(신옥현, Andrew Lee), 한빛성서교회(이지영), 이스트베이 침례교회(김민정), 미국인교회(크리스포먼, 김현덕, 사이먼포먼)

▶남가주 지역: 남가주 사랑의교회(박성애, 차영숙), 남가주 웰로우쉽교회(이경훈), 충현선교교회(솔로몬리), 인랜트교회(이명주), 유니온교회(김경순, 김창식 목사), 남가주선교회(김수남 목사), 나성영락교회(로날드 정), 다니엘리, 개인별(한스장, 엄명주), 삼성장로교회(린다홍)

▶미국 동부 지역: 새힘교회(샘박, 문지은, 문지혜, 박용범 장로, 박영옥 권사), 뉴욕성서교회(폴강, 갤빈윤, 김진경, 에리카강, 폴최), 한정례 목사, CCC 찬양비전(박종술)

▶한국: 대학생(김경희 교수, 오영임, 김옥주, 김미희, 최미선, 조하나, 유민숙, 최미랑, 이인영), 광주 화정교회(5명), 할렐루야 축구단(28명) 등 102명

***엄명주 단원은 빅토리아 섬 원주민을 위한 의료선교사로 파송.
연락처 408-345-1727

ⓒ 크리스챤 라이프 2002. 8. 30

2002 아프리카 선교 보고(1)

[우간다 선교대회 – 어린이 성경학교, 여성 세미나]
숙박시설 등 환경이 열악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

우간다에서는 1천 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성경학교'와 2백 명의 빌리지 여성들을 위한 여성 세미나가 열렸다. 미국과 한국에서 1차로 우간다에 도착한 단원들은 우간다에 도착하자마자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과 여성 사역을 시작했다.

"크리스챤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우간다 사역지는 우간다의 수도 외곽으로 캄팔라에서 10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다. 단원들은 건축 중인 교실의 시멘트 바닥에서 침식을 하는 불편이 많았지만 아프리카 환경에 적응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우간다 선교부가 설립된 NSANGI 지역의 4개 초등학교 1천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3일간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우간다의 7월은 학교가 수업 중이었으므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 수 없는 실정이었지만, 4개의 초등학교에서 3일간 성경학교를 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우간다 선교부 성전에서 열린 여성 세미나에는 200명의 빌리지 여성들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는데, 김창식 목사, 김경순 사모, 린다 홍, 케런노 전도사가 담당했다.

"우간다에 있을 때 잠자리와 식사, 그리고 화장실 등 너무 불편해서 처음에는 불평도 많았지만 이젠 우간다가 가장 그리운 곳이 되었습니다"라며 단기선교단원들이 우간다 선교활동을 그리워한다.

준비기간 동안 서로 만난 적이 없었던 단원들은 우간다에서 팀워크를 다지는 동안 산호세팀, 남가주팀, 뉴욕팀, 한국팀으로 나뉘어 각각 사역을 감당하며 팀워크를 다져나갔다.

특히 우간다에 체류하는 동안 어린이 성경학교와 여성 세미나를 직접 지도함으로 현장경험을 쌓아 르완다 교사훈련과 어린이 선교대회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어린이 성경학교와 여성 세미나를 마치고 선교단원들이 르완다로 떠난 후 우간다에 입국한 할렐루야 축구단은 어린이 축구교실과 국제 친선경기로 선교의 열기를 더했다.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 우간다에서도 축구 열기가 대단한 기간이어서 할렐루야 축구단의 우간다 입국 소식은 각 언론사가 관심을 갖고 보도함으로 선교의 열기가 더했다.

우간다에는 현재 15가정 정도의 선교사와 10여 가정의 한인 사업가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할렐루야 축구단의 경기를 통해 우간다에 체류하는 한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할렐루야 축구단을 응원하기도 했다.

"크리스챤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재 우간다에 기술, 신

학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현재까지는 르완다 선교에 집중되어 있어 공사 진척은 미흡한 상태).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된 성전과 8동의 강의실을 이용하여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내년 여름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3년과 2004년에는 본격적인 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2. 9. 6

2002 아프리카 선교 보고(2)

[2002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12개 지역에서 2,500명의 원주민 교사훈련
106개 지방에서 10만 명 어린이 성경학교

"2002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102명의 단원들은 이번 여름 르완다 전국에서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선교단 훈련

선교단원들은 아프리카로 출국하기 전 수개월간 원주민 교사훈련을 위한 교재개발과 재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교재가 선교단 자체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영어 복음성가가 르완다 말로 번역되어 카세트로 출반되어 5천 개의 카세트테이프가 르완다에 보급되었다.

단기 선교단원들은 각자 교사훈련용 물품들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다.

원주민 교사훈련

선교단원들은 10만 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2,500명의 르완다 원주민 교사들을 훈련했다.

르완다에 도착한 선교단원들은 12개 프리팩처에서 3-5명 정도의 소수 단원들이 200명가량의 교사를 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

"단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골고루 사용하시는 손길을 체험하였으며, 원주민 교사들이 열심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

2,500명의 원주민 교사들이 르완다 전국의 106개 커뮨으로 흩어져 3일간의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최했는데,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린이 성경학교는 원주민 교사들이 진행했으며, 단기선교단원들이 매일 1~2곳의 성경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갔다.

복음성가 카세트테이프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제작된 카세트테이프가 르완다 교사들과 어린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르완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성가가 보급되어 전국의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성경책과 티셔츠 나누기

15만 벌의 티셔츠와 1만 권의 성경책이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보급되었다. 세관 통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교대회 마지막 날 통관되어 르완다 전국 어린이들과 피그미촌과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보급되었다. 북가주 지역에서 마련한 1만 권의 성경책도 르완다 어린이들의 손에 들려졌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2. 9. 13

2002 아프리카 선교 보고(3)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콩고에서 동시에 개최
20만 명이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 체험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는 르완다, 콩고, 부룬디, 탄자니아의 난민촌에서 열렸다.

르완다의 난민 어린이 선교대회

르완다에서는 비윰바에 위치한 난민촌 선교집회로 열렸다. 선교단원들은 콩고에서 르완다로 피난한 1만 6천 명의 콩고 난민들이 거주하는 난민촌을 찾아가 어린이 선교대회와 전도집회로 난민촌 집회를 진행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모이는 난민촌 집회에서 무섭고 당황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탄자니아의 난민촌 지도자 세미나

탄자니아의 응가라 지역에서는 20만 명의 부룬디 난민들이 거주하는 난민촌에서 선교집회가 열렸는데, 200명의 난민촌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난민들을 지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부룬디 축구경기 및 대형집회 취소
지도자 세미나에서 성령의 역사 체험

부룬디에서는 스타디움에서 할렐루야 축구단의 축구경기와 대형전도 집회가 준비되었는데, 부룬디의 내전이 확산됨에 따라 대형집회는 취소되고 목회자 및 여성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승해 사관과 김청향 사관, 지미화 집사는 내전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부룬디의 무줌부라를 찾아가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콩고의 부카부 선교대회

2002년 여름,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의 절정은 콩고의 부카부에서 일어났다. 1998년부터 계속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콩고의 부카부시, 외국인의 발걸음이 없는 죽음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 속에 복음화 대성회가 치뤄졌다.

선교단 일행이 콩고의 국경에 도착했을 때, 부카부 시장과 유지들이 국경까지 마중을 나와 선교단을 반겨 주었으며, 사우스 키부주의 주지사가 선교단을 위한 특별 만찬을 베풀기도 했다.

부카부에서는 목회자, 전도사, 여성 지도자, 주일학교 교사, 대학

생 등 1,200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할렐루야 축구단의 두 차례 경기와 3일간의 전도 집회가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할렐루야 축구단의 경기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으며, 스타디움 집회에도 연일 2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할렐루야 축구단의 경기와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에는 전체적으로 2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2. 9. 20

2002 아프리카 선교 보고(4)

아프리카 선교여행은 '나'를 찾는 시간…
글 / 이영무 감독(할렐루야 축구단)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곳은 우리 축구단에게 처음이었다. 르완다,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부룬디 5개국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해온 미국 "크리스챤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 김평육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단기선교사와 축구단 모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간 선교 여행이었다.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찾은 나라였지만, 정작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한 그곳은 무지와 가난, 무질서의 땅이었다.

첫날 간 곳은 우간다였다. 월드컵 4강의 한국을 TV로 본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을 외치며 우리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린이 교사 세미나, 여름성경학교, 목회자 세미나, 여성 세미나 등을 열었고, 우간다에서 1위를 달리는 빌라팀, 국가 대표팀과 경기를 했다. 또 축구교실을 통해 3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었다.

우간다에서는 학교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초등학교 어린이 10여 명이 운동장에서 맨발로 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차는 공은 다름 아닌 소오줌통. 신발도 없이 볼도 없이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니 어렸을 때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다. 나도 신발을 벗었다.

누런 코를 빨아먹는 아이, 연필과 노트는 있는데 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넣고 다니는 아이, 몽당연필을 면도칼로 깎아주니 연필을 쪽쪽 빨아먹는 아이… 그들의 모습에서 40년 전 나의 모습을 보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일주일 후 르완다로 이동했다. 르완다는 우간다보다 문화 혜택이 없는 지역이었고, 외부와의 차단, 사회주의 국가라는 성격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와 달랐다. 그러나 차를 따라다니며 "Give me"를 계속 외쳐대는 아이들,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걸하는 아이들은 불과 몇십 년 전 미군차를 따라다니며 "Give me chocolate"을 외치던 한국 아이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신학교 기공예배와 키갈리 교회 집회에 참석했고 국가대표팀, 부타레팀과 게임했다. 피그미촌,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미국에서 보내준 티셔츠 10만 장을 나눠주자 새 옷을 선물 받은 아이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특히 경기를 하면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관람, 자기편이 골을 넣으면 모두가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직은 경기 매

너와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기뻐하는 모습에 우리도 함께 기뻐했다.

르완다에서 4일을 보낸 후 콩고로 향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시간 동안 달려 도착한 부카부시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주지사, 시장,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우리를 환영했다. 이유인즉 작년까지 내전이어서 외국인들이 오지 못했는데, 한국인이 오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이다. 지배국이었던 벨기에 팀이 몇 년 전에 온 것 말고는 외국인이 오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 오는 길의 피곤함이 확 풀릴 정도였다.

축구 열기는 콩고에서 더욱 뜨거웠다. 경기장 밖에는 남녀노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이미 1만여 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2만여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천 원도 안 되는 입장료가 없어서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염소를 몰고 온 아이, 껌과 사탕을 팔다가 온 아이들은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물건을 맡겨 두고 축구를 할 정도로 그곳의 축구 열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수들이 한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것이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을 전하러 온 선교사니까 1시간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경기 후반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 문을 열어두었고, 덕분에(?) 운동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골대 옆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게임이 끝난 후에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사인해 주느라 1시간 가까이 운동장을 떠나지 못했다.

그동안 콩고는 몇몇 교회에서 "축구는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금지해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할렐루야 팀은 경기 전 십자가 모양으로 기도하고, 골 넣고 기도하고, 하프타임에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닌가!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대편 선수가 넘어지면 손을 잡아 끌어주고 상대편이 고의로 태클을 걸어도 웃으면서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교회마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여 콩고에서도 할렐루야 축구팀을 창단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유니폼과 축구공을 주고 왔다. 그동안 북한만 알고 있었는데, 남한이 정말 좋은 나라임을 이제 알았다고 말하는 콩고 사람들, 그들과 헤어져 돌아올 땐 눈물이 날 정도로 아쉬웠다.

아프리카 땅은 여전히 가난과 기근, 질병으로 굶주린 땅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도 복음으로 인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집회를 열면 먼 거리에서도 1만여 명이 몰려들었고,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떠도는 양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그 땅,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다.

이번 아프리카 선교여행은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잊고 지냈던

40년 전의 나… 그 땅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못살던 시절의 내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선진국이 되어 이렇게 도움을 주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국가, 조상, 부모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떠나기 전 "왜 아프리카냐? 그곳은 더위, 질병, 가난으로 고생하는 곳인데…"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왜 할렐루야 축구팀을 아프리카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빵도, 복음도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었고, 세계 선교를 위해 월드컵 4강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팀을 통해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됨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40여 개의 선교사 가정 100여 명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해발 1,300m의 고지대라 숨이 차 게임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고지대 훈련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물이 귀하고 화장실이 불편했으며, 부룬디는 내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내내 감사함과 기쁨으로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선수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크리스찬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 김평육 선교사님과 명성교회, 인천순복음교회, 노원순복음교회, 화평교회 목사님, 국내의 많은 기도 후원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3 아프리카 여성 치유 사역대회

내전으로 상처받은 콩고 여성 치유사역대회

김옥주 선교사가 피그미촌을 방문하여 의복을 나누고 있다.

르완다에 도착한 선교팀의 준비기도회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한 기도

아프리카 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여성들을 위한 야외집회

르완다 여성 대회 단기선교단 환영행사(키갈리 도착)

여성 지도자 치유 세미나

여성 사역팀 환영식에서 찬양

2003년 사역 요약

"풍성한 삶"(Abundant Life)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2003 여성 치유 사역대회"가 우간다, 르완다, 콩고, 부룬디, 탄자니아에서 열렸다. 우간다에서는 카세세, 문디부조의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한 치유 세미나와 난민촌 어린이 집회를 열었다. 르완다에서는 12개 지역의 여성 대표들을 치유 사역자로 교육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르완다 전국에서 여성집회를 개최하였다. 콩고 내전의 최대 피해 지역인 남·북 키부주의 수도인 부카부와 고마에서 여성 치유 대회와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부룬디는 내전 중이었지만 소규모 팀이 군인들의 경호 아래 사역을 진행하였다. 탄자니아에서는 무완자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대회가 열렸다.

CTS TV에서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하기 위해 제작팀을 파견했다. 제작팀은 르완다, 우간다, 콩고와 탄자니아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 다큐 4부작을 제작하여 7월부터 9월까지 방송했다. 2003년에는 피그미촌 선교가 더욱 크게 활성화되었다. 르완다에서 양성한 현지 사역자들을 피그미촌으로 파견하여 피그미촌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루행게리, 기생이 지역에 설립되었던 피그미 기술학교는 2008년 현지 지방정부에 양도하고, 찬구구에 설립되었던 피그미촌 사역은 오늘의 찬구구 센터로 발전하였다.

2003년

1월 1일 – 2월 10일: 한국 사역

- 한국 지부 설립(김미희 간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 김옥주, 박순주 선교사 파송(르완다)

2월 14일 – 15일: 사랑의 염소 보내기 사랑음악회

(노형건, 노성혜, 사랑여성합창단, 산호세 남성중창단)

- 2월 14일: 새크라멘토 지역 연합집회(새크라멘토 한인침례교회, 이광희 목사)
- 2월 15일: 산호세 지역 연합집회(산호세 하나님의 교회, 김영련 목사)

2월 20일 – 4월 10일: 아프리카 사역(제21차 현지 사역)

- 키갈리 고등학교 건물(교실 3개, 채플 1개) 착공
- CTS TV 다큐멘터리 제작팀 현지촬영

(이준구 피디, 양동수 감독, 김기란 작가, 40일간)

- 르완다,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현지 사역지 방문

3월 – 6월: 2003년 단기 선교단 훈련(매주 토요일, 준비위원장: 백봉기)

5월: 서해남 목사 크리스찬 라이프 편집국장 부임

5월 30일 – 6월 1일: 최명자 사모 초청 선교후원 집회

- 5월 30일: 산부르노 목양장로교회(박용식 목사)
- 5월 31일: 생명의강 교회(임명순 목사)
- 6월 1일: 한마음 침례교회(이태경 목사)

6월 21일: 2003 아프리카 선교단 파송 음악회(산호세 하나님의 교회)

(출연진: 노형건, 노성혜, 김낙형 교수, 최명자 사모, 산호세 자선합창단)

6월 25일 – 8월 7일: 아프리카 사역(제22차 현지 사역)

- 단기선교단 활동(선교단 42명, 케냐 신학생 17명)(6월 29일 – 8월 3일)
- 6월 29일 – 7월 3일: 우간다 사역
  - 여성 사역팀 – 우간다 카세세 지역 전쟁 미망인(200명)

    (*우간다 산업자원부장관 동행, 의류 컨테이너를 우간다 국회 통해 전달)
  - 청년 사역팀(48명, 현지인 교사 협력) – 우간다 상기센터 어린이 사역

    (1천 명), Bundibujo 어린이 전도대회(15개 학교 8천 명, 난민촌 3천 명)
- 7월 4일 – 7월 11일: 여성사역팀 – 르완다 전국 12개 지역 여성 치유 세미나(1천 명)
- 7월 11일 – 7월 13일: 여성사역팀 – 르완다 전국 12개 지역 여성대회

  (1만 명 참석 추산)
  - 르완다 전국 12개 여성회 조직하고 옷감 2컨테이너(40피트) 기증
  - 피그미촌 의류 1컨테이너 전달
  - 사랑의 염소 나누기
- 7월 7일 – 7월 20일: 청년사역팀 – 콩고 부카부 교사훈련(300명), 부카부 어린이, 청소년 집회(50개 교회, 2만 명 참가)
- 7월 14일 – 7월 20일: 여성사역팀 – 콩고(고마시, 부카부시) 여성 치유 세미나(800명)
- 7월 21일 – 8월 3일: 청년사역팀– 콩고 이주이 섬, 탄자니아 무완자 사역

7월 28일 – 9월 6일: CTS TV 선교다큐 "아프리카에 심는 예수의 사랑" 4부작 방송

- 7월 28일: 르완다 – 사랑의 발원지 르완다
- 8월 11일: 우간다 – 검은 대륙을 깨우는 믿음

- 8월 23일: 탄자니아 – 낙원을 만드는 사람들
- 9월 6일: 콩고 – 평화의 땅을 기원하며

11월: 우간다 구호품 컨테이너(40피트) 수송

11월 19일: 2004년 아프리카 복음화대회 후원의 밤(쿠퍼티노 커뮤니티 센터)

11월 20일 – 12월 6일: 한국 사역

- 복음화대회 설명회와 만찬 기도회

12월 17일 – 12월 20일: 캘리포니아(남·북가주) 지역에서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설명회

- CMF가정선교원(김철민 장로), 오페라 캘리포니아(단장 노형건) 등 기관 참여

〈건축〉

- 르완다 키갈리 센터 고등학교(예배당 1개, 교실 3개) 착공
- 우간다 Nsangi 센터 고아원 방갈로 5개 건축

© 크리스챤 라이프 2003. 6. 20

아프리카 선교단의 힘찬 발걸음!

글 / 김평육 발행인

지난 1년 동안 준비했던 2003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원들이 이번 수요일, 6월 25일에 출국을 합니다. 크리스챤 라이프 선교단원들은 우간다, 르완다, 콩고 등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을 찾아가 전쟁미망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성 치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가정 사역자, 간호원 등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이 선교단원으로 자원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여성 사역팀은 우간다에 도착하여 지난 1996년에 발생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콩고 접경 지역인 '카세세'를 찾아가 200명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 사역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부대통령이었던 우간다 여성 지도자가 참가하고, 현재의 부대통령이 함께 참가하겠다고 했다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르완다에서는 열두 개 도에서 1천 명의 여성 지도자를 위한 상담 세미나가 있고, 여성들을 위한 치유성회가 열립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전쟁미망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콩고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지난 4년 동안 2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들이 죽어 간 땅입니다. 선교팀은 콩고의 동부, 르완다 국경 도시인 부카부와 고마에서 여성 치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 400명씩 전체 800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그들이 먼저 치유되고, 나아가 전쟁미망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여성 사역팀은 한인 성도들이 마련해 준 사랑의 염소를 르완다 전쟁미망인들에게 전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2003년의 사역이 여성 치유 사역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린이 사

역이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팀의 지원이 저조하였습니다. 14살 꼬마까지 합한 어린이 사역팀의 숫자가 열두 명이고, 열두 명의 사역팀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큽니다.

우간다에 도착한 어린이 사역팀은 우간다와 콩고 국경마을인 분디부조를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난민들이 살아가는 난민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간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간다 사람이면서도 반군들이 무서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5만 명의 난민들 중 2-3만 명이 어린이들입니다.

열두 명의 어린이 사역팀이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4일간의 성경학교를 열어야 하니 난감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케냐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 학생 17명이 선교팀에 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간다에 있는 저희 선교부 초등학교 교사 전원이 동원되고, 난민촌 근처에 있는 우간다 교회 교사들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니, 100여 명의 선교팀이 함께하는 우간다의 난민촌 어린이 선교대회도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간다 어린이 사역을 마치면, 한국팀과 케냐팀은 다시 콩고로 들어가 부카부에서 어린이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첫 주간에는 300명의 현지교사를 훈련하고, 다음 주간에는 부카부의 50개 장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엽니다. 4만 명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어린이 선교대회입니다.

어제 미국 신문에 콩고의 내전 소식이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내전에 가담하여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팀은 그렇게 참혹한 땅에 살아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합숙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세의 교사들로부터 14살의 어린이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성 사역팀과 어린이 사역팀 선교단원들이 모여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단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번 여름의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여 가슴이 설렙니다.

2003 아프리카 선교단은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크리스찬 라이프 2002. 11. 21

르완다 피그미촌 선교

글 / 김옥주 선교사(르완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이곳 르완다로 와서 김평육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김옥주 선교사입니다. 처음 선교지로의 발디딤이라 사역과 또 현지 문화와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듯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두 곳의 피그미 사역지에 옷을 전달해 주러 갔었는데, 그 사진들도 함께 동봉하고 싶어 보고를 미루었습니다. 7월에 도착했던 컨테이너가 2주 전에나 풀려서 속상했지만, 피그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기쁨에 속상함도 잠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피그미 선교사는 총 6명이고, 두 팀으로 나누어져 기생이(Gisenyi) 지역과 찬구구(Cyangugu) 지역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지역 담당 선교사는

1. NZOVU Felix
2. RWIGERAGEZA Andrew
3. GIFENYEGE Jonas

찬구구 지역 담당 선교사는
1. Pastor, NSENGIYUMVA Samuel
2. BAZARAMBA
3. ANSERME입니다.

기생이 지역은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차로 약 3시간가량 가야 하는 곳이고, 주 도로에서 비포장 도로로 1시간가량을 더 가야 피그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해서 트럭이나 사륜구동 자동차만이 들어갈 수 있지요. 피그미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에는 콩고와 접해 있는 르완다에서 가장 높은 카리심비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피그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래 영문으로 된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Gisenyi District authority와 함께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가져간 옷을 지역 담당사무실에 옮겼습니다. 피그미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것은 지역 공무원들과 우리 피그미 선교사들이 함께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말입니다. 그런 후 옷 몇 박스를 가지고, 피그미 선교사들이 좀 더 자주 가는 피그미 마을을 선정해서 직접 나눠 주기로 하였습니다.

쭉 모인 사람들…찬양도 함께하고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나눠주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그들은 옷의 모양과 색깔, 개수로 인해 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나눠줄 때는 떼로 모여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훔쳐가듯 가져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바지 한 벌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싸우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속상하더군요. 그들에게 저희가 가져간 옷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가져가는 물질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그미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입거나 쓰면 해어져 버릴 그런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교육할 그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아직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성실함과 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늘 이들을 위해 지치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그만두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창구구는 키갈리에서 6시간가량 가면 있는 콩고 부카부 접경 지역입니다. 가다가 정말 험준한 산림을 지나야 하는데…저의 운전으로 꼬박 6시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창구구에서는 저희 사역지를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한 지역은 저희가 파송한 피그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지역은 한 신실한 크리스천 자매가 저희와 동역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저희 피그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먼저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지역의 당국자와 함께하기로 하고, 창고에 저희들이 가져간 옷을 보관한 뒤, 몇 박스의 옷을 가지고 피그미 마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내내 키부 호수가 보였는데, 그 큰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피그미들이라고 하더군요. 그곳

엔 정말 많은 피그미들이 밀집해 있다고 지역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 사람들은 기생이(Gisenyi)에 고립되어 사는 피그미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많이 혼합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피그미들의 사정이 많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기생이 피그미들과는 달리 많이 온순하더군요. 멀리 산속에서 소문을 듣고 어렵게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구요. 참으로 저희가 가져간 옷들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옷을 전해 주면서 오는 허탈감과 속상함보다 복음을 전해 주면서 오는 뿌듯함과 만족함을 우리 피그미 선교사들이 누리길 기도합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두 번째 사역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길이 너무나 험해서 저희 크리스찬 라이프 자가용이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부딪쳐 가면서 간신히 그 지역 담당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니 오히려 너무 감사해 하면서 적극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도 옷상자들을 내려놓고, 또다시 몇 박스를 가지고 피그미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함께한 저희 트럭도 못 올라갈 정도로 너무나 험준한 산골에 있어 박스를 들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차분하게 옷을 나눠줄 수 있었고, 다 함께 기쁘게 찬양도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을 전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는 후원을 해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곳, 키갈리에 근접해 있는 저희의 오랜 동반자가 된 무감바지(Mugabazi)라는 곳의 피그미들에게도 옷을 곧 전해주려 합니다. 여기에는 파송된 피그미 선교사가 없지만, 기생이로 파송된 선교사 중 RWIGERAGEZA Andrew 선교사가 이곳 출신입니다. 아래에는 더 자세한 피그미 선교사들의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피그미 선교사들이 매달 리포트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서류작성이나 보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지 리포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그동안 선교사들이 제출한 자료로 저희 크리스찬 라이프 General Secretary인 조나스 목사님이 다시 정리를 했구요. 저희가 피그미 선교사들에게는 사역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의 서류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우리 피그미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진행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저희에게 알려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조만간 피그미 선교사들을 모아 사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우리 피그미 선교사들이 깨지고, 지금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묵묵한 지지와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충현 선교교회와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섭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 긷는 소녀

선교단 파송 안수

선교단 파송대회

각지 전도집회에 모인 인파

4개국 32개 지역 전도대회

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 콰이어 우간다 미라클센터 공연

우간다 나키부보 스타디움, 한인가정 200여 명이 축구 관람

할렐루야 축구단 경기 휴식 중 율동

32개 도시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탄자니아 루케레웨 섬)

2004년 사역 요약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는 2004년에는 더욱 큰 스케일의 복음화 대회를 준비했다. 르완다를 중심으로 전쟁 국가인 콩고와 부룬디, 그리고 우간다와 탄자니아 5개국 50개 도시의 복음화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가 임박하여 콩고에서 국지적인 내전이 발생하여 콩고를 제외한 4개국 32개 도시에서 어린이 선교대회와 세미나와 전도집회를 진행하였다.

2002년 아프리카에서 국제 친선경기로 호응을 받았던 할렐루야 축구단을 다시 초청하였다. 축구 경기가 열리기 전 CCC 찬양비전팀의 찬양집회는 스타디움 전도집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팀의 찬양집회로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는 축제로 진행되었다. 우간다 나키부보 스타디움에는 1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한 찬양축제가 열렸다.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의 열기는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열렸던 기도회와 선교음악회, 그리고 북가주의 쥬빌리센터에서 열린 성대한 파송대회는 북가주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가 하나가 되어 선교단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다.

큰 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현지의 준비는 현지 사역자들이 감당하면서 사역의 역량이 커져갔다.

2004년

1월 6일 – 2월 25일: 한국 사역

- 2월 21일: (한국)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설명회(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 이미경 선교사 우간다 파송(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2월 27일 – 29일: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준비 중보기도회"

- 2월 27일(금): 프리몬트 제일교회(주정인 목사)
- 2월 28일(토):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
- 2월 29일(주일): 새생명침례교회(이중직 목사)

3월 1일 – 3월 30일: 아프리카 사역(제23차 현지 사역)

-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준비

  (르완다,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부룬디 각 도시 방문)
- 우간다 상기(Nsangi) 센터 고아원 개원(25명 어린이 입주)

3월 – 6월: 단기선교단 훈련(매주 토요일 모임)

4월 2일 – 4일: 북가주 지역 연합 선교부흥회

(강사: 강승재 목사, 소강석 목사, 이광희 목사, 간증: 노신영, 이문희, 이재화)

- 새크라멘토 집회 강사: 강승재 목사(새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
- 산호세 연합집회 강사: 소강석 목사(산호세제일교회)
- 몬트레이 지역 연합집회 강사: 이광희 목사(살리나스 한인장로교회)

6월 5일(토): 선교단 파송 찬양대축제 준비위원회의 밤(서니베일 커뮤니티센터)

6월 27일: "2004 아프리카 선교단 파송 찬양 대축제"(북가주 지역 교회 연합)

- 장소: Jubilee Christian Center
- 출연: 오페라 캘리포니아, 사랑합창단, God's Image, 북가주 자선합창단

7월 3일 – 8월 5일: 아프리카 사역(제24차 현지 사역)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단기선교단 활동(340명)(주제: 예수의 증인)

- 7월 3일 – 7월 8일: 한인 대학생 선교대회(우간다 센터)
- 7월 12일 – 7월 23일: 어린이 선교단 선교활동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4개국 32개 지역 200개 초등학교 집회)
- 7월 26일–8월 6일: 지도자 세미나–르완다(12개 도시), 우간다(10개 도시), 탄자니아(9개 도시), 부룬디(무줌부라), 전체 8천 명 참가
  - 정부 지도자 새마을 운동 세미나
  - 목회자 부부 세미나
  - 여성 지도자 세미나
  - 청년 지도자 세미나

- CMF 가정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 7월 5일 – 7월 9일: 한인 선교사 부부 초청 세미나

    장소: 캄팔라 레젠시 호텔, 선교사 부부 16쌍, 32명 초청

    강사: 박수웅 장로, 김철민 장로, 김의환 총장, 이상남 목사
  - 원주민 목회자 부부 세미나

    장소: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센터, 4개국 목사 부부 80쌍, 160명 초청

    강사: 조수아 박 목사, 린다 홍
- 할렐루야 축구단(대표 이영무 목사), CCC 찬양비전(대표 박종술 목사)

- 7월 8일: 우간다 나키부보 스타디움(빌라, 프로 1위팀)
- 7월 10일: 우간다 나키부보 스타디움(우간다 국가대표팀)
- 7월 14일: 탄자니아 부코바 경기장(부코바 축구단)
- 7월 16일: 탄자니아 응가라 경기장(응가라 축구단)
- 7월 20일: 아마호로 스타디움(르완다 국가 대표팀)
- 7월 22일: 아마호로 스타디움(육군 대표팀)
- 7월 29일: 부룬디 국립경기장(국가대표팀, 게스트 스피커 피에르 쿠룬지자 목사가 2005년 대통령 당선, 2020년까지 집권함)

■ 오페라 캘리포니아(단장 노형건, 57명)

- 7월 5일 – 7월 17일: 우간다, 르완다 공연
- 7월 8일: 우간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센터 공연
- 7월 9일: 우간다 Nakivubo Stadium 공연 (어린이날 선포 – 50개 초등학교 1만 5천 명 참석)
- 7월 10일: Nile Hotel International Center 공연(1,000명 참석)
- 7월 11일: 캄팔라 Miracle Church 공연(6천 명 참석)
- 7월 13일 – 7월 15일: 르완다 3개 교회에서 공연(1만 명 참석)

10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제작 비전 발표

10월 20일 – 11월 10일: 한국 사역

■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 결과 발표

■ CTS TV 협찬으로 “2015 북가주 영적각성대회” 취재 보도하기로 결정

〈건축 사역〉

■ 키갈리 고등학교(예배당 1개, 교실 3개) 완공

■ 우간다 상기(Nsangi) 센터 신학교 강의실 4동 착공

© 크리스챤 라이프 2004. 3. 5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찬양과 중보기도의 밤’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5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프리카 복음화 대축제를 위하여 북가주 지역 연합 ‘찬양과 중보기도의 밤’이 열렸다.

황국명 목사(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진행된 중보기도회는 시종일관 은혜가 충만한 집회였다. 찬양과 중보기도의 밤은 “2004년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가 영적 전쟁이기에 기도의 후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다.

북가주 연합 중보기도회는 2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2월 27일(금)에는 프리몬트 제일교회(담임 주정인 목사), 2월 28일(토)에는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담임 김영련 목사), 그리고 2월 29일(일)에는 새생명침례교회(담임 이중직 목사)에서 있었다.

이번 중보기도회는 “2004 아프리카 대축제”를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거나 단기 선교사로 자원한 성도들의 모임이었기에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였다.

찬양으로 중보기도회를 인도한 황국명 목사는 3년간 김평육 선교사의 아프리카 선교를 찬양으로 후원하고 있다. 황 목사는 “아프

리카 선교가 김평육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메시지를 전하며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2003년 단기선교단원인 노신영 집사의 간증이 있었다. 노신영 집사는 "지난해 아프리카 단기 선교단으로 참가했지만 아프리카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노 집사는 "함께 단기선교로 떠난 단원들의 기도로 수술에 성공하고 후에 암이 재발했으나 자연적으로 완치가 되었다"며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통하여 내가 아프리카에 주고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간증했다.

중보기도회의 설교는 각 교회의 담임목사가 담당했다. 설교와 간증,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에 모인 성도 모두가 중보기도에 동참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4. 7. 2

2004년 아프리카 선교단 파송 찬양 대축제

'2004년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에 참여하는 340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는 축하행사가 6월 27일(주일) 쥬빌리 센터에서 열렸다. 북가주 지역 2,000명 이상의 한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성대한 축복의 잔치로 열렸다.

1부와 2부는 김영련 목사(하나님의 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3부는 노형건 전도사(오페라 캘리포니아 단장)가 진행했다.

1부 예배는 손원배 목사(임마누엘 장로교회)의 대표기도로 시작되어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백녹담의 독창이 있었다. 이어서 글로리아 합창단의 찬양과 율동에 이어 주무대로 이번에 단기선교단으로 파송되는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오페라가 공연되었다.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이번 공연은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6차례에 걸쳐서 공연될 예정이다. 6세의 어린이에서 18세의 오페라 단원들과 스태프, 운영진 모두 60여 명이 이번 단기선교사로 파송된다. 특별히 오페라 캘리포니아는 아프리카 현지의 말로 음반을 제작하고 현지의 말로 오페라를 공연할 예정이어서 아프리카 전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부는 김평육 선교사의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신광철 목사(산호세 제일교회)가 아프리카 복음화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합동으로 선교단원들에게 안수하였다.

김의웅 목사(베델연합감리교회)는 북가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하기를 간구하였다.

3부에는 갓스 이미지와 사랑합창단, 그리고 북가주 자선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4. 8. 20

2004년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선교보고대회

1. 한인 청년 선교대회(7월 4일–7월 9일)

크리스챤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간다 선교부에서 열린 선교대회는 미국, 한국,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우간다에서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우간다에서 열린 이번 청년 선교대회는 어린이 선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팀 빌딩을 중심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 한인 선교사 및 원주민 목회자 부부 축제(7월 5일–7월 9일)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의 주관으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소재한 레전시(Regency) 호텔에서 열린 한인 선교사 부부 축제에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 16가정을 초청하여 박수웅 장로, 김철민 장로, 김의환 총장, 이상남 목사를 강사로 4박 5일간 진행되었으며, 선교사들의 가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수아 박 목사, 린다 홍 자매가 인도한 원주민 교계 지도자 부부 초청 잔치에는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에서 80가정의 원주민 목회자 부부가 참석하였으며,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목회자 간에 연합운동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 오페라 캘리포니아 공연(7월 5일–7월 21일)

오페라 캘리포니아(단장 노형건) 41명의 어린이 단원들과 스태프진과 학부모 등 57명의 단원이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에 참가하여 우간다와 르완다에서 은혜가 충만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오페라 캘리포니아는 1년간 현지어로 뮤지컬을 준비하였으며, 출국 전 남가주에서는 월셔 이벨 극장과 북가주의 주빌리 센터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4차례 공연을 가졌는데, 7월 8일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간다 선교부에서, 7월 9일에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의 나키부보(Nakivubo) 스타디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캄팔라 경찰국이 우간다 어린이날로 지정하여 캄팔라 시내에 있는 50개 초등학교 1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시내 행렬을 마치고 스타디움에 입장하여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7월 10일 인터내셔날 컨벤션 센터에 이어 7월 11일 미라클 센터에서 열린 공연에도 6천여 명이 참여하여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공연에 환호했습니다.

7월 12일 르완다로 이동한 오페라 캘리포니아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키갈리의 3개 교회에서 연이어 가진 공연에 1만 명 가량의 관객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의 찬양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4. 할렐루야 축구단 / CCC 찬양비전(7월 3일–8월 5일)

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할렐루야 축구단(감독 이영무 목사)과 CCC 찬양비전(대표 박종술 목사)은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및 부룬디의 메인 스타디움에서 찬양축제와 함께 총 9번의 국제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국제 친선 경기인만큼 각 국가에서는 라디오와 TV 등이 녹화 중계를 하는 등 경기장에 참석하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집회 장면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4개국에서 9번의 경기에는 15만 명 이상의 관객이 경기를 관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어린이 선교대회(7월 12일–7월 23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선교대회가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및 부룬디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각 팀당 20여 명이 필요한 사역을 2-3명의 단원들이 감당하느라 힘겨웠지만,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전국에서, 그리고 부

룬디의 무줌부라에서 대략 200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으며, 팀에 따라 난민촌 전도, 노방전도, 영화 상영 등의 형태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15개 팀이 각각 수천 명 또는 1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6. 지도자 세미나 및 전도집회(7월 26일–8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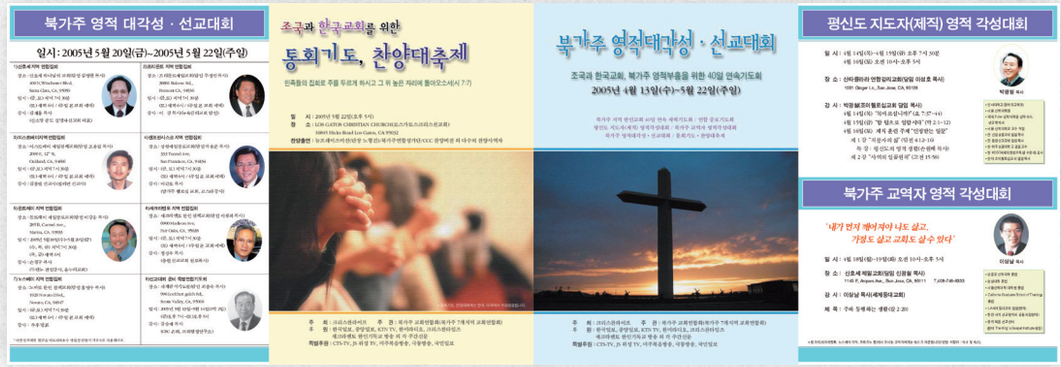
대학생 단원들이 어린이 선교대회를 마친 후 아프리카에 입국한 지도자 훈련팀은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로 동시에 흩어져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도자 세미나에서는 1) 정부 지도자를 위한 새마을 운동 세미나 2) 목회자 부부 세미나 3) 여성 지도자 세미나 4) 청년 지도자 세미나로 구분하여 열릴 예정이었는데, 콩고의 내전으로 콩고대회는 취소되고 우간다(10개 도시), 르완다(12개 지역), 탄자니아(9개 도시), 부룬디(1개 도시) 등 32개 도시에서 개최되어 원주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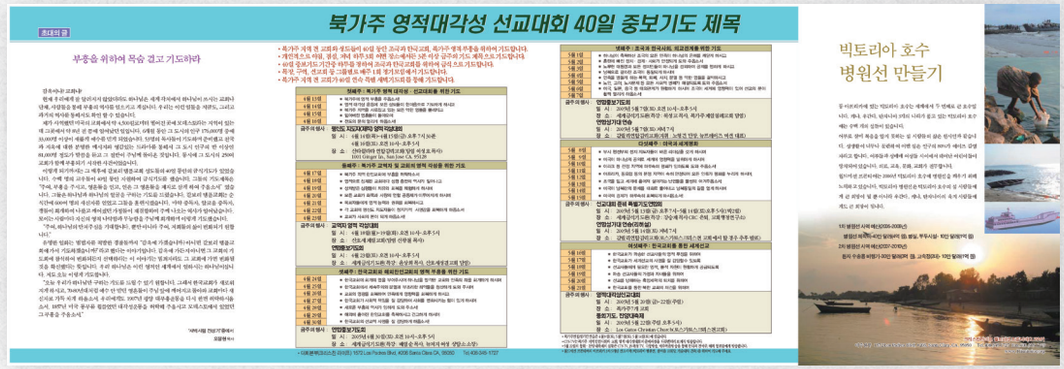
새마을 지도자 세미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5개 대도시에서 열렸으며 목회자 세미나, 여성 세미나, 청년 세미나는 32개 도시 전체에서 열렸습니다. 32개 도시에서 1백 개의 세미나가 열렸으며, 4개국에서 7-8천 명가량의 지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340명의 선교단원들의 희생적인 그리스도 정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로 이번 여름에도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프리카 4개국에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사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가주 영적 대각성 대회





2005 북가주 영적 각성 선교대회 브로슈어

우간다 선교센터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화산으로 잿더미가 된 콩고 고마시의 어머니학교

콩고 정부에 강제로 밀림에서 쫓겨난 피그미촌을 방문

고마화산의 발원지를 찾아

르완다 피그미촌

선교단 이동

양재학교로 아프리카 여성들을 세우다

우간다에서 선교단 이동

2005년 사역 요약

2005년에는 문서선교 활동을 펼치는 북가주 지역(Northern California)에서 "북가주 영적 대각성대회"를 주최했다. 4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집회는 평신도 지도자 영적 각성대회, 교역자 영적 각성대회와 함께, 북가주의 6개 지역에서 동시에 말씀집회를 열었다. 5월 22일 마지막 날은 로스가토스 크리스천 처치(Los Gatos Christian Church)에서 "북가주 통회기도 · 찬양대축제"를 열어 북가주 지역의 한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르완다에서는 키갈리에 고등학교가 개교되고, 기술학교와 신학교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고, 피그미촌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우간다 센터에도 4개의 교실이 추가로 건축되었다. 탄자니아에서는 거리 소년의 집이 시작되고,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콩고의 고마와 부카부 선교센터의 사역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58명의 단기선교단에 지원하여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였다. 한국 유학 사역이 시작되어 난민촌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무엘과 만지가 한동대학교에 유학했다. 콩고의 국회의원 자녀인 마셀린은 자비로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게 하였다.

2005년

1월: (한국 사역)

한국 지부 사무실 이전(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27 홍익인간빌딩 606호)

1월: 르완다 피그미촌 의복 컨테이너(20피트) 수송

2 – 3월: 아프리카 사역(제25차 현지 사역)

- 선교회 지원 한동대학교 유학생 출국(만지다니, 사무엘, 마셀린)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개교(WMTS)
- 르완다 양재학교, 신학교 도서관 건물 착공

4월 10일(주일): 메시아 싱어롱(노형건 초청) 산호세 제일교회

4월 13일 – 5월 22일: 북가주 영적 대각성 선교대회

- 4월 14일 – 16일: 평신도 지도자 영적 각성대회
  - 장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강사: 박광철 목사, 손원배 목사)
- 4월 18일 – 4월 19일: 교역자 영적 각성대회
  - 장소: 산호세 제일교회(강사: 이상남 목사)
- 5월 20일 – 5월 22일: 북가주 영적 각성 선교대회
  - 장소: –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강사: 김재홍 목사)
    - 프리몬트 제일교회(강사: 이강 목사)
    - 이스트베이 제일침례교회(강사: 김종필 선교사)
    - 상항제일장로교회(강사: 이근호 목사)
    - 새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강사: 정상우 목사)
    -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강사: 손경구 목사)

5월 22일: 북가주 통회기도, 찬양대축제(CTS TV 방송 협찬)

  - 장소: Los Gatos Christian Church

1부: 찬양과 경배[박종술 목사, 김승희, 구현화(CR2), 찬조: 뉴콰이어]

2부: 조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통회기도

3부: 찬양대축제(뉴 프레이즈 콰이어, 북가주 연합찬양단 지휘-노형건)

6월 25일 – 26일: 6·25 상기 사랑의 음악제

출연진: 오페라 캘리포니아(뮤지컬 "Father knows best" 초청 공연,

(T-7, CENT 찬양팀 찬조)

6월 25일(토): 산호세 주사랑장로교회(우동은 목사)

6월 26일(주일): 산호제 한인침례교회(김진환 목사)

7월 1일 – 8월 10일: 아프리카 사역(제26차 현지 사역)

- 7월 1일 – 7월 30일: 단기 선교단 사역(57명)
  - 7월 1일 – 7월 4일: 르완다 키갈리

    *어머니학교(강사: 서양희 사모, 김종희), *상담자훈련(강사: 노신영, 강지아)
  - 7월 6일 – 7월 9일: 콩고 고마 사역

    *어머니학교(서양희, 김종희, 김미희), *상담자훈련(노신영, 강지아)

    *지도자 세미나(이은혁), *어린이 선교대회(어린이 선교팀 50명)

    *음악 치유 사역(김진경)
  - 7월 13일 – 7월 16일: 콩고 부카부 사역

    *상담 사역(노신영, 강지아, 김미희), *지도자 세미나(이은혁),

    *어린이 사역(어린이 사역팀), *음악 치유 사역(김진경)
  - 7월 21일 – 7월 23일: 우간다 선교 사역

    *상담 사역(배임순, 강지아), *지도자 세미나(최황, 이은혁, 주정인),

    *음악 치유 사역(김진경, 김부화), *어린이 사역(어린이 사역팀),

• 7월 27일 – 7월 30일: 탄자니아 고메, 마코베 섬 선교 사역

8월 19일 – 8월 21일: 아프리카 선교 비전 나잇(새크라멘토 부흥교회)

- 8월 19일(금): 영어권 집회 강사: 영 가르시아 목사
- 8월 20일(토): 한어권집회 강사: 김평육 선교사

9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만들기 비전 홍보물 제작

9월 21일 – 10월 30일: 김평육 선교사 간증집회

- 9월 21일: 세계선교침례교회 집회
- 9월 30일: 임마누엘 선교교회 집회
- 10월 1일: 남가주 새누리장로교회 집회
- 10월 28일–29일: 수도한인장로교회 남전도회 수련회 강사
- 10월 29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만들기 골프대회"
  (밀피타스 서밋 포인트, 준비위원장 이명무)
- 10월 30일: "2006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 선교대회" 준비 만찬 모임(쿠퍼티노 커뮤니티센터)

9월: 탄자니아 무완자 거리 소년의 집 개원(42명 거리소년 입양)

10월 1일 – 10월 10일: 김미희 간사 미국 방문(성시화대회 참가)

10월: 우간다 선교센터 교실 6동 건물 완공(이미경 선교사)

- 탄자니아 마코베 섬 예배당 건축 완공
- 의복 컨테이너 르완다 도착(피그미촌에 보급)

10월 17일(월): 피스 메이커 리더 세미나(강사: 에릭 폴리 목사)

11월 1일 – 11월 25일: 한국 사역

- 11월 11일 – 11월 12일(1박 2일): 김평육 선교사 선교영성 세미나
  (오륜교회 수련관)
- 11월 15일: 2006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 선교대회 선교단 발족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12월 2일–3일: 김평육 선교사 선교, 영성부흥회
(대성장로교회, 찬양팀 둘로스 오종민 목사)

12월 10일: 2006년 남가주 선교단 발족(세계 등대교회)

12월 18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후원 '메시아' 공연

- 장소: 세계로교회
- 출연진: 믿음남성합창단, 사랑여성합창단, 오페라 캘리포니아, 등대교회 합창단

12월 19일 – 21일: 몬타나주 CRI 본부 방문, 도서 1컨테이너 기증 받음

12월 27일: 르완다 도서 컨테이너 출발(CRI 제공)

〈건축〉

- 르완다 키갈리 센터 양재학교, 도서관 건물 착공
- 우간다 Nsangi 센터 교실 6개 완공(이미경 선교사)
- 탄자니아 마코베 섬 예배당 건축

ⓒ 한국일보 2005. 5. 24(화)

북가주 영적 회복의 기틀 마련

통회기도, 찬양대축제로 40일간의 영적 대각성 선교대회 막 내려
김평육 선교사, "2006년 메시아 공연 등 아프리카 선교 위한 시작일 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시 7:7).

조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북가주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40일간 실시된 북가주 영적 대각성 선교대회가 지난 22일(일) '통회기도, 찬양대축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로스가토스 크리스천 교회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3부에 걸쳐 진행된 '통회기도, 찬양대축제'에는 북가주 지역 교인뿐만 아니라 남가주 지역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했다.

개회사를 맡은 북가주 교회연합회 김덕수 회장은 "지난 40일간 북가주 지역의 각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장차 지역교회가 더욱 가깝게 연합해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 김영련 목사가 맡은 1부에서는 북가주 제일침례교회, 늘찬양선교단, 상항 제일장로교회, 이스트베이 제일침례교회 연합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했으며, 오는 6월 4일과 5일 정기연주회를 갖는 뉴콰이어 합창단(단장 함영선)이 히브리어로 시편을 찬양했다.

설교를 맡은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이성호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서 한인 2세, 노인, 교회를 포함해 세상의 모든 열방 민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일구자"라고 말했다.

2부는 '조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통회기도'를 주제로 위성교 목사가 진행을 맡았다.

통회기도는 ▲ 민족의 죄, 한국교회와 지도자의 죄, 이민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합니다 ▲ 조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갱신과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 북가주 지역의 영적 부흥을 통해 화합과 성장의 은혜를 주소서 ▲ 세계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과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만들기 사역 등에 대해 조용필 목사, 윤상희 목사, 위성교 목사, 김종필 선교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와 함께 빅토리아 병원선 건조사역과 관련된 동영상이 상영됐다.

찬양대축제로 명명된 제3부에서는 80여 명으로 구성된 북가주·남가주 연합합창단(지휘 노형건)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찬양했으며, 헨델의 메시아를 통해 청중들과 영적 회복과 부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는 모든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북가주 지역의 영적 회복과 조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김평육 선교사는 "북가주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한 선교대회를 여는 일이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40일 동안 영적 각성 세미나, 지역 연합집회, 통회기도를 비롯한 영적 각성 기도운동을 통해 가정, 교회의 개별기도가 지역부흥을 위한 폭넓은

기도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가주 영적대각성대회가 40일간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06년 아프리카에서 열릴 문화교류 선교대회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북가주 지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영적인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측은 오는 12월 10일(일)과 17일(일) 북가주와 남가주(LA)에서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건조를 위해 몽골과 흑인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다민족 메시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올해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활동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르완다,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등지에서 진행된다.

▲아프리카 선교 문의: 408-345-1727

〈유호곤 기자〉

© GOOD TV 특별기획

'복음의 사각지대' 아프리카에 빛을

"선교를 하면서는 모든 일들이 다 어렵습니다. 우선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선교 초기에는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희생과 사랑, 헌신에 대한 갈등이지요. 경제적인 문제와 현지 사역자들의 지도력을 길러주는 일도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선교회를 정성껏 가꾸어 놓으면, 간혹 의외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는 등 어려움이 많지요."

김평육 선교사는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선교의 선을 굵직하게 그리면서도 여느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소박하지만 가장 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선교사는 1986년 도미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통신업체인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설립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주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문서 선교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1992년 〈크리스찬 라이프〉 주간 기독교 신문을 창간했다.

그 이후 1996년 선교에 중점을 두기 위해 사업을 포기하고, '월드미션 프론티어' 비영리 선교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아프리카의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등 내전 지역을 중심으로 난민구호 사역과 신학교 설립 등에 전념해오고 있다.

2005년 12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월드미션 프론티어 김평육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 과정과 2006년 계획을 밝혔다.

– 월드미션 프론티어 설립 정신은 무엇입니까?

▲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는 '개척 정신'입니다. 선교 방법도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창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를 사역지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아프리카의 르완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던 도중 아프리카 난민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한인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 현지인들이라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을 취재하게 되었구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선교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름을 월드미션 프론티어라고 하였습니다.

–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1995년 르완다 고아원 건립을 시작으로 그동안 아프리카에 많은 유치원과 신학교를 세워 왔는데, 교육 중심의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프리카는 100년 세월을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고, 지금도 식민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식민지적 근성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프리카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사역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기독교 정신의 교육을 통해 좋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 교육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3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수학 중이고, 연내에 3명의 기술연수생들이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초청으로 출판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복음의 사각지대인 아프리카에서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와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 등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큰 대성회를 어떻게 개최하게 되었습니까?

▲ 르완다 역사상 가장 큰 대형집회였던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는 전쟁과 미움, 갈등이 계속되는 아프리카에 평화를 주고, 영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르완다 교회가 연합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기로 2002년에는 4일 동안 매일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르완다 전국 어린이 선교대회"가 열려 큰 성과를 이루었지요. 또 같은 해에 부룬디, 콩고, 우간다로 퍼진 중앙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에는 30만 명이나 참가했습니다.

2003년에는 "여성 치유 사역대회"도 개최했고, 2004년에는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의 32개 도시에서 동시에 어린이 선교대회와 세미나, 전도대회 등이 열려 한 달간 1백만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 2006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만들기 사역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선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며 동아프리카의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가 함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한만큼이나 큰 호수에는 어부들이 살고 있는 수백 개의 섬이 있지요. 그중 어떤 섬은 인구의 80%가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섬에는 학교, 교회, 의료시설이 전무하지요.

병원선은 이런 섬들을 순회하며 병자들을 진료하고, 섬사람들을 계몽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각 섬에는 교회를 세워 학교와 주일예배 처소로 사용할 계획이구요.

이제 막 홍보를 시작해서 성과는 없지만, 2006년까지는 병원선을 만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추구하는 활동 방향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그동안 매년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복음화 대회

를 여느라고 모든 재정과 인적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 사역에 투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장기 사역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현장 사역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기반도 되구요. 또한 매년 여름 단기 사역도 더욱 활성화해서 크리스천들에게 선교를 경험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세미나와 수련회를 개최해서 한국교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 2006년 아프리카에서 많은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 2006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 날개 밑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2006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 선교대회"가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콩고·부룬디·우간다·탄자니아)에서 열립니다. 한류 열풍이 동남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선교 열기로 아프리카에 복음의 열풍을 일으키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들로 구성되는 선교단은 아프리카 5개국에서 어린이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되는 선교단도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전국 40개 도시에서 열리는 "2006 한 · 아 문화교류 선교대회"에서 전도부흥집회와 세미나(전도훈련, 지도자/여성/교사 세미나), 각종 문화행사(스포츠, 음악, 전통예술공연)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옥연 기자, coollee@googood.com(coollee@newsmission.com)

2006년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대회(우간다 캄팔라 미라클센터, 보엠 공연 장면)

2006

단기선교단 노방전도

탄자니아 무완자 전도집회

2006년 한 · 아 문화교류대회 단기선교단

CCC 찬양비전 찬양집회 인도

아프리카 전통예술팀의 우간다 공연(미라클 센터)

샛별 전통예술공연단 공연(미라클 센터)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콩고 고마의 스타디움에서

2006년 사역 요약

2006년의 복음화대회 사역은 미국과 한국,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에서는 북가주 영적 대각성 대회에 이어 '피스메이커' 사역을 추진했다.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에서 세 명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북가주 전역에서 피스메이커 집회를 개최하였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별도로 열었다. 아프리카 선교단이 피스메이커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2006년에는 '주 날개 아래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2006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 대회"를 준비하였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시애틀의 샛별 전통예술단(단장 최지연 사모)을 초대하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뮤지컬 배우로 구성된 보엠 뮤지컬(대표 오성원) 팀이 참가하였다. 찬양집회를 위해서 CCC 찬양비전(박종술 목사)이 참여하여 성대한 찬양의 잔치를 펼쳤다. 2006년의 성대하고 아름다운 사역 현장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하게 소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2006년에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특별한 사역을 추진하였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는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통해 아프리카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직접 현장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한국인들에게는 아프리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사역이었다.

2006년

1월 7일 – 2월 1일: 한국 사역

- 선교사(인턴십): 김보혜(르완다), 한안나(탄자니아), 이성창(우간다) 파송
- 선교사 귀국: 김옥주, 박순주 선교사 2년 사역 마치고 귀국
- 한동대학교 입학(1명)

2월 18일 – 2월 20일: 북가주 Peace Maker 세미나

Peace Maker Ministry(CEO-Ken Sande) 전문 강사진 초청

- 샌프란시스코 연합집회: 상항 중앙장로교회(강사 – Dr. Donald Bubna)
- 이스트베이 연합집회: 이스트베이 제일침례교회(강사 – Missionary, Ted Kober)
- 산호세 연합집회: 서니베일 나사렛 동산교회(강사 – Rev. Dr. Eric Foley)

2월 21일: 북가주 성시화대회(강사: 정필도 목사, 새누리침례교회)

2월 24일 – 25일: 북가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

- 2월 24일(금) – 25일(토):
  - 개인 피스메이커 세미나(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강사 – 에릭 폴리 목사)
  - 개인 피스메이커 세미나(이스트베이 제일침례교회, 강사 – 이관희 목사)
- 2월 25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교회 피스메이커 세미나(통역) (강사 – 에릭 폴리 목사)

3월 – 4월: 아프리카 사역(제27차 현지 사역)

- 우간다 선교센터 고등학교 개교(김희자 선교사)
- 카욘자 선교센터(Kabarundo) 양재학교 개교(임대건물)
- 키갈리 센터 신학교 도서관, 양재학교 건축 완공(양재학교, 바이블 스쿨 이전, 도서관 장서 진열)

- 르완다 키갈리 선교회 사무실 카구구 센터로 이전(기존도 센터 건물을 현지인 단체에 양도)
- 르완다 찬구구(Nyamaseke) 센터 건축부지 구입
- 르완다 Kayonza 센터 건축 부지 구입
- 피그미촌 사랑의 나눔(손 물레, 재봉틀 보내기 운동)

6 – 9월: 문서 선교를 위한 인쇄기술 연수(아프리카인 2명),

쿰란출판사(대표 이형규 장로) 후원, 영광기업(대표 정학영 장로) 연수 지원

6월 28일 – 8월 10일: 아프리카 사역(제28차 현지 사역)

- 7월 1일 – 8월 3일: 한국 · 아프리카 문화교류대회(선교단 113명)
  - 샛별 전통예술단(단장 최지연 사모)
  - 보엠 뮤지컬(단장 오성원): 우간다 캄팔라, 탄자니아 부코바, 므완자 (1차 순회 공연 50여 회)
  - CCC 찬양비전(대표 박종술 목사)
- 르완다,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공연 및 피스메이커 세미나와 어린이 전도집회

8월: 르완다 조나스 목사, 동아프리카 사무총장 임명(우간다로 이동)

카지레 도린 르완다 디렉터 임명,

존 밥티스트 르완다 코디네이터 임명

8월: 이미경 선교사 귀국

8월 25일 – 9월 10일: 한국 사역

- 8월 29일: 기독교출판협회(회장 최대형)와 아프리카 문서선교 협약
-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방문단 초청 준비

9월: 선교전략캠프 개원(탄자니아 부코바, 1기생 6명)
김한나, 폴 강 영어 강사로 참가

10월 13일 – 10월 31일: 한국 사역
아프리카 지도자 71명 한국 초청
- 숙소: 양수리 수양관(세미나)
- 환영행사: 한·아 친선협회(김영진 장로), 성시화운동본부(전용태 장로) 등
- 방문지: 가나안 농군학교, 고센농장, 구리시청, 인천시청, 대우자동차, 연세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11월: 우간다 도서 수송(20피트 컨테이너 수송, 미국 CRI)
12월: 키갈리 선교센터 고등학교 강의실(6개) 착공

〈건축〉
- 르완다 키갈리 센터 도서관, 양재학교 건물 완공
- 르완다 찬구구(NYAMASEKE) 센터 부지 구입
- 르완다 카욘자 센터 건축 부지 구입
- 키갈리 선교센터 고등학교 강의실(6개) 착공

© 크리스챤 투데이 2006. 1. 12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

"한·아 문화교류 선교대회 엽니다"

"크리스챤 라이프 월드미션 프론티어(CLWMF)가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르완다 등 아프리카 5개국에서 '2006 한·아 문화교류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소개할 이번 선교대회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김 선교사는 요즈음 '한·아 문화교류 선교대회'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교대회를 위해 미주를 비롯, 한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기도회와 설명회를 갖고 선교단을 모집 중에 있다. 3월 말까지 선교단 모집을 완료하고 4월부터 3개월 여간 선교훈련에 들어가게 되며,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파송식을 갖게 된다. 또 1월 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 선교대회의 현지 점검에 나섰다. 2001년부터 아프리카 5개국에 전국 조직망을 갖고 선교행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사역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이다.

이 선교대회의 의미

"이 복음화 선교대회를 통해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아프리카의 영적 부흥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복음화 대회가 한두 개 도시가 아닌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로써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됨으로, 해당 국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모든 교회와 교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교회의 연합에도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선교훈련과 선교 열정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562)921-1233, www.hismission.org〉

© 미주 중앙일보 2006. 4. 9

7월 "한·아프리카 문화교류 선교대회" 선교 컨텐츠도 '한류 바람'

한류가 전 세계의 시선을 모으는 인기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선교 컨텐츠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미 인기 탤런트와 가수 및 영화배우들이 선교단체 홍보에 나서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서 전도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전통 예술과 현대 문화의 다양한 분야가 선교 현장에서 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오는 7월 아프리카 네 나라에서 펼쳐질 "한·아 문화교류 선교대회"도 한류의 물결을 타고 검은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집회로 마련됐다.

미주 한인 선교단체인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개최하는 이번 문화교류 선교대회에는 이민교회와 본국 교계가 연합해 진행된다.

문화교류 선교대회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우간다에서 먼저 열리며 이어서 30일까지는 탄자니아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전통무용팀과 찬양팀은 대형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 한국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및 오페라 가수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뮤지컬팀 '보엠'이 출연해 아프리카를 돌며 음악으로 복음을 소개하게 된다.

보엠에는 인기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와 '마리아'에 출연한 주역 배우들이 대거 합류하며 현재 본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요덕 스토리' 음악감독 김혜진 씨가 공연을 지휘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현지 정부는 '한국의 주간'을 선포하고 각종 스포츠 예술 분야에 걸쳐 양쪽의 문화를 선보이는 교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40개 도시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4일간 열리는 전도 세미나이다. 미국의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와 협력으로 '피스메이커'를 주제로 삼아 수년간 내전으로 얼룩진 현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밖에 '여성 치유'를 두 번째 역점 주제로 삼고 있으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삼아 한 '부모 학교' 코스도 개설할 계획이다.

청년 대학생의 경우 르완다와 콩고에 산재한 피그미 부락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구제와 전도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 아직 원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피그미 원주민들에게 이 닭기 등 공중보건 의식을 향상시키고 항아리를 제작하는 물레도 공급한다.

이번 "한·아 문화교류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는 "본국의 경우 참여 열기가 뜨겁다"라고 전하면서 "미주 한인교회의 동참이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김 선교사는 "무엇보다 행사의 핵심인 복음 세미나를 인도할 인력은 미주 한인이 가장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세미나의 각 클래스를 이끌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대회 기간 중 일정 지역을 맡아 부흥회를 인도할 미주 한인 목회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교대회가 끝난 후에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사파리공원 투어가 가능하며, 청년들은 한국에서 참여한 학생들과 서울에서 10일간 함께 머물며 고국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김 선교사는 덧붙였다. ▷문의: 408-345-1727

ⓒ 한국일보 2006. 5. 12(금)

북가주에 평화의 물결과 성시화의 불길

18-20일 SV·SF·EB 평화대축제
21일 새누리침례교회에서 북가주 연합 성시화 선교대회

북가주 지역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영적 대각성 선교대회와 성시화 연합집회가 오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에서 열린다.

상항과 이스트베이, 산호세교회협의회, 〈크리스찬 라이프〉, 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가주 영적 대각성 선교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번 북가주 지역 평화대축제는 18, 19, 20일 저녁 7시 30분, 상항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권혁천), 이스트베이 제일침례교회(담임목사 조용필), 서니베일 나사렛 동산교회(담임목사 이광훈)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주 날개 밑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북가주 지역 평화대축제'에는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의 전문사역자들이 참석, 평화 회복 방안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된다. 미국 교회에서는 기독교인 간의 소송사건이 연간 4백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900건에 달하는 교회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 교인의 35% 이상이 이혼 소송에 휘말리거나 자살과 살인 등 극단적인 가정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평화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일간 전개되는 평화대축제에서 강사로 나서는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 전문사역자(샌프란시스코: 돈 버브나, 이스트베이: 테드 코버, 실리콘밸리: 에릭 폴리)들은 첫날 개인, 둘째 날 교회, 그리고 셋째 날 카운슬러로서의 피스메이킹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호세 성시화운동본부장 신광철 목사는 "최근 LA에서 잇따라 일어난 가족동반 자살사건은 이민사회의 가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아갱신, 건전한 가정확립, 사회에서의 봉사적 사명 수행, 올바른 교회생활, 복음화 운동 등 성시화운동의 5대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안녕,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평화를 함께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이번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 21일(일) 오후 6시 마운틴뷰 소재 새누리침례교회에서 연합으로 열리는 '북가주 성시화 선교대회'에는 본국 부산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장인 정필도 목사(부산 수영로장로교회)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북가주 지역 영적 대각성 대회와 성시화대회가 연계되어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 김평육 〈크리스찬 라이프〉 발행인은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해와 연합, 교회 분쟁의 불식, 그리고 복음화 사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크리스찬 라이프〉 전화 408-345-1727 또는 준비위원장 이광훈 목사 650-270-7688로 하면 된다.

〈김철민 기자〉

ⓒ 한국일보 2006. 6. 30(금)

아프리카 단기선교 사역 나선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미주와 한국에서 선교사 113명 파송예배
7월 1일부터 30일간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 주최의 단기선교단 파송예배가 25일 주사랑교회(우동은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2006년 한·아 문화교류 선교대회"의 사역을 위해 파송되는 선교단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단기 선교단으로는 한국에서 62명과 신광철 목사, 윤상희 목사, 우동은 목사와 배임순 목사를 포함한 미국에서 45명, 그리고 현지 장기 선교사인 이미경, 김희자, 한안나, 이성창, 김갑숙, 김보혜 선교사 6명을 포함 113명이 참가하게 된다.

이날 예배는 우동은(주사랑교회) 목사의 사회로 시작, 이정근 목사의 파송 기도와, 윤대현 집사 부부의 특송이 있었다. 윤상희 목사(산호세교회 협의회 회장)는 설교에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강조하며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특히 선교단을 위해 통성기도를 인도한 김평육 선교사는 아프리카 현지 사역을 위해 선교단의 일치된 마음과 안전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2006년 한·아프리카 문화교류 선교대회"가 열리는 아프리카는 상항보다 10시간 정도 시간이 빠르기에, 이번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중보기도 후원자들은 모든 사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루 전에 기도해 주길 부탁했다.

파송예배를 마친 단기 선교단들은 7월 1일 르완다에서의 사역을 시작으로 7월 8일 콩고, 7월 16일 우간다, 7월 25일 탄자니아, 7월 31일 케냐에서 지도자와 여성들을 위한 세미나와 피그미촌에서의 말씀사역을 펼치게 된다.

이들 단기선교단은 어린이 선교, 샛별전통 예술단 공연, CCC 찬양팀과 VOEM 찬양 사역, 성시화 운동, 어드보키트 코리아, 조찬기도회 모임 등을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문화사역을 한 후 8월 6일 돌아올 예정이다.

© 구굿닷컴 2006. 11. 5 11:40:07

"한국인들의 믿음, 개척정신 배워가요"

빅토리아 호수 주변국 교계지도자 71명 컨퍼러스 참여
"우리 모두는 한국의 교회와 문화를 보고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주변국인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 브룬디에서 온 교계 지도자 71명이 한국을 배우고 돌아가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감이다.

이들은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주최한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선교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지난 13일부터 3주간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31일 수료식 및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선교컨퍼런스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가 지난 7월 한 달간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등 아프리카 5개국에서 펼친 '2006 한국·아프리카 문화선교대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준비, 진행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16일부터 20일까지 김준곤 목사 등을 강사로 한 '지도자 세미나'와 30일 연세중앙교회에서 준비한 '목회자 수련회'에 참가했으며, 지난 20일과 21일에는 공군회관에서 있었던 '세계군종포럼'과 논산훈련소의 '진중세례식'에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 김평육 선교사는 "아프리카는 군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진중세례식 장면이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신앙탐방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된 산업과 농업현장도 둘러보기 위해 전쟁기념관, 한국 IT 산업 관련 세미나, GM 대우자동차 공장도 견학했다.

그리고 2만여 마리의 닭을 기르는 고센농장을 방문했고, 1박 2일 과정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해 아프리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개척정신의 현장'을 체험했다.

김 선교사는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던 한국 땅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개척정신으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에 참가자들은 놀랐다"라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들 아프리카 5개국 참가자들과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는 △아프리카 군 선교의 활성화, △아프리카에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정신교육훈련학교' 개교, △아프리카 청년들의 한국 대학 및 신학대학원 유학, △기독교 출판 사업을 통한 아프리카 계몽운동,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아프리카 5개국의 전 교단이 참여하는 공동선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의 열정적 신앙에 놀라

이번 컨퍼런스 참석자들 중에는 교계 지도자뿐 아니라 사업가, 주 영국대사, 전 재무부·농림부 장관이자 현 정치계 선관위원장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번 한국 방문으로 발전된 한국 교회와 산업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으며, 향후 더욱 한국과 연계해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냈다.

우간다의 토마스 선관위원장은 "한국의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성도들의 기도 위에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한국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스타일을 배워 조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좁은 한국 땅에서 많은 농산물이 경작되는 것을 보고, 한국인의 근면성과 개척정신에 놀랐다"며 "가나안 농군학교의 표어인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을 기치 삼아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이 실행해 한국에서와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국 여러 교단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한국 교인들의 열정적인 신앙에 놀랐고, 성별 불평등 없이 남녀가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는 지난 1994년부터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주변국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개척사역 등의 선교활동에 힘을 쏟아왔다.

이 선교회는 내년 4~7월 중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정신교육훈련학교를 아프리카에 설립하기 위해, 아프리카 5개 국가의 교계, 정계, 교육계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협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 중에는 교계 지도자뿐 아니라 사업가, 주 영국대사, 전 재무부·농림부 장관이자 현 정치계 선관위원장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구굿닷컴〉

〈제 3 기 사역〉

물댄 동산('비전 2012')

2007 - 2012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과 유학 사역
아프리카 5개국 12개 선교센터 건축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11-12)

2007년에서 2012년까지

2007년에 '비전 2012'를 발표하였다. 선교의 장기화를 위하여 선교센터의 건축이 불가피했고, 아프리카의 개발속도를 감안할 때 대규모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비전 2012'는 2012년까지 아프리카 5개국 12개 주요 지역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미래에 각 선교센터에서 사역할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낸다는 계획이었다.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는 복음화대회 사역은 중단해야 하는데, 매년 많은 성도들이 각처에서 아프리카 선교단으로 지원함으로 아프리카 복음화대회는 계속되었다.

2006년에 처음 실시한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행사는 매년 더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연수생과 한국 유학사업이 확대되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고 섬김의 희생이 큰 사역이었지만 선교적으로 열매가 많았다.

아프리카의 선교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고아원, 초·중·고등학교, 신학교, 구제 사역 등 현지 사역과 함께 아프리카 복음화대회,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한국 초청과 유학생 보내기 사역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했다. 따라서 선교센터의 건축계획의 추진은 부진했지만 12곳의 건축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07

2006년에 시작된 선교전략캠프 한국인 1기생
한국어 학교에 참가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루었다.

탄자니아 부코바 선교전략캠프

탄자니아 부코바 선교전략캠프

콩고 고마 센터

탄자니아 부코바 한국어 학교 수료식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워가코리아 여성대회 참가

2007년 한국 방문단 아산시(농업기술원) 방문

키갈리 선교센터 고등학교 건축

탄자니아 무완자 거리소년의집

2007년 사역 요약

2012년까지 12개의 선교센터를 건축한다는 목표로 '비전 2012'를 발표했지만, 아프리카 복음화대회의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단기선교단이 모여왔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사역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기대가 커져갔다. 복음화대회는 자연스럽게 선교단원들이 참여하고, 현지 사역팀이 잘 준비해서 큰 부담 없이 진행되어갔다. 2007년에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확장되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사장 이형자)이 주관하는 '2007년 워가 코리아'에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68명을 초청했고, 선교회는 별도로 아프리카 지도자 46명을 초청하여 114명의 아프리카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도자 초청과 함께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단기 연수과정에 초대하고 유학생들을 한국에 보냈다.

유학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한국어 학교를 세우고 한국어를 가르쳤다. 미래의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선교전략캠프를 열어 한국 청년들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선교사로 훈련되었다. 선교전략캠프 한국인 청년들과 한국어 학교 아프리카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1월 15일 – 2월 28일: 아프리카 사역(제29차 현장 사역)

- 김보혜 선교사 – 르완다 현지인 교회로 소속 변경
  이성창, 김갑숙, 한안나 인턴선교사 귀국
- 르완다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로 교육부 학력 인정(accredited by Ministry of Education)
- 르완다 카욘자 센터 기술학교 착공
- Samuel Hatangazimana 키갈리 고등학교 교장 취임

3월 5일 – 4월 20일: 한국 사역

- '비전 2012 발표'(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3월 8일)
- 한동대학교 유학(3명)
- 유기농훈련원 연수(3명)
- 탄자니아 무완자 주지사 아산시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의
-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한국 초청 협력 협의(워가코리아)

7월 1일 – 8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30차 현장 사역)

- 2007 아프리카 단기선교단(120명 참가)
  - 7월 2일 – 7월 8일: 르완다 기생이, 찬구구 지역 피그미촌 사역
  - 7월 10일 – 7월 13일: 콩고 고마, 부카부 청소년대회
  - 7월 15일 – 7월 23일: 우간다 상기 청소년대회
  - 7월 23일 – 8월 3일: 탄자니아(무완자, 부코바, 고메섬, 카니고 빌리지)
- 보엠 공연: 르완다 키갈리, 찬구구 / 콩고 부카부/ 우간다 캄팔라(2차 순회 공연 50여 회)
- 강희복 아산시장 – 탄자니아 무완자 시 방문 자매결연 협의
-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준비
- 우간다 센터 도서 컨테이너 도착(장서 작업)

8월: 카욘자 센터(교실 2개, 사무실 1개, 화장실) 건축(양재학교 개교)

8월 26일 – 10월 4일: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9월 10일 – 10월 30일: 한국 사역

- 10월 15일 – 10월 25일: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아프리카 6개국 114명 초청)
  - 10월 10일 – 15일: 여성 지도자 워가코리아(이사장 이형자) 세계대회 참가(남성 지도자들은 별도로 새마을 운동 등 세미나 참석)
  - 10월 15일 – 25일: 전체 방문단 합동 세미나 및 산업시찰

〈건축〉

- 르완다 Kayonza 센터 기술학교(교실 2개, 사무실 1개, 화장실) 건축
- 르완다 Kigali 센터 고등학교 교실 6개 건축
- 우간다 Nsangi 선교센터 게스트하우스 착공
- 탄자니아 Bukoba 센터 예배당 건축
- 콩고 Bukavu 센터 건축 부지 12에이커 구입

ⓒ 크리스천 투데이 2007. 3. 9 16:17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복음화 위한 '비전 2012' 선언

"이슬람 위협…아프리카 복음화에 주력하겠다"

12년간 아프리카 5개국에서 구제와 복음 사역에 집중해 온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비전 2012'를 선포했다. 그동안 쌓은 선교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는 아프리카 12개 지역에 종합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8일 '비전 2012' 선언식에서 김평육 선교사는 "'비전 2012'라고 정할지 '드림 2012'라고 정할지 고민했다"라고 밝혔다. '꿈'은 이뤄질 수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란 생각에 비전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1994년, 김평육 선교사가 1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르완다 전쟁 현장을 비롯하여 난민촌을 취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김 선교사에 의해 르완다 전쟁 고아 및 난민들을 위한 구호선교기구로 세워졌다.

김 선교사는 1994년 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6년간 르완다의 전쟁 고아, 미망인, 난민 구제 사역에 힘써온 것을 제1기 사역으로 나누고, 2000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6년간 르완다, 부룬디,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매년 여름 전국 규모의 복음화대회를 개최해 온 것을 제2기 사역으로 나눴다. 그리고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규 교육시설과 '거리소년의집' 등 사회봉사시설, 현지 지도자 교육시설, 선교사센터, 공장 및 농장 등이 갖춰진 12개 종합선교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향후 6년간 추진하기로 하고 제3기 사역 비전을 발표한 것이다.

비전 2012는 △종합선교센터 건축 및 현지 사역 확장 △전국 복음화 사역 및 개발 △미래 지도자 양성 등 총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종합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것 외에도 매년 여름 개최해 온 대규모 복음화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어린이, 청소년, 여성, 교회 지도자, 정치·사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전국을 복음화하여 이슬람의 남하를 막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김평육 선교사는 "이미 아프리카 5개국에 초교파 전국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현지인들에 의한 대규모 단기선교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외에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선교팀을 구성해 해외 각국에서 대규모 전도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1백 명의 원주민 청년들을 한국에서 유학을 시키고, 유학을 마친 뒤 종합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사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오는 8월 우간다에 원주민 청년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교를 열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선교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지 언어훈련(3개월)과 사역 실습(3개월)을 실시하여 장단기 선교사로 파송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 기독일보 L.A Nov 12, 2007

'아프리카 지도자 본국 초청 통해 풍성한 선교 열매 거둬'

월드미션, 2009 복음화 대회 위한 아프리카 女중보기도 네트워크 구축해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개최된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아프리카 6개국 지도자 한국 초청 선교 컨퍼런스가 아프리카 지도자 110명을 초청해 한국, 아프리카 교류관계에 크게 기여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한 이번 지도자 초청에는 여성 지도자, 교계 지도자, 정치계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했으며, 르완다, 콩고,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외에도 이슬람 정권에 의해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수단 난민여성들이 함께 참석해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측은 "아프리카 지도자 본국 초청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풍성한 선교 열매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계 지도자 초청과 훈련을 통해 이슬람 남하 저지를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2009년 아프리카 대륙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교계 지도자 초청을 통해 아프리카 각 교단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2009 복음화 대회 준비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계 지도자는 한국·아프리카 우호 관계를 통해 양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관계를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2007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방문을 통해 아산시·무완자 시 자매결연이 이뤄졌으며, 한국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 초석이 마련됐다.

다음은 월드미션 프론티어 측이 보내온 일정에 관련된 보고내용이다.

워가코리아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

10월 13일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방문단 중 여성팀은 워가코리아(위원장 이형자)에서 할렐루야교회에 마련한 숙소에 머물며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횃불회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다. 교계 지도자 및 정치계 지도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광림세미나 하우스에 별도로 마련한 숙소에 여정을 풀고 19일까지 새마을 운동, 자연농법 등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워가코리아 개막식에 참가했다.

충남 아산시 방문

10월 20일에는 방문단 전원이 충남 아산시로 이동해 아산시 기독교 협의회(회장 이재오 사관)와 아산시(시장 강희복)가 마련한 산업시찰과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21일 주일에는 아산시 11개 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21일 주일 오후에는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아프리카 6개국 지도자 초청 환영 연합찬양예배를 드렸다.

이슬람 세미나 및 복음화 대회 준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 기간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마련한 '전도훈련', '상담훈련' 등 세미나가 계속되었는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세미나를 '이슬람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슬람권에서는 사하라 이남 지역 기독교인 3분의 2를 개종시키고 이집트에

서부터 남아공까지 매 5Km마다 이슬람 사원짓기 운동이 한창이어서 아프리카 지도자에 대한 이슬람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슬람 남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2009년 아프리카 여성지도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시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기 위해 산업시찰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는데 아산시, 인천시 투어를 통해 농업 기계화 현장, 인천대교 건축현장, G.M. 대우 등 대형사업, 대기업 방문과 중소기업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국 교회 환영

아프리카 6개국 지도자를 맞은 한국 교계에서 따뜻하게 아프리카 지도자를 맞아주었다. 아산시 교회협의회에서는 110명 아프리카 지도자와 한인 봉사단 전원을 온양온천 팔레스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맞아 주었다. 세계한인교류협회, 국가조찬기도회(김영진 장로), 성시화운동본부(전용태 장로), 연세중앙교회(윤석전 목사) 등이 연합으로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아프리카 지도자 환영예배를 준비하고 이승종 목사(분당새벽교회),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이태희 목사(성복교회) 등 교계 지도자들과 이준 장로(전 국방부장관), 이상렬 의원, 황우여 의원 등 평신도 지도자가 순서를 담당하고 아프리카 지도자를 맞아 주었다.

아프리카 지도자 파송예배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준비한 모든 일정을 마친 아프리카 지도자는 10월 28일(주일) 인천 내리교회(담임 김흥규 목사)에서 파송예배를 드렸다. 인천항으로 선교사가 들어와 처음으로 세운 120년 역사를 가진 모태 교회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를 훈련해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하는 뜻깊은 예배를 통해 아프리카 지도자뿐 아니라 인천 지역 모든 성도에게 큰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김평육 선교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김흥규 목사가 설교하고 권용각 감독의 파송사로 이어졌으며, 월드미션 프론티어 소속으로 배임순 목사의 선교사 파송식을 겸했다.

▲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초청으로 아프리카 지도자가 국회 의사당을 방문해 국회 지도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정치계 지도자 별도 프로그램

정치계 지도자 일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진행됐다. 콩고 사우스 키부와 노스 키부 주에서 방문한 주지사, 국회의장 등 일행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시를 방문해 부산 경찰청, 부산시청, 부산 도시개발공사, 세계생활체육대회 조직위, 신라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부산 경찰청은 앞으로 콩고 치안을 돕기 위해 경찰 훈련 교관을 파견할 것을 약속했으며,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콩고의 기간 산업건축에 투자와 기술지원을 검토하기로 하고, 제4회 부산 생활체육대회에 아프리카 5개국 댄싱팀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신라대학교에서는 대학 간 자매결연을 통해 아프리카 학생 유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산시 · 무완자 시 자매결연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충남 아산시를 방문한 탄자니아 무완자 시장 일행 9명은 10월 22일 아산시와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김평육 선교사 주선으로 무완자 주지사의 아산시 방문(4월)과 아산 시장의 무완자 방문(7월)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이다. 아산시는 앞으로 농업기술 전수, 유학생 지원 등 무완자 시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장 방문

탄자니아 대통령 비서실장, 우간다 국회 외무위원장, 콩고 주지사 및 2개 주 국회의장 등 일행 15명은 10월 23일 안상수 인천시장을 방문해 인천·아프리카 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논의했으며,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린 인천 중소기업 박람회에 아프리카 투자 기회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가져 아프리카와 한국이 한껏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프리카 전통 예술단 한국 초청

아프리카 5개 전통예술공연단 60명 한국 초청

2008

아프리카 예술단 인천 내리교회 공연

아프리카 예술단 부천시 공연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방문(국회의사당)

아프리카 지도자 세미나

한국 교계, 대학 지도자 방문(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총장 접견)

콩고 고마 한국어 학교

콩고 난민을 위한 컨테이너 보내기

민주 콩고의 오지 무웽가 방문

2008년 사역 요약

2008년은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통해 더욱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5월에는 부산시에서 개최한 세계 수변도시회의에 콩고 키부 호수와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주변 5개 주에서 주지사를 포함하여 시장과 주 국회의장 등 54명을 한국에 초대했다. 우간다와 콩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에 참가하게 하였다. 9월에는 콩고의 고마와 부카부, 탄자니아의 부코바, 무완자, 마라주 등 5개 지역 전통예술단 60명(각팀 12명)을 부산 국제 사회체육대회에 초대하여 아프리카의 전통예술을 선보이게 했다.

그리고 10월에는 70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대하였다. 유학생과 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늘려서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하여, 그 결실로 아산시와 탄자니아의 무완자 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다. 아산시에서는 농업 기술연구소에 아프리카 농업지도자 7명을 초청하여 6개월간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선교전략 캠프를 콩고 고마 센터에서 열고 한국에 유학 보낼 25명의 콩고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매년 여름 단기선교단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복음화 사역은 소강상태가 되고 선교센터 건축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

2008년

1월 20일 – 2월 10일: 한국 사역

- 김미희 간사 미국 달라스로 이주(달라스 지부 설립)
- 아프리카 학생 16명 한국 유학(서울신학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양공업전문대학교, 연세대학교)
- 부산시 사회체육대회(X-Trex) 본부 방문 아프리카 예술단 초청 협의
- 부산시 국제 수변도시회의 아프리카 도시 참가 협의

2월 15일 – 3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31차 현장 사역)

- 아프리카 비전트립(이재오 사관 부부, 조홍준 부교 부부 외 12명)
  (콩고 키부주 주지사 등 접견. 르완다,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선교센터 방문)
- 탄자니아 부코바 클리닉 센터 건축(현재 유치원 운영)
- 르완다 찬구구 예배당 건축 착공(현재 어린이교회)
- 탄자니아(부코바, 마라, 무완자), 콩고(고마, 부카부) 전통예술단 한국 방문 결정

3월 20일 – 5월 10일: 미국 본부 사역

5월 10일– 6월 10일: 한국 사역

- 아산시 농업연구 기술연구소 연수(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7명)
- 아프리카 지도자 부산 국제 수변도시회의 참석(탄자니아, 콩고 54명 초청)
- 우간다, 콩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 선관위 연수 초청

7월 1일 – 9월 10일: 아프리카 사역(제32차 현장 사역)

- 단기 선교단 활동(28명)(르완다,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 콩고 고마 한국어 학교(25명 입학)(교사: 유명상, 김은혜, 승현옥)
- 보엠 공연: 우간다 캄팔라 / 탄자니아 무완자(3차 순회 공연 40여 회)

9월 25일 – 11월 5일: 한국 사역

아프리카 전통예술단 및 지도자 한국 방문(130명)

- 9월 25일 – 10월 14일: 아프리카 전통예술단 부산 X-Trex 참가 및 지자체 초청공연
  아프리카 전통예술단(60명): 탄자니아(무완자, 부코바, 마라), 콩고(부카부, 고마)
- 10월 15일 – 10월 30일: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초청(70명) 세미나 및 산업시찰, 교회 방문
- 11월: 2009 한국 ·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대회 개최 발표(기자회견)
- 콩고 부카부 예술단원 중 1명 한국 체류(이화여자대학교 입학)

11월 17일: 고마 지역 내전 발생으로 르완다로 피신했던 김은혜, 승현옥 귀국하고, 유명상은 콩고 재입국

- 콩고 난민돕기 운동 시작(구호금 및 물품수집 컨테이너 수송)

〈건축〉

- 탄자니아 Bukoba 클리닉 센터 건축(현재 유치원 운영)
- 콩고 Uvira-Katongo(10핵타르), 콩고 Beni(2천 핵타르), Mwenga(400핵타르) 제공받음(아프리카 개발사업을 위한 KAID 설립).

〈출판〉

《너, 하나님의 사람아!》(쿰란, 2008. 10. 14)

《네 마음을 쏟아노라》(쿰란, 2008. 12. 20)

ⓒ 미주 중앙일보 2008. 4. 23

월드미션, 아프리카 정계 지도자들 한국 초청

아프리카 개발 돕기 목적…국가조찬기도회 및 청와대 방문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오는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동안 아프리카 7개국(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케냐, 남아공)에서 50여 명의 정계 지도자를 한국으로 초청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아프리카 정계 지도자들은 오는 5월 12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가조찬기도회, 부산 국제수변도시회의, 부산 양식업전시회, 충남도 방문(당진군, 아산시), 인천시 방문, 청와대 방문 등의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사역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추진 중인 KAID 사역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KAID(Korea Africa Investment and Development)는 지난 10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한국 방문을 기점으로 시행된 프로젝트다. 이는 아프리카 선교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퇴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기독교 실업인들의 선교 투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SF=권문정 기자 moonjung@chdaily.com〉

ⓒ 국민일보 2008. 9. 28

'축복의 땅' 아프리카 공연단이 한국 온다

아프리카의 전통공연단이 한국에 온다. 아프리카 선교단체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는 10월 3~6일 '카카우'(KAKAU)를 한국에서 초연한다. 3~4일은 서울 동숭동 엘림홀, 6일은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각각 막이 오른다.

카카우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해외 라이선스 작품의 공동 저작권을 갖고 세계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수렵을 하며 삶의 모든 일상을 춤으로 표현해온 카카우 앞에 다른 문명의 이방인들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를 소재로 했다.

카카우는 춤으로 삶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특히 스토리 속에는 아프리카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비옥한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한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문화적 접근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공연은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가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감독을 맡은 동아방송예술대학 김혜진(뮤지컬) 교수는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아직도 생소한 대륙이기에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관객과 소통하는 뮤지컬이 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공연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 모두가 하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우는 아프리카 전통공연단 11명 외에 〈명성황후〉와 〈마리아 마리아〉의 뮤지컬 배우 오성원을 비롯, 조선행, 강형실 등 한국 배우들이 참여한다. 내년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미국 투어에 들

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09 아프리카 여성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아프리카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했고, 2006 한·아문화교류대회 기간 중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공연 수익금 전액은 내전으로 인해 오갈 데 없는 아프리카의 과부와 고아 등 난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공연은 아프리카 문화원, 제이아트, 티켓링크, 공연예술선교단 보엠이 후원한다(02-323-2932, 031-758-1042).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 크리스챤 라이프 2008. 11. 5

아프리카 전통예술단 및 여성 지도자 한국 초청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선교 컨퍼런스"를 은혜중에 마쳤다.

특히 아프리카의 전통예술단 60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제4회 세계 사회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서 문화 축제에 참가하여 아프리카의 전통 무용과 음악을 선보였다.

9월 25일 한국에 입국한 전통예술단 60명은 9월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사회체육대회에 참가하고 10월 1일 서울에 도착했다.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5개의 예술단 공연이 여러 장소에서 펼쳐졌다.

탄자니아의 마라 팀은 당진군에서 개최한 문화축제에 참가하였는데, 당진군 주민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당진군과 탄자니아 마라주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세계 무형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아프리카의 부코바 팀을 개막식에 초청하여 공연을 가졌다.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부코바 전통팀은 개막식 마지막에는 한국의 사물놀이와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이며 2만 명의 관중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탄자니아 무완자의 수쿠마 부족팀의 공연도 부천시와 강동구청 등에서 준비한 축제에서 갈채를 받았다.

콩고의 노스키부주와 사우스 키부주 전통예술단도 인천시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콩고의 기업투자 기회를 설명하며 춤과 음악으로 한국인들의 마음에 한껏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가졌다.

아프리카 전통예술단은 찬양과 춤을 준비하여 온누리교회(서빙고 및 양재)를 방문하여 공연을 갖기도 하였고, 서울신학대, 인천내리교회, 부천제일교회, 효성교회 등 교회를 방문하여 은혜를 나누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창립된 보엠(대표 오성원)은 김혜진 교수를 주축으로 아프리카 공연단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여 대학로 엘림홀에서 3일간의 공연을 가지며 한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10월 14일 아프리카 전통예술단이 행복한 마음으로 귀국한 후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70명의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를 영접했다.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 케냐, 우간다 5개국에서 70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에 초청된 것이다. 당초 150명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기를 만나 인원을 축소하여 70명이 초청되었다.

10월 19일에는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을 환영하는 환영행사로 진행됐다.

분당 새벽교회(담임 이승종 목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장로(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송윤기 목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무), 배태진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이준 장로(전 국방부장관),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 이사장), 장상 목사(전 국무총리서리), 김영진 장로(한국·아프리카 친선협회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등이 참가하여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을 환영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수동 기도원과 영산 수련원에서 열린 선교 컨퍼런스는 김평육 선교사(리더십, 건강한 공동체), 이만석 선교사(이슬람의 정체), 이상래 목사(셀처치), 이문희 박사(파렌팅, 가정), 노신영 집사(가정세미나), 강인자 전도사(전도세미나), 정미연 교수(리더십), 이진만 집사(새마을 운동) 등의 강의가 있었고, 이태희 목사(민족 복음화운동 총재)의 마지막 날 설교로 은혜를 나눴다.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협력 및 이화여대 방문도 수확

10월 24일(금)에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가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세미나에 참여하고 부천 지역의 보육시설을 견학하였다.

특히, 이날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목창균 교수) 간에 선교협력협정에 서명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과 아프리카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견학한 주지사 부인 등 여성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에도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조기 교육시설을 시작하기로 하고 인천 유아교육 연합회(회장 이상우)와 협력하기로 했다.

10월 27일에는 황중선 중장(1군 단장)의 배려로 전방 시찰과 땅굴 견학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 뒤에 숨겨진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10월 28일(화)에는 한국 여성 지도자 교육의 요람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이화여자대학교가 마련한 글로벌 여성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배용 총장이 마련한 만찬에 참여하였다. 앞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공동 노력으로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10월 29일에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에 마련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였으며, KBS를 견학하였다.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게 시간을 보낸 일행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대문시장,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쇼핑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이번에 열린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을 위해 미국에서는 이문희 박사, 노신영 집사, 강인자 전도사, 조종애 권사, 신옥현 권사, 조혜자 집사, 김진희 집사, 정현 집사 등이 참여하여 봉사하였다.

이번 대회를 마친 김평육 선교사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대회를 진행한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영산 수련원 숙식비 및 차량 대절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친 상태”라며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경비 지불을 위한 후원을 당부했다.

2009 한국·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

2009

우간다 캄팔라 여성 대회를 마치고 아프리카 여성 대표들이 한국 여성 대표에게 선물 증정

2009 한국 · 아프리카 여성 대회 준비기도회(갈멜산기도원)

2009 한국 · 아프리카 여성 대회 준비

2009년 아프리카 방문단

2009년 르완다 신학교 및 양재학교 졸업식

인천 도시 축전 참가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방문단(1)

보엠 뮤지컬 야외공연

탄자니아 고메 섬 야외집회

여성 대회 CCC 찬양비전 워십

여성 대회 탄자니아 여성팀 찬양

여성 지도자 대회, 르완다 · 부룬디 특송

한국 · 아프리카 여성 대회 보엠 특송

아프리카 여성 대회를 마치고 송별잔치

2009 한국 ·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캄팔라)

시애틀 샛별 전통예술단 공연

시애틀 샛별 전통예술단 공연

2009년 사역 요약

2009년에는 한국 ·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한국 워가코리아에 참석했던 아프리카 7개국 여성 대표들이 준비위원으로 우간다 캄팔라에서 대회가 개최되었다. 캄팔라대회에는 아프리카 7개국 여성 지도자 2천 명이 참석하였다. 다음 주간에는 강사로 참석한 160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아프리카 5개국 14개 도시로 흩어져 여성 지도자 대회를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에 아프리카관을 별도로 만들고 아프리카 11개 도시를 소개하는 부스를 진열하여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폐막식에서는 전시관 방문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 르완다 사무총장인 존 밥티스트 목사가 3개월간 전시관을 지켰다. 11월에는 40여 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2009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한국 연수와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여러 가지 사역의 부담으로 선교센터 건축의 비전은 더디지만 서서히 진행되었고, 탄자니아 생게레마 디스트릭과 농과대학교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대학교 부지 150에이커를 확보하였다.

또한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 GTU에 속한 ABSW와 학사교류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2009년

1월 9일 – 10일: 2009 아프리카 선교단 준비 기도모임(북가주 금식기도원)

(2009년 선교단 강의 교재 소개)

1월 15일: 콩고 난민돕기 구제품 컨테이너(20피트) 수송

1월 16일 – 18일: 샛별 전통 예술단 캘리포니아 순회공연(2009년 여름대회 준비)

- 1월 16일: 산호세 온누리교회
- 1월 17일: 남가주 가스펠교회
- 1월 18일: 나성 한인연합감리교회

2월: 한동대학교 첫 졸업생 3명 귀국

(Manzi Danny, Samuel Rutarana, Mukoro Marceline)

- 만지다니 목사 우간다 사무총장 임명(2012)
- 사무엘 루타라나 르완다 사무총장 임명(2012)

2월 1일 – 3월 15일: 아프리카 사역(제33차 현장 사역)

- 2월 15일: 찬구구 예배당 입당예배

  아프리카 방문단 르완다, 콩고 방문(임용근 의원 부부, 권혁천 목사, 서대석 장로, 최창효 목사 등)
- 2009년 한국 ·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 준비를 위한 각국 목회자 및 여성 지도자 회의
- 우간다 캄팔라 목사회 대회 준비(마케레레 대학교 기숙사 사용 허락)
- 탄자니아 생게레마 디스트릭과 농과대학 건축 MOU 체결(150에이커)

3월 21일: 김평육 선교사 출판 기념회(장소: 산호세 온누리교회)

《네 마음을 쏟아노라》(쿰란, 2008)

《너 하나님의 사람아!》(쿰란, 2008)

4월 17일: 우간다 물품수송(생활용품, 오토바이 등)(모산 구세군교회, 이재오 사관)

4월 30일 – 5월 2일: 아프리카 선교단 수련회(LA 감람산 기도원)

- 2009 한국·아프리카 여성대회 준비

5월 10월 – 5월 30일: 한국 사역

- 아프리카 농업 2차 연수생 5명 한국 입국(아산시 농업기술연구원 6개월)
- 2009 한국·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대회 참가자 모임

6월 21일(주일): 북가주 지역 교회 아프리카 여성돕기 6·25 기념주일

6월 28일(주일): 한국·아프리카 여성대회 선교단 파송예배(산호세 새소망교회)

6월 29일 – 8월 10일: 아프리카 사역(제34차 현장 사역)

"2009 한국·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대회(한국, 미국 160명)

"Rise Up Africa"

- 7월 8일 – 11일: 아프리카 7개국 여성 지도자대회(우간다 캄팔라, 2천 명)

(숙소– 마케레레 대학교 기숙사, 집회: 크리스찬 라이프교회)

- 7월 13일 – 19일: 아프리카 5개국 14개 도시 여성 지도자 대회

보엠 공연: 우간다 캄팔라 / 탄자니아 셍게레마, 게이타, 므완자(4차 순회 공연 30여 회)

8월 17일 – 10월 25일: 인천 세계도시축전 아프리카 전시관(11개 도시)

(월드미션 프론티어 르완다 사무총장 Jean Baptiste Ndajigimana 전시관 관리)

전체 전시관 중에서 아프리카 전시관이 2위로 선정됨

9월 6일 – 11월 30일: 선교전략캠프 선교훈련생 미국 훈련(9명)

9월 10일 – 10월 20일: 한국 사역

- 인천 세계도시축전 참가

한국연수 및 유학생 입국(연수생 21명, 유학생 4명)

*어린이집 교육연수(6개월): 인천시 어린이집 협회(7명), 울산시 어린이집 협회(5명), 아산시 모산 유아원(2명)

*농업 연수(6개월): 산청 민들레 공동체(3명), 아산시(5명)

10월 21일 – 11월 9일: 20일 연속 금식기도회

10월 30일 – 11월 1일: 부흥회 강사(트라이 밸리장로교회 창립 27주년, 이명섭 목사)

11월 8일 – 11월 30일: 한국 사역

- 11월 9일 – 11월 23일: 아프리카 지도자 42명 한국 초청

세미나와 산업시찰, 한국교회 방문

(50명의 탄자니아 방문단이 항공권을 구입한 상태에서 출국 취소)

12월 15일: ABSW 신학대학원과 공동학위 MOU 체결

〈건축〉

- 탄자니아 셍게레마 농과대학 설립을 위한 MOU 체결(150에이커)
- 르완다 찬구구 센터 예배당 입당

ⓒ 크리스찬 라이프

할렐루야!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글 / 이형자 대회장(기독교선교횃불회 원장, 워가코리아 위원장)

2009년 7월, 아프리카 10개 나라의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이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모여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대회를 열도록 허락하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10월, 워카코리아 "2007 세계 여성 리더 선교대회"에 참여했던 아프리카 여성들이 각기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 기도하며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고자 연합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생명의 꽃, 복음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기 위해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급속도로 이슬람 세력이 오일머니를 쏟아 부으며 마을마다 모스크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이슬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들 손에 주님은 아프리카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아프리카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기독여성들이 아프리카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기독여성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온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일생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선교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번 아프리카 여성 선교대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우간다 영부인께서 이번 대회의 대회장이 되어 아프리카 10개국의 여성 지도자 2천 명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을 밟으며 기도와 사랑을 심는 아프리카 선교 프로젝트에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여성들이 일어서다

여성 리더십 세워 아프리카 복음화 나선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여성대회와 지도자 세미나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추진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지난 7월에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대회" 사역을 마쳤다. 아프리카의 여성 리더십을 세워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이루며, 아프리카의 가정, 교회,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들을 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열린 여성 지도자대회였다.

한국·아프리카 여성 대회는 1차로 우간다 캄팔라에서 아프리카 10개국 여성 지도자 2천 명이 참가한 대회를 개최하였다. 마케레레 대학교 기숙사에 숙소를 정하고, 인근에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 교회에서 대회가 열렸다.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박 5일간 열린 대회에는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2천 명이 참가하고 한국인 160명의 강사진이 참가했다.

오전 시간의 전체 대회 주강사로는 아이다 메헹게 여사, 이형자 이사장, 김경옥 교수, 김윤희 교수, 정미연 교수, 이문희 박사 등이 나섰으며, 연설이 끝날 때마다 아프리카 각 나라의 민속 음악과 춤을 공연했고, 한국에서는 보엠 뮤지컬에서 뮤지컬을 공연했다. 조한수, God's Image, 김현영 등의 특송도 인상적이었다.

오후에는 크리스찬 라이프 교회, 마케레레 대학에 마련된 텐트에서 워크숍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의 강사들은(존칭 생략) 김경옥, 이문희, 김윤희, 이정숙, 정미연, Steve Chang, Lisa Chang, LeAnn Flesher, Sharon Cha, Kristen

Preston, Hulda Song, A. Kuntz, 노신영, 강인자, 이한광, 구미영, 김희선, 박상일, 조계석, 최황, 박종술, 이만석, 이형자 등이었다.

마지막 날 오후에는 모든 선교단원들이 월드미션 프론티어 상기(Nsangi) 센터를 방문하고 선교센터에서 마련한 오찬을 나누었다.

7월 12일 주일에는 선교단원 중에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저녁에는 아리랑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며 캄팔라에서의 여성대회를 마쳤다.

7월 13일부터 19일에는 아프리카 5개국 14개 도시에서 캄팔라에서 열린 것과 같은 규모의 여성 지도자대회를 열었다. 160명의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청년들 14개 팀이 다음과 같은 도시의 여성들을 깨웠다. 탄자니아 무완자(Mwanza) 대회에는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와서 참가하였으며, 부룬디의 부대통령과 영부인이 참가하기도 했다.

우간다는 Mbarara, Masaka, Nsangi, 탄자니아는 Bukoba, Mwanza, Sengerema, Geita, Musoma , 르완다는 Kigali, Kayonza, Kysenyi, 콩고에서는 Goma, Bukavu, 그리고 부룬디의 Bujumbura에서 세미나와 여성 전도대회가 열렸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9. 9. 16

선교전략캠프 7기, 미국 캠프 도착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선교전략캠프를 통하여 선교사를 자체적으로 훈련시키는 선교사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번에 7기 선교전략캠프를 개원하였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훈련을 하던 학습환경을 6개월 과정에서 1년 과정으로 변경하였다. 1년 과정은 미국에서 3개월(선교훈련, 영성훈련 및 영어교육), 아프리카에서 언어연수 3개월(스와힐리어), 월드미션 프론티어 현지 사역 현장 실습 6개월로 진행된다.

9월 6일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8명의 학생들이 선교전략캠프를 통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제7기 전략캠프는 최항 목사(월드미션 프론티어 간사)가 선교전략캠프 디렉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최항 목사는 "선교전략캠프에 자원한 학생들은 모두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영적인 자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선교학, 설교학, 성서신학 등 기본적인 신학을 영어로 교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3개월간 진행되는 선교전략캠프에 아프리카 단기선교사로 헌신했던 이한광 집사(뉴비전교회), 영 가르시아 목사, 노신영 집사(가정선교교육원), 이문희 박사(사회복지), 홍미경 집사 등이 영어교육을 돕고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지역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라고 전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9. 10. 21

농업, 유아교육 연수생 한국 입국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연수를 추진해 왔는데, 연수프로그램을 유아교육 연수로 확장하였다.

2008년 아산시 농업연구소를 통해 7명의 아프리카 공무원에 대한 6개월간의 농업연수가 실시되었으며, 지난 5월에 입국한 5명의 연수

생이 현재 아산시에서 연수 중이며 11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아산시 농업연수에 이어 경남 산청에 소재한 민들레 공동체를 통한 축산 연수가 시작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해 있는 3명의 연수생이 10월 초부터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업 연수에 이어 유아교육 연수를 위해 7명의 아프리카 교사 출신의 자매들이 지난 9월 5일 한국에 입국했다.

인천 어린이집 협회(회장 이상우)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7명의 교사들은 앞으로 6개월간 인천시에 있는 4개 어린이집에서 6개월간 연수할 예정이다. 9월 중 7명의 연수생이 추가로 입국하여 울산시(5명)와 아산시(2명)에 소재한 유치원에서 연수하게 된다.

이번 연수생들의 결과가 좋을 경우 인천, 울산, 아산뿐 아니라 연수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많은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한국 연수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9. 10. 21

인천 세계도시축전, 아프리카 4개국 11개 도시 참여

아프리카의 이슬람화를 방지하는 선교 자원의 확보
아프리카의 개발과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 개발기구로 카이드(KAID) 설립하고 첫 사업으로 추진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세계의 이슬람화가 급격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오일머니의 투입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이슬람화를 막아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교회 산하에 KAID(Korea Africa Investment and Development)라는 아프리카 개발기구를 설립하고 활동 중이다.

KAID는 비기독교적인 활동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선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인적 네트워크, 자원 개발, 한국 기업의 진출, 선교 자립농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카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도시 및 기관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농업 연수, 유아교육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와 탄자니아의 무완자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이미 2회에 걸쳐 12명의 농업연수생을 훈련했다. 인천 어린이집 협회에서는 7명의 연수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울산 연합회에서도 5명의 연수생을 교육하게 된다. 앞으로 카이드를 통한 인적 교류가 더욱 왕성해질 전망이다.

카이드는 한국 기독교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 아프리카의 개발을 돕고,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한국의 자원 확보를 돕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 기업인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4개국 11개 도시가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하도록 했다.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은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도시 박람회이다. 원래 엑스포로 개최하려 했으나, 국제 박람회 기구 측이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와 주제가 같고, 기간이 공인 엑스포와 같아 행사 명칭을 변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여 조직위원회는 명칭을 엑스포에서 축전으로 바꾸고, 세계 주요 도시들과 함께 다국적 기업

도 유치하기로 하였다.

카이드에서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세계관에 아프리카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아프리카 11개 도시의 시장을 설득하여 축전에 참가하도록 했다.

도시관의 설치는 한국의 무영건축(회장 안길원)에서 부스 설치비를 기부해 주었으며, 아프리카 11개 도시 관계자의 한국 왕복 항공료와 숙소는 인천 세계도시축전 측에서 제공해 주었다.

이번에 인천 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한 국가는 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4개국이다. 콩고에서는 킨샤사, 고마, 베니, 무웽가, 우비라, 부카부 등 6개 도시에서 참가했다. 탄자니아에서는 부코바, 무완자, 무소마 등 3개 도시, 우간다의 캄팔라와 르완다의 키갈리 시가 세계도시축전에 참가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9. 10. 21

카이드가 주관한 아프리카관이 2위 차지

세계도시관 참관자 설문조사 및 주최 측의 평가, 10월 25일 폐막식서 시상

이번에 열린 인천 세계도시축전은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오는 10월 25일 폐막하게 된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KAID가 관람자들의 설문조사와 주최 측의 평가에 따라 2위에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된다.

대회 주최 측에서는 그동안 관람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우수 도시관을 조사하였는데, 관람자 설문 내용은 1) 성의 있는 아프리카 정보 및 진열 2) 스태프의 근무 태도 및 관람객 질문에 대한 설명 3) 볼거리와 아프리카 문화, 댄싱과 북체험 코너 4) 아프리칸 현지인 상근 점수 등이 조사되었으며, 주최 측의 점수 기준은 1) 부스 열기 및 닫기 시간 엄수 2) 자원봉사자와의 융화 3) 상근자의 성실도 4) 관람객 영접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09. 10. 21

2009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

비자 발급 관계로 지연, 11월 9일 한국 입국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에서는 오는 11월 아프리카의 기독교계, 정치계, 여성계 지도자 80명을 한국으로 초청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는 "1백 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10월 5일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탄자니아의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아프리카의 기독교계, 정치계, 경제계, 여성계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3주간의 일정으로 세미나와 산업시찰을 통해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400명가량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동안 80명의 정치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준비한 세미나와 산업시찰에 참여하게 된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세미나는 “한국의 농산물 유통과 세계 식량 전망”(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사회복지사업(여성, 아동-인천 사회복지센터), 새마을 운동(새마을 중앙회) 등으로 준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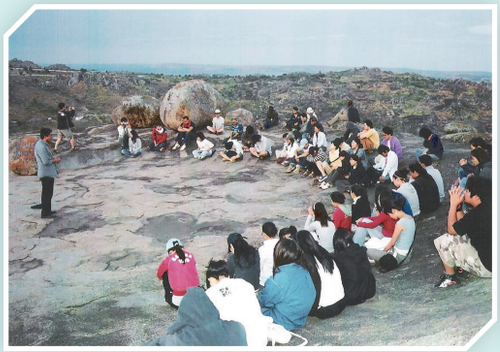
11월 15일(주일)에는 한국·아프리카 친선협회(대표 김영진 장로)가 주관하는 환영예배가 열리며,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산업시찰이 진행된다.

장관,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매일 저녁 김평육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 교계인사들의 말씀 집회로 영성훈련도 겸할 예정이다.

부룬디 대통령(Pierre NKURUNZIZA) 초청으로 접견, 목사였던 쿠룬지자 대통령은 2020년 서거했다.

ABSW 신학대학원과 선교협력 MOU 체결 후 폴 마틴 총장 아프리카 방문 특강

북가주 한 · 흑 갈등해소 협회 한국 방문



탄자니아 무완자 바위산에서 기도모임

단기선교단원들의 저녁시간

2010년 사역 요약

2010년에는 장기 사역을 위한 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미국 신학교와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버클리 GTU에 속한 ABSW 신학대학원의 폴 마틴 총장을 UTS(Uganda Theological Seminary) 개교 특강 강사로 초대하였다.

여름에는 신학교 강사를 포함하여 51명의 단기 선교단이 7월 한 달 동안 대표 선교사가 불참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현지인 스태프진과 함께 전도대회를 감당하였다.

1992년 LA 폭동사태로 한인타운에 피해가 심해 한 · 흑 간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북가주 지역에서는 한흑 갈등해소연합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교류를 이루고 있어 한흑 갈등해소연합회 목사님들을 한국에 초청하였다.

특히, 부룬디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목사로 부룬디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것을 돕기 위해 "2011 부룬디 복음화 대회"의 준비를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장기 사역 외에도 많은 학생들의 유학 사역이 진행되었고, 고마 지역의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돕기 위한 구제 물품을 컨테이너로 수송하기도 했다. 콩고 북키부 주지사가 선교회에 제공한 2천 헥타르의 밀림 지역에 피그미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200명의 인부를 채용하여 40Km의 밀림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낸 것도 큰 사역 중 하나였다.

2010년

1월: 아프리카 사역(제35차 현장 사역)

- 콩고 고마 난민촌 방문
- 콩고 난민을 위한 컨테이너 수송

2월: 한국 유학 17명(콩고 한국어 학교 졸업생 14명, 보육연수생 중 3명 대학교 입학)

3월 7일 – 4월 3일: 아프리카 사역(제36차 현장 사역)

- 우간다 신학대학교(Uganda Theological Seminary) 개교
  - 3월 9일 – 12일: ABSW Paul Martin 총장 초청 특강
  - 3월 15일 – 4월 27일: 목영수 목사 강의 사역(UTS 학장 위촉)
- "2011 부룬디 복음화 대회" 준비 위해 부룬디 대통령, 영부인 접견

3월 26일 – 3월 27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중보기도 모임(북가주 금식기도원)

4월 7일– 5월 9일: 김평육 선교사 선교보고 간증집회

- 4월 7일(수): 주사랑교회(담임 우동은 목사)
- 4월 11일(주일): 노엘 장로교회(담임 윤민학 목사)
- 4월 16일(금): 새크라멘토 수도한인장로교회(김승 목사), 선교헌신예배
- 4월 18일(주일): 상항제일장로교회(담임 박영준 목사)
- 4월 23일(금): 산호세 온누리교회(담임 김영련 목사)
- 4월 24일(토): 산호세 온누리교회 - 단기선교단 훈련
- 4월 25일(주일): 산호세 영락교회(김광진 목사), 선교헌신예배
- 4월 27일(화): 이스트베이 노인선교회
- 5월 9일(주일): 새크라멘토 좋은 연합감리교회(정현섭 목사) 선교헌신예배

5월 10일 – 6월 3일: 한국 사역

- 선교훈련 및 아프리카 유학생 돌봄 사역
- 6월 24일 – 26일: 인천 국제 악기 전시회 아프리카 전통악기 소개 (송도 컨벤션센터)

7월 5일 – 7월 25일: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51명)(김평육 선교사 불참)

- 7월 7일 – 7월 11일
  - 르완다 키갈리 여성대회(선교단원)
  - 신학교 특강(조은석 목사)
- 7월 13일 – 7월 15일: 콩고 고마 지역 목회자 및 여성 세미나
- 7월 16일: 콩고 피그미 마을 방문
- 7월 18일 – 7월 25일: 콩고 우비라 전도대회
- 7월 28일 – 31일: 우간다, 탄자니아 전도대회
- 보엠 공연: 우간다 캄팔라 / 탄자니아 무소마, 무완자 / 케냐 나이로비 (5차 순회 공연 30여 회)

9월 28일 – 10월 20일: (한국)

- 9월 28일 – 10월 8일(10박 11일): 북가주 한 · 흑 갈등해소연합회 한국 초청(청와대, 한기총, 국회, 카이스트 대학, 인천성서박물관, 논산, 부여, 부산의 한인교회와 문화유적지 등)
- 10월 2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1 부룬디 복음화 대성회" 발표

〈건축〉

- 콩고: 베니 피그미 선교센터 건축

ⓒ 크리스챤 라이프 2010. 4. 9

부룬디 대통령 접견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지난 3월 부룬디 대통령의 초대로 부룬디를 방문하고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2004년에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했던 "2004 아프리카 전국 복음화 대성회"의 부룬디 대회에 귀빈으로 초빙되었던 피에르 쿠룬지자 대통령은 할렐루야 축구단의 경기에 감동을 받고, 대통령이 된 후 할렐루야 축구단을 조직하여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04년에 월드미션 프론티어 새마을 교육에 참가했던 피에르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특사를 한국 새마을 중앙회에 보내 새마을 운동의 보급을 요청했으며, 지난 7월 새마을 중앙회장이 부룬디를 방문한 바 있다. 2011년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 기간에는 부룬디 전국에서 새마을 운동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후투족 반군 지도자이면서도 목사였던 피에르 쿠룬지자 대통령은 2005년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부룬디의 내전을 종식시켰으며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했다.

피에르 대통령의 특별 요청으로 영부인을 만난 김평육 선교사는 영부인이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2011년의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2009년에 부룬디에서 열린 여성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던 영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민족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프리카 부유층 여성들이 곱슬머리를 풀고 머리를 치장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부룬디 산골마다 고아들과 미망인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머리를 치장하겠느냐며, 50달러가 소요되는 스트레이트 파마를 거절하는 검소함으로 국민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사진에서 영부인 옆에 있는 키간자 씨(여자 중앙)는 부룬디 헌법재판소 부위원장으로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의 준비위원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다.

맨끝에 있는 다말 씨는 사업가로서 월드미션 프론티어 부룬디 지부장을 담당하고 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0. 7. 9

2010 아프리카 단기선교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매년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가 진행 중에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11년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사역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1명의 선교단원들이 현지에서 사역 중이다.

7월 5일 출국한 51명의 선교단원들은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르완다에서 여성 지도자 대회(키갈리) 및 목회자 선교대회(가히니)를 개최하고, 르완다 2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개최한다.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주간 동안에는 51명의 선교단원들이 탄자니아, 콩고, 우간다로 입국하여 여성대회, 목회자 세미나, 찬양전도집회, 어린이 선교대회, 피그미촌 선교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번에 단기선교단에 참가한 선교단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아프리카 선교에 참가했던 단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알찬 내용으로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가주(7명), 남가주(5명), 뉴저지(4명) 등 16명이 참가하고, 한국에서는 CCC 찬양비전과 보엠 등 찬양사역팀과 선교전략캠프 훈련생 등 37명이 참가했다.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에 앞서 우간다 신학교에서는 조은석 목사(금문장로교회 담임, 신학박사)와 배임순 목사(뉴저지 여성상담소 소장, 상담학 박사)를 강사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여름 선교 사역을 마치는 대로 2011년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홍보하고, 2011년 여름 대규모 선교단을 동원하여 부룬디 완전 복음화의 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0. 7. 9

우간다 신학교 개교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ABSW(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와 결연으로 우간다 신학대학원(UTS, 학장 목영수 목사 위촉)을 개교했다.

개교를 위해 지난 3월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폴 마틴 총장과 우간다 신학교 학장을 맡은 목영수 목사가 우간다를 방문하여 특강과 함께 개교식을 거행했다.

우간다 신학대학원은 미주 지역에서 교수진을 확보하여 인텐시브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북가주 지역에서는 그동안 조은석 목사(구약학, 6-7월)와 김광수 목사(10월) 등이 우간다 신학교에서 강의해 왔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0. 10. 15

한·흑 갈등해소연합회 한국 방문

한·흑 갈등해소연합회(AAKAFC)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0박 11일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한국 방문은 흑인교회 목사님들을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 한국지부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오클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흑 갈등해소연합회는 매년 주기적으로 모여 한흑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한국 방문에는 Verleeta White, Wanda Shannon, Brian Woodson, Veronica Hammock의 흑인 목사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북가주 한인교회에서는 한상은 목사, 이동진 목사, 신태환 목사, 김덕수 목사, 성수남 목사가 참여하였다.

한·흑 갈등해소연합회는 10박 11일 동안 청와대, 한기총, 국회, 카이스트 대학, 인천성서박물관, 논산, 부여, 부산의 한인교회와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 정치, 교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진행한 성수남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국제교육원장인 전 정상기 총영사와 김영진 국회의원, 그리고 논산성결교회의 김영호 목사과 대구대학교 국제처 교수들, 그리고 조종애 선교사의 섬김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동진 목사는 "계속해서 오클랜드 지역을 비롯해서 북가주 지역의 민족 간의 벽들을 허물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며,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태환 목사는 “한국의 발전상이 눈부셨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으며, 흑인 목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내년 2011년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에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흑인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흑인 목사님들의 한국 초청을 도왔다”라고 밝히면서, “한인들이 아프리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흑 간에 갈등이 무너지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0. 10. 15

부룬디 복음화 대성회 발대식

10월 2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김평육 선교사(국제대표)는 지난 3월 부룬디 대통령을 만나 2010년에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할 뜻을 밝히고, “2011년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의 준비를 가시화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발표하고,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메일로 부룬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난 10월 2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 발족식을 갖고, 그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했던 선교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룬디 대회의 개최를 공식화했다.

오클랜드 지역의 흑인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부룬디 대회 발족식에 참가하여 관심을 갖고 아프리카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

부룬디 대통령은 특사를 보내 부룬디 대회에 대한 자세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대통령 특사는 한기총을 방문하여 한국 교회의 부룬디 대회 참여를 당부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0. 10. 22

부룬디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특별인터뷰
Dr. Alvert NASASAGARE 알버트 부룬디 대통령 의전실장
Mr. Ascension TWAGIRAMUNGU 아센션 대통령 수석자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절실한 부룬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쪽에는 르완다, 남쪽에는 탄자니아, 서쪽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 다소 낯선 이름의 나라이지만 부룬디에 복음이 전해지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알버트 부룬디 대통령 의전실장(Dr. Alvert NASASAGARE)과 아센션 대통령 수석자문(Mr. Ascension TWAGIRAMUNGU)을 만나봤다.

이미 부룬디는 복음으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하면서 알버트 실장은 “800만 명의 적은 인구임에도 지난 10여 년간 내

전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대통령이 내전으로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암살당하는 일을 3번이나 겪는 등 상처가 많은 나라"라며 "현재의 대통령은 목사님 신분으로 늘 기도하며 부룬디 복음화를 통한 발전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불러온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알버트 실장과 아센션 수석자문은 과거 한국의 상황과 부룬디의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알버트 실장은 "현재 국가 재정의 50% 정도가 해외 원조에 의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해외 원조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와 비전을 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룬디 복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수차례의 복음화 대회를 열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센션 수석자문도 "부룬디는 발전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중에 있으며 부룬디의 발전을 위한 개발 속에는 기독교 정신을 통해 지속적이고 소망을 주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별히 한국을 알아가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부룬디의 모델로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내년 7월 월드미션 프론티어(국제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주최하는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알버트 실장은 "내년에 열리는 전국 복음화대회를 통해 부룬디 정부가 그동안 지향해 오던 하나님과의 화해와 민족 간의 화해로 하나로 연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어린이와 질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부룬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룬디 대통령 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기도모임이 매주 열리고 있으며, 아이들과 군인 출신들로 조직된 3팀의 성가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센션 수석자문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성가대 활동을 할 정도로 대통령 궁이 예배처소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더의 변화가 한 나라 운영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며, 특별히 기독교 정신을 통해 건강한 나라 부룬디를 꿈꾸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룬디는 앞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료혜택과 교육 정책 개발에 힘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알버트 실장은 "현 정권이 출범한 3년간 2천여 개의 학교를 만들고, 8백여 개의 진료센터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의 발전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 함께한 월드미션 프론티어 한국지부의 고봉귀 선교사와 김은례 간사도 "부룬디를 바라보며 복음의 희망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된다"며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부룬디라는 나라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역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내년 7월, 부룬디 전국 복음화대회를 통해 부룬디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그들의 리더십과 신앙을 통해 좋은 나라, 희망의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는 내년 부룬디 전국 복음화대회에 함께 참여할 목회자 및 평신도를 모집하고 있다.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

2011

시애틀 샛별전통예술단 아프리카 5개국 순회공연

단기선교단 사역준비 기도회

부룬디 무줌부라 여성 세미나

부룬디 무줌부라 목회자 세미나

2011 부룬디 복음화 대회

2011 부룬디 복음화 대회 거리행진

선교대회 마치고 부룬디 영부인 방문

2011년 사역 요약

2011년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추진한 마지막 복음화 대회로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부룬디의 정국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룬디의 수도 무줌부라를 중심으로 정부 지도자, 목회자, 여성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연합집회로 행사를 진행했다. 보엠 뮤지컬, CCC 찬양비전, 샛별 전통예술단의 활동으로 무줌부라 대회는 부룬디 사람들의 축제로 치러질 수 있었다. 부룬디 복음화 대회를 마친 선교단원들은 콩고,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에 흩어져 사역을 계속하였다.

2011년에는 일본 쓰나미 사태에 <크리스찬 라이프>를 통해 북가주 지역 교회의 구호금을 모아 북가주 교회협의회에 전달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 부코바, 르완다의 찬구구, 우간다 카테레케 커뮤니티 센터 등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2005년부터 추진하다가 중단된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제작 경비를 마련하고, 탄자니아 무완자의 선박회사를 통해 병원선의 설계도를 제작하여 탄자니아 SUMATRA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북가주 지역에서는 <크리스찬 라이프> 주관으로 제1회 북가주 조찬기도회를 시작하였다.

2011년

1월 22일(토): 제1회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장소: 산호세 소망교회)

1월 22일(토): 아프리카 유학생 돕기 음악회(금문장로교회, 조은석 목사)

2월: 한국 유학 영남신학대학 1명, 예수대학교 2명 입학

2월 7일 – 3월 2일: 아프리카 사역(제37차 현장 사역)

-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 사역지 사역
- 부룬디 복음화 대회 준비위원회 조직

3월 4일 – 3월 5일: 선교 컨퍼런스(북가주 금식기도원)

3 – 4월: 일본 쓰나미 구호, 북가주 지역 모금활동(크리스찬 라이프)

- 3만 3천 27달러 모금하여, 북가주 교회협의회에 전달

4월 10일: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회를 위한 뉴욕지역대회

- 장소: 낙원장로교회(황영진 목사)

4월 29일 – 5월 1일: 몬트레이 지역 연합선교부흥회

- 장소: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
- 강사: 민찬기 목사(일산 예수인교회)

5월 10일 – 5월 30일: 한국 사역

- 부룬디 복음화 대회 선교단 모임 및 훈련

6월 22일: 부룬디 복음화 대회 후원 찬양집회(장소: 대성장로교회)

- 예수열방 워십찬양단(임용만 목사), 실리콘밸리 은하수 합창단, 갓스 이미지 찬조

7월 2일 – 9월 10일: 아프리카 사역(제 38차 사역)

"2011 부룬디 복음화 대회"(단기선교단 90명 참가)

(보엠 뮤지컬, CCC 찬양비전, 샛별 전통예술단 외 선교단원 참가)

- 7월 10일 – 17일: 부룬디 교회 구국기도회
- 7월 20일 – 24일: 무줌부라 복음화 대회
  - 무줌부라(목회자 세미나, 정치계 지도자, 여성 지도자 등 5개 세미나 개최)
  - 단체팀(보엠, CCC 찬양비전, 샛별 전통예술단) 특별공연
  - 전도집회
  - 새마을 운동
- 7월 27일 – 31일: 콩고, 르완다 선교대회(목회자 세미나, 여성 세미나)
  - 콩고 – 우비라
  - 르완다 – 찬구구, 카욘자, 무감바지, 가히니
- 8월 3일 – 8월 10일: 우간다, 탄자니아 전도대회
  - 어린이 사역, 여성 세미나 및 전도집회(보엠, 샛별, CCC 찬양비전 단체팀)

보엠 공연: 부룬디 무줌부라 / 르완다 가히니 / 케냐 나이로비(6차 순회 공연 30여 회)

9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건조 경비 마련하고 설계도 주문

- 탄자니아 무완자 선교부 재설립(Fredrick Ntakabanyula) 디렉터 임명

10월 29일: 콩고 우비라 대학교 건축을 위한 비전 나잇(산호세 제일교회)

11월: UTS를 르완다 가히니로 이전하고 ATS로 학교명 변경

11월 10일 – 12월 5일: 한국 사역

-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기념행사

12월 10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설계도면(Sinautic, Netherlands) 탄자니아 SUMATRA 승인 신청

〈건축〉

- 탄자니아 부코바 선교센터 완공하고 선교 훈련생 입주
- 르완다 찬구구 교실 5개, 화장실 건축
- 콩고 우비라 카통고 대학교 건축 기초공사 시작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설계도면 주문 및 허가 신청
- 우간다 카테레케 커뮤니티 센터 건축

ⓒ 기독일보 2011. 1. 25

조국과 세계선교를 위한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 지역목회자와 총영사, 한인 단체장들이 참여

22일 열린 조국과 세계선교를 위한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에서 총영사를 비롯하여 교계인사들, 한인 단체장 200여 명이 함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찬 라이프〉(발행인 김평육 선교사) 주최로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에 산호세 새소망교회에서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위원장 윤상희 목사)가 진행됐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 조찬기도회(회장 노승숙 장로)의 협찬과 북가주 지역 총연합회(회장 이동학 목사)의 후원으로 준비되었다.

행사는 1부 예배, 2부 기도회, 그리고 3부 만찬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 사회는 윤상희 목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기도는 윤민학 목사(조찬기도회 준비위원), 그리고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성중창단이 특송으로 함께했다.

윤상희 목사는 "조국을 위해서 이곳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교를 맡은 이동학 목사(북가주 지역 교회협의회 총연합회 회장)는 사무엘상 12장 19-25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2부 기도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정관 총영사가 '조국의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관 총영사는 "조국의 안보는 미국의 정치적 입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2부 기도회 순서의 사회는 우동은 목사(총연 총무)가 맡아 진행했으며, 조종애 권사가 특송을 했다. 기도회 순서는 조국을 위한 기도 - 김근제 목사(산호세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 미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기도 - 신태환 목사(총연 증경회장), 그리고 세계와 선교를 위한 기도 - 김덕수 목사(총연 증경회장)가 대표로 기도했다.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총영사와 평통회장(김이수 회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미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참석한 한인단체장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

졌다.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는 손원배 목사(임마누엘 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친 후에 친교실로 자리를 옮겨 3부 만찬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산호세 새소망교회 안수집사회'와 '암환우 및 가족후원회'가 경비를 부담했고, '산호세 새소망교회 권사회'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 가진 조찬기도회로 한국의 조찬기도회와 연계해서 매년 정기적인 조찬기도회로 정착될 예정이다.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양정석 집사는 "이번 조찬기도회가 지역의 목회자와 총영사, 그리고 한인단체장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1. 1. 28

김평육 선교사 2월 아프리카 방문, 부룬디 현지 준비위 조직

3월은 미국, 4월은 한국에서 단기선교단 모집과 훈련 사역

본보 발행인 김평육 선교사가 2월 7일부터 3월 2일까지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김 선교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와 콩고의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역을 감당한 후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해 부룬디를 방문할 예정이다.

부룬디에서는 이번 여름대회를 준비할 현지 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진행한다.

3월에는 미국에서 단기선교단 모집과 훈련을 위해 휴스턴, 뉴욕, 뉴저지 등을 방문하여 부흥 집회와 선교훈련을 감당하고, 4월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선교단 훈련과 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3월 20일에는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부룬디 대회를 위한 찬양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1. 2. 18

'부룬디 복음화 대회' 전미주 선교단 준비모임

3월 4일(금) 오후 7시 – 5일(토) 오후 4시 세계금식기도원에서

오는 7월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오는 3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1박 2일간의 선교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세계 금식기도원(원장 최종숙 목사, 996 Lockhart Gulch Rd., Scotts Valley, CA. 95066)에서 열리는 이번 선교컨퍼런스에서는 단기선교단 훈련과 부룬디 선교현지에서 세미나, 어린이 성경학교, 전도집회 등에 필요한 교재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지난 1월 28-29일 1박 2일간의 1차 모임을 통해 부룬디 대성회를 위한 미주 지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미주 전 지역으로 단기선교단 모집 홍보를 확대하고, 오는 3월 초 전 미주 지역에서 대표들이 참여하는 2차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CCC 찬양비전, 보엠 등 동역단체가 부룬디 대회 참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남가주와 달라스, 휴스턴, 뉴저지, 뉴욕 등지에서 단기선교단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

"2011 부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는 오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룬디 전국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960년대에 독립한 부룬디는 그동안 계속되는 내전으로 6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땅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여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전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부룬디와 이번 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룬디 대회 참가문의는 (408) 345-1727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1. 8. 26

"2011 아프리카 복음화대회" 성황리에 마감

샛별 전통예술단, 보엠, CCC 찬양비전, 세미나 강사 등 90여 명 참가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갖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복음화대회"가 아프리카 5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부룬디에서의 복음화 대성회를 시작하기 전 40일 연속 금식기도회로 준비한 단기선교단의 선발팀이 7월 10일경 부룬디에 도착했다.

현지 사역팀과 중보기도로 현장을 준비한 선발팀은 대회를 위해 입국하는 선교단을 맞이하였다.

7월 19일 부룬디 입국을 완료한 선교단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1) 지도자 세미나(200명) 2) 목회자 세미나(200명) 3) 여성 세미나(200명) 4) 청년대학생 세미나(100명) 등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의 현장을 준비했던 현지 사역팀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준비한 부룬디 복음화대회를 통해 부룬디가 변화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새마을 운동 세미나를 마치고 전체 단원들이 부룬디 교회 성도들과 함께 7월 23일(토) 무줌부라 시내 청소에 나서 무줌부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에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7월 24일(주일) 폐회식을 마친 선교단은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콩고 우비라 지역과 르완다의 찬구구, 가히니, 카욘자, 무감바지 지역에서 복음화 대회를 계속했다.

콩고의 우비라 지역에서는 텍사스 휴스턴의 영락교회 팀이 1) 정부 지도자 세미나 2) 목회자 세미나 3) 여성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치과진료 사역과 거리전도 사역을 전개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우비라 선교센터에서 사역한 선교단원들은 양재학교 및 한국어 학교 졸업식에도 참가하였으며, 사랑의 재봉틀, 염소 나누기 사역에 남키부주의 국회의장이 참가하여 염소와 재봉틀 나누기에 동참했다.

르완다에서는 찬구구 성전의 건축을 완공하고 목회자,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찬구구 키부 호숫가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은 찬구구 지역 전 교회를 대상으로 기도원, 세미나, 영성수련원 등의 목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카욘자 양재학교 건물은 오랜 기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7월 26일-7월 30일)와 양재학교 개교식이 7월 30일에 있었다.

피그미 부족이 거주하는 무감바지 지역의 세미나도 현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르완다 가히니 지역에서는 1) 목회자 세미나 2) 여성 세미나 3) 청소년 세미나가 성료되었으며, 샛별 전통예술단은 매일 야외전도집회에서 공연했다.

7월 31일(주일)에는 르완다 동부 지역 주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 조찬기도회가 진행되었다.

7월 31일(주일) 저녁, 전체 단원들이 르완다 키갈리에 집결하여 르완다 현지 어린이 선교단체인 VISION OF CHILDREN을 돕기 위한 후원 만찬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8월 1일 한국과 미국으로 귀국하고, 10여 명의 단원들은 탄자니아와 우간다로 입국하여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사역을 계속했다.

부룬디에서는 대회를 마친 후 영부인의 특별초청으로 선교팀 대표단이 철야기도회에 참가한 영부인을 개별적으로 접견하고, 오는 10월 한국으로 초청하기로 하였으며, 영부인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한국 초청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안진 장로(전주 중앙교회, 전북대학교 교수)는 전북대학교와 협의하여 5명의 부룬디 학생을 전액 장학생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보엠 선교뮤지컬단을 창립하고 지난 6년간 계속하여 아프리카 선교에 참가하고 있는 김혜진 교수(동아방송예술대학교)도 아프리카에 입국하기 전 동대학교 총장과 협의하여 2명의 장학생을 초청하기로 했다. 전북대학교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영부인과 동행하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계속된 아프리카 복음화대회에 1천 명 이상의 선교단원이 1백 50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라고 밝힌 김평육 선교사는 "단기선교 활동은 선교단 자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앞으로 선교회는 건축사업에 역점을 둘 예정이며, 세미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현지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명단

〈미국〉

* 북가주 - 최관신, 박규진, 노신영, 홍미경, 소호세아, 소사라
* 남가주 - 김경옥
* 뉴저지 - 배임순, 고향자, 이수형, 정선영
* 텍사스 - 홍경아, 이진이, 이재열, 이광순, 서숙자, 김재열, 김명신, 윤창섭, 박옥기
* 워싱턴 - 샛별 전통예술단(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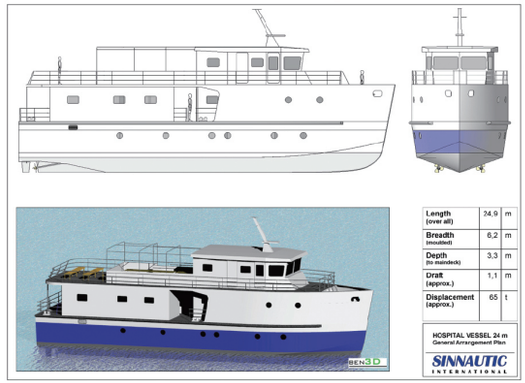
〈한국〉

* 차상영, 안진, 김부화, 금원식, 김대원, 김승현, 고봉귀
* VOEM - 오성원, 김혜진, 안현화, 안호정, 조선행, 남성희, 강형실, 갈성근, 정미선, 민해심, 김하나, 이종곤, 이혜진, 이보람, 김지인, 박헌용, 이정환
* CCC - 강달희, 김강태, 박지인, 김동석, 김정균, 박정길, 박종술, 전준호, 정태선, 김한나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착공

병원선 규모

길이: 24m (79feet) **단기 의료선교팀 침대수:** 18개
병원시설: 입원실(5베드), 수술실(1), 진찰실(2), 병원선 직원 침대(7베드)
선장 및 기관장실(2베드), 부엌(1), 식당 겸 예배실(60명 동시 수용)



병원선의 활용

1. **빅토리아 호수 내 정기순회 검진 및 응급환자 수술:** 매년 30주간 운행
2. **청소년(한국, 미국) 영성수련 프로그램:** 매년 4주간 운행 (1월, 7월)
3. **한인선교사 부부 위로 행사:** 매년 2주간 운행 (3월, 9월 20부부 초청)
4. **월드미션 프론티어 직원 수련회:** 매년 1주간
5.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세미나:** 매년 2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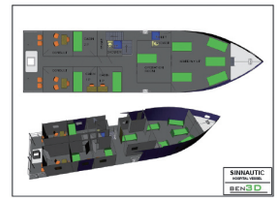
병원선 사역자(예정)

1. 병원선 승무원:
현지인 의사, 간호사, 선장, 기관장, 선원 등 10명 1팀 (2팀 20명)
2. 지상 근무자:
- 무완자 병원(정박시설 및 의과대학):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팀
- 부코바 병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팀
- 무소마 병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팀
- 고메섬 정박시설 및 크리닉 센터
- 루케레웨섬 정박시설 및 크리닉 센터
- 마코베섬 정박시설 및 크리닉 센터
- 카랑가라섬 정박시설 및 크리닉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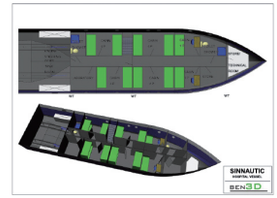
병원선 운영

병원선의 운영(직원급료 및 운행 연료비, 선박의 유지보수비 등)의 막대한 경비는 단기선교단(의사, 간호사, 약사)의 참가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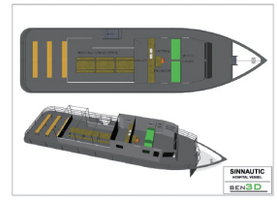
(* 단기선교단은 6일간의 의료사역을 마치고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탄자니아의 새링게티, 응고롱고로, 킬리만자로 등을 여행할 수 있어 2주간의 휴가로 선교와 아프리카 여행을 겸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다.)



PLAN MAINDECK



PLAN BELOW MAINDECK



PLAN TOPDECK

병원선 사역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75만 달러의 선박건조비를 마련하고 선박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제작된 병원선이 운영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시설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병원선에 설치해야 하는 병원시설 및 안전장비 일체
- 선박이 정박한 후 의료진이 섬에 진입하기 위한 엔진보트(1개) 및 응급 환자 수송용 스피드보트(2개)
- 병원선의 정박을 위한 정박시설 및 크리닉 센터의 건축 (무완자 본부, 고메섬, 루케레웨섬, 무소마, 물레바, 카랑가라, 부코바)등 아직도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병원선 설계 발표

2012

탄자니아 부코바 선교센터

우간다 선교센터(UWMF)

키갈리 도서관 양재학교(현재 신학교)

우비라 카통고 선교센터

찬구구 선교센터

키갈리 고등학교 세례식

부코바 선교센터 예배당

병원선 건조를 위한 철편 운송

2012년 사역 요약

2012년부터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는 중단하였지만 단기선교를 원하는 단체별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문을 열고, 현지 사역자들이 단기선교단의 활동을 도왔다.

2012년에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건조에 집중했다. 선박의 구조 설계도가 승인되어 네덜란드에 선박 제작을 위한 철편을 주문하고 용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탄자니아로 수송하였다. 무완자에 있는 선박회사와 계약하고 철편의 용접을 시작했다.

우간다에 설립했던 UTS 신학교는 르완다로 이전하고, ATS(Africa Theological Seminary)로 학교명을 변경하고 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우간다에는 KBBA(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를 설립하여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을 위한 학사(BA), 디플로마 과정의 신학교를 개교하여 대학교 설립 준비를 시작하였다.

2007년에 발표했던 '비전 2012'의 목표는 모두 이루지 못했지만, 12개의 대규모 선교센터 건축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이 시작되었다. 2012년까지 이루지 못한 선교센터 건축과 유학 사역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전 2020'을 발표하였다. 한국 사무실은 불광동으로 이전하고 선교에 필요한 물품을 컨테이너로 수송하였다.

복음화 대회는 중단하고 단기선교단의 활동은 팀별로 원하는 선교센터에서 자유롭게 사역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21일(토): 제2회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장소: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1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설계도면 탄자니아 SUMATRA 승인

네덜란드 철강회사에 철편 제작 주문 수송

1월 23일 – 1월 31일: 한국 사역

- 사무실 이전(서울 은평구 통일로 856 메트로타워 1108)

2월 1일 – 4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39차 현장 사역)

- 탄자니아 Kamukala 선박회사와 병원선 건조 계약
- KBBA(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 개교(우간다)

(Certificate, Diploma, Bachelor 과정)

-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부지 방문하고 생게레마 군과 협의 재개
- 병원선 제작을 위한 철편 다에스살람 항구 도착(3월), 통관 시작

4월 21일 – 5월 10일: 한국 사역

- 4월 29일: 대구 영남제일교회 이슬람 특강(김평육 선교사)
- 우간다 티셔츠 등 20피트 컨테이너 수송(평택 구세군교회, 이재오 사관)

4월 29일: 남가주 한아름여성합창단 선교후원음악회(윌셔연합감리교회)

6월 16일: ATS 1기 졸업식(6명, 르완다 가히니)

7월 5일 – 8월 9일: 아프리카 사역(제40차 현장 사역)

- 단기선교단 활동(45명)

- 6월 28일 – 7월 9일: 영남신학대학교학생팀 – 르완다 사역
- 7월 4일 – 7월 30일: 뉴저지, 달라스팀 – 탄자니아 부고바, 고메섬 여성 사역
- 7월 8일 – 7월 19일: 새포도주교회– 르완다 가히니, 찬구구 지역 어린이, 청소년 사역 및 피그미촌 사역
- 7월 25일 – 8월 10일:

보엠(대표 오성원)(13명) – 우간다 캄팔라 / 탄자니아 므완자 / 케냐 나이로비(7차 순회 공연 20여 회 / 1차 예술교육 세미나)

- 8월 4일 – 8월 6일: 한동대학교 김영섭 교수(부총장, 교목실장) 키갈리 센터 방문

8월 21일: 르완다 가히니로 옮겨갔던 ATS를 키갈리 센터로 이전하고, 김평육 선교사 총장 겸임하기로 결정

10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철편 컨테이너 통관(무완자 KAMUKARA 선박회사 용역)

10월 10일 – 11월 15일: 아프리카 사역(제41차 현장 사역)

- 10월 16일 – 20일: 현지 사역자 스태프진 수련회

(강사–김평육 선교사, 키갈리 센터)

- 10월 29일: 병원선 착공

11월 10일: 북가주 찬양선교단 정기공연

(장소–산호세 새소망교회, 월드미션 프론티어 후원)

11월 25일 – 12월 8일: 한국 사역

12월 9일: 크리스찬 라이프 창간 20주년 기념예배(장소–산호세 새소망교회)

- '비전 2012'를 2020년까지 연장발표(선교센터 건축 및 병원선 완공)

12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내부 장비(엔진 등) 주문

〈신학대학 – KBBA. ATS 초청강사〉

- Dr. Cho Eun Suk(USA), ATS "Pentateuch"(6월)
- Dr. Cho Jung Lim(USA), KBBA "Romans"(6월)
- Dr. Bae Im Soon(USA), KBBA "Counselling"(6월)
- Mr. Jin Lee(USA), KBBA "Peace Maker"(8월)
- Dr. Ro Shin Young(USA), ATS, KBBA "Biblical Communication Skills, PRASSO"(Oct.– Nov.)

〈건축〉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대학교 건축 기초공사 중 중단
- 우간다 Nsangi 센터 초등학교 건물을 대학교로 개축공사 시작
- 탄자니아 병원선 제작(설계도, 철편 주문 수송, 착공)
- 르완다 찬구구 교실 5개 건축

〈출판〉

- 《내가 여기 있나이다》(쿰란, 2012. 9. 10)

ⓒ 크리스찬 라이프 2012. 4. 13

우간다에 킹덤빌더스 바이블 아카데미 개교

아프리카의 이슬람화 저지를 위한 '비전 2020' 사역자 양성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3월부터 우간다 선교센터에 킹덤 빌더스 바이블 아카데미(KBBA)를 개교하였다.

KBBA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준비하고 있는 '비전 2020'을 추진하기 위한 현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개교했다. 현재 '비전 2012'를 진행하며 이슬람 저지운동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는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아프리카 전대륙을 이슬람화 하겠다는 목표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사하라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개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바로 알고 기독교 교리를 바로 가르치며, 아프리카 주민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가난을 퇴치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현지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우간다 선교센터에서 시작된 KBBA는 앞으로 탄자니아(부코바), 콩고(우비라), 르완다(찬구구) 등 4개 지역에 설립되어 각 국가에서 이슬람을 방어하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재 '비전 2012'를 마감하기 위해 콩고의 우비라, 탄자니아의 부코바 및 무완자, 우간다의 캄팔라, 르웨로, 르완다의 키갈리, 찬구구, 카욘자 등 9개 지역에 대규모 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크리스찬 라이프 2012. 6. 1

아프리카 신학대학원, 첫 졸업식

목영수 목사 학장으로 사역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아프리카 교계 지도자들이 신학적 깊이를 더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개교한 ATS(Afric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첫 졸업생 6명을 배출하게 된다.

아프리카 신학대학원은 당초 ABSW(총장 폴 마틴)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지만,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소정의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동안 목영수 학장이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30여 명을 교육해 왔으며, 이번에 6명이 위클리프 신학원을 통해 학위를 받게 되었다.

ATS의 첫 졸업식은 오는 6월 16일에 거행되며 북가주 지역에서는 조은석 목사 등 그동안 ATS에서 강의했던 강사진이 참가할 예정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2. 6. 8

르완다 찬구구 강의실 건축 계속

성전건축에 이어 강의실 및 화장실 건축 후 신학교 개교

'비전 2012'를 추진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르완다 찬구구 선교센터에 강의실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성전 건축을 마감하고 올해에는 강의실 5동의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찬구구 선교센터는 앞으로 신학교 및 지도자 훈련원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오는 9월 말까지 건축을 완공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참여하는 선교단을 맞이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이슬람화 하려는 이슬람권의 아프리카 진출을 막기 위해 복음화 일꾼의 양성을 준비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르완다 찬구구 선교센터를 KBBA 센터로 사용할 예정이다. KBBA는 'Kingdom Builder's Bible Acardemy'로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복음화 운동의 역군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2. 10. 19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 제작 본격화

설계도면, 철편 절단 및 수송에 1년 소요, 드디어 10월 첫째 주 제작 개시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선 제작이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에 설계도면 제작에 들어가 지난 5월 말 네덜란드에서 선박 제작을 위한 철편 절단 작업을 마치고 3개의 컨테이너로 수송되어 6월 말 탄자니아 다에스살람 항구에 도착했다.

한두 주간으로 예상했던 통관 절차가 3개월이 걸려 지난 9월 말에야 선박 제작 장소인 빅토리아 호수변 도시인 무완자에 도착하였다.

10월 첫째 주부터 실제적인 제작 작업에 들어간 병원선의 착공식은 10월 29일 김평육 선교사의 방문에 따라 치러질 예정이다.

선박 제작비는 당초 예상(65만 달러)보다 15만 달러(엔진 추가, 철편 두께 변경 등에 따른)가 추가로 소요되고, 앞으로 인테리어, 의료장비, 비상장비 구입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빅토리아 호수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을 끼고 있는 호수로서 대한민국의 3분의 2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이다.

빅토리아 호수 내에는 1천 개의 섬이 산재해 있으며, 섬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크리스챤 라이프 2012. 12. 14

우간다 '킹덤 빌더스 바이블 아카데미(KBBA)' 전용 센터로

기존 초등학교를 축소하고 복음사역자 양성기관으로, 2013년 1월부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비전 2012'를 마감하며 '비전 2020'을 준비하고 있다.

'비전 2012'의 3대 목표는

1) 아프리카 5개국에 12개의 종합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을 만드는 일

2) 원주민 사역자 양성을 위해 아프리카 청년을 한국에 유학 보내기

3) 아프리카의 복음화 대회 계속 추진을 목표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세계 경제 위기로 모든 선교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목표했던 사업을 모두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결실이 있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열 개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건축부지를 마련하고, 8곳의 건축이 진행 중이며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선이 제작 중에 있다. 그동안 30여 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복음화 대회가 계속해서 개최되어 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비전 2012'을 2년 연장하여 2014년 말까지 추진하는데 건축사업과 미래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비전 2020'을 추진하는데, 12개 선교센터 건축, 병원선 완공, 아프리카 예배당 짓기 운동을 준비 중에 있다.

우간다에서 시작된 KBBA는 좋은 반응을 얻어 신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학교 중심으로 캠퍼스화 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2013년 1월부터 우간다 선교센터는 완전히 신학교 중심의 사역이 시작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2동의 강의실을 기숙사로 개축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독자들의 후원을 기다린다.

africa.vision.2020@gmail.com

〈"비전 2012" 추진을 뒤돌아보며〉

한시적으로 시작했던 아프리카 선교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센터 건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아프리카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마음이 조급했다. 먼 훗날 대학교 캠퍼스 정도의 선교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2년까지 아프리카 5개국 12개 주요지역에 선교센터를 설립한다는 비전을 추진하였다.

선교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건축해도 그 건물에서 사역할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해 두지 못하면 건물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아프리카 청년들의 한국 유학과 연수사역을 병행한다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매년 단기선교 희망자들이 계속되어 아프리카 복음화대회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개발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2006년에 시작한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사역이 2010년까지 계속되어 선교센터 건축은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도자 한국 초청의 뜻밖의 결실로 콩고와 탄자니아에서는 대형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을 두 번 방문한 콩고의 노스키부 주지사는 북키부(North Kivu) 주에 2천 핵타르의 땅을 선교회 명의로 제공하였고, 탄자니아 세렝게티 디스트릭 시의장은 만치라 댐 보호구역 2천 핵타르의 개발에 대한 MOU를 추진하였다. 탄자니아 모로고로 주지사는 3천 핵타르의 농장개발 부지를 제공하였지만 선교회가 자립 농장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탄자니아 생게레마의 60핵타르(18만 평)는 생게레메 시의장이었던 메튜 루봉게자 씨에 의해 마련되었고, 콩고 우비라의 10핵타르(3만 평)의 부지는 사우스 키부주의 국회의장에 의해 마련되어 현재 대학교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다.

〈제 4 기 사역〉

물가에 심겨진 나무

2013 - 2020

12개 선교센터 건축과 대학교 설립 추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7-8)

아프리카
선교 30년
사역 소개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비전 2020'은 아프리카 5개국의 12개 주요 지역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각 센터의 사역을 질적으로 향상하며,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을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목표였다. 또한 미래 리더십을 위해 아프리카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계속 진행하였다.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와 지도자 한국 초청과 같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행사는 중단하고 선교센터 건축과 그동안 건축된 센터의 사역의 질 향상에 집중하였다.

우간다 Nsangi 선교센터는 대학교 설립을 목표로 초등학교를 중단하고, 대학교 건물로 리모델링하며 신학교를 운영하였다. 르완다의 키갈리 센터도 고등학교와 함께 신학교 과정을 활성화하며 건축에 집중하였다. 탄자니아에는 이솔래 부지에 대학교 건축을 시작하고, 콩고 우비라 카통고 부지에도 대학교 건축이 착공되었다. 그동안 건축된 센터에 한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교 사역 등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기간이다.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 사역을 위해 병원선 2호선이 착공되었다.

신학교 사역은 ATS와 KBBA를 병합하여 UWMF(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라는 이름으로 각 국가의 교육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신학대학·대학원 과정으로 WMTS(World Mission Theolgical Seminary)로 교육부 인가를 신청하였다.

우간다 대학교 설립 준비, KBBA 설립

2013

2013년 부터 우간다센터를 중심으로 신학교사역을 확장했다.
(난민촌선교를 함께했던 조나스 목사의 아내 자넷이 한국 예수대학을 졸업하고 돌아가 UWMF 대학원을 졸업)
조나스 목사가 아내에게 졸업장을 전달했다.

우간다 Nsangi 신학교 강의

미국과 한국에서 외부강사 초청 40시간 집중강의

키갈리 신학교 강의(채플)

키갈리 신학교(2015~2020 개축)

KBBA 강의 사역이 5개국으로 확장

우간다 신학교 강의

보엠 뮤지컬의 현지 보엠팀 공연훈련

병원선 건조현장

2013년 사역 요약

2013년은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건조 사역과 신학대학 설립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였다. 탄자니아 무완자에서 병원선을 건조하기 위해 모든 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탄자니아의 항구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선박제작회사의 지연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간다 Nsangi 선교센터의 초등학교 사역은 중단하고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설립을 목표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였다. KBBA 과정은 탄자니아와 르완다, 콩고로 확장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였다. 신학교 강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초청되었고, 한국인 강사가 없는 기간에는 현지인 교수진을 초청해서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1-2년 정도의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사역하였는데, 2013년 박숙경 선교사가 파송되어 장기선교사 파송시대의 문을 열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디스트릭의 바리바리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해주었고, 르완다 찬구구 센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유치원 교실 5개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2013년부터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정책대학원에 아프리카 5개국에서 매년 5명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2013년

1월 12일(토): 제3회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장소: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1월 15일 – 20일: 네덜란드(병원선 장비 컨테이너 물품 확인) 방문

2월 1일 – 2월 10일: 한국 방문 사역

-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정책대학원 5명 추천 유학
- 김광수 목사 도예 전시 열기로 결정
- 한국 지부 간사 선임(김경은 간사 부임)
- 르완다 코디네이터 존 목사 한국 유학(영남대 대학원)

2월 10일 – 3월 25일: 아프리카 사역(제41차 현장 사역)

- 사랑의 가축 나누기 시범 마을 운동 시작(우간다 Nsangi)
- KBBA(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
  - Uganda: Nsangi
  - Tanzania: Bukoba, Serengeti
  - Rwanda: Cyangugu, Kayonza
  - D. R. Congo: Uvira
- 병원선 제작 현장 사역
- 우간다 Nsangi 센터 강의실 4동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홍미경)

4월 20일: (미국) 김광수 목사 도예 전시(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후원),
장소: 산호세 온누리교회

5월 18일: 김평육 선교사 명예박사 학위수여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GTU), 총장 – Paul Martin)

6월 30일 – 8월 17일: 아프리카 사역(제42차 현장 사역)
단기선교단 활동(선교단 28명)

- 7월 1일 – 7일: 우간다 사역(Nsangi 센터, 어린이·청소년사역)
- 7월 8일 – 7월 29일: 탄자니아(부코바, 게이타, 무완자, 무소마, 생게레마)
  - 목회자 세미나, 여성 지도자 세미나, 요리강습, 노방전도
- 7월 30일 – 8월 3일:
  - 르완다(찬구구 – 목회자 세미나 및 신학교 강의),
  - 콩고(우비라 – 목회자 세미나)
- 보엠(대표 오성원): 우간다 캄팔라 / 르완다 키갈리, 찬구구(8차 순회 공연 20여 회 / 2차 예술교육 세미나)
- 비숍 Wincent Chacha 목사 탄자니아 디렉터 임명

11월 16일(토): 선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산호세 소망교회)

11월 20일 – 12월 10일: 한국 사역

- 11월 30일(토): 창립 19주년 기념 및 박숙경 선교사 파송예배(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신학교 강의〉

- Dr. Kim Heui Sang(USA), ATS, "Introduction OT"(3월)
- Dr. Ro Shin Young(USA), KBBA, ATS "Counselling"(3월–5월)
- Dr. Lee Moon Hi(USA), KBBA, ATS, "Christian Parentng"(5월–6월)
- Dr. Choi Koan Sin(USA), ATS "Leadership"(7월)
- Prof. Kim Kyung Eun(Korea), KBBA "NT Theology, Church History"(8월–12월)

〈건축〉

- 우간다센터 대학교로 개축공사(교실 4개를 기숙사로 개축, 고아원 보수공사)
- 르완다 찬구구 유치원 교실 5개 완공
- 탄자니아 바리바리 마을 예배당 건축(현지교회 기증)

〈출판〉

- 《하늘 생각》(큠란, 2013. 1. 30)

ⓒ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2013. 5. 16(목)

김평육 선교사 '명예박사 학위'

아메리칸 서부침례신학교, 18일 졸업식에서 수여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김평육 선교사가 명예박사학위(Doctor of Humane Letter)를 받게 됐다.

김평육 선교사에 대한 박사학위는 오는 18일(토) 열리는 2013년 아메리칸 서부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졸업식에서 수여하게 된다. 아메리칸 서부침례신학교(ABSW)의 졸업식은 이날 오후 2시 오클랜드 버머스(Burmese) 미션 침례교회(534 22 nd St, Oakland)에서 거행된다. 아메리칸 서부침례신학교는 1871년에 설립된 142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신학교로 2009년부터 흑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폴 마틴(Paul Martin) 박사가 총장을 맡고 있다.

마틴 총장은 세계 복음화에 비전을 갖고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2010년 개설한 우간다 신학교의 공동학사 관리를 통한 아프리카 복음화 인재양육에 협력하고 있다. 이날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김평육 선교사는 "비전 2020에 의한 신학대학교·대학원 개설 등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미국의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2001년 선교 목사로 안수 받은 후 월드미션 프론티어 국제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또 이날 졸업식에서는 한인으로 조병선(그레이스 조) 목사와 윤기선 목사, 문은상 목사도 함께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레이스 조 목사와 윤기선 목사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병훈 목사와 조영광 전도사는 리더십 석사학위(Master in Community Leadership)를 받는다. 졸업식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제일침례교회 담임이며 아메리칸 침례교단 부총회장인 도널드(Donald Ng) 목사가 졸업식 설교를 하게 된다. 졸업식에 이어 축하 리셉션도 열린다.

ABSW 졸업식 장소: Oakland Burmese Mission Baptist Church 534 22nd St, Oakland.

〈손수락 기자〉

ⓒ 크리스찬 라이프 2013. 6. 7

사랑의 가축 나누기 운동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실시해 오던 '사랑의 염소 나누기' 사업이 돼지와 젖소 나누기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번 여름 단기선교단이 돼지와 젖소 나누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간다 상기 지역은 축산단지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번에 극빈 가정에 돼지를 제공할 예정이다(새끼를 낳으면 이웃에게 나누는 운동).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돈·양계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어 한인 성도들이 가축 나누기에 협력하면 지역 전체가 축산 단지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젖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르완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르완다 정부와 협력하여 지난 3년 동안 기콩고 지역에 젖소, 돼지 보급사업을 담당해 왔다. 젖소의 경우 마리당(18개월) 600달러 정도의 고가이지만, 하루 우유 생산량이 20-30리터(15-20달러)에 이르는 수익성이 높은 가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는 상기 지역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농민 교육과 친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생게레마 지역에 150에이커의 부지를 마련하고 농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인데, 이번 여름 빌리지 주민들에게 돼지 보급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르완다와 콩고에서는 단기선교단이 피그미촌을 찾아가 피그미촌 사람들에게 사랑의 염소 나누기를 할 예정이다.

오는 6월 28일 출국하는 선교단원들이 성도들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호선 진수식

2014

뉴욕 KPM 의료선교단 병원에서 중환자 수술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병원선 선장실

병원선 사역 후원 성금(CBS)

스피트 보트 주문

병원선 명명식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병원선 활동 모습

2014년 사역개요

2014년은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건조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선박회사의 내부 문제로 병원선 건조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었다. 그러나 2014년 8월 2일에 진수식과 명명식을 갖기로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였다. CBS TV에서는 창사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을 3부작 특집으로 방송해서 한국 교계에 병원선 사역이 알려졌다. 8월 2일 무완자에서 거행된 진수식에는 90여 명의 한국인과 400여 명의 탄자니아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한국에서는 CBS TV의 모금운동으로 응급선 마련 기금을 전달해 주었다.

선교회에서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주년 다큐멘터리 4부작 〈길〉을 제작하여 다음해 CBS TV, C채널 등 한국 기독교 방송을 통해 방영하였다. 병원선의 정박장을 위해 탄자니아 마라주 수구티 마을에 50에이커의 부지를 마련하고 접안시설을 건축하였다.

우간다 선교센터에는 2004년 건축을 시작한 강의실 4개의 건물을 10년 만에 완공하고 신학교 강의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지인 교회를 돕기 위해 탄자니아 부코바와 바리바리 마을의 예배당 건축에 이어 유치원 건물을 건축하고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2014년

1월 11일(토): 제4회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장소: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1월 12일 – 2월 25일: 아프리카 사역(제43차 현장 사역)

- 아프리카 방문단(정숙희 집사, 박선용 전도사 외 8인)
- 우간다, 탄자니아 KBBA 강의(김광진 목사)
-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정책대학원 4명 추천 입학
- 선교 20주년 다큐멘터리 현장 촬영(최은미 피디)

3월: 한국 사역 – CBS TV 창사 60주년 기념사업 특집 '미션 2014' 〈주여 나를 보내소서〉 방송 인터뷰

4월 – 5월: 아프리카 사역(제44차 현장 사역)

- CBS TV 창사 60주년 특집 제작팀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주변 상황 현장 취재
- 병원선 건조 및 진수식 준비
- 르완다 키갈리 ATS 강의 및 선교회 직원 수련회(김영련 목사)

6월 20일 – 8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45차 현장 사역)

- 6월 30일 – 7월 5일: 뉴욕 KPM 의료선교단 탄자니아 의료 사역 마라주(수구티, 세렝게티)
- 세렝게티 바리바리 마을에 유치원 건축 개원
- Suguti Bay 부두 공사 위해 컨테이너 설치, 화장실 공사
- 수구티 마을 여성 세미나(이문희 박사)
- 이솔래 센터 나무심기
- 이솔래 부지로 컨테이너 이동
- 르완다 컴퓨터(100대) 컨테이너 도착(한국 Love PC)
- 단기선교단 활동
  - 7월 14일 – 7월 19일: 청명교회 선교팀(18명)
    (우간다 난지가 마을 전도, 의료 사역, 교회 개척 설립)
  - 7월 30일 – 8월 4일: 아프리카 미래재단(20명): 병원선 진수식 참여 및 의료봉사
  - 7월 26일: ATS 신학대학원 졸업식(14명) 및 목사안수(7명)
- 보엠 공연: 르완다 키갈리 / 탄자니아 부코바, 무완자(9차 순회 공연 20여 회 / 3차 예술교육 세미나)

8월 2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호선 살림호 진수·명명식

- 장소: 탄자니아 무완자 포트
- 참석인원: 탄자니아 보사부 장관 외 400명, 한국 참가자 90명(CTS TV 특별 취재)

7 – 8월: CBS TV 창사 60주년 기념사업 특집 3부작(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방송

10월 25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 컨퍼런스

- 10월 25일(토) 오전 10시(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
  - 찬양 인도: 박종술 목사(CCC 찬양비전)
  - 특강: 이문희 박사, 이용주 목사, 김평육 선교사

10월: 한국지부 홍명옥 간사 부임

10월: 20주년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20주년 다큐 〈길〉 3부작 제작완료 (최은미 피디)

- 1부: 르완다 – 그리스도의 나라
- 2부: 우간다 – Siyabonga Jesus
- 3부: 탄자니아 – 샬롬! 아프리카!

11월 10일 – 11월 30일: 한국 사역

- 11월 21일: (한국) CBS 방송사 모금 선교비 전달식
- 11월 23일(토):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12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제작 위한 철편 주문(네덜란드)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컴퓨터 100대 수송(Love PC)

〈신학교 KBBA, GOT 강의〉

- Dr. Kim Kwang Jin(USA), KBBA "Core Christianity"(Jan.)
- Rev. Daniel Chung(USA), ATS "Hermeneutics"
- Rev. Kim Young Ryun(USA), ATS "Alpha Course"
- Dr. Ro Shin Young(USA), KBBA, ATS "Biblical Communication Skills, PRASSO"(July)
- Prof. Kim Kyung Eun(Korea), ATS "Greek 1"

〈건축〉

- 탄자니아 세렝게티, 바리바리 빌리지 유치원 건축 개원
- 탄자니아 수구티 50에이커 부지, 정박시설 공사장 컨테이너 창고 설치
- 탄자니아 이솔래 건축부지 컨테이너 창고 3개 설치
- 우간다 신학교 강의실 4개 건물 완공(2004년 착공한 건물)

ⓒ 크리스찬 라이프 2014. 5. 23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진수·명명식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3년간의 배 건조 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2일 탄자니아에서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선 진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로 아프리카 선교 20주년을 맞이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의료선교를 위해 빅토리아 호수에 띄울 병원선 건조에 착수하여 3년간의 공사 끝에 건조를 완료하고 오는 8월 2일 진수식을 거행한다.

동아프라카에 소재한 빅토리아 호수는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의 담수호로 1천 개의 섬을 품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3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1천 개의 크고 작은 섬에는 빅토리아 호수에 서식하는 나일퍼치와 틸라피아를 잡기 위한 20대의 젊은 어부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섬마을에는 교회, 학교, 병원들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병원선 건조는 한국의 전주중앙교회(담임 차상영 목사) 무명의 성도가 45만 달러, 미국의 한 무명의 성도가 40만 달러를 헌금하여 2011년부터 건조를 해왔었다.

병원선의 길이는 25m, 넓이 6.3m의 3층으로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선원 숙소 등으로 꾸며지게 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인 김평육 선교사는 "15년 전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섬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어부들의 삶에 충격을 받아 병원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이제 그 꿈을 실현하게 되어 기

쁘다"라고 말했다. 병원선은 3층 선실작업과 페인트, 엔진 장착, 내부시설 등을 6월 말까지 완공 후 7월에 시운전을 거쳐 8월 2일 진수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내부 인테리어와 의자, 의료장비 시설에 2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면서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선의 이름은 전주중앙교회의 선교적 목표인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의 '살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중앙 살림호'로 정했다. 또 중앙 살림호 내에 문을 열게 될 병원의 명칭은 미주 지역 기부자를 기념하여 'Y.H.K. Mobile Medical Center'로 명명했다. 병원선은 한국과 미국의 병원과 의료선교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매주 단기선교단이 활용하되 이 기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크리스천 투데이 2014. 11. 23 20:50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달려온 은혜의 20년

'월드미션 프론티어' 기념예배 드리고 '비전 2020' 선포

아프리카 선교단체인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1994년 김평육 선교사가 르완다의 참혹한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설립한 선교단체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르완다를 비롯해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브룬디에서 활발한 사역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아프리카 5개국 12개 지역에 선교센터를 건축 중이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시설과 병원, 선교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현지인 청년들의 한국 유학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창립 20주년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김평육 선교사는 "20년이나 선교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목적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에, 현지 복음화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오는 2020년까지의 비전으로 △ 아프리카 복음화대회 △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 설립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 사랑의 가축 나누기 △ 성전 짓기 운동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꼭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예배는 이재오 사관의 사회, 이응윤 목사(낙도선교회)의 기도, 박정연·심창근·소강석 목사의 격려사 및 축사, 특별찬양, 선교비와 기념패 전달, 김평목 목사(운화교회)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연 목사(청명교회)는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김평육 선교사님을 크게 쓰셨지만 앞으로 더욱 크게 쓰실 것이다. 위대한 역사를 쓰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심창근 목사(강남안디옥교회)는 "김평육 선교사님은 주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실 함께 기뻐하셨던 분"이라며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무척 행복하고 또 감사하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축사했다. 이어 강영진 목사가 탄자니아 성전 건축을 위한 선교비를 김

평육 선교사에게 전달했고, 우동은 목사(삼천포예수사랑교회)가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20주년을 축하하며 기념패를 선물했다. 이후 아프리카 단기선교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김평육 선교사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김평육 선교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귀한 사역을 해오셨다"며 "지난 20년의 사역들이 아프리카에 있어 불멸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의 20년 또한 더욱더 비상하는 선교의 날개를 펼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광활한 동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 주변 마을은 의료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은 CBS(기독교방송)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동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 의료선교선을 띄워 의료혜택과 복음을 전하는 '빅토리아 호수 의료선교 프로젝트'를 펼쳐 1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CBS는 11월 21일 목동 사옥 5층 회의실에서 모금액 1억 원을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에게 전달하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Church of Wolrd Mission Frontiers 목사 안수(교단설립 및 교회개척 사역 시작)

병원선 2호선 건조 철편 탄자니아 도착 통관

병원선 2호선 건조 철편 이솔래 쉽야드 도착

병원선 1호선 의료장비 무완자 도착

르완다 키갈리 센터 운동장 공사 시작

르완다 찬구구 센터 유치원 개원

KBBA 과정 졸업식

월드미션 프론티어 교단 목사 안수

키갈리 센터 도서관 신학교로 재건축 시작

2015년 사역 요약

대학교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KBBA과정과 ATS를 합병하여 UWMF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로 대학명을 정하였다. KBBA 과정은 12개 캠퍼스로 확장되고, 대학원 과정(GOT)은 3개 캠퍼스에 자리잡았다. KBBA 과정의 첫 졸업식을 거행하고, 장기적으로 교단 설립을 목표로 14명의 졸업생을 목사로 안수했다.

우간다 Nsangi 센터에 신학대학의 설립을 목표로 강의실 건축과 강의실 용품을 마련하여 학업환경을 개선하였다.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터는 운동장 공사를 시작하고, 찬구구에 유치원 교실 공사를 마감하였다. 탄자니아의 병원선 1호선을 위한 의료장비 컨테이너가 도착하였고, 병원선 2호선을 건조하기 위한 철편을 주문하고, 생게레마 이솔래 대학 건축부지에 조선시설을 건축하고 채플 건축을 시작했다.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을 이용하는 한국인 의료진의 첫 단기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 유학은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생과 우간다 고아원, 탄자니아 선교센터 스태프진 등 5명이 대구대학에 입학하고, 4명을 영남대학교 대학원에 추천하여 입학하였다. 선교회 20주년 다큐멘터리 3부작 <길>이 CBS TV, C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2015년

1월 10일(토): 제5회 북가주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장소: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1월 12일 – 2월 15일: 아프리카 사역(제46차 현장 사역)

(르완다,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선교센터 사역)

- 1월 31일: 목사안수(콩고 2명, 르완다 2명, 탄자니아 2명, 우간다 1명)
- 탄자니아 무소마 디스트릭(수구티, 물랑기) 병원선 접안시설 건축 합의

1월 – 2월: CBS TV, C채널 – 창립 20주년 다큐멘터리 〈길〉 3부작(최은미 피디) 방송

- 1부: 르완다 – 그리스도의 나라
- 2부: 우간다 – Siyabonga Jesus
- 3부: 탄자니아 – 샬롬! 아프리카!

2월 24일 – 3월 27일: 한국 사역

- 2월 27일: 대구대학교 졸업식(10명)
- 3월 8일: 밀양시민교회 방문
- 영남대학교 대학원 4명 추천 입학

4월 7일 – 4월 10일: 네덜란드 철편 회사 방문

- 병원선 2호선 준비를 위해 네덜란드 선박회사 방문(조선소 건축 컨설팅)
- CBS TV 모금으로 병원선 응급선 주문 현지 확인

4월 11일 – 5월 17일: 아프리카 사역(제47차 현장 사역)

- 이솔래 부지 수로 공사 시작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선장 선임(Capt. Rwegasira)
- 남양주 호평 아산내과 배창황 원장(수구티, 물랑게, 세렝게티에서 의료봉사)

5월 20일: 2호선 철편과 응급선 및 장비 네덜란드 항구 출항(MSC Antalya)

5월 22일 – 6월 30일: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6월 23일 – 6월 30일: 한국 사역

- 6월 25일 – 26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아프리카 유학생 수련회

(불광동 팀 수양관)

7월 2일 – 8월 18일: 아프리카 사역(제48차 현장 사역)

- 7월 6일–9일: 우간다 KBBA 졸업세미나(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부룬디, 우간다, 케냐, 한국, 미국 8개국에서 참가)
- 7월 10일: UWMF KBBA 과정 졸업식(49명 졸업, 목사안수 8명)
- 7월 12일 – 7월 18일: 탄자니아 카라괘, 물레바, 부코바 전도집회
- 7월 19일 – 7월 25일: 세렝게티 목회자 세미나(김영련 목사 특강), 세렝게티 누루 고등학교 컴퓨터 특강, 의료 사역, 바리바리 전도대회
- 7월 27일 – 7월 30일: 이솔래 마을, 마라주 수구티 마을 전도대회
- 존 밥티스트 목사 르완다 사무총장 임명(콩고, 탄자니아 사무총장 겸임)

일반 사역

- 8월 1일 – 8월 10일: 콩코 우비라 센터 공사현장 방문

(다큐멘터리 〈길〉 4부 콩고편 제작. 최은미 피디)

- 8월 12일: 우간다 문교부 고등교육국 방문
- 8월 14일 – 8월 17일: 탄자니아 세렝게티 만치라댐 보호구역 2천 핵

타르 개발 MOU 체결(8월 15일)

- 8월 17일: 탄자니아 병원선 2호선 병원장비 컨테이너 통관되어 무완자 도착
- 병원선 2호선 철편과 응급선 2척, 조선소 설립 장비 컨테이너 다에스살람 항구 도착 통관수속
- 사랑의 가축 나누기(우간다, 탄자니아)

8월 19일 – 8월 27일: 한국 사역

- 8월 23일: 경산중앙교회 영어부 설교

9월 3일 – 23일: 하반기 20일 연속 금식기도회

9월: UWMF "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설립
(KBBA, ATS 합병)

- GOT(대학원 M.Div. 과정) 3개 학교:
(1) Nsangi (2) Kigali (3) Kigali 2(콩고, 부룬디 학생)
- KBBA(Certificate, Diploma, BA 과정) 12개 학교:

Uganda: (1) Nsangi (2) Mbale (3) Luwero(중단)
Rwanda: (1) Cyangugu (2) Kigali (3) Kayonza
D.R. Congo: (1) Uvira (2) Katongo
Tanzania: (1) Bukoba (2) Geita (3) Serengeti
(4) Mwanza (5) Kigoma

9월 8일: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생 5명, 평택대학교 한국어과정 입학,
(평택 구세군교회 숙식제공, 이재오 사관)

10월 3일 – 11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49차 현장 사역)

- 살림호 마라주 수구티 장거리 운항(10월 20일)
- 탄자니아 이솔래 조선시설 건축
- 우간다 대학교 설립 인가 신청
- 이솔래 대학교 채플 기초공사
- 우간다 난지가 선교센터 부지 구입, 예배당 건축

11월 10일: 더 투게더(이사장 정애리) 의료장비 컨테이너 수송(한국 출발)

12월: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컴퓨터 150대 수송(Love PC)

〈UWMF 강의〉

- Pastor. Erwin Kim(USA), KBBA, "God's Character"(2월)
- Prof. Kim Kyung Eun(Korea), GOT, "Greek", "Hebrew"(3월, 9–11월)
- Rev. Park Jong Sul(USA), KBBA, "Worship and Musical Instruments"(8월)
- Dr. Lee Moon Hi(USA), GOT, "Christian Parenting"(9월– 10월)
- Dr. Lee Yong Joo(USA), GOT, "Bible Study Methods"(10월)

〈건축〉

- 르완다 키갈리 센터(운동장, 정문공사)
- 르완다 찬구구 교실 4개, 선교사 사택 1개, 예배당 보수 공사
- 우간다 신학교 강의실 4개 건물 완공(비품 구입)
- 우간다 센터 채플 입구 공사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호선(운항 시작)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건축을 위한 조선소 건축 착공
- 탄자니아 바리바리 유치원 건축 준공(현지 교회에 기증)
-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예배당 기초공사
- 탄자니아 이솔래 병원선 접안 위한 수로 작업
-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옆 술집 건물 매입하여 철거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착공

1997년 건축된 우간다 선교센터 채플의 변화된 모습

2016

르완다 키갈리 센터 어린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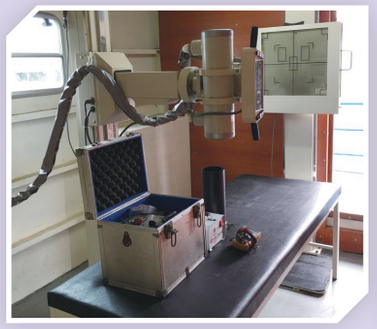
르완다 찬구구 센터 어린이교회

르완다 장기파송 선교사와 현지사역자 회의

키갈리 센터 신학대학교로 재건축 중 강의 모습

우간다 난지가 교회 준공

한국 유학생 수련회(팀 수양관)



병원선 엑스레이

병원선 치과실

2016년 사역 요약

2016년은 아프리카 현지 사역의 내실을 다지는 데 힘썼다. 르완다에서는 고등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미국에서 학교 비품을 수집하여 컨테이너로 수송하고, 한국에서 보낸 150대의 PC가 도착하였다. 키갈리 센터의 운동장 공사를 완공하고, 양재학교, 도서관 건물을 2층 신학교로 개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센터 내에 다목적홀(Torch Misssion Center)의 건축허가를 받음으로 키갈리 선교센터 부지의 토지수용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탄자니아에 병원선 의료장비 컨테이너가 도착하여 병원선에 설치하고, 2호선 제작을 위하여 보낸 철편이 통관되어 이솔래에 도착했다. 조선소와 예배당을 건축 중인 탄자니아 이솔래 150에이커 부지 사용권에 대하여 국토부 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 공청회를 가졌다. 우간다에서는 난지가에 예배당이 건축되고, Nsangi 센터에 신학교 강의실 4개의 건축을 완공했다. 콩고 우비라 카통고에는 예배당이 건축되고, 유치원 3개 교실이 완공되었다.

UWMF의 KBBA 과정과 GOT(대학원) 과정의 강의를 위해 많은 한국인 교수진이 강의에 참여하였다.

추정민·임지혜 선교사와 최영애 선교사, 이문희 선교사를 르완다로 파송하고, 박숙경 선교사는 르완다 찬구구 센터에 부임했다. 신임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각 센터에 어린이교회가 설립되어 어린이 사역을 회복하였다.

2016년

1월 10일: 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선교주일 설교 김평육 선교사)

1월 12일 – 2월 27일: 아프리카 사역(제50차 현장 사역)

- 1월 15일 – 1월 29일: 아프리카 방문단(횃불선교재단)

  (이형자 이사장, 김창선 사무처장, 이경석 선교국장, 김진주 의무실장, 박다니엘 목사)

  방문경유지: 〈르완다(카욘자, 키갈리) – 케냐 – 탄자니아(병원선 승선, 이솔래 방문, 무완자 센터 방문) – 우간다(캄팔라)〉
- 1월 27일: 르완다 컴퓨터 150대 통관
- 1월 30월: 탄자니아 의료장비 컨테이너 통관 마치고 무완자 도착

  (2월 1일 하역)
- 2월 1일: 2호선 철편 컨테이너 3개 통관, 무완자 도착
- *2월 8일 병원선 2호선 착공식 취소(주지사가 정지 명령)
- 2월 22일: 부야구 부지 문제 마을 공청회(탄자니아 주택, 토지부 차관 직접 참여) 열어 건축 재개하도록 함

2월: 평택대학교 한국어 과정 학생 5명 대구대학교 한국어 학교로 편입

3월 5일: 르완다 선교후원음악회(남가주 장로성가단, 임마누엘 장로교회)

3월 21일 – 4월 30일: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3월 17일 – 4월 20일: 인천 옥련중앙교회(한종근 목사) 목공팀(4인)

(키갈리 고등학교 컴퓨터 테이블, 찬구구 유치원 의자, 책상 제작)

3월 10일 – 3월 24일: 한국 사역

- 3월 19일: 대구 ACC 설립(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228-3 대구대로 91-2)

3월 25일 – 4월 20일: 아프리카 사역(제51차 현장 사역)

- 탄자니아 국토부 차관, 무완자 시장 접견
- 우간다, 르완다 건축사역, UWMF 사역

4월 21일 – 5월 27일: 한국 사역

- 4월 26일: 2016 횃불 연합 대성회 강사(2회 설교)[(6월 18일(토) 밤 9시, CTS TV 방송)]
- 5월 25일: CTS TV 〈미라클 7000〉 인터뷰(방영 6월 6일(월), 6월 8일(수))

5월 10일: 탄자니아 이솔래 농장개발 농기구 컨테이너 이솔래 도착

컴퓨터 150대 통관(무완자 센터 도착)

5월 20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양재학교 졸업식

5월 25일: 박숙경 선교사 찬구구 센터로 부임 어린이교회 시작

5월 27일 – 6월 19일: 미국 본부

6월 20일 – 7월 1일: 한국 사역

- 6월 23일 – 6월 25일: 아프리카 유학생 여름 수련회

  장소: YPC 수련원, 강사 김평육 선교사
- 6월 28일: 추정민, 임지혜 선교사 르완다 파송(봉천동 반석교회 파송예배)

7월 2일 – 8월 22일: 아프리카 사역(제52차 현장 사역)

- 7월 5일 – 8일: 현지 5개국 사역자 전체회의
- 7월 19일 – 23일: 난지가 전도대회(뉴욕 한마음교회 박 마이클 목사) 선교단 전도
- 7월 10일 – 20일: 키갈리 고등학교 코딩 특강(EduDream – Frank

Kim 외)

- 7월 23일 – 8월 3일: 선교단(청년 14명, 의료팀 4명, 성광교회 21명) 무완자 도착 사역
  - 7월 25일 병원선으로 마라주 수구티로 이동(300Km)
    탄자니아(수구티, 물랑기, 무구무 타운, 바리바리 마을) 의료 사역 및 전도집회
  - 7월 23일 – 26일:(우간다 선교팀) 우간다 난지가 교회 어린이 부흥회
- 8월 1일 – 3일: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 일행(5명) 키갈리 센터 방문
- 8월 4일 – 8일: 탄자니아 모로고로 주지사 초청으로 농장개발지 시찰
- 8월 13일: 르완다 키갈리 스태프진 미팅
- 8월 21일: 르완다 키갈리 한국어학교 개교

7월 1일: Good TV 선교방송 PD 다큐멘터리
(축복의 언덕,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코딩세미나(EduDream – Frank Kim 외)

7월 4일: 최영애 선교사 르완다 입국, 키갈리 어린이교회 시작, 유치원 개원 준비

7월 6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키갈리 센터 부지문제 해결

- 이문희 선교사(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부임)

9월: 르완다 찬구구 센터 유치원 개원(박숙경 선교사)

9월: 르완다 키갈리고등학교 졸업생 2명 한국 유학(대구대학교)

9월 10일: 탄자니아 지진으로 부코바 클리닉센터 균열

9월 20일 – 11월 5일: 미국 본부에서 르완다 키갈리 학교용품 수집(40피트 컨테이너)

11월 5일: 르완다 키갈리 학교용품 컨테이너 본부센터 출발

11월 8일: 우간다 UWMF 물품수집 위해 40피트 컨테이너 설치
(산호세 온누리교회 주차장)

11월 9일 – 12월 4일: 한국 사역

- 11월 13일(주일): 선교 헌신예배(반석교회), 양진성 홍보대사 위촉
- 11월 24일: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 접견(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확정)

12월 6일 – 20일: 키갈리 고등학교 학생 Film Making Semiar(이준구 피디)

12월: 어린이교회 교사 훈련(조수아 전도사)

〈강의〉

- Prof. Choi Dian(USA), KBBA “Biblical Financial Study”(1월 8일–2월)
- Rev. Sung Soo Nam, Kim Hee Chan, Baik Brian, Baik Lili(USA), GOT “Mission Perspective”(1월 18일–1월 29일)
- Rev. Lee Andrew(USA), KBBA “Genesis”(1월 18일–1월 29일)
- Rev. Lee Myung Sub(USA), “Pastors’ Seminar”(2월 2일–2월 5일)
- Prof. Kim Kyung Eun(Korea), GOT “Greek 1, 2, 3, 4”(2월 25일–5월 26일)
- Pastor Erwin Kim(USA), KBBA “Leadership”(4월)
- Dr. David Liano(Philliphin), GOT, “Missional Church”(6월)
- Rev. Chung Hellena(Missionary), GOT, “Book of John”(6월)
- Dr. Ro Shin Young(USA), KBBA. GOT, “Basic Counseling”(6월 5일–7월 10일)
- Dr. Kim Wan(Korea), GOT, “Homiletics and Exegesis Process”(6월

27일–7월 1일)

- Dr. Bae Im Soon(USA), KBBA, “Christian Spirituality”(7월 4일–7월 22일)
- Prof. Kim Kyung Eun(Korea), GOT “Greek 3, 4”(8월 4일–8월 30일)
- Dr. Lee Moon Hi(USA), KBBA, GOT “Chirstian Parenting”(9월 5일–9월 30일)
- Dr. Rolex Ceiling(Miyanmar), GOT “Reading Paul”, “Reading Corinthians 1”(9월 5일–9월 23일)
- Dr. Lee Yong Joo(USA), GOT “Synoptics Gospels”(10월 10일–10월 22일)
- Dr. Frank Choi(USA), GOT “How to use the Qur’an to reach out to Muslims”(11월 7일–11월 30일)

〈건축〉

- 우간다 난지가 교회 건축 준공(7월 21일)
- 우간다 선교센터 신학교 교실 4동, 채플 리모델링
- 르완다 키갈리 운동장 공사 완공(2015년 시작)
- 르완다 대학원 건물 착공(키갈리 도서관. 양재학교 건물 개축공사, 5월)
  (도서관 1개, 대강당 1개, 강의실 5개, 기숙사(침대 60개), 선교사 사택, 카페테리아, 사무실 10개)
- 르완다 찬구구 센터 화장실 공사 및 물통 설치(8월)
- 르완다 키갈리 센터 다목적홀(Torch Mission Cenetr) 건축 허가(11월 15일)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호선 의료장비 설치(4월 15일)
-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예배당(건축 재개)
- 탄자니아 이솔래 조선소 완공(8월)

- 탄자니아 마라주 수구티 선착장 공사 착공(현재 공사중 중단 상태)
-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용접 시작(8월 15일)
-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예배당(지진피해 예방) 개축(예배당, 강의실, 기숙사, 사무실)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예배당 건축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유치원(교실 3개) 건물 착공

©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2016. 11. 16

아프리카 르완다로 선교 물품 출항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르완다 선교센터에서 사용할 교육용 선교물품을 수집하여 40피트 컨테이너로 수송했다.

이번에 수집된 물품은 책상, 의자, 책장, 음향장비 등 선교에 꼭 필요한 물품이다. 김평육 선교사는 “선교물품의 수집을 시작했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많은 학교물품과 도서 등이 마련되어 40피트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 보냈다”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지역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선교용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는 오는 2017년 1월 7일경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항에 도착하여 다시 육로를 통해 르완다 키갈리로 이동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르완다 키갈리, 카욘자, 찬구구 세 곳에 선교센터를 두고 과학고등학교, 국제학교, 유치원, 기술학교, 신학대학원 등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이번에 보내진 선교물품은 교육 선교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차로 보낼 선교물품 수집을 시작했다.

이번에 보낼 컨테이너는 우간다에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의 설립을 위한 물품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우간다 선교센터를 대학교로 인가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된 사무실과 강의실에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간다로 보낼 선교물품은 사무실용 책상, 의자, 캐비닛, 강의실용 의자, 탁자, 빔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앰프 등이다. 그리고 도서관용(책장, 테이블, 의자), 기숙사용(주방장비, 냉장고, 마이크로 오븐, 식판, 침대, 매트리스, 담요) 물품들도 수집한다. 또 어린이교회 선교를 위한 어린이용 티셔츠, 도서, 악기, 음향시스템도 함께 수송할 예정이다.

우간다로 보낼 2차 컨테이너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으며, 12월 한 달간 언제든지 현장에 물건을 배달해 주면 된다. 새 물품을 주문하여 배달할 경우 배달 주소는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문의는 (408) 345-1727이다.

〈손수락 기자〉

대구 ACC 창립, 의료 봉사단 활동 시작

한국과 미국의 대학, 대학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사진 백석대학교)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의료 사역지 탐방

더투게더 의료봉사단 병원선 의료 사역

빅토리아 호수 섬마을 의료 사역

아산병원 의료봉사팀 병원선 사역

UWMF 졸업식(르완다 캠퍼스)

아프리카 유학생 여름 수련회

할렐루야 축구단 경기(탄자니아 무완자)

단기선교단 거리 어린이집회

2017년 사역 요약

탄자니아의 의료 사역에 단기봉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산병원 봉사단(40명)과 NGO 단체 더 투게더 봉사단이 탄자니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르완다와 우간다로 보낸 학교비품 컨테이너가 도착하여 학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르완다 찬구구에 유치원과 어린이교회가 시작되고, 콩고 우비라에도 유치원과 교회가 시작되었다.

한국 유학 사역이 지속되어 4명의 유학생이 추가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유학생들을 위한 ACC(African Community Church)를 대구에 설립하였다.

UWMF 대학교는 우간다 문교부 NCHE(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로부터 설립 허가에 해당하는 "Letter of Interim Autority"를 발급받아 대학교 설립에 진전을 이루었다. UWMF 강의를 위해 많은 외래 강사들이 참가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고하는 파송선교사(박숙경, 최영애, 이문희, 추정민, 임지혜, 정해진, 정현)와 선교회 간사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선교대회를 열었다.

키갈리 고등학교에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지역의 엔지니어와 자녀들이 함께 참가한 IT 특강이 열리고, 농구와 축구 등 스포츠 프로그램의 단기선교 사역이 활성화되었다.

2017년

1월 12일 – 13일: 우간다 UWMF 강의실 교육용품 컨테이너(40피트) 선적 작업 완료

1월 15일(주일): 트라이밸리장로교회 선교주일(설교) – 사랑의 가축 나누기(염소 100마리 증정)

1월 15일(주일): 정해진, 정현 선교사 파송예배(오후 4시 30분, 베델연합감리교회)

1월 16일 – 2월 28일: 아프리카 사역(비전트립)(제53차 현장 사역)

〈방문단: 1월 16일(10명), 1월 23일(10명), 2월 4일(의료 40명), 2월 18일(의료 6명) 도착

- 1월 18일: 르완다 카욘자 양재학교 졸업식
- 1월 19일 – 23일: 르완다 찬구구, 콩고 사역
- 1월 24일: 르완다 키갈리 학교용품(40피트) 컨테이너 도착
- 1월 25일: 르완다 키갈리 센터 다목적홀(Torch Mission Building) 기공식(방문단, 보엠, CCC 참석)
- 1월 28일 – 1월 29일: 우간다
- 1월 30일 – 2월 28일: 탄자니아
- 보엠 사역: 르완다 키갈리, 찬구구(시니어 비전 트립 / 염소 나눔 / 4차 예술 교육 세미나)

아산병원 의료봉사활동(2월 4일 – 2월 9일) 병원선. 육상 진료 사역(전체 2,138명 진료)

(의사 4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 의대생 9명, 스태프진 3명)

- 2월 4일: 무완자 공항 도착
- 2월 5일: 살림호 승선하여 이솔래 도착 의료 사역 준비
- 2월 6일: 이솔래 센터 예배당에서 의료봉사활동(577명 진료)
- 2월 8일: 엘레메라 카얀제 부두에서 의료봉사 활동(498명 진료)

더 투게더 의료봉사단(2월 20일 – 25일) 병원선 사역(전체 1,723명 진료)

- 2월 19일: 출항(승무원 11명, 선교회 행정팀 6명, 현지인 의료진 8명, 의료 봉사팀 6명, 취재기자단 등 38명 승선)
- 2월 20일: Juma Island 의료사역(병원선과 섬에서 450명 진료) 32명 환자 승선하여 Chitandele Island로 이동 중 치료
- 2월 21일: Chitanale Island 사역(주변 섬에서 응급선으로 환자 수송)(435명)
- 2월 22일: 일레메라 카얀제 포트 정박 사역(450명)
- 2월 24일 – 25일: 세렝게티 바리바리 마을 진료(배창황 원장, 간호사 2명, 356명 진료)
- 2월 27일: 탄자니아 보건사회부 장관 접견

3월 1일: 한국 대학교 유학 4명(우간다 2명, 르완다 2명)

3월 8일: 키갈리 고등학교 학교용품(40피트) 컨테이너 르완다 세관 통관, 센터로 이동

4월 10일 – 5월 20일: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4월: 키갈리 다목적홀 건축 착공

4월 17일: 키갈리 센터 유치원 개원(최영애 선교사)

4월 5일 – 5월 1일: 한국 사역

- 4월 19일(주일): ACC 창립 1주년 감사예배(김평육 선교사, ACC 찬양팀)

- 4월 26일(주일): 추정민, 임지혜 선교사 파송예배(봉천동 반석교회)
- 4월 24일: CTS TV "내가 매일 기쁘게"(진행 최선규, 김지선 집사) 방송녹화, 5월 15일, 18일 방송

5월 30일: 우간다 대학교 설립 허가서(Letter of Interim Authority) 취득(우간다 NCHE)

5월 20일 – 6월 15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사역자 초청 사역자 대회(USA 본부)

선교사: 최영애 선교사, 박숙경 선교사, 이문희 선교사, 정해진, 정현 선교사, 추정민, 임지혜 선교사

간사: 서해남 목사, 조지영 간사, 김미희 간사 가족 외 미주 지역 지원팀 참가

6월 21일: 우간다 대학교 교육용품 컨테이너(40피트) 수송

6월 22일 – 7월 3일: 한국 사역

- 6월 29일 – 7월 1일: 아프리카 유학생 여름 수련회(포항 YPC 수련관)
  - 보엠: 한국 포항, 대구(5차 예술교육 세미나)
- 7월 2일: 대구서문교회 선교주일(1, 2, 3부 설교 및 ACC 찬양축제)

7월 4일 – 8월 18일: 아프리카 사역(제53차 사역)

아프리카 여름단기선교단 사역(선교단원 50명 사역기간: 7월 4일 – 8월 11일)

- 7월 7일 – 7월 9일: 탄자니아 이솔래 부야구 어린이 전도대회(선교단)
- 7월 10일: 탄자니아 일레메라 고등학교에 컴퓨터 20대 기증
- 7월 9일 – 10일: 할렐루야 축구단, 보엠 뮤지컬 탄자니아 무완자 도착
- 7월 11일 – 15일: 선교팀, 보엠– 거리전도 / 할렐루야팀–중·고등학교 축구교실

- 7월 16일: 무완자 스타디움 전도집회(할렐루야 축구단 경기, 보엠 공연, 1만 2천 명 참가)
- 7월 17일 – 7월 25일: 우간다 사역 – 선교팀 어린이 사역, 할렐루야 축구단 경기
- 7월 17일 – 8월 5일: 보엠 뮤지컬 교육, 키갈리와 찬구구 센터
  - 르완다 키갈리, 찬구구, 카욘자, 가히니(염소 나눔 / 10차 순회 공연 10여 회 / 6차 예술교육 세미나)
- 7월 26일: 선교팀 르완다 입국, 르완다 신학교 졸업식 준비

특별 프로그램

- 6월 5일 – 17일: 로보트컨트롤 특강(EduDream – 김윤범 대표, 김민지, 신현범)
- 7월 21일 – 8월 4일: 키갈리 고등학교 농구팀 창설훈련(코치 조인규, 조지영 간사)
- 7월 24일: 키갈리 고등학교 악기교육(박종술 목사 외)

KBBA 졸업식

- 7월 26일 – 27일(3박 4일): 4개국 12개 KBBA 캠퍼스 연합졸업생 및 목사 안수자 수련회(키갈리 센터)
- 7월 28일: 졸업식 및 목사안수(졸업 120명, 목사안수 15명)

8월: 정해진, 정현 선교사(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부임)

8월 19일 – 9월 9일: 한국 사역

- 한국 유학(영남대학교 대학원 2명 추천 입학)

8월 15일 – 9월 15일: 키갈리 고등학교 축구단 창단 훈련

9월 11일 – 9월 30일: 20일 연속 금식기도

9월 29일: 우간다 컨테이너(40피트) 세관 통관하고 센터 도착

9월 15일 – 10월 5일: 콩고 난민 위해 식량, 약품 전달(우비라 센터)

10월 5일 – 10월 8일: 보엠(대표 오성원)에서 ACC 찬양팀 악기연주자 훈련 (4박 5일)

- 한국 서울(7차 예술교육 세미나)

10월 3일 – 10월 10일: 양진성 홍보대사 르완다 방문

10월 16일 – 11월 6일: 인천 옥련중앙교회(한종근 목사) 목공봉사팀 키갈리 도서관 책장 제작

10월 24일 – 11월 6일: 한국 사역

(선교회 현지 스태프진 한국 방문 – 존 차차, 빈센트 차차, 메튜 루봉게자, 존 밥티스트)

- 10월 27일: 영남신학교 선교협약(학사교류), ACC 찬양단 대구 동성로 야외공연
- 10월 28일: 선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예배(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 11월 3일: 백석대학교 선교협약(학사교류, 매년 장학생 보내고 있음)
- 11월 4일: 주 한국 탄자니아 신임 대사 초청 선교회 가족 만찬

11월 7일 – 11월 24일: 아프리카 사역(제54차 현장 사역)

- 탄자니아 무완자 LVRAC 참석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졸업식
- 우간다 UWMF 관리 및 컨테이너 정리
- 콩고 변호사 미팅(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건축 부지)

11월 26일 – 12월 5일: 한국 사역

- 12월 3일: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 교회 설교
- 기독교 횃불재단 방문

12월: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유치원 건물 지진피해 복구공사(정해진, 정현 선교사)

〈신학대학교 KBBA. GOT 강의〉

- Prof. Diane Choi(USA), KBBA, GOT, “Leadership”(1월 9일 – 2월 10일)
- Rev. Hellena Chung(Missionary), KBBA “Book of Romans”, “Book of Genesis”(1월 30일 – 3월 3일)
- Ms. Suah Cho(USA), KBBA, GOT “Educational Ministries Development”(2월 – 4월)
- Dr. Ro Shin Young(USA), KBBA, GOT, “Theory of Personality” (July– August)
- Rev. Park Sung Yon(Korea), GOT “Pauline Eschatology”(11월)

〈건축 〉

- 우간다 Nsangi 신학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완공(침대 80개 마련)
  - 각 강의실 의자 및 칠판 설치(미국에서 수송한 물품)
- 르완다 키갈리 신학대학원 외부공사 완공(유치원 교실 3개 내부공사 완료)
- 르완다 키갈리 센터 Torch Mission Center 신축(횃불재단 협력사업)
- 르완다 찬구구 센터 펜스 공사(박숙경 선교사)
-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 예배당 개축공사(예배당, 교실 1개, 기숙사 3개, 사무실 1개)

- 탄자니아 이솔래 농군학교 기초공사
- 콩고 우비라 카통고 강 범람으로 제방공사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교실 3개 유치원 건물 완공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예배당 착공(건축 중)

ⓒ 한국일보

우간다 대학교 설립 적극 추진

NCHE로부터 설립 인가(Letter of Interim Autority)를 받음

동아프리카 중심 우간다에 종합대학교 설립 허가를 받은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대학교 개교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5월 우간다 교육부(NCHE)로부터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 설립 허가(letter of interim authority)를 받은 후 개교에 필요한 학교 시설 건축과 교수진 공개 모집에 나서고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우간다 캠퍼스에 27일 현재까지 채플(1개), 강의실(10개), 기숙사(80명), 사무실(5개), 임시 도서실(1개), 교수 숙소(4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개교를 위한 프로비즈널 허가(provisional license)를 받기 위해서는 2층 규모의 도서관과 행정사무실(2층), 식당 건축과 운동장 시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가 신학과, IT학과, 경영학과, 농축산학과 등 4개 학과 개강을 위한 학생 모집을 위해서는 교수와 교직원 임용이 시급하다.

UWMF는 현지인 교수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립단계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비량 교수를 모집하고 있다.

또 우간다 본교가 정식 허가를 받으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5개국 선교센터에 분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1차로 르완다 키갈리와 탄자니아 이솔래 선교센터에 분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가 개교할 우간다 메인 캠퍼스는 20에이커 부지로 도서관, 교수실, 학생식당 건축과 운동장 시설을 추가로 해야 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건축비 25만 달러와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진과 교직원 채용을 위해 5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를 목표액으로 정하고 모금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1996년 우간다 캄팔라 인근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 20에이커(2만 5천 평)를 마련한 후 지난 20년 동안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아프리카의 미래지도자 양육을 위한 꿈을 키워왔었다.

김평육 선교사는 "오는 2019년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총 3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북가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문의 전화 (408)345-1727

〈손수락 기자〉

Torch Mission Center 준공

2018

르완다 키갈리 센터 토치 미션센터 준공식

2018년 키갈리 센터 전경

키갈리 유치원

2018년 월드미션 프론티어 교단 목사안수

2018년 신학대학·대학원 졸업식

2018 COMMENCE

2018년도 신학대학·대학원 졸업식

우간다 대학교 캠퍼스

토치 미션센터 준공식

2018년 사역 요약

아산병원 의료봉사단과 더 투게더 의료봉사단의 활동으로 탄자니아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탄자니아 이솔래에서는 150에이커의 선교센터 건축 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예배당을 완공하고, 병원선 2호선 제작을 계속하며 농군학교 기초공사를 마쳤다.

르완다 키갈리 센터에서는 다목적 홀(Torch Mission Center)의 준공식을 가졌다. 기독교선교 횃불재단과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연합으로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건축한 센터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채플에 뮤지컬 극장을 설립하기 위해 2층 높이로 개축하였다. 르완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랭킹에는 월드미션 고등학교가 전국 895개 학교 중 6위로 발표되었다. 르완다 찬구구에도 KBBA 강의실이 건축되었다.

우간다 캠퍼스에서는 UWMF 신학대학교·대학원의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고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아프리카 스태프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한국 방문을 추진해 왔는데, 처음으로 르완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사무총장인 존 목사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비전 2030"의 실천 준비를 위해 이슬람국가 선교사 파송을 목적으로 AMTIC(Africa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Center)를 키갈리에 설립하고 후보생 모집을 시작했다.

2018년

1월 6일 – 1월 27일: 선교 다큐멘터리 〈길〉 미주방송(CHTV 본부장 윤우경, 제작 최은미 피디)

- 1부: 그리스도의 나라, 르완다 〈1월 6일(토) 오후 6시, 7일(주일) 오후 10시〉
- 2부: Siyabonga Jesu, 〈1월 13일(토) 오후 6시, 14일(주일) 오후 10시〉
- 3부: 샬롬, 아프리카 〈1월 20일(토) 오후 6시, 21일(주일) 오후 10시〉
- 4부: 회복, 그들의 소망 〈1월 27일(토) 오후 6시, 28일(주일) 오후 10시〉

1월 9일 – 2월 27일: 아프리카 사역(제55차 현장 사역)

아산병원 의료봉사단(단장 나영신 교수) 활동(1월 12일 – 1월 16일) 의료진 24명(전체 800명 진료)

- 1월 11일: 탄자니아 무완자 공항 도착
- 1월 12일: 생게레마 디스트릭으로 이동
- 1월 13일: Sangabuye Health 진료센터(250명 진료)
- 1월 14일: Isole 보건소(200명 진료)
- 1월 15일: 일레메라 디스트릭 카얀제 보건소(350명 진료)

선교회 사역(1월 16일– 2월 4일)

- 1월 16일 – 30일: 르완다(키갈리), 우간다(상기), 탄자니아(부코바) 사역
- 2월 1일 – 2월 4일: 병원선 승선 점검, 이솔래 건축현장

더 투게더 의료봉사단(단장 배창황 원장) 활동(2월 5일 – 12일)

(내과의사 1명, 외과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약사 및 현지 헬스센터 전 직원 및 봉사단 17명)

- 2월 5일: 탄자니아 무완자 공항 도착
- 2월 6일: 세렝게티 디스트릭으로 이동(차량 7시간)
- 2월 7일 – 9일: Natta Health Center 의료 사역(전체 950명 진료, 수술)
- 2월 10일: 무완자로 이동하여 11일 출국

선교회 사역(2월 13일 – 3월 21일)

- 2월 13일 – 2월 27일: 탄자니아(이솔래, 부코바), 르완다(키갈리), 부룬디(무줌부라), 콩고(우비라, 부카부), 우간다(캄팔라)

2월: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졸업생 2명 한국 유학(백석대학교)

2월 12일: 탄자니아 부코바 유치원 개원(정해진, 정현 선교사)

2월 28일: 김평육 선교사 출판

-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쿰란. 2018. 2. 28)
-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쿰란. 2018. 2. 28)

3월 9일 – 3월 25일: 김평육 선교사 세미나

(주제: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 3월 9일 – 3월 11일: 로스엔젤레스, 주마음교회(이석주 목사)
- 3월 17일 – 18일: 이스트베이, 섬기는 교회(이재서 목사)
- 3월 24일– 25일: 산호세, 제자들교회(박춘배 목사)

3월 26일 – 5월 4일: 40일 연속 금식기도

4월 3일 – 4월 9일: 한국 사역

- 4월 7일: ACC 창립 2주년 기념예배(대구 ACC)

4월 10일 – 4월 30일: COTARI 무슬림 전도 특강(Dr. Frank Choi) 참가

장소: California Giloy Center

- Jean Baptiste Ndajigimana(월드미션 프론티어 르완다 사무총장)
- 정해진, 정현 선교사(파송선교사, 탄자니아)

4월 25일 – 26일: ACTEA 가입 신청

(Executive Director Dr. Emmanuel Chemengich 우간다 및 르완다 캠퍼스 현지 시찰)

5월 6일 – 5월 23일: 아프리카 사역(제56차 현장 사역)

- 5월 7일 – 5월 15일: 횃불기독교선교재단 아프리카 방문(이형자 이사장 외)
  - 5월 9일 – 11일: UWMF 대학원, KBBA 특강(김상복 목사, 송용필 목사)
  - 5월 12일: 키갈리 센터 다목적 홀(Torch Mission Center) 준공식
  - 5월 13일: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김상복 목사, 송용필 목사), 어린이교회
- 5월 13일 – 5월 22일
  - 르완다 – 부룬디 – 콩고 – 르완다– 우간다 – 탄자니아를 거쳐 미국으로
  - Felister Lauwo 탄자니아 디렉터 임명

6월 21일: AMTIC(Africa Mission Trainnig International Center) 설립 발표 및 훈련생 모집

6월 24일: 김평육 선교사 출판기념회(미국)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쿰란)

장소: 산호세 제자들교회

6월 25일 – 7월 2일: 한국 사역

- 6월 28일 – 30일: 아프리카 유학생 여름 수련회(김평육 선교사, 팀수양관)
- 7월 1일: 대구 서문교회 선교주일(ACC 학생들과 함께) 설교 및 찬양집회

7월 3일 – 8월 6일: 아프리카 사역(제67차 현장 사역)

- 7월 4일 – 8일: 르완다(찬구구, 키갈리), 탄자니아(부코바 센터)
  - 7월 7일: 키갈리 센터 어린이교회 세례식(40명)
- 7월 10일 – 13일: UWMF – 대학원 졸업세미나 및 졸업식
  - 7월 10일 – 12일: 세미나(강사 –김평육 선교사, 오규훈 총장(영남신학대학교)
  - 7월 13일: KBBA. GOT 과정 졸업식 및 목사안수(우간다)
- 7월 15일 – 20일: 탄자니아 사역(부코바, 이솔래)
- 7월 21일 – 22일: 콩고 우비라 교회 설교 사역
- 7월 23일 – 8월 3일: 르완다(찬구구, 키갈리)(*키갈리 센터 뮤지컬 극장 착공)

7월 2일 – 8월 11일: 2018년 여름 단기선교단 개별 팀별 활동(선교단원 45명)

- 7월 2일 – 7월 21일: 영남신학대학교 학생팀(7명)(부코바/ Nsangi) 어린이 사역, 여성 사역
- 7월 2일 – 7월 29일(선교회팀 6명): 르완다 – 찬구구, 키갈리 / 우간다 – 상기 지역 / 탄자니아 – 부코바 어린이, 여성, 의료 사역
- 7월 15일 – 7월 28일: IT Camp(7명) 키갈리 월드미션 과학기술고등학교(Drone, Robotics, IOT, Video Products)
- 7월 20일 – 8월 2일: 경산중앙교회팀(13명) – 르완다 카욘자 센터, 찬구구 센터, 키갈리 센터
- 8월 1일 – 8월 11일: 보엠 씨어터(6명) – 르완다 키갈리 뮤지컬센터 설립 기술컨설팅
- 8월 3일 – 8월 11일: 임마누엘장로교회팀(2명): – 키갈리 고등학교 회계학과 컴퓨터 특강

9월 1일 – 9월 20일: 하반기 20일 연속 금식기도회

9월 30일(주일): 선교보고 간증(LA 복음 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10월: 르완다 교육부(WDA) 월드미션 기술고등학교 전국 랭킹 6위 발표

10월 5일 – 11월 10일: 한국 사역

- 10월 7일: 선교보고대회 – 청주 구세군 언약교회(담임 서충훈 사관)
- 10월 14일: 선교보고대회 – 청명교회(담임 박정연 목사, 성소기도원 원장)
- 11월 3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24주년 기념(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12월 14일: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졸업식

〈UWMF: KBBA, GOT 초청강사〉

- Rev. Kum Won Sik(Korea), GOT "Basic Hebrew"(1월)
- Prof. Choi Dian(USA), KBBA "Chiristian Leadersip" (1월 15일 – 2월 16일)
- Mr. Nathan Yi(USA), KBBA "Critical Reasoning/ Apologetics"(2월 15일 – 2월 28일)
- Dr. James Aung(Myanmar), GOT "New Testament Theology" (2월 19일 – 3월 16일)
- Rev. Kang Soon Gu(USA), GOT "Church Planting"(3월 26일 – 4월 6일)
- Rev. Kang Crystal(USA), KBB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3월 26일 – 4월 6일)
- Dr. Shin Young Ro(USA), "Thesis Examination"(5월 29일 – 6월 30일)
- Prof. Kim Kyung Eun(Korea), GOT "Greek" "Hebrew"(9 – 11월)
- Dr. Lee Moon Hi(USA), KBBA "Christian Parenting"(9 – 10월)
- Mr. Kim Sung Kyun, Edward Yang(USA), Seminar "Experiencing God"(10월)

〈건축〉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채플 2층으로 증축공사(보엠)
- 르완다 키갈리 신학대학원 건물 1층 내부공사 완료(사무실, 도서관, 유치원, 기숙사)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체육관 기초공사
- 르완다 키갈리 센터 Torch Mission Center 준공(대강당, 소강당, 게스트룸 2, 사무실 2)
- 르완다 찬구구 센터 KBBA 강의실 2개 건축(박숙경 선교사)
- 르완다 카욘자 1센터 부지 추가 구입
- 탄자니아 이솔래 농군학교 착공(5월)

〈출판〉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쿰란, 2018. 2. 28)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쿰란, 2018. 2. 28)

ⓒ 컵뉴스 2018. 6. 27

횃불재단 아프리카 르완다에 횃불선교센터 건립

5월 12일 현지에서 준공예배 드려…2층 건물 500명 수용 규모

이형자 이사장 "횃불선교센터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에 마음 쏟게 되길"
현지 신학생 목회자 대상 김상복, 송용필 목사 세미나 열어

2017년 첫 삽을 뜬 르완다 횃불선교센터가 건축을 마무리하고 5월 12일 현지에서 준공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과 김창선 사무처장, 이경석 원목을 비롯해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상복 명예총장과 송용필 대외협력부총장, 최지선 기획실장이 함께했다. 이번 르완다 횃불선교센터 건립은 오랫동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온 횃불재단의 결실이다.

횃불재단은 2009년 한·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에서 협력했던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통해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해 오던 중 2016년 아프리카 4개국 탐방이 진행됐고, 현지 리더들의 재교육 강화를 위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르완다 선교센터에 횃불선교센터를 건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건축 계획은 3월 26일 건물 설계 착수에 이어 2017년에는 횃불트리니티 박사과정 5명의 학생들이 르완다와 우간다 등을 방문해 현지 신학생을 가르치는 협력 사역으로 이어졌고, 2017년 초에 르완다 횃불선교센터 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5월 12일 드려진 준공예배는 400여 명의 지역 리더들과 각급 교회 리더들, 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테이프 커팅과 기념식수로 시작된 준공예배에서는 송용필 목사(카이캄 연합회장)가 설교 말씀을 전했고, 최지선 실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형자 이사장은 건축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증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김상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건축 경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춤과 노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축하 케이크 커팅과 서로를 위한 축복이 나눠졌다.

준공예배 후에는 IAK(International Aid Korea)에서 기증한 약품도 현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준공예배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형자 이사장은 "아프리카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잘 느껴진다"며 "앞으로 이 선교센터를 통해 횃불재단과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에 마음을 쏟게 되어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터에 세워진 2층 건물인 횃불선교센터는 횃불재단에 헌금한 한 부부의 헌신으로 준공됐으며,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층 상지홀과 100명 수용 규모의 2층 순형홀, 그리고 두 개의 게스트 하우스(횃불하우스, 미션하우스)로 이루어진 2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평시에는 신학교의 채플과 수업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횃불재단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4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준공기념예배에 앞서 횃불재단 일행은 5월 9~11일 현지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김상복 목사와 송용필 목사가 강의했으며, 이들의 열띤 강의에 현지 목회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 뜨거

운 반응을 표출했다. 첫날 강의 이후 지역 사회에 세미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이튿날에는 강의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귀 기울여 강의에 집중했다.

한 참가자는 "목회 인생 25년 동안 많은 강좌와 세미나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특별한 강의는 처음"이라며 "이 강의가 나의 목회에 너무나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횃불재단은 그 시작부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해 왔다.

1995년 횃불선교센터에서 개최된 GCOWE'95(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의 영향으로 선교 목적에 충실한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할 만큼 모든 관심은 선교였다. 국내에서 개최된 첫 번째 세계적 선교대회였던 GCOWE'95에서 이형자 이사장은 100개의 미전도 종족을 가슴으로 입양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개최한 WOGA(Woman Of Global Action) 여성 지도자 세계선교대회에는 전 세계 82개국에서 1,200명의 여성 지도자가 참석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여성 지도자들은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갈망하며 사명과 섬김, 훈련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길 결단했다.

2009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에는 2,500명의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 각자의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자는 뜨거운 열정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

이후 횃불재단의 선교 지경은 더욱 확대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눈을 돌렸다. 2011년 첫 번째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7년까지 다섯 차례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열어 한인 디아스포라를 선교사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콩고 우비라 병원 착공

우간다 선교센터 어린이 성경학교

2019

우간다 Nsangi 선교센터 직원들의 쉼

우간다 센터 어린이교회 성경공부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건조

르완다 키갈리 센터 뮤지컬 극장 개축공사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건축 기공식

더 투게더 의료팀

탄자니아 부야구 초등학교 전도집회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1채플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농군학교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본관 건물 건축

이솔래 초등학교 7월 단기선교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25주년 기념예배(산호세)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교회 주일예배

현지 스태프 미국 방문

AMTIC 졸업식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교회 어린이들

2019년 사역 요약

매년 탄자니아에서 실행하던 의료 봉사단 활동을 우간다 카랑가라 섬으로 옮겼다. 병원선의 사역을 우간다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다.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초공사를 마치고 진전되지 못한 농군학교 건물에 추가해서 제2채플과 대학교 본관 건물 건축이라는 큰 사역이 진행되었다. 르완다에서는 양재학교 도서관 건물을 2층으로 개축하여 신학대학원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르완다 카욘자 제1센터에는 기술학교 건축을 위한 추가 부지를 마련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제2센터의 건축부지를 마련하였다. 찬구구 센터에는 초등학교가 건축되었다. 콩고 우비라에는 병원건축을 계획하고 3동의 건물과 고아원 건축을 시작하였다.

우간다에서는 대학교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해 6개 교실동을 임시도서관과 카페테리아로 개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선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르완다 스태프진 3명을 미국으로 초대하여 기념예배에서 간증하고 미국여행의 기회를 가졌다. 김평육 선교사는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로 4권의 책을 출판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세미나 사역을 시작하였다. AMTIC은 13명의 첫 수료생을 배출하고 이용기, 권영옥 선교사 부부를 인턴 선교사로 탄자니아에 파송하였다.

2019년

1월 12일 – 2월 28일: 아프리카 사역(제58차 현장 사역)

- 1월 15일 – 18일(4박 5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스태프진 수련회(키갈리)
  강사: 김평육 선교사(팀 빌딩)
- 1월 19일: AMTIC 현지인 훈련생 인터뷰(키갈리, 월드미션 프론티어 신학원 졸업생)
- 1월 26일 – 27일: 르완다 찬구구 센터
- 2월 2일 – 9일: 더 투게더 의료봉사단(12명, 현지봉사단 19명, 전체 31명)
  - 2월 2일: 우간다 엔테베 공항 도착, 카랑가라 섬으로 이동
  - 2월 3일 – 5일: 카랑가라 섬 의료 사역
  - 2월 6일: 의료선교단 우간다 센터 방문 및 환영회
  - 2월 7일 – 8일: 우간다 관광 후 귀국
- 2월 10일 – 2월 14일: 탄자니아 사역(이솔래 공사현장)
- 2월 15일 – 2월 27일: 르완다 키갈리 AMTIC 개강 특강
- 2월: 르완다 카욘자 센터 제2부지(Gatebe Village, Kayonza District) 구입(최영애 선교사)
- 우간다 사무총장 Manzi Danny 목사 한국 유학(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M.Div 과정)
- Michael Nelson 목사 우간다 디렉터 임명

1월 29일: 《팀 빌딩》(ALPS 4 CLIMB UP, 쿰란) 출판

2월: 르완다 고등학교 졸업생 2명 한국 유학(백석대학교)

3월: 탄자니아 이솔래 농군학교 건물과 제2채플 공사 시작

- 부룬디 사역팀장 Muzairwa Ngungula 목사 임명

3월 8일 – 3월 20일 : 한국 사역

- 3월 10일 – 3월 12일: '팀 빌딩'(인천 옥련중앙교회, 한종근 목사)

3월 22일 – 3월 24일: '팀 빌딩' 집회(나성 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3월 29일 – 4월 18일: 르완다 원주민 스태프진 미국 방문

(존 밥티스트, 카지레 도린, 이노센트)

- 4월 1일: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 인터뷰(손수락 기자)
- 4월 2일 – 5일: 실리콘 밸리 투어
- 4월 6일: 선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산호세 온누리교회)
- 4월 7일: 교회 방문 선교보고(3개 교회 선교보고)
- 4월 9일 – 12일: 요세미티, 렝케스터, LA 투어
- 4월 13일: 선교보고(트라이밸리 장로교회)

4월 17일 – 30일: 한국 사역

- 4월 21일: ACC창립 기념예배

4월 15일 – 5월 24일: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5월: 르완다 KBBA(Kigali, Nyamaseke, Kayonza), GOT 과정 임시휴교

(World Mission Theological Seminary 등록 위해 건축과 서류 준비 시작)

5월 4일 – 5일: 시애틀 하이어콜링 '팀 빌딩' 세미나(베다니교회, 최창효 목사)

5월 14일: 콩고 우비라 지역 내전 구호 사역 시작

5월 10일: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본관 건물 설계도 마감, 기초공사 시작

6월 10일: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병원 설계도 마감, 기초공사 시작

6월 14일 – 16일: 라스베이거스 아름다운교회(박대우 목사) 선교대회

6월 24 – 6월 27일: 한국 사역

- 6월 25일 – 6월 27일: 아프리카 유학생 여름 수련회(포항 YFC 수련원)
- 한국지부 홍명옥 간사 사임

6월 29일 – 8월 11일: 아프리카 사역(제59차 현장 사역)

- 6월 29일 – 7월 4일: 우간다 센터 선교사 사택 내부공사
- 7월 4일 – 6일: 르완다 목회자 세미나(오규훈 총장, 권영국 목사),
  교사 세미나(차혜란 목사, 이진아 전도사)
- 7월 8일: AMTIC 훈련생 인솔 탄자니아 무완자, 이솔래로 이동
- 7월 13일 – 19일: 달라스 선교단(탄자니아 이솔래–부야구 마을, 학교 전도)
  부야구 중학교(복사기 기증, 여학생 기숙사 건축 작정)
- 7월 19일 – 7월 24일: 르완다 신학대학원 특강
  - 강사: Dr. Wayne Johnson(Dean of Trinity Theologcal Seminary)
- 7월 29일 – 8월 9일: UWMF Uganda 특강
  - 강사: 이윤재 목사(쿠미 신학대학장)
- 8월 1일: 르완다 키갈리 센터 극장건물 내부 2층 베란다 공사 시작
- 8월 4일: 우간다의 난지가 교회 어린이 선교대회(우만희 선교사 파송)

8월 12일 – 8월 15일: 한국 사역(한국 경유하여 미국으로 이동)

8월 6일: 탄자니아 부야구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 건축 시작

9월 2일 – 10월 6일: 호평아산내과 배창황 원장, 카랑가라 섬 보건소 의사 조엘 씨를 한국 초청 수술

9월 3일: 콩고 우비라 카통고 클리닉센터 1 착공,

10월 19일 – 11월 8일: 아프리카 사역(제60차 현장 사역)

- 10월 21일 – 24일: AMTIC 졸업생 세미나
- 10월 25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제2건축부지 방문
- 10월 26일: AMTIC 1기 졸업식
- 10월 27일 – 11월 7일: 르완다(찬구구 센터), 콩고(우비라 카통고 건축현장, 부카부 부지), 탄자니아(무완자, 이솔래, 부코바), 우간다(상기센터) 방문하고 귀국

12월 13일 –12월 16일: 달라스 지부 방문(달라스 중보기도회 만남)

〈신학교 강의 강사진〉

- Prof. Kim Kyung Eun(Korea), GOT "Greek", "Hebrew"(1 – 3월)
- Rev. Kang Soon Gu(USA), GOT "Church History 1"(6월)
- Rev. Cho Chun il(Korea), KBBA, GOT "Old Testaments"(4 – 7월)
- Dr. Eunice Kim(USA), GOT "Roots of Evangelicalism"(3월)
- Dr. Ro Shin Young(USA), GOT "Personality Theory", "Thesis Examination"(6월)
- Dr. Lee Yoon Jae(Missionary), GOT "Pauline Epistles"(7월)
- Dr. Hong Sung Doo(Korea), KBBA.GOT "Pastoral Care", "Mission Perspectives"(9월, 12월)
- Dr. Kim Wan(Korea), KBBA "Evangelical History"(12월)

〈건축〉

- 르완다 카욘자 제2센터 건축부지(2에이커) 마련(최영애 선교사)
- 르완다 찬구구, Nyamaseke 센터 초등학교(교실 6개) 완공(박숙경 선교사)
- 르완다 키갈리 센터 극장 내부 2층 베란다 공사(보엠)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스마트 홀 착공(이문희 선교사)
- 신학대학원 건물 2층(타일, 천정, 기숙사) 완공, 사무실 확장 공사
- 탄자니아 이솔래 농군학교 건물 지붕공사
- 탄자니아 이솔래 부지 정리 및 축구장 만들기, 나무 1,000그루 식목
- 탄자니아 이솔래 제2채플 건축 시작
- 탄자니아 이솔래 본관 건축 시작
- 탄자니아 부야구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 착공
-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담장 공사(정해진, 정현 선교사)
- 병원선 살림호 운항허가 위한 정기검사(SUMATRA)
- 우간다 Nsangi 센터 교실 6개 건물을 도서관, 컴퓨터실, 카페테리아로 리모델링
- 우간다 Nsangi 센터 게스트 하우스 완공(실내 타일, 화장실, 수도시설(우만희 선교사))
- 우간다 Nsangi 센터 고아원 부엌 리모델링
- 콩고 우비라 카통고 클리닉센터, 고아원 착공

〈출판〉

《팀 빌딩》 ALPS 4 CLIMB UP(쿰란, 2019. 1. 29)

© 한국일보 2019. 4. 4(목)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선교 25주년 현지 사역자 대담

1994년 르완다 학살전쟁으로 1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 간

르완다에서의 난민선교로 시작된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의 설립 25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현지인 사역자들이 북가주 지역을 방문했다.

오는 4월 6일(토) 오후 5시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대회에 보고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세 명의 현지 사역자는 25년 전 전 가족이 살해당하고 혼자 살아남아 지난 2003년부터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 사역을 시작해 현재 르완다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존 밥티스트(Jean Baptiste) 목사, 2006년부터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현지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카지레 도린(Kagire Doreen)씨, 또 여섯 살에 고아가 되어 어린이 가장으로 살아남아 월드미션 키갈리 과학 기술고등학교 교무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노센트 루쿤도(Innocent Rukundo) 목사이다. 이날 좌담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인 김평육 선교사도 자리에 함께했다.

▲ 참석 패널

– 존 밥티스트 목사: 월드미션 프론티어 사무총장(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사역기획, 건축)

– 카지레 도린: 월드미션 프론티어 르완다 컨트리 디렉터, (UWMF) 대학교 사무처장

– 이노센트 루쿤도 목사: 키갈리 월드미션 과학 기술고등학교 교무주임

▲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오클랜드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 회의실

▲ 대담 진행: 손수락 편집위원

방문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 존 밥티스트 목사: 미국은 여러 인종이 살아가면서도 인종간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카지레 도린: 미국은 참 아름답습니다. 날씨는 저희 나라 르완다와 비슷해서 편안하구요.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Great America라고 하는데, 정말 Great Nation이라고 느껴집니다.

▲ 이노센트 목사: 뉴저지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모든 서비스가 빠르고 친절해서 인상적입니다.

선교회 사무총장인 존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요?

▲ 존 밥티스트 목사: 저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양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정말 많은 날들을 울면서 지냈는데, 1990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설립 25주년이 되었는데 아프리카 현지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 카지레 도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고등학교를 세워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기 사역이 추진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잃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기술학교를 통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유치원이 세워져 있고, 어린이 교회를 통해 어린이들을 양육합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업의 기회를 줍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가난한 가정에 소, 돼지, 염소 지원과, 의료보험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주변에는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며 구제 사역을 진행합니다. 어린이 교회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대학교 설립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르완다만 해도 250명 정도의 신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에 대하여 현지교회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밥티스트 목사: 저희 선교회가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 장학지원, 의료보험, 사랑의 가축 나누기, 한국 유학 등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어 현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역들을 정부와 함께 공유해서 주민들을 돕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매년 감사장을 받을 정도로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역 교회는 처음에는 저희 선교회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의 전 교단을 지원하는 선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신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노센트 목사: 저는 월드미션 고등학교의 교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하여 고마워합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삶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과 함께 영적인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찬양팀들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활력이 넘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를 신뢰하지 않던 주변의 부잣집에서도 이제는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키갈리에 월드미션 고등학교가 전국 895개 학교 중에서 6위에 랭크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이노센트 목사: 2005년에 저희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는데, 3년 전만 해도 우리 학교는 르완다 전국에서 꼴찌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선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 개선에 투자해 주셨습니다. 새 건물이 지어지고 미국으로부터 학교 비품이 컨테이너로 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 교사들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국가 졸업고시의 합격율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고,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ICT 엔지니어들이 르완다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교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신기술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전국 랭킹 6위, 키갈리 시에서 3위가 되니 많은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 밥티스트 목사: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은 르완다를 중심으로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등 5개국에 펼쳐져 있습니다. 김평육 선교사님은 지난 1월 아프리카 현지 직원 수련회를 통해 '비전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아프리카 5개국에 20개의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각국의 본부센터에 대학교를 설립(5개 대학교 캠퍼스)하는 일과 빅토리아 호수에 2대의 병원선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훈련하여 이슬람 국가로 파송하기 위해 선교사 훈련학교(AMTIC)가 개교되어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지 사역팀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할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내일을 생각하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일은?

▲ 카지레 도린: 저희 선교회는 미래의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키우고, 또 그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선교회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오셔서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저희가 '비전 2030' 사업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노센트 목사: 저희 월드미션 고등학교가 ICT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교육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 실리콘밸리 지역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기술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밥티스트 목사: 저는 선교회의 기획 담당자로서 5개국 선교센터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역에 비해 시설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키갈리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이 지원하지만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을 더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시설 건축에 대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평육 선교사: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의 헌신과 봉사로 아프리카 비극의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무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사역진들이 시간상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역들을 지난 25년간 아프리카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의 후원과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와 개인들이 독립적인 선교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선교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비전 2030'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4월 6일(토) 오후 5시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선교보고대회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저희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락 기자〉

하이어 콜링 세미나 사역

2020

한국, 2020년 하이어 콜링 수련회

키갈리 고등학교 하이어 콜링

아프리카 스태프진 하이어 콜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제작 나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제작 나눔

찬구구 센터 식량지원

키갈리 신학교 전경(교육부 인가신청)

콩고, 탄자니아, 르완다에서 2천 가정에 식량 지원

탄자니아 알비뇨 어린이 16가정 쌀 100Kg씩 전달

2020년 사역 요약

2020년은 다음세대를 양육하며, 지역교회에 선교의 열정을 나누기 위한 수련회, 세미나 사역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로 출판된 4권의 책 내용을 '하이어 콜링'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준비하였다.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하이어 콜링 수련회와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여 3월 이후의 집회는 모두 취소하였다.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 우간다에서는 건축 사역을 계속 진행하였고, 코로나 사태로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였다.

특히, 우간다 대학교의 Provisional License를 위해 강의실과 시설을 보완하고 우간다 교육부 NCHE에 UWMF의 대학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르완다 교육부는 르완다 전국의 신학교를 폐쇄하고 까다로운 조건의 인가기준으로 교육부(HEC) 인가를 규정하고 있어 신학대학원 건물의 건축을 마치고, WMTS (World Missison Theological Seminary)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콩고 우비라에는 고아원이 신설되고, 르완다 찬구구에는 초등학교, 탄자니아 이솔래에는 패션 디자인 학교와 컴퓨터 교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키갈리 고등학교의 휴교 기간 동안 교실 건축과 담장 공사, 체육관 공사들 대형공사를 마쳤다.

2020년

1월 2일 – 3월 2일: 한국. 아프리카 사역(제 61차 현장 사역)

〈한국〉

- 1월 5일 – 1월 7일: 하이어 콜링 신년집회(대구 들꽃 피는 염광교회)
- 1월 9일 – 1월 11일: 하이어 콜링 청년 수련회(불광동 팀 수양관, 2박 3일)
- 1월 12일(주일): 봉천동 반석교회 선교보고
- 1월 9일: 《하이어 콜링》(비전) 출판(쿰란)

〈아프리카〉

- 1월 17일: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하이어 콜링 '비전' 1일 세미나
- 1월 20일 – 23일(3박 4일): 선교회 5개국 임직원 수련회(하이어 콜링, 비전)
- 1월 27일 – 1월 31일: 콩고 우비라 센터 KBBA 졸업세미나(홍성두 목사), 졸업식, 목사안수식 거행
- 2월 1일 – 2월 2일: 르완다 키갈리 체육관 골격공사
- 2월 3일 – 2월 6일: 우간다 신학교 KBBA. GOT 졸업세미나(강사 김평육 선교사)
- 2월 6일: 우간다, 탄자니아 신학교 합동 졸업식(102명 졸업, 17명 목사안수)
- 2월 7일 – 2월 13일: 호평아산내과 의료봉사단 의료사역(선교단 37명)
  - 2월 11일: 탄자니아 생게레마 디스트릭 보건소
  - 2월 12일: 탄자니아 이솔래 선교센터 사역
  - 2월 13일: 탄자니아 부야구 보건소
- 2월 14일: 탄자니아 대학교 기공식(귀빈– 산업자원부 장관), 부야구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 기증식
- 2월 15일 – 18일: 우간다 센터 사역
- 2월 19일 – 22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목사 안수자 수련회(키갈리 센터, 하이어 콜링)
- 2월 23일 – 24일: 콩고 우비라 카통고 건축현장 방문
- 2월 26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신축 부지 방문, 임시 유치원 개원 위한 주택임대(최영애 선교사)

1월 24일 – 2월 14일: 산호세 영락교회 건축 봉사팀(김광일 집사) 건물 페인팅 봉사

- 우간다 센터(도서관, 카페테리아), 르완다 키갈리 센터(신학대학원 사무실 동), 탄자니아 이솔래(제1채플 건물, 부야구 중학교 기숙사 건물)

1월: 르완다 찬구구 (NYAMASEKE) 월드미션 초등학교 개교(박숙경 선교사)

3월 30일 – 5월 10일: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4 – 6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아프리카 사역(식량지원과 마스크 공장 설립)

- 르완다: 식량지원 사역(지방정부, 고등학생 가정, 어린이교회 어린이 가정)
- 콩고 우비라 지역 홍수 피해자 1000가정 식량지원
- 탄자니아: 알비뇨 환자 16가정, 부야구–이솔래 초·중학교 4,000명 어린이 마스크 지급

5월: 콩고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 헌장 개정 및 조직 개편(Director 제시카)

5월 20일: 콩고 카통고 센터 고아원 완공하고 어린이 20명 입주

6월: 탄자니아 부카부 센터 젖소 축사 건축(정해진, 정현 선교사)

8월: 우간다 UWMF 대학교

우간다 교육부 Provisional License 신청(NCHE)

UWMF 신학대학대학원 Affiliate 신청(ACTEA)

8월 25일: 《가장 위대한 사명(쿰란) 출판》

9월: 르완다 WMTS 인가신청(NHC)

9월: 한국지부 김경은 간사 사임

10월 4일: 탄자니아 무완자주 부시시 (Busisi) 교량 건축으로 인한 병원선 2호선 무완자 이동 요구받음

10월 10일: 우간다 UWMF 대학 컴퓨터 실습실 및 탄자니아 이솔레 센터에 컴퓨터 실습실 마련

10월 13일: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초등학교 설립

10월 15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부지 평탄작업 및 축대공사 시작

10월 21일: 아프리카 선교 26년 선교역사서 발행

10월 26일: 르완다 대학교 도서관 도서 컨테이너 수송

11월 17일: 한국 본부 사무실 이전(인천시 중구 신도시남로 141번길 5-12(화평에어빌) 714호)

12월 5일: 경기도 지부 사무실 마련(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29-4 지용빌라 4동 102호)

〈신학대학교 강의〉

- Dr. Rev. Lee Yoon Jae(Missionary), GOT, KBBA "Epistles"(1월)
- Dr. Hong Sung Doo(Korea), GOT, KBBA, AMTIC, "Mission Perspective", "Pastoral Care"(1-8월)

〈건축〉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스마트 홀(강의실 3, 사무실 1) 완공(이문희 선교사)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골격 및 지붕 공사
- 르완다 키갈리 센터 내 도로 포장공사
-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정원 및 화장실 건축
- 르완다 키갈리 센터 Outreach Mission Center 건축 착공
- 르완다 카욘자 센터 건축허가 신청(부지정리 작업 완료)
- 우간다 대학교 인가 신청을 위한 운동장 공사 및 학교 비품 마련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고아원 완공(고아 20명 입주)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Clinic 1, 2, 3 빌딩 건축
- 콩고 우비라 고아원 제2생활관 건축
- 탄자니아 부야구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 완공하고 학교에 기증
-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양재학교 내부공사 완공(양재학교 개원, 7월 1일)
- 탄자니아 이솔래 컴퓨터교실 완공(컴퓨터교실 개교)
- 탄자니아 부코바 젖소 축사 완공(7월, 정해진, 정현 선교사)

〈출판〉

《하이어 콜링》 – 비전(쿰란 2020. 1. 7)

《가장 위대한 사명》 – 선교(쿰란 2020. 7)

© 한국일보 2020. 1. 9

월드미션 프론티어 '비전 2020'

12개 선교센터 건축·2호 병원선 건조
하이어 콜링 수련회 개최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2020년을 맞아 아프리카 5개국 12개 주요 도시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병원선 1, 2호선의 건

조를 마친다는 목표로 '비전 2020'을 추진해 왔다.

선교센터는 현재까지 10개 지역의 건축 공사가 시공 중에 있으며 1호 병원선 완공에 이어 2호선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2020년 말까지는 '비전 2020' 건축사역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르완다의 3개 지역(키갈리, 찬구구, 카욘자), 우간다 2개 지역(상기, 난지가), 탄자니아 4개 지역(부코바, 이솔래, 세렝게티, 무완자), 콩고 1개 지역(우비라) 등 10곳의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다. 2020년에는 부룬디 무줌부라와 탄자니아 수구티에 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호수 2호 병원선은 2020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건축공사와 아울러 사역자 발굴과 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7명 정도의 새로운 유학생을 한국에 보낼 계획이다.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아프리카 선교훈련원(AMTIC)이 르완다 키갈리 센터에 설립되어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하이어 콜링 수련회, 세미나' 사역도 준비하고 있다.

'하이어 콜링 수련회, 세미나'의 내용은 'Battle', 'Ecclesia', 'Ministry', 'Vision', 'Mission'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각 내용을 2박 3일의 수련회 또는 3일간의 부흥회,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하이어 콜링 수련회, 세미나' 사역은 2020년 1월 5일부터 대구 들꽃 피는 염광교회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미국에서 수련회 사역이 진행된다. 하이어 콜링 미국 집회는 오는 5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2박 3일간 산타크루즈 스프링 미션 수련관에서 '비전'을 내용으로 첫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미주 지역과 한국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어 콜링-미션 캠프를 아프리카 선교현지에서 개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미션 캠프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김평육 대표선교사가 진행하는 세미나와 토론, 기도회와 아프리카 현지 적응훈련이 있다. 7월 12일부터는 르완다, 부룬디,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등 월드미션 프론티어 10개 선교센터를 방문하며 단기선교 사역으로 봉사한다. 3주간의 단기선교활동은 참가자의 형편에 따라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또 UWMF 신학대학교대학원의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월 31에는 콩고와 부룬디 UWMF의 졸업식을 콩고 우비라 선교센터에서 가지며, 2월 7일에는 우간다, 탄자니아 UWMF 졸업식을 우간다 상기 선교센터에서 거행한다. 이번 학기에는 132명의 졸업식과 27명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축하객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산호세 영락교회(담임 김광진 목사) 권영고 협동목사가 목사 안수위원으로 초대되었으며, 동교회 김광일 집사 등은 건축 봉사 사역에 참가한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단은 오는 2월 14일 탄자니아 이솔래에서 탄자니아 정부의 귀빈들도 참석하는 대학교 기공식에도 참가하게 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전화(408) 345-1727

〈손수락 기자〉

© 들소리신문 2020. 11. 6

김평육 선교사의 아프리카 26년, 홀씨가 되어 꽃피우다

고아와 난민 위한 구제사역과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 5개국에서 복음화대회

청년들 한국에 유학 보내기 사역, 선교센터 건축, 현지 사역자 강화 등 분주
2030년까지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5개국 센터에는 대학교 설립, '월드미션 프론티어 교단' 설립,
아프리카의 이슬람권 국가로 파송 계획 밝혀

아프리카 5개국에서 26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64)가 최근 한국을 방문, 자신이 쓴 책 〈아프리카 선교 26년〉(쿰란출판사)을 소개하며, 선교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의 국가 통치권을 둘러싼 내전 현장을 목도하게 된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면서 현장을 자세히 알고 취재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난민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한인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었고, 현지인들이라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어서 관심을 갖고 접근했는데 내전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고아원과 유치원 사역을 중심으로, 난민촌에서는 신학교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하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여성, 청년 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출생한 김 선교사는 1986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운영했으며,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선교사역은 '자비량'으로 시작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선교의 동역자를 찾고 선교 사역을 확대해 나갔다.

아프리카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등 5개국이 김 선교사의 활동무대다. 그곳에 13개의 선교센터에서 교육, 구제, 의료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를 왕래하면서 부지런히 '아프리카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이 책에는 26년간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사역일지' 형식으로 네 부분으로 소개되어 있다.

△고아와 과부와 난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과 어린이 사역(고아원, 유치원)에 집중한 제1기(1994-2000) 사역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복음화대회를 개최한 제2기(2001-2006) 사역

△복음화대회 가운데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청년들을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 보내기 사역과 열두 곳의 선교센터를 건축한다는 목표로 부지를 마련하고 재정이 마련되는 대로 건축을 진행한 제3기(2007-2012) 사역

△필요한 건축을 지어 건축된 센터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강화한 제4기(2013-2020) 사역

이를 읽다 보면 김 선교사와의 26년이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었는지 알 수 있다. 김 선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책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사역(2030 비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30 비전' 사역은 그동안의 4기 사역을 기반으로 확대하고 심화

해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아프리카 5개국에 20곳의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빅토리아 호수 병원에서 1, 2호 선박의 운항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5개국 센터에는 대학교를 설립, 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 나아가 '월드미션 프론티어 교단' 설립하는 한편,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하여 아프리카의 이슬람권 국가로 파송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 선교사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수백 명이 수업을 마치고 현지로 돌아가 자국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김 선교사는 말한다.

한편 현지에 세워질 신학교와 빅토리아 호수 병원의 배에서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에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병원선에는 단기 의료 선교팀이 많이 필요하고, 신학교는 박사학위(Ph. D.)가 있는 시니어 신학자나 공학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주길 당부했다.

"아프리카 땅은 여전히 가난과 기근, 질병으로 굶주린 땅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도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선교사는 척박하지만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가고자 하는 뜻 있는 이들이 한국에서 많아지기를 소원한다는 그의 모습은 환갑을 훌쩍 넘었는데도 꿈과 소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 컵뉴스 2020. 11. 6

"1년만 선교하겠다던 곳에서 벌써 26년…"

김평육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 26년' 펴내
앞으로 10년 바라보며 '비전 2030' 비전 선포

1986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링크 시스템사'를 운영하고, 주간지 〈크리스찬 라이프〉를 창간해 취재활동도 해온 김평육 선교사.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낸 끝에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던 중 1994년, 르완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게 된 그는 전쟁 현장의 참혹한 현실에 부모를 잃은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자 1년만 사역을 하겠다고 머물게 됐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2020년까지도 그는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에서 NGO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 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지난 26년간의 아프리카 사역을 돌아보며 〈아프리카 선교 26년〉이라는 책을 펴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현장을 취재하고 시작된 그의 아프리카 선교 26년의 사역 일지다.

김 선교사가 이끄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는 미국과 한국에 지원센터를 두고 아프리카 5개국에서 13개의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교센터 내에서는 교육, 구제, 의료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가 설립돼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빅토리아 호수 위에 띄운 병원선은 선교회의 주요 사역이다. 병원선을 찾아 치료 받는 현지인이 하루 평균 800여 명으로, 더 많

은 현지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병원선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평육 선교사는 이번 책을 통해 26년의 아프리카 선교 기간을 4기로 나눠 회고했다. 1기는 1994~2000년까지 르완다 전쟁 현장과 난민촌을 취재하고, 전쟁 고아와 과부, 전쟁 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오롯이 집중했었노라고 그는 돌아봤다.

이어지는 2기 사역은 2001~2006년까지로, 아프리카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복음화대회'를 열어 복음 전파에 몰두했다. 이를 위해 김 선교사는 대규모 단기선교단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대회에 투입시켰다.

3기는 2007~2012년까지 '비전 2012'를 통해 12개의 선교센터를 건축의 초석을 닦은 시기다. 이 시기에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는 사역도 진행했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한국 초청 사역도 확대돼 본격적인 선교센터 건축은 미뤄졌지만 건축부지 마련과 센터의 기초를 세우게 됐다.

올해까지 이어진 4기 사역은 복음화대회와 지도자 초청 같은 대규모 행사들은 중단됐지만, 현지에서 진행되는 장기사역을 강화하며 선교센터 건축에 집중됐다. 이때 병원선과 대학 설립의 기반이 다져졌다.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선교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선교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월 소액의 헌금을 후원하는 길이 있다. 병원선 건조, 선교센터 건축과 같은 큰 사역을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낌없이 드린 성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것, 선교센터의 길에 깔린 블록 하나, 벽에 박힌 못 하나까지 모든 것이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더해진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었다. 김 선교사는 "선교회의 한국과 미국 사무실의 간사와 아프리카 현지에서 사역하는 파송 선교사들, 현지인 스태프진, 오랜 세월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 공로를 치하했다.

김 선교사는 "지난 26년간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 5개국을 왕래하면서 진행한 사역을 중심으로 책을 정리했다. 한 줄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 이 모든 일을 뒷바라지한 아내의 모습도 생각이 난다"고 회고했다.

이제 김 선교사는 '비전 2030'을 수립하고 △20곳 선교센터 건립 △병원선 1, 2호선 운항 체계 △대학교 설립 △월드미션 프론티어 교단 설립 △현지인 선교사 양성하여 이슬람권 국가 파송 등 5대 목표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 일로를 향하며 한국교회와 선교 동역자들을 향해 당부를 건넸다.

"이번 기회에 선교사로 산 지난 26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비전 2030'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 그리고 현장에서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강원숙 기자〉

© Christian World Review 2020. 11. 6

김평육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 26년 책으로 출간

선교 현장과 인생 여정 담긴 '아프리카 선교 26년' 화제

영화 '울지마 톤즈'의 실제 주인공 이태석 신부 이야기가 꾸준히 감동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에서도 이태석 신부에 버금가는 스토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와 선교를 펼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다. 김평육 선교사는 아프리카 르완다와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등 5개국에서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며 선교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선교 26년의 삶과 열정을 엮은 '아프리카 선교 26년(쿰란출판사)'이라는 서적을 출간했다.

'아프리카 선교 26년'은 김 선교사의 사역은 물론 신앙 열정과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연대기적 기술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 이미지를 적절히 섞어가며 현실감을 보여주고 있는 여정은, 특히 사역을 4기로 나눠 각각의 사역에서 매년마다 사역에 대한 요약과 과정, 후감(後感) 등을 배치해 26년의 열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가 몸담았던 '크리스챤라이프' 매체에 기고했던 선교일지들이 요소요소 첨부돼 있는 책은, 현장의 사역 과정과 목소리는 물론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역경과 고뇌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극복했던 과정들을 차곡차곡 드러내고 있다.

26년간의 사역일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선교 26년'은 성경을 들고 르완다에 처음 발을 디딘 1994년을 시작으로 김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총 4기의 여정으로 나누어 놓고, 끝에 가서는 현재의 사역 이야기도 담았다.

고아와 과부와 난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과 어린이 사역(고아원, 유치원)에 집중한 제1기(1994-2000) 사역,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복음화대회를 개최한 제2기(2001-2006) 사역, 복음화대회 가운데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청년들을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 보내기 사역과 열두 곳의 선교센터를 건축한다는 목표로 부지를 마련하고 재정이 마련되는 대로 건축을 진행한 제3기(2007-2012) 사역, 필요한 건축을 지어 건축된 센터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강화한 제4기(2013-2020) 사역이 그것이다. 또한 현재 사역을 소개한 부분에서는 비록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교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는 저자의 결연한 다짐과 함께, '2030 비전'이라고 하는 향후 10년 사역의 비전도 공개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본래 '크리스챤라이프'라고 하는 매체의 발행인이며 기자로 활동했다. 김 선교사는 1994년 르완다 내전을 취재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처음 들어갔고 그곳에서 현지인을 돕는 일과 복음 전파의 갈급함을 느껴 그때부터 신앙의 터를 일구며 복음을 심기 시작했다.

처음 계기는 현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함이었지만, 아프리카 난민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선교사역을 출발했다. 고아원과 유치원 사역을 중심으로, 난민촌에서는 난민촌 신학교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사역을 하면서 첫발을 내딛었고, 점차 여성, 청년 등 대상이 넓혀져 감에 따라 대상에 맞는 사역까지 새로 생겨났다. 그렇게 시작된 출발이 김 선교사에게 26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었다.

책에는 삶과 신앙이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26년간 김 선교사의

발을 묶어둔 이유도 소개돼 있다. 저자는 “아프리카 땅은 여전히 가난과 기근, 질병으로 굶주린 땅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도 복음으로 인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그 땅,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큰 은혜를 경험하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김평육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외에도,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5개국에서 교육과 의료를 통한 현지인들의 삶의 개선을 돕고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 김 선교사가 개설한 학교가 르완다 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순위 중 6위에 오르는 등 성과를 만들고 있다. 또, 유학생 배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75명 정도가 우리나라 등에서 유학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16명은 미래 자국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사역 중 병원선을 통한 의료봉사도 눈에 띈다. 의료시설이 척박한 아프리카에는 작은 질병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다수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선교사는 병원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3개국을 감당하는 1호선은 이미 마련돼 운영 중이며, 2호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향후 비전과 희망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각 나라에 대학교를 건축하는 것과 선교센터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교 건축의 경우 탄자니아에서는 이미 건축을 시작했으며, 우간다와 르완다에서는 허가를 신청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

선교센터는 6개국 선교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고아원부터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르완다에서는 선교훈련센터도 이미 개교했으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현지인들과 같이 훈련하고 있다.

활발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지만 고충도 있다. 병원선을 위한 전문의료진과 영어로 신학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교수진의 수급이다. 더불어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해줄 수 있는 청년들의 봉사와 건축을 위한 기능인들의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저자 김평육 선교사는 선친과 형제들이 모두 목회를 하고 있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기계공학 공부를 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사업을 일구기도 했던 김 선교사는 기독언론 ‘크리스챤라이프’를 창간 언론인으로도 활동했으며, 1994년 르완다 현장을 취재한 후 사업을 정리하고 ‘월드미션 프론티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계의 이태석 신부가 되어 ‘울지마 톤즈’의 또 다른 버전인 ‘비전2030’을 써가고 있다.

〈최선림 기자〉

〈제 5 기 사역〉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2021 - 2030

〈비전 2030〉 2030년까지 10년간의 사역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삼하 7:9)

비전 2030

1.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학교 설립(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2. 아프리카 5개국 15개 선교센터 설립(유치원 - 고등학교, 고아원, 크리닉센터)
3.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2호선 완공, 정박 시설 및 병원 건축
4. 미국 본부 선교센터(선교사 쉼터, 선교훈련)
5. 한국 청소년 선교훈련원 설립(청소년 선교훈련, 선교사 쉼터)
6. CWMF 교단 설립(2023년 2월 10일 창립총회, 목회자 169명)
7. AMTIC 선교사 훈련원(2019년 시작) 아프리카 선교사 양성
8. 대학교 교수요원 양성(박사과정 장학지원)
9. 길갈 청소년 캠프(아프리카 청소년 변화운동)
10.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 (아프리카 고등학교, 대학교 클럽 운동)

2021년에서 2030년까지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추진하려는 10가지 주요사역의 비전이다. 아프리카의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역으로 선교 대상 국가인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에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시설을 갖춘 선교센터를 각 국가에 3개 전체 15개 이상의 선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 2호선을 완공하고 빅토리아 호수 주변국인 탄자니아, 우간다, 캐냐에 정박시설과 병원 설립이 세 번째 목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부를 두고 시작한 아프리카 선교사역의 계속적인 지원과 선교인력 동원을 위하여 미국 본부와 한국에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미래적으로 선교사역을 현지인 교회에 맡기기 위하여 현지인 교단인 CWMF(Church of World Mission Frontier)가 창립(2023년 2월 10일)되었으며 교회 개척과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목회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역을 계속한다. 아프리카 선교사 양성을 위해 2019년 설립된 AMTIC(Africa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Center) 을 통한 선교사 양성이 계속된다.

아프리카 5개국 대학교 설립에 따른 교수 요원들이 한국과 미국 또는 아프리카 현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시작한 아프리카의 청소년변화 운동인 길갈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세븐마운틴스 클럽운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간다 UWMF 신학대학·대학원
accredited by ACTEA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청소년 변화운동의 새로운 비전으로
길갈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을 시작했다.

2021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길갈 청소년 캠프

르완다 키갈리 센터 유스호스텔 건축

콩고 부카부 보육원 40명의 고아 입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양재학교 시작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세미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각 센터의 구제사역

콩고 우비라 카통고 보육원 40명 고아 입주

월드미션 프론티어 5개국 임직원 수련회

햇불트리니티 신학원 아폴로 프로젝트 시작

월드미션 프론티어 교사 대상 길갈 리더십 캠프

우간다 Nsangi 센터 고아원 건축

콩고 고마 화산 이재민 돕기

2021년 코로나 기간에도 단기선교단 활동

이솔래 센터에서 컴퓨터, 영어, 바이블 캠프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대학 본관 건축

이솔래 센터 예배당 페인트 공사 마침

2021년 사역 개요

2021년은 <비전 2030>을 추진하는 첫해였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사역이 정지된 상태였고, 한국과 미국도 록다운으로 선교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아프리카에서도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기에 선교센터의 시설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

키갈리 선교센터는 전체의 담장공사를 마치고, 고등학교 강의실과 사무실이 추가로 건축되었고, 선교자립을 위하여 OMC빌딩(유스호스텔)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의 대학교 건축과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건축도 많이 진행되었다.

우간다에서는 UWMF 신학대학·대학원의 학력인증기관인 ACTEA로부터 Accreditation을 받았고, 우간다 교육부 NCHE(National Council Higher Education)에 대학교 인가를 신청하고 시설을 보완하였다.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에서는 농군학교 건물을 완공하고 대학교(신학대학) 건물의 건축이 계속되었다.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선 2호선을 건조하기 위해 이솔래 센터에 쉽야드를 건축하고 병원선의 몸체 용접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무완자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무완자에서 르완다·부룬디 교량 건설이 시작되어 선박을 무완자로 이동하지 않으면 교량이 완공될 때까지 갇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2021년

1월: 르완다 카욘자 임시 유치원 개원(최영애 선교사), 르완다 찬구구 초등학교 개교(박숙경 선교사)

1월 19일: 르완다 신학대학·대학원(World Mission Theological Seminary) 인가 서류 보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1월 24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므완자 싸우스 포트로 이동 (Musisi 교량건축으로 인한 이동)

1월 28일: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5권 동영상 제작 유튜브 업로드

2월 17일: 우간다 UWMF 신학대학·대학원 Accreditation을 위해 ACTEA 디렉터 현장 방문

3월 22일: 우간다 UWMF 신학대학·대학원 ACTEA로부터 Accreditation 받음(Diploma, B.A, M.Div.)

4월 5일: 콩고 부카부 센터 장애인 양재학교 개교

4월 13일: 이솔래 센터 우물 공사 완공

4월 14일: 르완다 키갈리 센터 OMC빌딩 건축 허가 받음

한국 방문사역

4월 18일(주일): 대구염광교회 설교(권영국 목사)

4월 25일(주일): 서산충성교회(김진수 목사)

5월 2일(주일): 동탄제일교회(송상렬 목사)

5월 7일(금): 늘푸른진건교회(이석우 목사)

5월 9일(주일): 봉천동반석교회(이종혁 목사)

5월 14일(금): 철원성소기도원(박정연 원장)

5월 16일(주일): 계명대학교교회(임경수 목사)

5월 23일(주일): 청명교회(박정연 목사)

5월 4일: 르완다 키갈리 OMC빌딩착공

5월 11일: 우간다 UWMF 온라인 강의(기독교 교육학 II,정일영 교수) 시작

5월 20일: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고아원 어린이 40명 입주

5월 23일: 니라콩고 화산 폭발 이재민 돕기

5월 24일: 아볼로 프로젝트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김윤희 총장) 시작 협의

6월 6일: 우간다 UWMF 코로나 2차 확산으로 휴교 / 고아원 건축 시작

6월 15일: 캘리포니아 15개월 만에 코로나 록다운 해제 / 중보기도회 재개

6월 18일: 콩고 고마 화산으로 전소된 고마 교회 재건축

6월 8일 – 6월 30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길갈 청소년 컴퓨터 캠프(강사 Mr. Stacy Tritt)

6월 30일 – 7월 2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길갈 청소년 리더십 캠프(강사 : 김평육 선교사 / 박종술 목사 외 6명)

7월 4일: 탄자니아 이솔레 센터교회 세례식(이용기 선교사)

7월 14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예배당 착공

8월 2일 – 4일: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교사 세미나(길갈 리더십 캠프)

9월 10일 – 12일: 서산충성교회 길갈 청소년 캠프

10월 2일 :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신학대학 강의실 2동 건축

10월 4일: 아볼로 프로젝트 온라인 강의 시작(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10월 11일 – 10월 30일: 2021년 가을 20일 연속 금식기도회

10월 29일 – 31일: LA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목사) 길갈 캠프

11월 3일: 콩고 부카부 어린이집(40명 어린이 입주)

11월: 콩고 우비라 카통고 신학대학 및 기숙사 건축

11월 28일: 우간다 난지가 센터 부지(280평) 추가 구입

12월 3일– 12월 5일: “길갈 여호수아 캠프” 달라스 동부장로교회

12월 10일 – 12월 12일: 캔사스 위치타교회 집회(이사무엘 목사)

12월 21일 : 르완다 카욘자 예배당, 유치원 건축허가

〈강의〉

*길갈 청소년 캠프(김평육 선교사, 박종술 목사, 양승미 전도사, 박영현 목사, 이용기 목사, Stacy Tritt)

*정일영 교수: 우간다 UWMF 신학대학원 온라인 강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아폴로 프로젝트 시작 (총장 김윤희 교수)

*김평육 선교사: 길갈 리더십 캠프. 세븐 마운틴스 클럽 특강

〈건축〉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우물공사

*르완다 키갈리 센터 OMC 빌딩 착공

*콩고 고마교회(화산으로 전소) 재건축

*르완다 카욘자 센터 예배당 착공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신학교, 기숙사 건축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본관 건축

*우간다 상기센터 고아원 건축

ⓒ 미주 한국일보, 2021. 2. 11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책 5권으로 나왔다

김평육 선교사. 건강한 공동체 세우는 과정을 성경으로 조명

사명자 정신, 선교의 현재 미래도 제시. 유튜브 강의도 실시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책이 5권으로 나왔다. 르완다를 비롯 아프리카 5개국에서 복음화 사역을 해오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가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로 책 5권을 출판했다.

김평육 선교사의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는 1994년 시작된 선교회의 선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사역하는 구성원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늘 고심하여 나온 결과이다. 건강한 공동체 시리즈는 아프리카 복음화대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이다. 그래서 김 선교사는 ‘영적 전쟁’을 내용으로 한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제목의 책자를 2018년 2월에 출간했다. 이 책에는 아프리카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며 사역을 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과 건강한 공동체의 정상 모습을 담은 팀 빌딩 (Team Building)을 내놓았다. 3권은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해오면서 가졌던 사역자 정신을 정리하여 ‘하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출간 했다. 4권은 ‘하이어 콜링-비전’ 책자로 청년과 젊은 사역자를 위해 ‘비전’의 성취와 리더십과 도전과 극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5권은 ‘가장 위대한 사명은 선교’라는 제명의 책으로 ‘선교가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선교의 현재와 미래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권과 5권은 지난해 나왔으며 김 선교사의 책은 일관되게 서울의 ‘쿰란출판사’에서 출간됐다.

김평육 선교사의 건강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5권의 책자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선교단체,소그룹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번 책 5권 완간을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5권의 내용을 요약한 유튜브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강의는 ‘김평육 선교 TV’에 들어가면 특강을 시청할 수 있으며 많은 구독 신청을 바라고 있다.

김평육 선교사의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책 출판 내용

1권: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영적 전쟁(2018)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영적 씨름의 원인을 성경으로 조명하여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2권: 팀 빌딩-ALPS 4 CLIMB UP(2019)

하나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3권: 하늘생각-사명자 정신(2013 초판)

저자가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해오면서 스스로 가졌던 사역자 정신을 정리한 것이다.

4권: 하이어 콜링-비전(2020)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비전 성취 단계와 비저너리 리더십에 대해 다루고 있다.

5권: 가장 위대한 사명-선교(2020)

아프리카 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선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전화 (408) 345-1727, (213) 663-3710
〈손수락 기자〉

2021. 10. 7(목)

'월드미션 고등학교' 우수학교에 선정

르완다 키갈리 탑10, 전국 895개 고교 중 6위 차지

아프리카 선교단체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르완다 키갈리(Kigali)에 설립한 월드미션 고등학교가 키갈리 탑(Top)10 중 한 학교로 선정됐다. 인터넷 매체 나이지리안 인포머(Nigerian Informer)가 최근 발표한 랭킹은 국제학교를 포함해서 월드미션 고등학교가 4번째 순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르완다 고등학교는 지난 2018년 르완다 교육부 발표에서는 전국 895개 학교 중 6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지난 2018년 랭킹에는 국제학교를 제외했으나 이번 나이지리아 인포머가 발표한 랭킹에는 국제학교를 포함하여 4번째 이름이 오르게 되어 국제학교나 대통령이 지원하는 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설립된 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사 채용이 힘들었으며 2010년까지 5년 사이에 교장 5명이 그만두고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인 김평육 선교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한 해 동안 학교 시설 보완에 중점을 두어 2020년 11월부터 변경된 환경에서 수업을 실시하여 이번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 채플을 극장으로 개축하고 실내 체육관, 학생 식당과 화장실을 신축했다. 또 부족한 교실과 사무실을 위한 스마트 홀(교사 사무실, IT학과 스마트 강의실3)을 신축하고 학교 주변의 담장 공사도 완공했다. 그리고 각 교실 교육자재도 대폭 변경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월드미션 고등학교를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 2022년 2월부터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유학시켜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 선교사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영어와 IT학과, 회계학을 강의할 미국의 교사가 필요하여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에서 일할 교사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408)345-1727. Www.hismission.org
〈손수락 기자〉

르완다 ATU 대학교 일반학부 본관 착공

2022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국 졸업고사에서 1위 상을 수여받고,
19명의 만점자를 배출하여 전국 최우수 고등학교로 발돋움

르완다 고등학교 졸업고사 전국 1위

탄자니아 이솔레 센터 농군학교 실습

우간다 고아원에서 성장한 로즈의 결혼식

우간다 Nsangi 센터 목회자 연수원 착공

병원선 2호선 물품 구입을 위한 엔지니어 한국 방문

르완다 ATU 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키갈리 센터 OMC빌딩 건축 진행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우간다 UWMF 신학대학·대학원 졸업식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식(학생들을 위한 기도)

우간다 UWMF / KBBA 졸업생 목사 안수

우간다 길갈 청소년 리더십 캠프 개최

탄자니아 UWMF / KBBA 졸업생 목사 안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미국 목회자 방문

이솔래 센터 UWMF/KBBA 졸업 세미나(이사무엘 목사)

2022년 사역 요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가 어려운 시기에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은 더욱 성장해갔다. 설립자의 죽음과 코로나로 폐쇄 위기에 있던 탄자니아 세렝게티 무구무 누루 중학교를 인수하여 향후 20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에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와 부룬디에서는 비상식량 지원사역을 감당하였다.

2020년 르완다 교육부 HEC에 WMTS 신학대학·대학원의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2022년 2월 대학 인가 법의 개정으로 단과대학은 인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학대학원의 목적은 신학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University로 설립을 변경하여 4개 학부 12개 프로그램, 신학대학원 2개 프로그램의 종합대학으로 인가 신청서를 9월에 제출하였다.

종합대학교로 인가 받기 위해서 대학교 건물의 신축이 불가피하여 4층 건물의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우간다 난지가 센터에 우물공사를 진행하고 탄자니아 부야구와 이솔래 마을에 우물공사를 진행하였다. 우간다 상기센터의 25명 고아를 위한 새 건물이 건축되어 어린이들이 입주하였다.

코로나 기간에 록다운이 없었던 탄자니아에서 길갈 청소년(컴퓨터, 영어, 성경, 리더십) 캠프가 부야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었다.

2022년

1월: 단기봉사팀(Mr. Halsted 장로, McNeal 목사) 병원선 1호선 플러밍, 이솔래 센터 수도공사

1월 10일: 탄자니아 세렝게티 누루 중학교 인수하여 20년간 사역하기로 결정

1월 29일: 월드미션 고등학교 주변 마을 주민 극빈자 가정 식량 지원

1월 24일 – 28일: 우간다 UWMF 특강(이윤재 선교사)

1월 31일: 키갈리 센터 OMC 빌딩 4층으로 허가변경 신청

1월: KCOC 봉사단 키갈리 고등학교 파견(박가현, 박상훈, 홍성두)

2월 1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부지 추가구입

2월: 르완다 교육부에서 교육부 법안 개정으로 WMTS 단과대학교 인가는 불가하다는 통보, 신학 석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학부를 개설하는 University 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종합대학교로 준비

2월 14일 – 2월 18일: 우간다 UWMF 전교생 및 목회자 대상 "복음캠프"(이태진 목사, 이에스더 목사)

2월 16일 – 2월 26일: 우간다 UWMF 캠퍼스 축구장, 농구장 등 부지 정리 공사

2월 21일 – 2월 25일: 우간다 Mbale 캠퍼스 복음캠프(이태진 목사, 이에스더 목사)

2월 28일 – 3월 4일: 탄자니아 케이타 KBBA(이태진 목사, 이에스더 목사)

2월 25일 – 3월 12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페인팅 봉사(산호세 영락교회, 김광일 집사)

3월 7일 – 3월 11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복음캠프(이태진 목사, 이에스더 목사)

3월 15일: Edward 한국 횃불트리니티 유학

3월 17일: 콩고 Sanza 교회 재건축 지원

3월 16일 – 3월 19일: 콩고 부카부 부지 문제로 부카부시 토지국장, 주지사 접견

3월 24일: 우간다 난지가 교회 우물공사 완료

3월 27일: 노엘장로교회 대예배 설교

4월 8일 – 4월 10일: 서산충성교회 중고등부 집회(담임 김진수 목사)

4월 17일: 청명교회 주일 설교(박정연 목사)

4월 11일 – 5월 20일: 2022년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5월 20일: 키갈리 센터 대학교 일반학부 건물 건축 결정하고 건축 자재 구입 시작

6월 13일: 우간다 상기 센터 고아원 완공하고 어린이 입주

6월 18일: AMTIC 언어훈련(2월–6월) 종강 현장 실습 시작

6월 20일 – 6월 24일: 콩고 카통고 센터 신학교 세미나 (강사 이윤재 선교사)

여름 단기선교단 활동

6월 20일 – 6월 26일: 탄자니아 KBBA 강의 및 전도집회(강사 신수일 목사. 박복남 장로 붕어빵 전도사역)

6월 27일 – 7월 12일: 길갈 청소년(컴퓨터, 바이블, 영어) 캠프(강사 Mr. Stacy Tritt, Mason Tritt, Judy dishong, 유성순, 양승미, 김영모, 신예찬, 최성욱, 정미경)

7월 13일 – 7월 15일: 길갈 청소년 리더십 캠프(강사 김평육 선교사)

7월 2일 – 7월 12일: 빅토리아 호수(JUMA, KOME섬 및 Isole센터) 병원선 사역(더웨이브 팀 22명, 단장 배창황 원장)

7월: 키갈리 카욘자 2센터 유치원 착공

7월 9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본관, 농군학교, 2채플) 헌당식

7월 11일: 우간다 UWMF 대학교 교육부 인가기관(NCHE –National Council Higher Education)의 현장 방문

7월 27일: 콩고 카통고 센터 졸업식(신학석사 14명, 학사 8명) 및 목사 안수(4명)

8월 5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양재학교 수료식

8월 6일: 르완다 대학교 일반학부 건물(4층 건평 1천 평) 기공식

8월 6일: 탄자니아 부야구 중학교 우물 공사 완공

8월 9일 – 12일: 탄자니아 KBBA 졸업세미나 및 졸업식(BA, Diploma, Certificate 71명), 목사 안수식(10명) (강사 이사무엘 목사)

8월 15일 – 8월 19일: 우간다 UWMF 졸업세미나 및 졸업식(Certificate 6, Diploma 6, BA 12, M.Div. 22), 목사 안수식(17명) (강사 이사무엘 목사)

8월 22일 – 8월 26일: 우간다 길갈 청소년 리더십 캠프(100명 초청, 강사 김평육 선교사)

8월 29일 – 9월 1일: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90명)(아바드 성경연구원 양병우 목사 외)

9월 1일: UWMF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기공식

9월 3일: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식 참가(81명)

9월 15일: 르완다 교육부 HEC(Higher Education Council)의 UWMF 대학교 현장 방문하고 권고사항

9월 21일(수): LA 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영 목사) 설교

9월 25일(주일): 산호세 영락교회(김광진 목사) 주일예배 설교

10월 2일(주일): 산호세 순복음선교교회 주일예배 설교

10월 9일(주일):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이용주 목사) 주일예배 설교

10월 10일 – 10월 30일: 2022년 가을 3주간 연속 금식기도회

10월 12일: 우간다 UWMF 캠퍼스 3상전력 변압기 설치

10월 17일 – 10월 20일: 이용기·권영옥 선교사 자력으로 병원선 운항 시작

11월 8일: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iers 창립 준비위원 모임(키갈리– 만지다니 목사 외 국가 대표단)

11월 15일: 탄자니아 이솔래 마을(초등학교) 우물 공사 완공

11월 21일 – 11월 24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농군학교(쌀 농법교육)

11월 25일: 난지가 교회 부지 확장 (300평)

10월 28일– 10월 30일: 서산충성교회 길갈캠프(세 번째)

11월 13일(주일): 대구 들 꽃 피는 교회(권영국 목사) 주일예배 설교

11월 20일(주일): 청명교회(박정연 목사) 주일예배 설교

11월 23일(수): 옥련중앙교회(한종근 목사) 수요예배 설교

11월 25일(금): (남양주)주평강교회 금요예배 설교

12월 4일(주일): 달라스 동부장로교회(오지현 목사) 주일예배 설교

12월 7일(수): 달라스 참빛교회(김승학 목사) 수요예배 설교

12월 9일 – 12월 11일: 캔사스 위치타 한인 소망교회(이사무엘 목사) 선교 부흥집회

12월 7일: 병원선 2호선 물품 구입을 위해 탄자니아 디렉터 죠수아와 MUNDAO 엔지니어 한국 방문

12월 16일: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 국가고시 19명 만점자 발표(최우수 학생 배출)

12월 19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더 웨이브, 이사장 배창황〉 출범

12월 25일: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어린이집 건축 완공, 15명 고아 입주(정해진, 정현 선교사)

12월 27일: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강의실(3), 영상실(1), 창고(1) 건축 완공

〈강의〉

*이태진 목사, 이에스더 목사: 탄자니아. 우간다 복음학교

*이윤재 목사: 콩고 우비라 카통고 UWMF/KBBA 특강

*신수일 목사: 탄자니아 이솔래 KBBA 특강

*Mr. Stacy Tritt, Mason Tritt, Judy dishong, 유성순, 양승미, 김영모, 신예찬, 최성욱, 정미경 : 길갈 청소년 캠프 (탄자니아 이솔래)

*이사무엘 목사: 탄자니아, 우간다 졸업 세미나

*양병우 목사 외 3: 우간다 Nsangi 센터 신학생 세미나

〈건축〉

*우간다 UWMF 캠퍼스 부지 정리 및 운동장

*우간다 난지가 교회 우물공사 완료

*키갈리 카욘자 2센터 유치원 착공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본관, 농군학교, 2채플) 헌당

*르완다 대학교 일반학부 건물(4층 건평 1천 평) 기공식

*탄자니아 부야구 중학교 우물 공사 완공

*UWMF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기공식

*탄자니아 이솔래 마을(초등학교) 우물 공사 완공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어린이집 건축 완공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강의실(3), 영상실(1), 창고(1) 건축

© 한국일보 2022. 2. 24

아프리카 5개국서 선교 28년

월드미션 프론티어, 교육 건축 10개 집중 사역
청소년 캠프도 실시

아프리카 5개국서 선교 28년

1994년 르완다 내전 현장에서 시작된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

육 선교사)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이 28년째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는 "올해는 '비전 2030'에 의한 10가지 사역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평육 선교사는 "비전 2030의 첫 번째 사역은 아프리카 5개국에 다섯 개의 대학교를 설립하고, 둘째는 15개의 선교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아원을 포함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세 번째는 빅토리아 호수에 두 척의 병원선을 제작하여 정상적인 의료사역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네 번째는 미국 본부 센터 설립, 다섯 번째는 한국 선교훈련원을 겸한 청소년 수련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이와 같은 건축과 교육 및 의료 사역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여섯 번째 사업으로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신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는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er 설립이다. 일곱 번째는 아프리카 선교사 훈련원(AMTIC)을 통한 선교사 훈련과 파송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프리카 청소년을 위한 길갈 청소년 캠프 운동, 아홉 번째는 아프리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을 전개한다.

김평육 선교사는 미래의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80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추진하였다. 이제는 아프리카에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신학 대학원에 100명의 박사과정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와 선교센터 건축 사업으로는 르완다 키갈리 센터에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스호스텔 건축이다. 또 르완다 카욘자 센터에 예배당과 초등학교 건축, 콩고 우비라 신학대학교 건축을 계속할 계획이다. 콩고 부카부 센터에 고아원과 예배당 건축, 우간다 월드미션 대학교 도서관 건축, 탄자니아 이솔래 대학교 본관 완공과 정원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을 완성을 추진한다. 이렇게 건축되는 아프리카 5개국 선교 센터에서는 현재 200명 이상의 현지인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파송한 10명의 장기와 단기 봉사팀이 사역을 펼치고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길갈 청소년 캠프"와 아프리카 고등학교의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을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아프리카 청소년(컴퓨터, 영어, 스포츠, 음악)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교회나 청소년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실시하는 아프리카 청소년 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Africa.vision.2020@gmail.com)로 요청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손수락 기자〉

CWMF 교단 설립총회(2월 10일),
글로벌에듀와 학교 건축 사업 시작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리더십을 위한 길갈 리더십 캠프 개최

2023

고아원 어린이들의 신년 파티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호선 살림호 정기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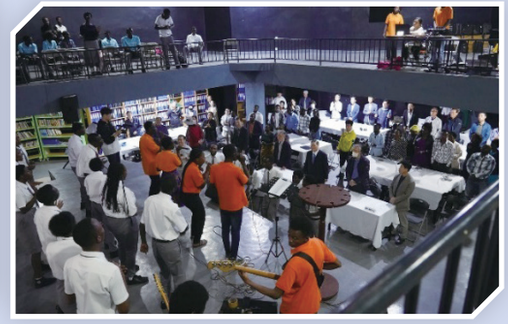
이용기 선교사 가족 및 존 목사 미국 방문

우간다 보육원 어린이들의 외출(엔테베 공항 견학)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선교보고 대회(미국 본부)

르완다 ATU 설립 준비 위해 오규훈 초대 총장 위임

글로벌에듀 32명의 방문단 방문과 기공식



키갈리 고등학교 보엠 씨어터에서 기념행사

아프리카 방문단이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방문

르완다 ATU대학교 본관 건물 건축 계속

아프리카 방문단 탄자니아 세렝게티 사파리

키갈리 OMC빌딩 외부 공사 마무리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방문단 환영식

우간다 센터 주변 마을 노약자 구제사역

르완다와 탄자니아 대학교 학교비품 수송

월드미션 고등학교 길갈 리더십 캠프

2023년 사역 요약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13년부터 교단설립 준비로 UWMF/KBBA 졸업생을 목사로 안수했는데 2023년 2월 10일에 150여 명의 목사들이 참가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르완다 키갈리에 설립된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전국 랭킹 5위의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하였는데 2022-2023년도 학력고사에 19명의 만점자를 배출하고, 전국 1위의 학생을 배출하였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길갈 청소년 캠프에 이어 월드미션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전문인 교수를 초청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우간다 UWMF신학대학에서 개최된 졸업식에서는 전체 152명이 졸업하였고, 58명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었다.

제3세계의 초중고등학교 건축과 교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목사,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에서 32명의 방문객이 르완다와 우간다,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글로벌에듀에서는 우간다 UWMF캠퍼스에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키갈리 센터 고등학교, 카욘자 센터에 초등학교 건축을 지원하였다, 우간다 음발래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다. 미국 지원센터에서는 르완다 대학교 설립을 위해 도서와 학교 비품 컨테이너를 수송하고, 한국에서는 병원선 2호선을 위한 엔진과 이솔래 칼리지에 필요한 학교 물품을 컨테이너로 수송하였다,

2023년

1월: 르완다 ATU대학 설립을 위한 도서 수집 시작(미국 본부 사역)

1월 15일(주일): 심포니장로교회(박용준 목사) 설교

1월 18일(수): 상항한인연합감리교회(송기영 목사) 오전예배 설교

1월 18일(수): 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임진태 목사) 저녁예배 설교

1월 22일(주일): 뉴라이프교회 주일예배 1.2부 설교(위성교 목사)

1월 29일(주일): 북가주 제자들교회(박춘배 목사) 설교

1월 14일(토): 아프리카 선교 후원 자선공연 (Friends : James Kim, Jennifer Choi, David Kim)

1월 27일 – 2월 10일: 산호세 영락교회 르완다 페인팅(OMC빌딩, 카욘자 센터) 봉사(김광일 집사)

1월 29일–2월 8일: 더 웨이브 의료봉사단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더 웨이브 의료봉사단: 배창황, 임성덕, 유숙정, 김지영, 박은아, 최서우, 이연희, 원옥예, 이창구, 염영미, 배승빈, 김수정, 허은영, 한규현, 김현태, 김예빈, 장상배, 봉미숙, 최근묵, 정세훈, 이윤하(호주), 유성순(미국), 이용기, 권영옥 선교사 외 현지 의료팀, 승무원

2월 5일 – 2월 9일: Church of World Mission Frontiers 창립 총회(150명 소속 목회자 참석) 세미나(강사 김평육 선교사, 김성택 목사)

2월 9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예배당 헌당식

2월 10일: 창립총회(임시 총회장 Rev. Manzi Danny, 한동대학교 졸,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1월 30일 – 2월 14일: CCC 찬양팀(대표 박종술 목사) 사역 (르완다, 우간다)

2월 20일: 우간다 펠리사 KBBA 센터교회 방문, 유치원 설립 요청 수락

2월 22일: 우간다 서북부 MOYO 지역 방문하고 센터 설립 위한 건축 부지 마련(남수단 선교 교두보)

3월 8일: 탄자니아 이솔래 마을 우물 증정식

3월 9일: 탄자니아 세렝게티 누루 중학교 현장 방문

3월 12일: 탄자니아 이솔래 사역자 임명 담임목사 Projestus Damien

3월 16일: 우간다 Mbale 교회 건축 착공식

3월 17일: 우간다 난지가 센터 선교사 파송(홍성두·조순미 선교사, 인턴십)

3월 27일: 콩고 Kingdom of Kabale 방문, 고아원 건축을 위한 4헥타르의 부지 기부 받음

3월 28일: 콩고 우비라 타운센터 중학교 폐교하기로

4월 15일(토): 임마누엘 장로교회(박성호 목사) 새벽기도회 설교

4월 16일(주일): 산호세 영락교회(김광진 목사) 설교

4월 21일(금): 산호세 온누리교회(조명재 목사) 금요예배 설교

4월 30일(주일):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이용주 목사) 주일예배 설교

4월 21일: 르완다 ATU대학교 물품 수집 위한 컨테이너 구매(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이동)

4월: 한국에서 르완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용품 40피트 컨테이너 수송

4월 30일 – 5월 6일: 2023년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5월: 르완다 카욘자 센터 유치원 완공하고 유치원 이전

5월 10일 – 5월 20일: 콩고, 르완다 홍수 수재민 돕기 운동

5월 12일(금): 서산충성교회(김진수 목사) 금요예배 설교

5월 14일(주일): 대구들꽃피는교회(권영국 목사) 창립 6주년 예배 설교

5월 27일(주일): 청명교회(박정연 목사) 주일예배 설교, 단기선교단 15명과의 만남

6월 3일(주일): 포항빛내리교회(신수일 목사) 주일예배 설교

6월 18일: 미국 본부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에서 20피트 컨테이너 선적 수송

2023년 여름 단기선교단 활동

6월 26일 – 7월 1일: 우간다 UWMF 교회사 강의(강사 신수일 목사)

6월 19일 – 7월 1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길갈 청소년 캠프(컴퓨터, 영어, 성경 캠프 160명 / Mr. Stacy Tritt, Mason Tritt, Judy Dishong, 유성순, 양승미)

7월 3일 – 7월 6일: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세븐마운틴스 클럽 세미나(240명) (이상희 교수, 이정희 교수, 이은혁 변호사, 양승미 전도사, 정현 선교사)

7월 11일 – 7월 14일: 르완다 키갈리 고등학교 세븐 마운틴스 클럽 세미나 (360명) (이상희 교수, 이정희 교수, 박용남 교수, 이은혁 변호사, 양승미 전도사, 이준구 피디, 김평육 선교사)

7월 16일: 병원선 2호선 엔진 물품 컨테이너 수송(탄자니아)

7월 16일 – 7월 22일: 우간다 난지가교회 여름성경학교 및 전도활동(청명교회 선교단 15명)

7월 24일 – 7월 27일: 우간다 KBBA 및 UWMF 졸업 세미나(152명) (강사 김평육 선교사, 오규훈 총장, 정피터 박사, 양승미 전도사)

7월 28일: KBBA 및 UWMF 졸업식(CWMF Certificate 104명, UWMF: Certificate 8명, Diploma 3명, Bachelor 16명, M.Div 21명) 및 목사 안수(Pastor

52명, Reverand 6명)

7월 31일 – 8월 4일: 우간다 센터, CWMF 교단 목회자(우간다, 탄자니아, 남수단, 케냐 목회자 80명 참가) 코칭세미나(강사 오규훈 총장, 정피터 박사)

8월 7 일 – 8월 11일: 르완다 키갈리 센터, CWMF 교단 목회자 (르완다, 콩고, 부룬디 목회자 40명, 교사진 10명) 코칭 세미나(강사 오규훈 총장, 정피터 박사) / 아프리카 목회자 코칭 협회 설립 MOU(UWMF –총장 김평육, GMCA – 이사장 오규훈, GCLA–대표 정피터) / 목사 안수(부룬디 3명)

8월 14일 – 8월 18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5개국 임직원(42명) 및 선교사(11명) 수련회(강사: 김평육 대표선교사)

8월 19일: 아프리카 IT 기술지원을 위한 실리콘밸리 IT분야 엔지니아 모임 (Zoom)

8월 27일: 병원선 2호선 엔진 물품 및 대학교 학교 용품 컨테이너 탄자니아 무완자 센터 도착

8월 28일 – 9월 1일: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리더십(50명) 길갈 청소년 리더십 캠프(강사 김평육 선교사)

8월 30일: 르완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물품 컨테이너 키갈리 센터 도착

9월 4일 – 9월 9일: 우간다 경찰 선교 세미나(목회자 90명, 경찰 간부 30명, 강사 지춘경 목사 외)

9월 11일 – 9월 13일: 르완다 경찰 선교 세미나(목회자 70명, 강사 –지춘경 목사 외 6명)

9월 20일: 콩고 부카부 어린이집 건축 재개

9월 25일 – 10월 15일: 2023년 가을 3주간 연속 금식기도

10월 2일: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목사,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 방문단 35명 키갈리 도착 / 환영 만찬

10월 3일: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증축 기공식 / 카욘자 초등학교 기공식

10월 4일: 캐냐 KOAFP 참석(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지도자 초청 위임 받음)

(콩고 – 부총리, 재경부장관, 싸우스 키부 주지사 외 6명 참가, 탄자니아 – 국토부장관, 우간다 – 과학기술처 장관 및 관계자 5명 참가, 부룬디 – 외교부장관, 르완다 – 키갈리 시장 참가 취소)

10월 9일 – 10월 12일: 글로벌에듀 이사진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및 병원선 방문

10월 13일: 우간다 UWMF 캠퍼스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겸 기숙사 헌당식

10월 22일(주일): LA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목사) 1, 2부 예배 설교

11월 1일(수): 순천북부교회(김동문 목사) 간증, 선교보고

11월 5일(주일): 대구들꽃피는교회(권영국 목사) 주일예배 설교

11월 18일(토):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보고 대회 및 ATU 총장 위임식(종로 5가 여전도회관 대강당)

11월 19일(주일): 청명교회(진정아 목사) 주일예배 설교

11월 22일(수): 한국 기독교 기자 초청 간담회(교회연합신문, 기독일보, 들소리신문,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월드미션신문, C헤럴드, CBS, 크리스천투데이, Cross News, 기독교연합신문, 기독인뉴스, 기독교한국신문, 복음신문, 기독교인뉴스, CDN TV, 한국기독공보)

11월 26일(주일): 봉천동 반석교회(이종혁 목사) 주일 오후 예배 설교

11월 28일(수): 임마누엘장로교회 에녹 선교회 설교

12월 9일(토) – 29일(토): 이용기 선교사 가족(권영옥, 이주희, 이주애), 최영애 선

교사, 르완다 사무총장 존 밥티스트 목사 미국 방문

12월 16일(토): 아프리카 선교 30주년 준비 선교보고 만찬 모임(산호세한인침례교회)

12월 17일(주일): 상항 서머나교회(담임: 이재서 목사) 주일예배 설교

〈특강〉

김성택 목사 – CWMF 교단 총회세미나 특강, 우간다 UWMF 신학교 특강

신수일 목사 – 우간다 UWMF 신학대학원 교회사 특강

오규훈 총장, 정피터 박사 – CWMF 목회자 코칭세미나 특강 (우간다, 르완다)

초급과정

지춘경 목사(외 3인) – 경찰 선교 특강 (우간다, 르완다)

이상희 교수, 이정희 교수, 박용남 교수, 이은혁 변호사, 양승미 전도사, 이준구 피디, 김평육 선교사 – 탄자니아 & 르완다 청소년 세븐 마운틴스 클럽 분야별 특강

〈건축〉

*카욘자 센터 예배당 헌당식

*카욘자 센터 유치원 완공하고 유치원 이전

*탄자니아 이솔래 마을, 부야구 중학교 우물 증정식

*우간다 Mbale 예배당 건축 착공식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도서관, 강의실 4, 여학생 휴게실) 기공식

*르완다 카욘자 초등학교(강의실 6개) 기공식

*우간다 UWMF 캠퍼스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헌당식

*탄자니아 컨테이너 수송(엔진 및 칼리지 학교 비품)

*르완다 컨테이너 수송(40피트 한국에서, 20피트 미국에서)

*콩고 부카부 고아원 착공

ⓒ 국민일보 더 미션, 2023. 10. 5

K선교의 힘… 비극의 땅 르완다에 교육으로 희망 꽃피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사역현장 르포

"교육이 선교" 르완다에만 학교 6곳, 2005년 세운 월드미션 고교 10여 년 만에 학생 수 12배 껑충

'To be wise, obey the Lord(지혜로우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정문을 통과하면서 마주한 문구가 이 학교의 정체성을 짐작케 했다. 3일 (현지 시간) 방문한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동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었다. 교복 차림의 재학생들 발걸음은 강당으로 향했다. 특별한 세리머니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29명 정원→380명 배움터로

월드미션고는 29년간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선교·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단체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2005년 문을 연 학교다. 당시엔 100만 명 넘게 희생당한 르완다 대학살(1994년 발생) 사건 여파로 고아·빈민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 주변은 허허벌판에 가까웠다. '가난한 아이들한테 공부라도 시키자.' 김평육 선교사가 소박한 각오로 시작한 학교의 첫해 정원은 29명이었다.

김 선교사는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이 믿음을 품도록 독려했다. 소망을 갖게 만들고, 정직하고 사랑을 나누며 책임감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데 주력했다. 학교는 2012년 정부 방침에 따라 컴퓨터와 회계 등 정보통신기술을 위주로 한 기술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르완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르완다 전역 895개 고등학교 가운데 랭킹 6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등에게 입소문이 나고 학교 인근 지역의 인프라 여건까지 개선되면서 학생 수는 초창기보다 12배 넘는 380명까지 불었다. 복음의 선한 능력이 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스며드는, 이른바 'K선교'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학생이 늘어 학교 시설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교육·구호 국제 NGO인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팔을 걷었다. 교내 도서관을 포함한 교실 3개를 새로 짓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사비는 김철수 새에덴교회 장로가 쾌척했는데 이날은 증축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글로벌에듀 이사진과 함께 현지 학교를 방문한 소강석 목사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겠다"면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데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학교 구성원의 반응은 고무적이었다. 교장인 루쿤도 이노센트씨는 "학교 증축을 위해 기도해 왔다. 이렇게 길이 열릴 줄 몰랐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는다"고 전했다.

특별한 이벤트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키갈리에서 차로 2시간 달려 도착한 카욘자 지역. 시골 풍경이 물씬 풍기는 곳에 교실 6개가 들어서는 '조이풀 초등학교' 기공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월드미션이 운영 중인 정원 100명 규모의 유치원 바로 옆에 300명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이다. 건립 지원에 나선 이는 순천북부교회 조휴진 집사·황양이 권사 부부였다. 조 집사는 "미션스쿨 졸업자 출신인 내 경우를 볼 때 교육 지원이 곧 선교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기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선교·공공외교 활동 박차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현재 르완다에서만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및 직업학교 6곳을 두고 있고, 대학교 1곳의 인가를 앞두고 있다.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등을 합하면 20여 곳에 달한다. 글로벌에듀 이사진은 교육 선교와 '2023 한국-아프리카 고위 콘퍼런스' 등 공공외교 활동차 오는 14일까지 르완다에 이어 케냐와 탄자니아 우간다 등을 방문한다. 글로벌에듀 상임이사인 이형규 장로는 "교육 지원과 구호, 선교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갈리·카욘자(르완다)=글·사진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 국민일보 2023. 10. 13

드넓은 호수 누비며 연 1만여 섬주민 생명 살린다

[현장] 동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위 떠다니는 병원 '살림호' 탑승기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 운영하는 선교 병원선 살림호가 11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므완자의 항구에 정박해 있다.

동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탄자니아를 끼고 있는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 두 번째로 넓다. 남한 면적의 3분의 2 규모다. 호수 안에만 1000개 넘는 섬이 있고 이 가운데 40% 정도가 유인도다. 탄자니아에만 85개 섬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곳을 누비며 인술을 펴는 병원선이 있다. 선교단체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운영하는 '살림(SALLIM)호'다. '생명을 살린다'는 뜻을 담은 살림호는 영국 선교단체가 운영 중인 병원선과 함께 빅토리아 호수의 '떠다니는 병원' 2개 중 하나다.

호수 위 작은 병원의 큰 사명

교육·구호 NGO인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목사) 아프리카 방문단과 함께 11일 오전(현지 시간) 빅토리아 호수 남쪽 탄자니아 므완자주 항구에 정박해 있는 살림호에 탑승했다. 건물 3층 높이(전장 25m)의 병원선 내 좁은 입구로 들어서자 데크 양옆으로 초음파 검사기기가 갖춰진 진료실과 수술실, 치과진료실, 소변·혈액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실, 약국 등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다. 병원선 담당 의사인 현지 출신 데이비드(33)씨는 "섬으로 진료를 나가면 통상 뭍에서 텐트를 설치해 사나흘 진료한다"며 "병원선은 진료·수술실이면서 의료진 등의 숙소와 식당으로도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살림호 병원선 사역은 이용기(51)·권영옥(45) 부부 선교사가 총괄하고 있다. 베테랑 간호사 출신의 권 선교사를 비롯한 현지 의료진 5명과 선장·선원 등 12명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진료를 받는 섬 주민은 6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선으로 연간 1만 명에 달한다. 이 선교사에 따르면 해안가에 사는 주민의 경우 오염된 물을 접하면서 '주혈흡충증'을 많이 앓는다. 이 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라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파괴력이 강한 기생충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년엔 '살림 2호'도 띄운다

하얀색 바탕의 살림호 옆에는 페인트칠이 아직 안 된 똑같은 규모의 선박이 쌍둥이처럼 서 있었다. 내년 7월 운항 예정인 '살림 2호'였다. 김평육 선교사는 "현재 한국에서 가져온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의료 장비와 시설 등을 갖추고 전용 수술실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면서 더 많은 주민과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림호가 빅토리아 호수에 띄워지기까지 여정은 험난했다. 20여 년 전 김 선교사는 작은 보트를 타고 빅토리아 호수의 한 섬을 방문했다가 아무런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섬 주민의 비참한 삶을 마주하면서 병원선을 떠올렸다. 하지만 병원선을 만들기 위한 모금, 건조, 운영에 이르기까지 꼬박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병원선은 2017년 첫 진료 이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 재가동됐다.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정식 병원선으로 등록된 살림호는 아직도 채워야 할 것이 많다. 매월 한 차례씩 나가는 현지 도서 진료 때마다 인건비와 약값, 경비 등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치과 진료실은 마련됐지만 아직 치과의사가 없다. 초음파 검사 기기는 구식이라며 현지 의사 데이비스씨는 다소 민망해했다.

10년치 섬주민 진료 정보 제공도

그러면서도 그간 한국 선교사들이 펼쳐온 사역에는 엄지를 치켜세웠다. 특히 살림호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월드미션 의료선교팀은 10년 가까이 빅토리아 호수 인근 도서지역 주민의 진료 데이터를 차곡 차곡 쌓아놨다. 최근 탄자니아 보건 당국은 도서 지역 주민의 질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요청했고, 월드미션 측은 흔쾌히 제공했다.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을 바다 건너 온 한국의 선교사들이 담당한 셈이다.

김 선교사는 "한국의 많은 의료 선교팀이 한 번씩만 현지에 와서 봉사해 준다면 병원선 선교 사명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프리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한국의 청년들과 의료진이 도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므완자(탄자니아)=글·사진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 국민일보 2023. 10. 14

선교사·교회·NGO 합작…우간다 목회자성경연구원 준공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간다 캄팔라에 '아바드 세미나 하우스' 준공
세미나실 숙박시설 갖추고…"신학생과 목회자 교육·훈련"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현지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이 문을 열었다. 한국인 출신의 선교사가 설립한 현지 신학교와 국내 교회, 글로벌 NGO 등이 함께 건립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동아프리카 선교단체인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13일(현지시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20여㎞ 떨어진 은상지(Nsangi)에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UWMF)에 건립한 목회자성경연구원(아바드 세미나 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연구원에는 대형 세미나실을 비롯해 숙식이 가능한 공간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UWMF뿐만 아니라 우간다 각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신학도들이 성경과 목회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면서 "더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성경연구원 건립은 한국의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전태식 목사)와 교육·구호 NGO인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목사·상임이사 이형규 장로)의 후원과 협력으로 이뤄졌다. 글로벌에듀 운영이사인 공병석(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장로는 축사를 통해 "한국은 복음의 빚을 진 나라"라며 "이 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면서 열매를 맺어 우간다를 통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인과 글로벌에듀 아프리카 방문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준공식에서는 양병우(군포 반석교회) 목사가 '가서 제자 삼으라'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여성으로 구성된 글로벌에듀 방문단의 특송과 기념식수 행사가 이어졌다. 우간다에 한국인이 세운 첫 번째 대학교인 쿠미대학교 신학과 학장인 이윤재 목사도 참석해 연구원 준공을 격려했다.

2013년 개교한 UWMF는 현재 신학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종합대학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 현지 신학생

169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이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단이 지난 2월 설립됐다.

캄팔라(우간다)=글·사진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 기독일보

월드미션 프론티어, '비전 2030' 세우고 아프리카 선교 박차

내년 창립 30주년... 현지 5개 국에 대학 설립 추진 등 사역 활발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선교를 펼치고 있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현지에 교회는 물론, 교육기관을 세우고 의료사역 등을 감당해 온 이 선교회는 3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선교 확장을 위한 '비전 2030'을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선교회 대표인 김평육 선교사는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다. 처음 계기는 기자로서 현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지에 아프리카 난민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고아원과 유치원 사역을 중심으로, 난민촌에서는 신학교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사역을 하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역을 확대했다. 그렇게 르완다와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에서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헌신해 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에서 NGO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 5개국에서는 13개의 선교센터에서 교육, 구제, 의료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사역으로서 아프리카 5개 국에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UWMF)를 설립하는 것은 '비전 2030'의 핵심 사역 중 하나다. 현재 대학이 설립되어 현지 인가를 받은 곳은 우간다다. 캄팔라에 있는 UWMF는 아프리카 신학교육 협의회(ACTEA)의 인가로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운영 중이며 Diploma, Bachelor, M.Div. 과정에 150명이 재학 중이다.

또한 UWMF는 우간다 교육부(NCHE)를 통해 일반대학교로의 인가도 추진하고 있다. 추진 학과는 경영학과(BA), IT학과(BA), 신학과(BA), 한국어(Diploma)다. 2022년 7월 우간다 교육부의 현장 검사팀이 학교를 방문했으며, 학교는 교육부 권고와 시정 사항을 토대로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TU(Africa Transformation University)라는 대학교는 르완다에서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신학대학원 △신학대학 △교육대학 △과학기술대학 △경영대학 등 4개 학부 1개 대학원에 14개 학과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일반학부 개교를 위해 건물을 건축 중이다.

ATU에는 최근 한동대와 장신대에서 교수로 있었던 오규훈 박사가 최근 총장으로 취임했다. 오 총장은 "아프리카의 한동대를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겠다"며 "기독교대학으로서 그 기초를 놓는 일과 교수 영입이 중요할 것 같다. 기독교 믿음을 가진 미래의

신앙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탄자니아에 SCAT(Sengeream Collage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도 있으며 탄자니아 교육부에 칼리지 인가를 신청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학과는 농학과, IT학과, 신학과(Diploma 과정)가 있다. 이처럼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교육기관 설립 등 '비전 2030'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비전 2030'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학교 설립(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2. 아프리카 5개국 15개 선교센터 설립(유치원, 중·고등학교, 고아원, 크리닉센터)
3.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2호선 완공, 정박 시설 및 병원 건축
4. 미국 본부 선교센터(선교사 쉼터, 선교훈련)
5. 한국 청소년 선교훈련원 설립(청소년 선교훈련, 선교사 쉼터)
6. CWMF 교단설립/교회개척운동(2023년 2월 10일 창립총회, 목회자 169명)
7. AMTIC 선교사 훈련원(2019년 시작) 아프리카 선교사 양성
8. 대학교 교수요원 양성(박사과정 장학지원)
9. 길갈 청소년 캠프(아프리카 청소년 변화운동)
10.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아프리카 고등학교, 대학교 클럽 운동)

한편,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목사,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와 협력하고 있다. 글로벌에듀는 우간다 UWMF의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건축과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의실 증축 등을 지원했다.

또 의료사역에 있어 더웨이브(이사장 배창황) 선교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더웨이브는 매년 1회, 또는 2회에 결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빅토리아 호수 섬마을 의료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현지 팀의 의료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사역도 빼놓을 수 없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협력하고 있는 보엠뮤지컬선교단은 2006년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진행된 〈한국-아프리카 문화교류 대회〉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함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됐다. 보엠 단원들은 2014년까지 매년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직접 공연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2017년부터는 현지인으로 구성된 보엠선교단을 조직해 현지에서 사역하도록 지원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보엠의 협력으로 르완다 키갈리에 있는 월드미션 고등학교 1층 채플 강당을 2층으로 증축해 뮤지컬 공연을 위한 극장으로 개축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30주년을 맞는 내년 2월 9일 헌당과 함께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0332?fbclid=IwAR3-Wh8ar5z6hMjctamH1sYpLnOQyWU8z5AZxGtQqWGJAsnVURwlOA3bJpY#share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jykim@cdaily.co.kr)〉

ⓒ 기독교라인 webmaster@kidokline.com

김평육 선교사, 아프리카 30년 선교 여정 밝혀

월드미션 프론티어, 제5기 사역인 '비전 2030' 발표

설립 30주년을 맞은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제5기 사역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에는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학교 설립(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아프리카 5개국 15개 선교센터 설립(유치원-중, 고등학교, 고아원, 크리닉센터)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 2호선 완공, 정박 시설 및 병원 건축 △미국 본부 선교센터(선교사 쉼터, 선교훈련) △한국 청소년 선교훈련원 설립(청소년 선교훈련, 선교사 쉼터) △CWMF 교단설립/ 교회개척운동(2023년 2월 10일 창립총회, 목회자 169명), △AMTIC 선교사 훈련원(2019년 시작) 아프리카 선교사 양성 △대학교 교수요원 양성(박사과정 장학지원) △길갈 청소년 캠프(아프리카 청소년 변화운동)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아프리카 고등학교, 대학교 클럽 운동)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제1기(1994-2000) 사역으로 르완다 전쟁 현장과 난민촌을 취재하고 전쟁 고아와 과부, 전쟁 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했다. 제2기(2001-2006) 사역으로는 아프리카 복음화대회에 집중한 기간으로 대규모 단기선교단을 모집해 아프리카 5개 국가를 대상으로 복음화대회를 추진했다.

제3기(2007-2012) 사역으로는 '비전 2012'를 계획하고 복음화대회를 지속하면서, 12개의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기 사역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한국 초정 사역이 확대됨에 따라 선교센터 건축은 미루어졌지만 건축부지 마련과 센터의 기초를 세웠다.

제4기(2013-2020) 사역으로는 복음화대회와 지도자 초청 등의 큰 행사는 중단하고, 현지에서 장기사역을 강화하며, 그동안 마련한 부지에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에 집중했다. 특히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을 건조하고 대학교 설립의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했다. 이에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20일 대학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30년 동안 선교 여정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평육 선교사는 대학교 설립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UWMF(총장 김평육 선교사, 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은 우간다 캄팔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신학교육 협의회에 인가로 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 150명이 재학중이며, 일반대학교(경영학과, IT학과, 신학과, 한국어) 인가를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7월 우간다 교육부 NCHE에서 현장 검사팀 방문하고, 현재는 NECH의 권고 시정 사항에 대해 준비 중에 있다.

ATU(총장 오규훈, Africa Transformation University)은 르완다 Kigali(Gasabo district)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2019년 UWMF 신학대학, 대학원으로 인가를 신청해 2022년 2월 르완다 교육법 개정으로(신학 석사학위 과정 설립을 위해) 4개의 단과대학을 갖는 종합대학으로 변경해 인가 신청서를 지난 9월 다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신학대학원과 신학대학, 교육대학, 과학기술대학, 경영대학 등 4개 학부 1개 대학원에 14개 학과 개설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일반학부 개교를 위해 신학대학, 대학원에 이어 일반학부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

SCAT(Sengeream Collage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는 UWMF 신학대학, 대학원 분교로 운영 중에 있으며, 탄자니아 교육부에 칼리지 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학과로는 농학과와 IT학과, 신학

과(Diploma 과정) 등이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이를 위해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목사,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가 협력했다"며, "먼저 우간다 UWMF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건축 지원(2023년 10월 13일 헌당식, 진주초대교회)을 비롯해 르완다 월드 미션 고등학교 도서관, 강의실 증축 지원(2023년 10월 3일 기공식, 새에덴교회), 르완다 간요자 죠이플 초등학교 건축(2023년 10월 3일 기공식, 순천북부교회)을 했으며, 르완다 카욘자 중학교 건축(2024년 7월 기공식 예정, 순천북부교회), 탄자니아 이솔래 초등학교 건축(2024년 7월 기공식 예정, 순천북부교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선교사는 '더웨이브(이사장 배창황)'에 대해 "매년 1회~2회에 걸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빅토리아 호수 섬마을 의료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월 현지팀 의료사역 지원과 전진적으로 병원선 1호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엠씨어터 헌당 및 개관에 관해서도 김 선교사는 "보엠뮤지컬선교단은 2006년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진행된 〈한국-아프리카문화교류대회〉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 보엠 단원들은 2014년까지 매년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직접 공연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2017년부터는 현지인으로 구성된 보엠선교단을 조직, 훈련하여 현지에서 사역하도록 지원하였다"면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르완다 키갈리에 소재한 월드미션 고등학교 1층 채플강당을 2층으로 증축해 뮤지컬공연극장으로 개축하기로 결정하고 보엠의 협력으로 1층 채플을 2층 극장으로 개축했다. 이에 2024년 2월 9일 헌당과 함께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선교사는 "대학교 개교를 위해 영문도서 확보와 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많은 교수진의 사례비와 대학 운영비, 학교 건축에 따른 학교용품(컴퓨터, 책상, 의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교사진(유치원–고등학교)을 비롯해 교수진(신학, 교육대학, 경영대학, 과학기술대학(IT, 전자공학)), 의료봉사단(매년 빅토리아 호수병원선 사역에 동참할 의료진) 등의 자원봉사단이 매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글로벌에듀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를 비롯해 ATU 오규훈 총장, 보엠뮤지컬선교단 조이킴 선교사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오규훈 총장도 "듣는 것하고 선교현장은 다르다. 작년에 총장직 부탁을 받아 믿음으로 하게 됐다. 아프리카에 한동대학교를 세운다는 생각과 기독교대학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교수들의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섬길 것"이라며, "아프리카 전 지역에 믿음을 가진 신앙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한동대와 MOU를 맺고 교수 교환, 학생 교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정액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출발하는 상황이기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바랐다.

조이킴 선교사도 "보엠씨어터가 2024년에 월드미션 프론티어 30주년을 기념해 헌당식을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을 세우셨고, 수많은 컨텐츠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세우셨다"며, "김평육 선교사가 '아름다움이란 최고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엠씨어터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형규 장로는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김평육 선교사를 세워 큰일을 감당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30주년을 맞아 사역보고를 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돌려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러한 귀한 사역에 글로벌에듀도 함께할 것이다. 글로벌에듀는 예

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사랑의 선교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 국민의 교육과 삶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일보 2023. 11. 23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학교 설립…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비전 2030' 기자회견
월드미션 프론티어 내년 30주년 맞아
르완다 탄자니아 등에 학교 설립하고
빅토리아 호수에 의료선교팀 실은 병원선 띄워

1994년 취재차 들린 르완다에서 약 80만 명이 살해당하는 '르완다 대학살'을 목격했다. 그 길로 시작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내년으로 30주년을 맞는다.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김평육(67) 선교사의 이야기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비전 2030'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선교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은 르완다 대학살로 곤경에 처한 난민 구제와 어린이 사역으로 시작됐다. 이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대회와 아프리카 학생 유학 사역 등 여러 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비전 2020' 사역을 통해서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선을 건축했다. 빅토리아 호수에 의료선교팀을 실은 병원선을 띄워 빅토리아 호수 내 섬마을 주민들을 살리는 등 의료선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 선교사는 "이번 '비전 2030'을 통해 병원선 2호선을 완공하고 고아원 학교 클리닉센터 등 15개 선교센터 및 선교훈련원을 설립하는 등 사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호개발 NGO인 글로벌에듀와 함께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5개국에 신학을 가르치는 종합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완다 키갈리에 위치한 ATU(Africa Transformation University) 총장을 맡은 오규훈 총장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세운 고등학교가 르완다의 895개 학교 중 랭킹 5위의 명문 고등학교로 부상한 것처럼 ATU를 통해 훌륭한 기독교 대학의 기초를 놓겠다"고 전했다. 오 총장은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교수진의 학문적·신학적·신앙적 훈련과 양육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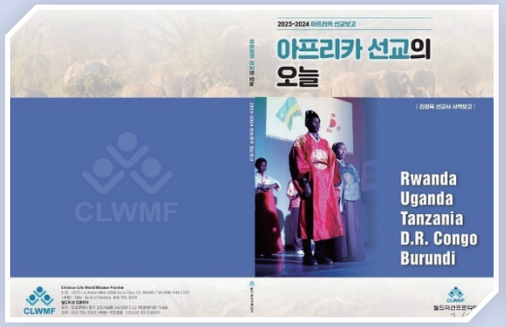
한편 이형규 글로벌에듀 상임이사는 지난 18일 열린 '아프리카 선교보고 및 ATU 대학교 총장 위임식'에서 "글로벌에듀는 지난 10월 아프리카를 방문해 김평육 선교사가 추진하는 학교 설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03335
글·사진=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30주년 기념행사, 학교 건축에 중점

2024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30주년 기념, 키갈리에 준비한 역사관



2023-2024년 선교보고서 발행

우간다 Nsangi 교회 자체적으로 세례식 거행

빅토리아 호수 살림호 병원선 사역

탄자니아 의료봉사단 사역준비 모임

CWMF 교단 소속 각 위원회 전략회의

키갈리 고등학교 보엠 씨어터 헌당식

CWMF 창립 1주년 정기총회 목회자 세미나(키갈리)

우간다 음발레(Mbale) 예배당 헌당식

우간다 UWMF 신학생, 목회자 일대일 양육 세미나

콩고 우비라 카통고 KBBA 특강

콩고 부카부 보육원(40명) 어린이

콩고 남키부주 주지사 및 제시카 한국 방문

콩고 고마 M23반군에 의한 난민촌 고아 어린이 방문

탄자니아 이솔래 양재학교 수료식

노신영 박사 우간다 신학교 특강 (Nsangi & Mbale)

CCC찬양비전 르완다, 우간다 찬양사역자 세미나

창립 30주년 역사 전시관 관람

월드미션 프론티어 스템의 선교회 역사 소개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30주년 행사(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전통예술단 공연

우간다 UWMF신학대학·대학원 / KBBA 졸업식

2024년 졸업식 UWMF / KBBA 333명 졸업

2024년 목사 안수 (Pastor 60명, Reverand 6명)

2024년도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식(143)

2024년 사역 요약

2024년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아프리카 선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르완다 키갈리 센터의 보엠 시어터 헌당식으로 한 해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2023년 창립된 CWMF 교단의 1주년을 맞아 총회를 개최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다.

우간다 음발레 예배당 헌당식을 거행하였고, 지난해 방문한 모요 교회를 위한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 30주년을 맞아 르완다에서는 30주년 기념 역사 전시관이 만들어졌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30주년 행사는 르완다를 포함하여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도 별도로 기념하였다.

우간다 UWMF/KBBA는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졸업식을 운동장에서 진행하였다. 333명의 졸업생, 66명의 목사 안수식에 700명 이상의 하객이 참가하였다.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는 1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탄자니아 이솔래 양재학교, 르완다 카욘자 양재학교, 르완다 야마세키 유치원, 카욘자 유치원, 콩고 우비라 카통고 등 선교센터에서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키갈리 센터의 고등학교(도서관 및 강의실 4개)와 카욘자의 초등학교(강의실 6개), 탄자니아 이솔래 초등학교 준공식을 위해 글로벌에듀 방문단 22명이 콩고,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비전 2030>의 첫 번째 목표인 5개 대학교 설립을 위해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에 SWMFCAT 칼리지 인가, 우간다 UWMF의 교육부 인가, 르완다 ATU 대학교의 교육부 인가를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 : 2023– 2024년 선교보고서 출판 (쿰란출판사)

김평육 선교사 설교사역

1월 14일(주일): 심포니장로교회(박용준 목사) 설교

1월 21일(주일): 순복음선교교회 설교

1월 21일: 우간다 Nsangi 교회 침례식(34명)

1월 26일 – 2월 3일: 〈더웨이브〉(이사장 배창황)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1월 26일 – 2월 14일: 산호세 영락교회 김광일 집사 건축 봉사(음발레 예배당, UWMF 세미나 하우스, 난지가 예배당)

2월 2일: 탄자니아 교육부 SWMFCAT 칼리지 현장실사단 방문

2월 5일 –2월 9일: CWMF 교단 목회자 세미나(박성진 교수.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2월 5일 – 8일: 르완다 교육부 HEC 실사단 31명 ATU 방문 현장 실사

2월 9일: 보엠 씨어터 봉헌식 및 교단 설립 1주년 기념행사(설교 이용주 목사)

2월 12일: 음발레교회 예배당 헌당식

2월 5일 – 2월 22일: 아프리카 방문단(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3월 3일: 우간다 선교센터 부지 18에이커 영구 매입을 위한 1차분(전액의 ½) 지불

3월 4일 – 15일: 일대일 제자 양육세미나(강사 김영련 목사, 강순구 목사 / 첫째 주간 –목회자(80), 둘째 주간 – 신학생(120))

3월 10일: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생 2명 한국 유학(드림교회 장학생)

3월 11일 – 3월 15일: 콩고 우비라 카통고 센터 신학 세미나(강사 신수일 목사)

3월24일 – 5월 2일: 40일 연속 금식기도회

4월 13일: Bulwanyi 마을에 예배당 건축 부지 3 plots 매입

4월 15일 – 18일: 아바드 목회자 세미나(양병우 목사 외 4인)

5월 12일 – 24일: 콩고 남키부주 주지사 일행 한국 방문(일산병원, 국회 방문 등)

5월 24일: 철원 성소기도원 철야기도회 설교

5월 26일: 포항 빛내리교회 설교

5월 30일: 콩고 고마 M23반군에 의한 난민촌 방문하여 고아 어린이 파악

6월 10일 – 21일 : 탄자니아 길갈 컴퓨터, 영어 캠프 (강사 : Stacy Tritt & Judy / 부야구 중학교 학생 160명 참가)

6월 17일 – 21일: 탄자니아 길갈 리더십 캠프(강사 다이안 최, 참가 인원 60명)

6월 16일: 우간다 UWMF 후원회(회장 김호용 목사, 부회장 정원태 장로, 총무 김종희 권사, 회계 이에스더 권사)

6월 22일 – 7월 20일: 노신영 박사 우간다 순회 강의(UWMF 석사과정, 학사과정, Mbale 신학생. 여성세미나)

7월 4일: 탄자니아 이솔래 양재학교 수료식(16명)

7월 6일: 르완다 야마세키 유치원 졸업식(디스트릭트 랭킹 2위로 발돋움)

7월 6일: 르완다 ATU 대학교 후원회 2차 조직강화 모임(산호세 한인침례교회)

7월 9일: 우간다 UWMF 대학교 남가주 후원회 미주복음방송 인터뷰(공미연 아나운서)

7월 13일: 우간다 MOYO 예배당 건축 착공

7월 15일 – 7월 30일: CCC찬양비전 사역(르완다 고등학교, 우간다 선교센터 / 박종술 목사 외 5인)

7월 27일: 콩고 고마에 고아원 설립 (난민촌 고아 26명 입양)

7월 28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선교 30주년 기념식 (르완다 키갈리 센터)

7월 30일 – 8월 1일: 우간다 UWMF 졸업세미나(강사 김평육 선교사 / 팀 빌딩)

8월 1일: 우간다 UWMF(목회학석사 15명, 신학사 60명, 디플로마 17명, 수료 8명) KBBA (우간다 170명, 탄자니아 45명) / 목사 안수 (Pastor 60명, Reverand 6명)

8월 10일: 르완다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식(2024년도 143명 졸업)

8월 12일: 탄자니아 부코바 센터 방문

8월 27일: 키갈리 시로부터 ATU 빌딩에 대한 건축 독촉 경고장 받아 건축 재개

8월 19일 – 30일: 코칭 세미나(중급 50명, 초급 50명 각 1주간/ 강사 오규훈 총장, 정피터 박사)

9월 1일(주일): 남가주 업드림(UP Dream)교회 선교보고

9월 8일(주일):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담임 권혁인 목사) 설교

9월 15일(주일): 순복음 산호세 선교교회 설교

9월 30일 – 10월 11일: 글로벌에듀 아프리카 방문

10월 1일: 르완다 키갈리 월드미션 고등학교(도서관, 강의실) 헌당식

10월 2일: 르완다 카욘자 센터 초등학교 헌당 및 중학교 기공식

10월 4일: 우간다 난지가 고등학교 기공식. 선교 30주년 행사

10월 7일: 탄자니아 이솔래 초등학교 건축 기증식

10월 12일: 우간다 UWMF 대학부지 매입(2차 중도금 지불)

10월 26일: 우간다 UWMF 남가주 후원회 모임

10월 27일(주일): LA복음 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설교

11월 1일: 한국 남양주 사무실 본부센터로 이사 합병

11월 2일: 르완다 ATU 대학교 후원회 모임

11월 3일(주일): 순복음 선교교회 주일예배 설교

11월 17일(주일): 대구 들 꽃 피는 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예배 설교

11월 23일–12월 말: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엔진 장착(2025년 1월 시운전 예정)

〈강의〉

*박성진 교수: CWMF 2회 총회 목회자 세미나

*김영련 목사, 강순구 목사 : 일대일 제자훈련 세미나(우간다 UWMF신학대학, 대학원 / CWMF 목회자)

*노신영 박사: 우간다 UWMF 신학대학, 대학원 특강

*신수일 목사: 콩고 우비라 카통고(Katongo) KBBA 신학교 특강

*양병우 목사외 4인: 우간다 목회자 아바드 세미나

* Stacy Tritt & Judy: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길갈청소년 캠프(컴퓨터.영어 리더십)

*오규훈 총장, 정피터 박사: CWMF 교단 목회자 코칭세미나(초급과정, 중급과정)

〈건축〉

*르완다 키갈리 센터 고등학교(도서관1, 강의실 4, 학생휴게실 1) 준공

*르완다 카욘자 초등학교(강의실 6개 2층 건물) 준공

*탄자니아 이솔래 초등학교(강의실 6개) 준공 정부에 기증

*탄자니아 이솔래 마을 및 초등학교 우물통 기증

*우간다 음발레 예배당 완공 헌당식

*콩고 부카부 고아원 건축 계속

*르완다 키갈리 센터 ATU 대학교 본관 건축 계속

*우간다 난지가 고등학교 기공식

*르완다 카욘자 중학교 기공식

*우간다 불와니(Bulwanyi) 예배당 건축 부지 마련 및 예배당과 유치원 착공

*탄자니아 이솔래 센터 카페테리아 및 화장실 건축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 물통 공사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1호선 내부 수리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2호선 엔진 장착

2024. 2. 1(목)

우간다 신학대학교 부지 매입 추진

올해로 아프리카 선교 30주년을 맞은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우간다 캄팔라 선교센터 내에 있는 우간다 신학대학과 대학원(UWMF)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

우간다 캄팔라 선교센터 부지 내에 있는 우간다대학교와 대학원은 지속적인 아프리카 선교와 현지 인재 양육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부지는 18에이커(2만2천 5백평)로 1996년에 49년간 에이커 당 700달러에 리스를 했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주변의 주택단지로 개발과 엔테베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 시작으로 인해 땅값이 27년 전 에이커당 700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앞으로 22년 후 리스 기간이 끝나면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큰 부담을 줄 것 같아 부지를 대학교 명의로 완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소유자의 자손들과 의논한 결과 현재 시가의 50% 정도인 총 30만달러를 지불하면 학교 명의로 타이틀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입 대금은 2월에 15만 달러, 7월에 7만 5천 달러, 12월에 7만 5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김 선교사는 22년 후에 학교가 수백만 달러의 땅값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구입해 두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간다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은 아프리카신학대학협의회(ACTEA)의 학위 인증을 받아 디폴로마와 신학사, 목회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주변 국가의 학생들도 많이 등록하여 졸업생 중 169명을 목사로 안수하여 현지 교단 설립의 모태가 되고있다. 또 우간다 교육부에 일반대학교(IT 학과, 경영학과, 신학과)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교 인가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김평육 선교사는 우간다신학대학이 아프리카 현지인 교육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교회와 뜻 있는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CLWMF: (408)781-3574.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CA 95050.
후원 : Zelle Bank of America
〈손수락 기자〉

2024. 7. 20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간다의 UWMF 대학교 후원회 기자회견

"UWMF가 우간다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지난 2010년 설립한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학교(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이하 UWMF) 후원을 위한 기자회견이 10일(수) 오전 11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 목사)에서 열렸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난민구제와 어린이 사역으로 1기 사역 기간 중인 1996년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간다 대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지난 2010년 3월 우간다 신학교, 대학원(Uganda Theological Seminary)을 개교 했으며, 2011년 UTS를 ATS(Africa Theological Seminary)로 학교 명칭을 개명하고 르완다로 이전했다. 또한 2012년 우간다에서 목회자 평생교육원인 KBBA(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를 세우고 신학교 사역을 재개했으며 2015년 KBBA와 ATS가 합병하고, 우간다 교육부에 UWMF 인가를 신청, 2017년 아프리카신학교육협의회(Association for Christian Theological Education in Africa, 이하 ACTEA)에 학위 인증을 신청했으며 2021년 3월 ACTEA로부터 학위 인증을 받아 Diploma, B.A, M.Div.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UWMF는 또한 지난 2017년 5월 일반대학교 설립을 위한 'Letter of Interim Authority'를 취득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대학교 개교를 위해 2020년 7월 고등교육국(NCHE)에 Provisional License(신학과, IT학과, 행정학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7월 NCHE 카운실 멤버들의 현장 방문이 있었고, 현장 방문 후 받게 된 권고사항 등을 시정해 나가고 있다.

UWMF의 총장인 김평육 선교사는 "신학과의 경우 미국 갈보리대학교(Calvary University)에 철학박사(Ph.D.) 입학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1월부터 한국 횃불트리니티신학원에서 Th.M.과 Ph.D.과정 입학이 허가되어, 횃불트리니티신학원과 UWMF의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간다 정부에서는 I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UWMF를 통해 첨단과학 인재들이 배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한 교수 확충 및 컴퓨터 교체 등을 비롯한 시설물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5일 발족된 우간다 UWMF 후원회의 김호용 회장은 "우간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며 마치 한국의 6-70년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한국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교육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UWMF가 우간다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많은 후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원회의 추진 사역으로는 △교수 확보 및 현지 강의(온라인 강의 및 1주일 동안의 인텐시브 수업), △단기 선교단 모집 및 파송, △UWMF 대학 재정지원 등이 있는데 현지인 교수 지원(월 500 달러), 재학생 장학지원(월 50달러, 1년 600달러), 석박사 과정 교수요원 유학지원(1년 6천 달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축 및 시설지원(도서관 및 e-learning 시스템, 학교용품), △중보기도, △신학교 졸업생 목회자의 교회 개척과 지원 등이 있다. 우간다 UWMF 후원회는 회장 김호용 목사, 총무 김종희 권사, 회계 이 에스더 권사로 구성됐다. 후원금은 Pay to order에 CLWMF를 적으면 되며 보낼 곳은 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이다. ZELLE로 보내는 경우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 714-501-888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2024. 8. 1(목)

후원회 조직, 대학 설립 기금 모금

북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1994년 아프리카 복음화 사역을 시작한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평육 선교사의 르완다 내전 현장 취재를 계기로 시작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 왔다. 아프리카 5개국 17개 지역에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고아원,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등 교육사역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을 통한 의료 사역 등 많은 선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선교사역 3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우간다의 캄팔라 근교 지역에는 1996년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이 시작되어 현재는 UWMF(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신학대학, 대학원이 ACTEA(Association for Christian Theological Education)의 인증 학위 (Diploma, B.A, M.Div)를 수여하고 있다. 우간다 UWMF는 현재 우간다 교육부에 일반대학교(IT학과, 비지니스, 신학 학사)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2025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키갈리에 ATU (Africa Transformation University)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당초 신학대학, 대학원의 교육부 인가를 추진하던 과정에 르완다 교육법의 개정으로 단과대학의 인가가 불허되므로 종합대학으로의 인가를 추진 중에 있다.

르완다 ATU는 2025년 말에 인가를 받아 2016년 1월 개교를 목표로 대학 인가 절차와 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생게레마 군과 MOU를 체결하고 농업과 과학기술 중심의 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 실습장을 포함하는 150에이커의 부지를 마련하고 대학교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SWMFCAT(Sengerema World Mission Frontier Collage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2025년 1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콩고에서는 사우스키부 지역에 20에이커의 부지를 마련하고 대학교 건축이 진행 중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5개국의 17개 선교센터에 270명 이상의 현지인 직원이 사역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대학교가 인가되어도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교에 대한 별도의 후원회 조직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간다의 UWMF 대학교 후원을 위해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김호용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김종희 권사를 총무, 이에스더 권사를 회계로 선임하여 후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르완다에 설립되는 ATU대학교는 과학기술대학, 교육대학, 상경대학이 우선 설립되는데 모든 과정이 IT기술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후원회를 조직하였다. 지난 7월 6일(토) 산호세에서 모임을 갖고 북가주 후원회를 조직하였다. 북가주 후원 회장으로는 이용주 목사를 선임하고, 김승년 집사(부회장), 최송관 집사(총무), 이

문희 박사, 조지영 간사(회계)가 임원으로 후원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특히 북가주 지역의 후원회는 7개의 팀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7개의 팀은 ▲교수요원 확보 및 강의지원 사역팀(최송관, 양형균) ▲인턴십 및 취업지원팀(컬스튼정, 양형균) ▲ 도서관 및 IT 시스템 지원팀(최성규), ▲건축 및 시설 지원팀(김광일, 김승년), ▲장학후원 및 행사지원팀(김연란, 컬스튼정), ▲단기선교단 지원팀(한상훈), ▲중보기도 지원팀(조지영)이다.

〈손수락 기자〉

기독일보. 2024. 10. 15

글로벌에듀, 아프리카 4개 국에서 '린치핀 선교사역' 마쳐

르완다·우간다·탄자니아·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교육 및 구호사업

사단·공익법인 글로벌에듀가 최근 아프리카 4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린치핀(Linchpin) 선교사역'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에듀는 이들 나라에서 △6개동 30개 교실 건립(초등학교 3, 중등학교 1, 고등학교 2) △교육 기자재 지원 및 조리시설 개선 △대한민국 대학교로의 유학생 5명에 대한 4년간 1명당 연간 700만 원 장학금 지원의 교육사업 △고아원 2곳 설립과 원생들 후생복지를 위한 기부 및 우물정 4개 프로젝트 완료의 구호사업을 전개했다.

르완다

먼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르완다에서, 키갈리(Kigali) 월드미션 고등학교(World Mission High School)에 김철수 운영이사(프라미스 대표)가 2023년 10월에 봉헌한 도서실 1개 교실과 강의실 4개 및 보건실 1실을 구비한 2층 건물 1개동의 준공을 마쳤다.

이어 월드미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해 2025년 대한민국으로 유학이 결정된 5명의 학생에 대해 4년간 1명당 연간 700만 원에 달하는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다.

또 동쪽 오지마을인 카욘자(Kayonza)의 조이풀 유치원(Joyful Kindergarten) 부지에 순천북부교회 조휴진 집사·황양이 권사 부부가 2023년 10월에 봉헌한 초등학교 2층 건물 6개 교실의 준공을 마치는 한편 또다시 봉헌하는 중등학교 2층 건물 6개 교실의 기공을 시작했다.

우간다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간다(Uganda)에서는 첫째, 캄팔라(Kampala) 난지가(Nanziga)에 이형규 상임이사(쿰란출판사 대표)가 봉헌하는 고등학교 2층 건물 1개동 6개 교실의 기공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기공식을 마친 후에 확인한 이형규 상임이사는 부지 추가 구입을 위한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했다고 한다.

둘째, 캄팔라(Kampala) 카테레케(Katereke) 무진다 촌락(Muzinda Village)의 은상지 센터(Nsanji Center)에 순천북부교회(김동문 담임목사) 성도들이 봉헌한 우물정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형 정수조(Water Tank)를 설치했다.

셋째, 캄팔라(Kampala) 카테레케(Katereke) 무진다 촌락(Muzinda Village)의 은상지센터(Nsanji Center)에서 운영 중인 고아원을 방문한 글로벌에듀 아프리카 4개국 선교사역팀은 1997년에 개원해 현재 25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는 고아원 원장 쟈네티(Zanetty)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아들의 후생복지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기부금을 쾌척했다.

탄자니아

첫째, 므완자주(Mwanza State) 셍게레마 지역(Sengerema District) 이솔래마을(Isole Village) 초등학교에 순천북부교회(담임 김동문 목사) 성도들이 봉헌한 3개동 6개 교실 건립 준공식 및 2개 우물정 프로젝트의 마무리 행사를 했다.

둘째, 월드미션 프론티어(World Mission Frontier, 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부코바(Bukoba) 키부예 촌락(Kibuye Village)에서 2006년에 개소해 운영하는 부코바 센터(Bukoba Center)를 방문한 글로벌에듀 선교사역팀은 이곳에서 20명의 보육원과 60명의 유치원을 위해 사역하는 최성욱·정미경 선교사 부부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부코바 센터의 유치원 유아들과 보육원 고아들의 안전을 위한 경계벽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한 이형규 상임이사를 비롯한 글로벌에듀 선교사역팀은 경계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기증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키부주(Sud Kivu) 푸루시 사디키(Purusi Sadiki) 주지사의 초청으로 동 주지사를 예방한 글로벌에듀 선교사역팀은 동 주지사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키부주(Sud Kivu) 주도(州都)인 부카부(Bukavu)시 외곽의 Kabare 지역과 동쪽 국경의 우비라(Uvira) 지역 두 곳을 방문했다.

첫째, 부카부(Bukavu)시 외곽의 카바레(Kabare) 지역 알렉산더(Alexander) 촌장이 고아원 건립을 위하여 기증한 1만 2천 평의 부지에 건축중인 고아원을 위해 정충시 법인이사(세진에이엠 대표이사)가 봉헌하는 우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둘째, 남부 키부주의 동쪽 국경에 위치한 우비라(Uvira)를 방문한 글로벌에듀 선교사역팀은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가 건설중인 우비라 센터(Uvira Center)에 김홍석 운영이사(안양일심교회 담임목사)가 봉헌하는 초등학교 2층 건물 1개동 6개 교실 건립과 하동균 운영이사(상동산업 대표)가 봉헌하는 우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글로벌에듀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글로벌에듀의 린치핀(Linchpin) 선교사역이 불쏘시개가 되어 성령의 들불이 르완다와 탄자니아 및 우간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을 시작으로 창대하게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나가야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형규 상임이사(쿰란출판사 대표)는 "'교육은 발전을 위한 발효제'라는 아프리카인들의 소망을 위해 글로벌에듀의 선교사역은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서 글로벌에듀의 명예이사장으로 합류하심에 따라 글로벌에듀의 선교사역은 코이카와 협력사업 진행 등 외연을 확대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진영 기자(jykim@cdaily.co.kr)

〈현재 사역〉

믿음의 역사

1994 - 2024

"여호와의 눈은
온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
(역대하 16:9)

1. 르완다 키갈리(Kigali) 월드미션 고등학교

키갈리 선교센터는 2000년에 마련된 2헥타르(6,000평)의 부지에 2002년에 채플과 강의실 3개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키갈리 고등학교에 부임한 이문희 선교사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크리스천 생활 교육에 집중하며 학교 분위기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선교사의 부임과 함께 현지인 교사들도 의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등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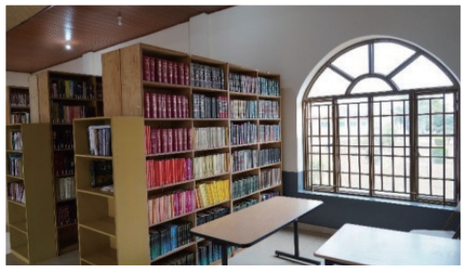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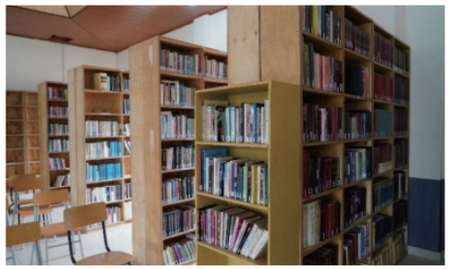
2018년 르완다 교육부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점검하고 랭킹을 발표하였는데 “World Mission High School”이 전국 895개 학교 중 6위에 선정되었다. 키갈리 시에서는 랭킹 3위이고, 가소보 디스트릭에서 랭킹은 1위로 발표되었다. 2022년에는 전국 5위로 발표되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세미나 등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의 휴교 기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교실과 사무실을 건축하였다.

2022-2023학년도 전국 고등학교 졸업고사에서는 90명의 졸업생 중 19명의 학생이 만점자로 발표되었으며, 르완다 전국 수석학생이 배출되어 르완다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2023-2024학년도 전국고사의 난이도가 높아져 만점자는 3명을 배출하였지만 50점(60점 만점) 이상의 학생이 50% 이상으로 키갈리 최우수 학교로 발표되었다.

2023년 10월 3일 부족한 강의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1개, 강의실 4개의 2층 건물 기공식을 가졌다.

2. 르완다 ATU(Africa Transformation University) 대학교

2000년에 키갈리 센터의 부지를 마련하고 2005년 양재학교를 건축하여 기존도에 있던 선교센터 본부를 카구구 센터로 이전하였다. 2015년부터 운동장 공사를 시작하고, 2017년 양재학교(2005년에 건축했던)와 창고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면서 토치 미션센터를 신축하여 신학교가 활성화되었다. 2015년 르완다의 신학교명을 우간다와 같이 UWMF 신학대학·대학원으로 변경하였는데, 2019년에는 4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학교로 발전하였다.

2018년 르완다 정부는 건물의 안전을 이유로 7천 개의 교회를 폐쇄하고 까다로운 건축 조건으로 예배당 건축을 강제하였다. 이어서 신학교 학위가 없는 목회자들의 목회 활동을 금지하고, 2019년에는 전국의 신학교를 폐쇄하고 교육부 고등교육국(HEC)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하였다. UWMF는 2019년 5월부터 임시 휴교 상태에서 교육부 인가를 받는 일에 힘써왔다.

2022년 2월 세미나리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르완다 교육부의 대학교 인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석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변경해야만 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3개 학부(교육대학, 과학기술대학, 경상대학) 6개 학과의 대학으로 승인받기 위해 2024년 12월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종합대학교의 개교를 위해 필요한 일반학부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ATU 대학 설립의 실무를 전담하기 위해 총장으로 초대했던 오규훈 박사를 부총장으로 위촉하였다.

3. 우간다 UWMF(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 대학교(신학대학·대학원)

현재 우간다 UWMF 신학대학·대학원 과정에 150여 명의 신학생이 재학 중인데, 아프리카 신학교육 협의회(ACTEA)로부터 학위 인증을 받아 Diploma, B.A., M.Div.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UWMF는 신학교육뿐 아니라 정기적인 목회자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강사진이 초청되어 아프리카 교회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다.

2023년 10월 13일 완공한 목회자 세미나 하우스는 80-100명의 목회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게스트룸과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정기적인 목회자 훈련이 계속될 예정이다.

UWMF는 교육부 학력 인가를 받아 종합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간다 교육부 고등교육국(NCHE)의 인가를 진행 중이다. 대학교 개교를 위해 2020년 7월 고등교육국(NCHE)에 Provisional License(신학과, IT학과, 행정학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2년 7월에 NCHE 카운실 멤버들의 현장 방문이 있었고, 현재 권고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하나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의 중심 국가로 케냐, 수단,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우간다 UWMF는 김평육 대표 선교사가 총장직을 겸하고 있다. 2025년 우간다 교육부로부터 일반대학 인가를 받아 IT학과, 행정학과, 신학과의 학사학위와 한국어디플로마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4. 탄자니아 SCAT(Sengerema College of Agriculture & Technology) 칼리지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9년 탄자니아 무완자 주(Mwanza Region) 생게레마 군(Sengerema District)과 MOU를 체결하고, 군내에 농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야구 면(Buyagu Wadi)에 18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무슬림 여성 군수의 방해로 2015년까지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2017년 신임 군수가 부임한 다음 날 부야구와 이솔래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대학교 설립에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대학교 설립의 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한 가정의 후원으로 제2채플, 농군학교 및 대학교 본관 건물의 건축을 마치고 2022년 후원자 가정이 참가한 가운데 헌당식을 가졌다.

생게레마 부야구 면 내에는 3개의 초등학교(3,700명)와 1개의 중학교(500명)가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또는 칼리지로 진학할 수 있는 과정이 막힌 상태다.

2025년에는 칼리지가 시작되고 이어서 대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선 우간다의 UWMF 또는 르완다의 ATU가 인가되면 2025년부터 대학교 분교로 대학 사역을 시작하고, 이어 탄자니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아프리카에 한국의 쌀 농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18만 평의 부지가 마련되어 한국의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농업기술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5. 콩고 우비라 카통고(Katongo) 센터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콩고(옛 이름 자이레)는 내전으로 황폐한 국가가 되었다. 1965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모부투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콩고는 세계 최빈국이 된 것이다. 1996년 콩고의 우비라(Uvira) 지역을 거점으로 내전이 발발하여 4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폐허로 남아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2년부터 북키부 주(North Kivu)의 고마(Goma)와 남키부 주(South Kivu)의 부카부(Bukavu)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왔다. 2001 르완다 전국 복음화 대회를 마친 다음, 르완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부카부와 고마 지역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2002년부터 고마와 부카부로 사역을 확장하였다. 고마 지역에는 한국어 학교, 양재학교 등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2009년에 콩고 우비라 지역에 산업대학교를 세운다는 목표로 10헥타르(3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였다.

콩고 우비라는 부룬디(Burundi)의 수도 부줌부라(Bujumbura)에서 차량으로 두 시간 거리에 있어 부줌부라 국제공항 이용에도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2012년 우비라 카통고에 마련된 부지에 대학교 건축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남키부 주, 북키부 주의 부카부, 우비라, 고마, 베니 지역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다.

2015년 콩고의 현지인 사역팀을 재정비하고, 우비라 카통고 부지에 예배당과 초등학교, 중학교, 신학교, 고아원과 클리닉 센터를 건축하였다.

6. 르완다 야마세케(Nyamaseke) 센터

야마세케 선교센터는 2000년에 사역이 시작되었고, 2006년에 부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호숫가 200미터 내에 있어 신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연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08년 건축 허가를 받아 예배당을 건축하고, 2009년에 입당하였으며, 2012년에 유치원 교실 5개와 화장실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2016년에 박숙경 선교사가 찬구구 센터에 부임하여 유치원을 개원하고,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여 매주 1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박숙경 선교사는 그동안 선교센터의 담장 공사와 초등학교 건축을 추진하여 6개의 교실과 사무실을 건축하고, 2020년 1월 초등학교를 개교하였다(2020년 9월 교육부의 인가를 최종 취득하였다).

야마세케 선교센터는 2015년부터 KBBA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9년 르완다 전체 신학교 폐쇄 조치로 휴교 상태이지만 키갈리 센터의 ATU 대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취득하는 대로 분교로 개교하여 대학교로 변모할 예정이다.

야마세케 선교센터는 콩고의 부카부와 우비라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어서 콩고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야마세케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가축 나누기와 의료보험 대납 사역 등으로 주민들을 보살피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야마세케 센터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주변 부지 마련과 중·고등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7. 르완다 카욘자(Kayonza) 1센터

1997년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귀환하여 키갈리 기콘도 신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 2006년 키붕고에 교회를 개척하고 김평육 선교사를 초대하였다.

수요예배 설교를 부탁받아 설교를 마친 후 동역하는 담임목사가 "출석하는 여성도들 중에 20여 명의 여성도들이 성매매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해 예배 후에 여성들과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 여성들은 기술을 배우기 원한다며 봉제학교 설립을 요청하였다. 그렇게 르완다에서 전쟁 미망인들을 위한 양재학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는데, 대표 여성이 통곡을 하며 감사문을 읽어 내려갔다. 여성들의 기술교육에 대한 필요가 절실함을 알고 West Region의 수도인 카욘자에 500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교실 2개와 사무실 1개의 건물을 건축하고 카욘자 주변 농촌지역 여성들을 돕고 있다.

카욘자 양재학교는 1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형편이 되는 대로 수료생들에게 재봉틀을 마련해 주어 생활 자립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르완다 카욘자는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키갈리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 국가 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센터 부지를 마련하였다.

2017년 5백 평의 부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수료생들을 위한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8. 르완다 카욘자(Kayonza) 2센터

르완다 키갈리 센터에 국제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2016년 파송되어 키갈리 센터에서 유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최영애 선교사가 2020년 4월에 카욘자 센터로 이전하였다.

카욘자 1센터에 유치원을 신축할 예정이었지만 주변이 주택단지로 부지 확장이 어려운 상태여서 제1센터는 기술학교를 계속하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설립을 목표로 제2센터 부지를 마련하였다. 주택을 임대하여 2020년 6월부터 임시 유치원을 시작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며 학교 건축을 준비하였다.

2021년 12월 센터의 건축 허가를 받아 2022년 1월부터 예배당과 유치원 건축이 시작되었다. 2023년 2월 9일 예배당의 헌당식을 가졌고, 7월에 유치원을 새 건물로 이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세계 극빈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목표로 설립된 글로벌에듀의 협력으로 2023년 10월 3일 초등학교 2층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어 2024년 10월에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초등학교 완공과 함께 중학교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어 2025년 말에는 카욘자 센터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거듭날 전망이다.

2016년 7월 르완다에 입국하여 키갈리와 카욘자 센교센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교회 사역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한 최영애 선교사는 2023년 9월 신병 치료차 귀국하여 요양 중 2024년 8월 사임하였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카욘자 2센터 초등학교를 선교사의 공력을 치하하여 〈최영애 센터〉로 명칭을 정하였다.

9. 탄자니아 부코바(Bukoba) 센터

탄자니아 부코바는 카게라 주(Kagera Region)의 수도이며, 빅토리아 호수에 접한 항구도시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6년 1.5헥타르(4,500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2007년 예배당 건축에 이어, 2008년에 선교센터를 건축하였다. 선교회의 미래 선교사 양성을 위해 선교 전략캠프가 2012년까지 부코바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매년 대규모 단기선교단이 부코바 센터를 방문하여 카게라 지역의 복음화 대회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재학교를 운영하며 교회와 사회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2013년에는 KBBA 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을 개교했다.

2016년에 카게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가옥이 무너졌는데, 부코바 센터의 유치원 건물도 크게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2017년 8월 정해진, 정현 선교사가 파송되어 유치원과 양재학교를 운영하며 교회사역을 강화하며 주변의 초등학교를 지원하였다. 정현 선교사는 탄자니아 KBBA 사역을 총괄하며 5개 지역의 목회자 교육에 집중하였다. 2022년 7월 15일 보육원 건물이 완공되어 현재 18명의 고아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2023년 정해진, 정현 선교사는 새링게티 무구무 센터로 이임하고 최성욱, 정미경 선교사가 부임하였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AMTIC 선교사 훈련과정을 수료한 최성욱 선교사는 부코바 센터의 청소년 성경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교회사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10. 탄자니아 세렝게티(Serengeti) 무구무(Mugumu) 센터

세렝게티는 사파리로 유명한 지역이다. 광활한 공원과는 별개로 세렝게티의 행정관청은 무구무 타운에 있다. 세링게티 무구무 중학교는 24년간 세렝게티 시장을 역임하며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현지 NGO단체 트러스티로 동역했던 존 차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다. 그러나 설립자인 존 차차 시장이 오래전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세렝게티 자연 동물원의 관광 수입으로 학비를 공급했던 학부모들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300명 정도의 재학생을 두었던 누루 중학교가 40명으로 줄었다.

차차 시장의 미망인과 이사진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무구무 누루 중학교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앞으로 20년간 누루 중학교를 운영하며 청소년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부코바에서 사역하던 정해진·정현 선교사를 누루 중학교로 파송하였다.

정해진·정현 선교사가 부임하면서 우선 미션학교로 전환하여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2023년에는 기숙사를 비롯한 교실과 실험실, 도서실 등 방치된 시설을 보수하고, 시급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사 외에는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성경, 찬송을 함께 지원했다.

현재는 학교 채플을 건축 중이다. 2024년에는 ICT고등학교의 건축을 마치고 2025년 고등학교를 개교한다.

11. 탄자니아 무완자(Mwanza) 센터

무완자 주(Mwanza Region)의 주도인 무완자 시(Mwanza City)는 빅토리아 호수에 접한 탄자니아 제2의 도시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2년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무완자에 선교부를 두게 되었다.

탄자니아 난민촌 신학교에서 르완다로 귀환하여 사역을 돕던 아포로네리 목사를 2002년 무완자에 파송하여 8년간 사역하였다. 이어 엄명주 선교사가 파송되어 병원선 건조를 위하여 빅토리아 호수의 섬마을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무완자 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한 양재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05년 7월 무완자 거리 소년들을 위한 음악 치유사역 대회를 열었고, 9월에 42명의 거리 소년들을 위한 '거리 소년의 집'을 열었다.

병원선 건조가 늦어짐에 따라 2005년 엄명주 선교사는 귀국하고, 2010년 아포로네리 목사는 르완다로 귀환하였다. '거리 소년의 집' 사역은 현지인에게 인계하고, 선교회는 무완자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병원선 건조 경비를 마련하게 되어 다시 무완자에 선교센터를 열고 병원선 1호선을 건조하였다.

무완자 선교센터는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탄자니아 선교본부로 병원선 관리뿐 아니라 단기선교단과 의료봉사단의 활동을 위해 현장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랑의 가축 나누기, 극빈자 구제 사역 등의 사회 봉사활동과 함께 전도활동과 이솔래 센터, 세렝게티 센터, 부코바 센터의 사역을 관리한다.

12. 우간다 난지가(Nanziga) 센터

2014년 서울 청명교회 단기선교단 18명이 난지가 마을을 대상으로 7월 14일에서 7월 19일까지 의료, 노방전도와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였다. 선교사역의 마지막 날은 55마리의 사랑의 염소 나누기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청명교회 단기팀이 귀국한 첫 주일에 50여 명의 결신자들이 나무 그늘에 모여 예배를 시작한 것이 난지가 교회의 시작이다. 만지 다니 목사가 결신자들과 함께 목재를 구입하고, 양철지붕으로 비를 가리고, 비닐로 벽을 막은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1년 이상 예배를 드리던 천막교회가 비바람에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한인 성도의 사랑의 손길로 부지를 마련하고 청명교회가 지원하여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2016년 7월 21일 예배당을 준공하였다.

만지 목사는 산지센터 교회에서 성장한 전도사들을 파견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마케레레 대학교를 졸업한 에드워드가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한국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다. 현재는 한국에서 예수대학을 졸업하고 우간다 UWMF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넷 목사를 담임으로 파견하였다.

장기적으로 고등학교와 칼리지 설립을 목적으로 주변의 부지를 조금씩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우선 교육관을 건축할 예정이다.

난지가 선교센터는 한국교회의 단기선교 활동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앞으로도 단기선교단 활동을 통한 교회 개척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13. 우간다 산지(Nsangi) 보육원

우간다 산지 센터 보육원은 2004년에 20명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4-5세의 어린이들이었다. 2017년 첫 고등학교 졸업생인 Bukulu Kenneth는 한국의 대구대학교로 유학하여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경찰 행정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Edward Ssekyanzi는 마케레레 대학을 졸업하고,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르완다 키갈리에 세운 선교사 훈련과정 AMTIC를 마쳤다. 우간다 난지가 센터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2022년 한국의 TTGU(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유학하여 2025년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난지가 센터 사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과 같이 성장한 어린이들이 모두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가정을 갖고 각자의 교회를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센터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UWMF에 입학하여 신학교육을 받으며 선교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다. 4-5살 때부터 센터에서 성장하여 매주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던 어린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센터의 튼튼한 기둥이 되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계속센터에 머물며 UWMF 대학에 진학한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5명의 원생이 UWMF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2024년 프랭크는 목사로 안수받았다.

14. 콩고 부카부(Bukavu) 보육원

2021년 사우스 키부 주지사로부터 산골 마을에 방치된 60명의 고아들을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지 콩고 디렉터 제시카 화투마가 현지를 방문했다. 60명 중 9명의 어린이는 반군들에 의해 부모를 잃고 이웃의 힘 없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선 60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복과 학용품 등을 제공하고 함께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였다. 부카부 시에서 40km 거리에 위치한 카부무(Kvumu) 마을에 40명의 어린이가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임대하여 콩고 부카부 지역의 고아 사역이 시작되었다.

부카부 보육원에서는 9명의 현지인 직원이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1명의 디렉터와 간호원, 영어교사, 영양사, 주방, 보모와 경비 등 9명의 직원이 사역한다. 부카부 어린이 센터에는 별도의 학교를 개설하지 않고 초등학생 34명과 세컨더리 스쿨 학생 6명이 주변의 사립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하교하면 가정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주일 학교는 영어로 진행하며, 영어 도서관이 있어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보육원 건축을 위해 부카부 시 근처의 카발레 부족으로부터 1만 2천 평의 부지를 제공받아 2023년 5월에 건축을 위한 표지판을 세우고, 11월부터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되었다. 콩고의 어려운 상황으로 다소 지체되었지만 2024년 12월 건축을 마치고 40명의 어린이들이 입주한다. 앞으로 보육원과 학교 건축이 계속될 예정이다.

15. 콩고 우비라 카통고(Katongo) 보육원

콩고 내전의 발상지였던 우비라 인근은 반군 전쟁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다. 수많은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살아가는 땅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9년 우비라에서 1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카통고 마을, 탕가니카 호숫가에 백사장을 품고 있는 3만 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2015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클리닉센터, UWMF / KBBA 신학교를 운영 중이다.

콩고 내전으로 많은 고아들이 살아가는 산간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을 건축하고, 2019년부터 40명의 고아 돌봄 사역을 시작하였다. 카통고 보육원에서는 현재 6명의 현지인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카통고 센터의 어린이들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세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업하고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앞으로 콩고에서의 보육원 사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 세기의 식민지 역사와 독립 후 계속된 내전으로 주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태어나면서부터 총성을 피해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콩고인들의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고아들을 아동 시절부터 사회로부터 떨어진 선교센터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콩고를 변화시킬 리더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콩고에서의 보육원 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6. 콩고 고마(Goma) 보육원

2024년 7월에 콩고 고마에 새로운 보육원이 개원되었다. 5월에 콩고 동부지의 M23반군이 고마 지역을 공격하여 수많은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월드미션 프론티어 현지 스텝진들의 보고 받고 고아원 설립을 결정하고 답사팀이 난민촌을 방문하였다.

6월에 고마 난민촌을 방문하고 〈글로벌에듀〉와 개인 후원자들의 사랑의 손길로 25명의 난민촌 고아 어린이를 입양(7월 27일)하였다. 23명의 어린이는 학교에 가야 할 연령이어서 주변 초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난민촌에서 25명의 어린이들을 입양한 지 한 달 후에 난민촌에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200명의 장례를 한번에 치르기도 했다. 한인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로 2024년도에도 25명의 어린 생명을 구한 것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2003년부터 콩고의 고마에서 활발한 사역을 전개했었다. 2003년 여성치유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대규모 단기선교단의 활동이 있었다. 여성들을 위한 양재학교와 청소년들의 한국 유학을 위한 한국어 학교가 열려 많은 학생을 한국에 유학보내기도 했었다. 자연보호를 명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그미 난민촌 사역도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2011년에 사역이 중단되었다. 2024년 고마 고아원 사역을 시작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사역이 재개되었다.

17.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사역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 호수(68,800평방킬로미터)로 한국 국토의 3분의 2크기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3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빅토리아 호수는 1천 개의 섬을 품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는 심히 오염되어 섬 사람들뿐 아니라 호수 주변의 주민들이 오염된 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에 병원선 건조 기금이 마련되고,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8월 15일 이후 첫 출항을 할 때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선박 건조시설이 열악한 것 외에도,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정 지연, 공사업자의 만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96년 부코바 근처의 어느 작은 섬을 방문하여 섬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고 병원선 비전이 생긴 후 20년 만에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이 완공된 것이다.

병원선을 건조하고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용기, 권영옥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지인 사역팀과 함께 사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사역을 전담하기 위해 배창황 원장(호평아산내과)을 중심으로 2022년 '더 웨이브'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단기 의료 봉사단을 파견하며 현지인 사역팀의 의료사역을 돕기 시작하였다.

1호선에 이어 2호선을 건조하고 있으며, 1호선은 진료와 간단한 수술 전문 병원으로 운영되고, 2호선은 수술 전문 병원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8. KBBA 목회자 평생교육원(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KBBA(Kingdom Builders Bible Academy)는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농촌지역 목회자들의 신학교육을 돕기 위해 2012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처음 시작 단계에는 Certificate, Diploma, Bachelor 과정으로 교육하였다.

우간다에서는 산지 본부 센터를 중심으로 음발레에 분교를 두고 운영되었다.

탄자니아에서는 부코바 센터, 무완자 센터 외에도 현지 교회의 강의실을 이용하여 게이타, 키고마, 세렝게티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는 르완다의 키갈리 센터와 카욘자 센터, 야마세케 센터에서 진행되었고, 콩고의 우비라와 부카부, 부룬디의 무줌부라에 분교를 두었다.

대학원 과정의 수업이 필요성이 있어 GOT(Graduate School of Theology)라는 이름으로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학업하였다.

2017년에 신학대학·대학원으로 인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Diploma, Bachelor, Master 과정은 UWMF(University of World Mission Frontiers)라는 학교명으로 ACTEA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2021년 3월 21일 학력 인정을 받았다.

KBBA 과정은 그대로 두고, UWMF와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KBBA는 데보라 목사가 행정처장으로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에 강의실을 두고 강사를 파견하여 농촌지역 목회자를 교육(매년 10주간)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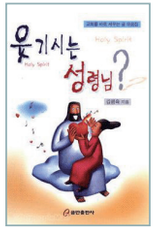
19. 선교 지원센터(미국, 한국)

미국과 한국의 지원센터에서는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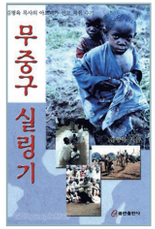
미국 지원센터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1572 Los Pa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리카 5개국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부터 발행되던 〈크리스찬 라이프〉 주간 기독교 신문은 2014년부터 중단하고, 선교사역만을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중단된 중보기도 모임은 줌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선교후원을 위한 집회는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에 르완다 ATU 대학 설립을 돕기 위한 물품 컨테이너를 수송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우간다 UWMF 대학교 부지 마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다. 미국 지원센터에서는 아프리카 5개국 280명의 현지인 직원들에 대한 월급 마련과 건축비 등 대부분의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부센터에서는 조지영 간사가 재정간사로 봉사하고 있다. 달라스 지부에서는 한국지부 설립을 주도했던 김미희 간사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지금까지 달라스 지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후원하고 있다.

한국 영종도(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141번길 5-12 (화평에어빌) 714호)에 위치한 한국 지원센터에서는 한국 유학생 관리와 선교사 지망생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지원센터에서는 봉미숙 간사와 김창숙 간사가 후원사역을 감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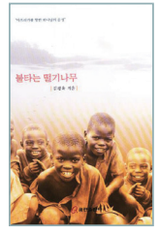
김평육 선교사 저서 안내



1. 웃기시는 성령님?



2. 무중구 실링기



3. 불타는 떨기나무

4. 너, 하나님의 사람아

5. 네 마음을 쏟아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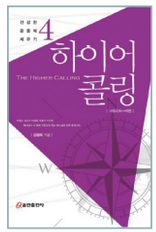
6. 내가 여기 있나이다

7.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8.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9. 팀 빌딩

10. 하늘 생각



11. 하이어 콜링

12. 가장 위대한 사명

아프리카 선교 30년

1판 1쇄 인쇄 _ 2024년 11월 20일
1판 1쇄 발행 _ 2024년 11월 30일

지은이 _ 김평육
펴낸이 _ 이형규
펴낸곳 _ 쿰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쿰란, 쿰란출판사
페이스북 _ www.facebook.com/qumranpeople
인스타그램 _ www.instagram.com/qrbooks
등록 _ 제1-670호(1988.2.27)
책임교열 _ 김유미

© 김평육 2024 ISBN 979-11-94464-07-5 93230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